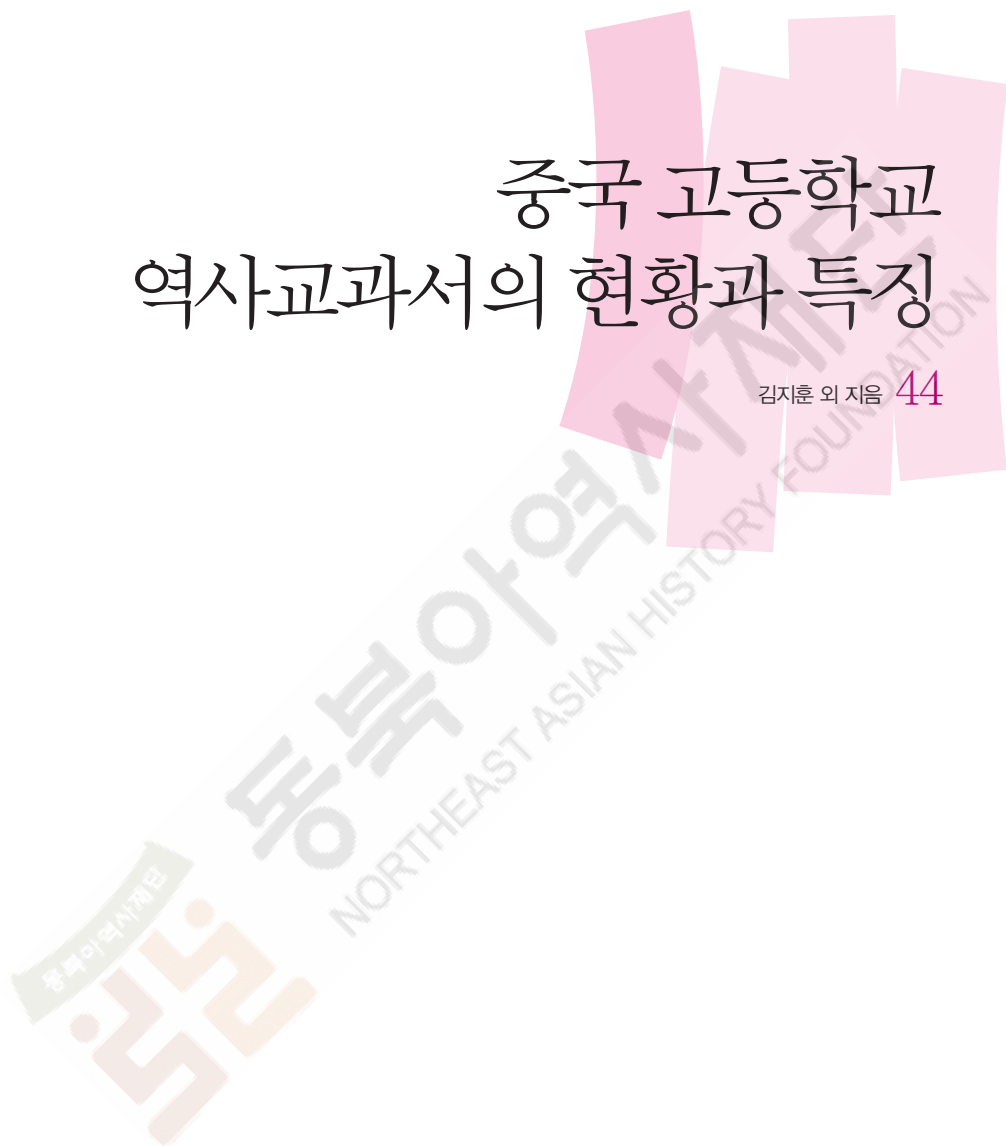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김지훈 외 지음 44



• 발간사

우리나라와 중국은 오랫동안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동북공정이 알려지면서 한·중 사이의 역사인식의 간극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역사인식의 차이를 좁히려면 중국인의 역사인식이 어떻게 중국의 교육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중국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현대 중국인의 역사인식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은 최근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중국사 서술에 내재되어 있는 논리를 파악하고, 중국의 정치적 입장의 변화가 역사교육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중국의 고등학교 역사교육은 중국사와 세계사를 각각 통사로 가르치던 종래의 체제를 바꾸어, 중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하고 정치사와 경제사, 문화사상사를 분리하였으며, 주제사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교육에서는 종래 역사유물주의를 강조하던 관점이 개혁개방 이후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전통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고등학교 교과서 체제의 개편은 성과도 있었지만 문제점도 제기되었기 때문에, 중국은 교과서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의 고등학교에서 중국사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4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내의 중국교과서 연구가 한국사 서술 부분에 치중되었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이 연구를 계기로 중국의 고등학교에서 중국사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한·중 간 역사인식의 공유를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어 궁극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 좋은 원고를 작성해준 다섯 분의 저자와,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고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출판이 동아시아의 상호 이해와 개방적이고 객관적인 역사인식을 고양시키는 데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2010년 12월 14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정재정

| 차례 |

책머리에 9

● 중국의 고등학교 「역사과정표준」 실험교과서 김지훈

I. 중국 교과과정의 변화	15
II. 중국 교과과정의 변화와 새 교과과정의 특징	18
III. 중국의 보통고등학교 과정방안의 내용과 특징	21
IV. 고등학교 「역사과정표준」의 내용	24

●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고대사 서술 분석 배진영
-선진·진한 시기를 중심으로

I. 머리말	41
II. '역사유물주의적 관점'의 후퇴와 실용주의 노선의 선택	46
III. '중원'에서 '중국'으로 - 중국 고대문명에 대한 이해	56
IV. '중국적 정통'의 강조	67
V. 맺음말	77

●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중세사 서술 분석 박영철

I. 머리말	85
II. 계급에서 민족으로	87
III. 위진남북조의 민족융합과 5호 문제	93
IV. 수당(隋唐) 통일적 다민족국가와 소수민족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권	111
V. 맺음말	123

6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보이는 10~15세기	김성규	
서술의 내용과 특징		
I. 머리말		131
II. 분석의 대상과 방법		133
III. 오대, 송, 요, 서하, 금, 원의 정치 및 사회와 상호 관계 - 첨부 : 명·청대		
대외관계 기술의 특징		140
1_ 송, 요, 서하, 금, 원 간의 대외관계와 민족융합에 대한 기술		140
2_ '민족영웅'에 대한 묘사		146
3_ 명·청대 대외관계 기술의 특징		148
4_ 그 밖의 정치적 기술의 특징		151
IV. 송, 요, 하, 금, 원의 경제발전과 대외 경제교류		153
1_ 송대의 경제적 변영		154
2_ 요, 하, 금, 원의 경제		157
3_ 대외 경제의 교류		158
V. 오대, 요, 송, 하, 금, 원 시기의 문화		160
1_ '중국 과학기술의 우수성'과 그 배경		160
2_ 3대 발명과 그것의 외국으로의 전파		162
VI. 맺음말		168

•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청대사 서술 분석	이은자	
I. 머리말		179
II. 「역사과정표준」의 청대사 서술 기본방향		181
III. 「역사과정표준」 실험교과서의 청대사 서술 내용		187
1_ '강용건 성세(康雍乾 盛世)'-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공고화		187
2_ 사회의 위기-자본주의 맹아의 발전과 '폐관쇄국(閉關鎖國)'		191
3_ 혁명과 현대화		195

IV. 맺음말	206
---------	-----

•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김지훈
인식

I. 머리말	213
II. 「역사교학대강」과 「역사과정표준」 교과서의 현대사 비교	215
III.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서술	222
IV. 맺음말	249

찾아보기	255
------	-----

• 책머리에

그동안 중국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로는 「역사교학대강」에 의거하여 편찬된 교과서가 사용되었다. 현재는 2003년에 제정된 「역사과정표준」에 의거하여 편찬된 실험교과서가 2004년부터 보급되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역사교학대강」에 의거한 고등학교 교과서는 『중국근대현대사』가 필수과목이고 『중국고대사』와 『세계근대현대사』를 선택과목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통사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고등학교 「역사과정표준」에 의거하여 편찬된 실험교과서는 종래의 「역사교학대강」 교과서가 통사 형태를 취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주제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중국사와 세계사를 『역사』로 통합하였으며 정치사, 경제사, 문화사로 나누어 가르치고 있다. 필수과목은 3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역사 I에서 정치사를 가르치고, 역사 II에서 경제사, 역사 III에서 문화사를 다루고 있다. 선택과목은 모두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2009년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역사교학대강」과 「역사과정표준」에 의거하여 편찬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중국사 부분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는 중국사를 시기별로 나누어 선진부터 진한시대는 배진영(전북대학교), 위진남북조수당은 박영철(군산대학교), 오대부터 송요금원까지는 김성규(전북대학교), 청대는 이은자(전북대학교), 근대와 고

등학교 실험교과서 부분은 김지훈(성균관대학교)이 참여했다.

배진영의 연구는 「역사교과학대강」에서 「역사과정표준」으로 바뀌면서 중국 역사교과서의 고대사 서술에서 역사유물주의적 관점이 약화되고 실용주의적 노선으로 전환되었고, 기존의 교과서가 강조하던 중원 중심주의적 관점이 약화되고 이를 대체하여 다중심발전론이 대두하면서 ‘중국’ 개념과 민족융합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중국의 교과서는 중국의 황제 지배체제와 유가사상 등 중국적 정통성과 중국 문화의 우수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56개 민족이 종존하는 다민족국가인 중국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박영철의 연구는 위진남북조 시기의 5호문제와 민족융합문제, 특히 북위 효문제 개혁의 평가 문제, 그리고 수당에 와서 특히 강조되기 시작하는 통일적 다민족국가와 소수민족 문제 및 최근에 새로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 동아문화권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박영철은 중국의 교과서가 남북조시대를 여러 민족이 융합하는 시대라고 서술하고 있지만, 북위 효문제의 개혁이 민족융합에 얼마나 공헌을 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현재 중국의 소수민족 개념을 과거 역사 속에 등장하는 5호와 등치시키는 것도 역사왜곡을 초래하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성규의 연구는 10~14세기에 한족(漢族)과 북방민족의 대립과 충돌이 자주 나타났는데, 현행 교과서들은 이 현상들이 결국 평화적으로 해소되어 상호가 하나로 융합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설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충신의 대명사로 묘사되던 ‘악비’나 ‘문천상’에 대한 묘사도 ‘다민족국가론’안에서는 사실 위주의 묘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김성규는 현행 교과서가 4대 발명을 비롯하여 중국 역사의 우수성, 선진성, 세계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면서 자국사를 세계사와의 관계 속에서 기술하

면서 그 우수성을 강조하고 또 일정한 위상을 확보하려는 중국사 서술 방식은 현대 중국이 취하고 있는 방향성과도 닮은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은자는 「역사교과대강」 교과서에서 ‘강웅건 성세(康雍乾 盛世)’가 중국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고 한족, 만주족, 몽고족, 회족, 장족 등 50여 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공고히 했던 시기라는 서술에 주목하여 현재 신강, 서장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 입장이 청대 전기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과정표준」 필수 교과서가 중국사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정치, 사회경제, 문화의 분류사적 방법으로 구성되었기에, 청대 전기의 강웅건 성세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발전에 대한 서술이 빠지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역사과정표준」 교과서는 청대사 서술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아직 ‘실험’ 중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지훈의 연구는 중국 현대사가 1949년 이후 현재까지의 역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세계 현대사는 1917년 러시아혁명을 기점으로 현재까지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사와 세계사에서 현대사의 시대구분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중국 근대사 속의 항일전쟁 서술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어떻게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이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는가를 중시하고 있지만 세계 현대사 속의 제2차 세계대전은 자본주의의 모순 속에서 이탈리아, 일본, 독일 등 파쇼 국가들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켰고 반파쇼 진영이 어떻게 승리하였는가를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은 중국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을 분석하여 중국 역사교육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그동안 한국 학계에서는 중국의 역사교과서의 한국 관련 서술에 관심을 가졌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의 중국사 서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편이었다.

중국은 「역사과정표준」에 의거하여 인민교육출판사와 악록서사, 인민출판사, 대상출판사(북경사범대학출판사) 등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역사과정표준」에 따라 편찬되었기 때문에 유사성을 보이고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악록서사의 교과서는 중국사와 외국사를 병렬시키고 근대 이후에는 중국사와 세계사를 함께 설명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역사학계에서는 종래의 혁명사관이 약화되고 문명사관과 포스트모더니즘, 아날학파 등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인식의 변화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역사교과서가 다양하게 출판되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종래의 혁명사관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교과체제의 개혁을 교육현장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교과서가 수정·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진전되어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중국 교과서의 세계사 서술과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연관성 등 다양한 후속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2010년 12월

필자들을 대표하여 김 지 훈

중국의 고등학교 역사과정표준 실험교과서

성균관대학교 김지훈

- I. 중국 교과과정의 변화
- II. 중국 교과과정의 변화와 새 교과과정의 특징
- III. 중국의 보통고등학교 과정방안의 내용과 특징
- IV. 고등학교 역사과정표준의 내용



중국의 고등학교 역사과정표준 실험교과서¹⁾

성균관대학교 김지훈

I. 중국 교과과정의 변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의 교과과정은 여덟 차례의 비교적 큰 변화를 겪었다.

제1차 교육과정은 1950년 8월 교육부에서 「중학잠행교학계획」(초안)을 반포하면서 시작되었다. 1952년 3월 18일 교육부는 다시 「소학잠행규정」(초안)을 공포하였다. 소학교의 학제를 5년으로 하고 어문, 산술, 체육, 미술과 음악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4~5학년에 자연과 역사, 지리 과목을 두었다. 이 과정은 소련의 과정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았으며 단일한 필수과목을 설치하여 전국에 통일적으로 시행하였다.

제2차 교과과정개혁은 1953년 3월 교육부에서 「중소학교학대강」(초안)을

- 1) 이 장은 현행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관한 개괄적 내용을 소개하기 위하여 김지훈(2007), 「중국의 신교육과정과 역사과정표준실험교과서」, 『동북아역사논총』 17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수록한 것임.

반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교학대강은 소련의 교학대강을 참조하여 소학산술, 중학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 5과목의 교학대강을 채용하였다. 1956년 새로운 교재가 편찬되어 사용되었고 12년의 학제가 수립되었다. 1953년부터 1958년까지 교육부는 거의 매년 새로운 교학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정치와 외국어 과정의 변화가 많았다.

제3차 교육과정은 1958년 9월 중공중앙과 국무원이 「교육공작에 관한 지시」를 반포하면서 실시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학제를 단축하고 교육과 노동의 결합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1959년 5월 「보통중소학과 사범학교 교재 편찬에 관한 의견」이 발표되어 다시 중소학 교재를 편찬하였다. 1960년 하반기부터 인민교육출판사는 학제 단축에 부응하여 10년제 중소학 교재를 편찬하였다.

제4차 교과과정은 1963년 7월 교육부에서 「전일제 중소학 교학계획」(초안)을 반포하면서 시작되었다. 새로운 교과과정은 문화과, 정치과, 생산지식과에 교육과 생산노동을 배치했다. 그러나 1964년 초 모택동(毛澤東)은 학제를 단축하고 교과과정을 줄이도록 하였고 이어서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었다. 이 때문에 이 교과과정은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못했다.²⁾

제5차 과정개혁은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이 종결된 후인 1978년 1월에 교육부에서 학제와 수업시간, 각 학년의 정치과정과 문화과, 공업학습, 농업학습, 군대학습 등의 시간을 규정한 「전일제 10년제 중소학 교학계획 시행초안」을 반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초안은 소학 5년, 중학 5년의 10년제를 실시했고 외국의 교과과정 개혁을 참고하여 교육내용을 현대화시켰다. 1981년 교육부는 「전일제 5년제 중학 교학계획 시행초안의 수정의견」과 「전일제 6년

2) 鐘啓泉·崔允灝(2004), 『新課程의 理念與創新』,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2~24쪽.

제 중점중학교학계획」을 반포하였다.

제6차 과정개혁은 1985년 중공중앙이 교육체제의 개혁에 관한 결정을 반포하면서 시작되었다. 1988년 9월 교육부는 「의무교육전일제 소학, 초급중학교학계획」(시행초안)과 24개 학과의 교학대강을 반포하였다. 1990년 3월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시 「현행 보통고중 교학계획의 조정의견」을 반포하였다. 이 조정계획으로 교육내용이 감소하고 선택과목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보통고중(고등학교)의 교학계획이 처음 단독으로 제정되었다.

제7차 교과과정은 1992년 8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이 시행되고 「9년의무교육전일제 소학, 초급중학교과정방안」(시행)이 반포되면서 시작되었다. 1996년 교육부는 「전일제 보통고중과정계획」(시행)을 반포하였고 2000년 다시 「전일제 보통고중과정계획」(시험수정고)이 반포되었다. 그 이후 교학계획이 과정계획으로 바뀌었다.³⁾

제8차 과정개혁은 2001년 교육부에서 「기초교육과정개혁강요」(시행)가 반포되면서 시작되었는데, 2001년 11월 「의무교육과정설치실험방안」과 2003년 「보통고중과정방안」(실험방안)⁴⁾이 반포되어 전국 각지에서 과정개혁이 실시되었다.⁵⁾

- 3) 중국의 교과과정 변화와 역사교육에 관해서는 김유리(2001), 「中國 教育課程의 變遷과 歷史教育」, 『近代中國研究』 2집 참조.
- 4)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2003), 『普通高中課程方案(實驗)』,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 5) 馮生堯(2004), 『課程改革—世界與中國』, 廣州: 廣東教育出版社, 1~2쪽.

II. 중국 교과과정의 변화와 새 교과과정의 특징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과과정을 수립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중국의 교육 외적인 환경을 살펴보면,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지식경제로 진입하였으며, WTO에 가입하는 등의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기초교육 분야의 학과는 상급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학생들의 발전과 개성을 배양하는 데 적합하지 못했다. 특히 과정목표가 지식 측면에만 치중되어 학생들의 창조정신과 실천능력을 배양하는 데 부적합하였다. 또한 과정이 학과 단위로 되어 있어 종합적 능력을 배양하는 데 문제가 있었고, 내용이 진부하여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⁶⁾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입시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영재교육에서 국민 전체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지식 전달에 치우치지 않은, 사회주의 근대화 건설에 이바지하는 교육으로 전환하였다.⁷⁾

1996년 7월 중국 교육부의 기초교육사(基礎教育司)는 6개 대학 등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1993년에 시작된 9년 의무교육과정 실시상황에 대해 조사와 연구를 하게 하였다. 1997년 9월 이후 교육부의 기초교육사는 관련 전문가를 동원하여 새로운 과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국내외의 기초교육의 변화에 대한 비교연구를 하였고 새로운 기

6) 靳玉樂(2003), 『新課程改革的理念與創新』, 北京:人民教育出版社, 3~16쪽.

7) 諸外國の教科書に關する調査研究委員會(2003), 『中國の教育課程改革と新しい教科書—歷史教科書を中心に(中間報告)』, 7쪽.

초교육과정의 방향을 연구하여 1998년 말 신과정에 대한 기본골격과 정책이 만들어졌다. 1999년 1월 교육부 기초교육사는 사범대학, 교과과정, 교육학, 심리학, 학교 교장 등 40여 명의 교육전문가들로 '기초교육과정개혁 전문가 공작조'를 만들었다. 이들은 2년 반의 연구를 거쳐 「기초교육과정개혁강요(시행)」를 기초하여 2001년에 정식으로 반포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9월 18개 학과의 과정표준과 49권의 실험교과서가 심사를 통과하여 전국의 38개 실험구에서 실험을 시작하였다. 2002년에는 전국의 매 지구(地區)와 시(市)에서 적어도 1개의 실험구(500개)가 설치되었고,⁸⁾ 2003년 과정표준과 교과서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다. 중국의 중학교 실험교과서는 원래 계획으로는 2005년 정식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사용 시기가 늦춰져서 2007년 가을학기(중국의 1학기)부터 기존 교과서를 완전히 대체하여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3년에 「역사과정표준」⁹⁾이 발표되었고 2004년 가을학기(중국의 1학기)부터 해남도(海南島), 광둥(廣東), 영하(寧夏), 산둥(山東) 등 4개 성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 실험이 시작되었다.¹⁰⁾ 현재 중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등학교 실험교과서가 사용되고 있다.

2001년의 『기초교육과정개혁강요(시행)』에 따르면 8차 교육과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애국주의, 집체주의(集體主義) 정신을 갖추고, 사회주의를 사랑하며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발양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 민주법제 의식을 갖추고 국가의 법률과 사회의 공공도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정확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갖추

8) 教育部基礎教育司(2002), 『全日制義務教育歷史課程標準解讀』,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쪽.
 9)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2003), 앞의 책.
 10) 馮生堯(2004), 앞의 책, 2~4쪽.

는 것이다. 넷째,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다섯째, 창조정신, 실천능력, 과학과 인문소양 및 환경의식을 갖추는 것 등이다.¹¹⁾

8차 교과과정은 학생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태도를 가지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기존의 교과과정이 학과 과목을 강조하여 종합적인 능력을 기르는 데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성격의 과목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실정과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는 균형성, 종합성, 선택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교과과정의 어렵고 과다하며, 편중되고 낡은 내용을 학생의 생활과 현대사회,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학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하였다. 이 교과과정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탐구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초급중학(중학교)과정은 분과(分科)과정과 종합과정이 결합한 과정이다. 특히 새로운 교과과정은 몇 개의 과목이 종합된 종합과정을 선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중학교 교과과정에는 사상품덕, 어문, 수학, 외국어, 과학(또는 물리, 화학, 생물), 역사와 사회(또는 역사, 지리), 체육, 예술(또는 음악, 미술) 등이 있다. 초급중학과정은 의무교육의 과정이므로 절대다수의 학생들이 도달할 수 있는 공민(公民) 소질교육을 체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고급중학(고등학교)과정은 분과과정 위주로 편성되었다. 고급중학은 필수과목을 개설하고 풍부하며 다양한 선택과목(選修科目)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¹²⁾

11) 『基礎教育課程改革綱要(試行)』(2001. 6).

12) 『基礎教育課程改革綱要(試行)』(2001. 6).

고급중학과정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요구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전제로 차별성과 선택성을 갖춘 선택과정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생존력, 실천력과 창조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 교과과정은 학생들이 실천을 통하여 탐구와 창조성을 높이고 과학연구의 방법을 학습하며, 지식을 종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려 하였다.

III. 중국의 보통고등학교 과정방안의 내용과 특징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에서 제정한 「보통고중과정방안(普通高中課程方案)」(實驗)에 따르면, 중국의 고등학교 교육의 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정당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형성하여 사회주의 조국과 중국 공산당을 사랑하고, 국가의 존엄과 이익을 수호하며,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하고 민족정신을 발양하여 민족진흥과 사회진보를 지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민주와 법제에 대한 의식을 갖추어 국가법률과 사회공공도덕을 준수하고 사회정의를 수호하며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자각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과학과 인문소양, 환경의식, 창조정신과 실천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¹³⁾

고등학교 과정의 학습영역은 언어와 문학, 수학, 인문과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체육과 건강, 종합실천활동의 8개 학습영역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른 과목은 언어, 수학, 외국어(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사상정치, 역사, 지리, 물리,

13) 『普通高中課程方案(實驗)』, 1쪽.

화학, 생물, 예술(음악, 미술), 체육과 건강, 기술 등 12~13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기술과 예술은 새로 증설된 과목이다. 예술과 음악, 미술 과목은 학교에서 선택하여 설치하고 조건이 되는 학교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외국어 과목을 개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표 1〉 중국 신규 고등학교 교과목 비교¹⁴⁾

유형	과목	1996	2000	2003	비고	
국가 규정 필수 과목	어문	8	12	10	어문과 영어과목은 2000년에 12시간으로 증가했다가 2003년 10시간으로 감소했고 수학은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증가함.	
	영어	7	12	10		
	수학	8	8	10		
	사상정치	6	6	8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사상정치·역사·지리과목은 모두 시간이 증가하여 사회과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역사	3	4.5	6		
	지리	3	4	6		
	물리	4.5	4.5	6	물리·화학·생물과목은 2000년에 비하여 2003년에 모두 증가하여 이과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화학	4	4	6		
	생물	3	3	6		
	체육(체육과 건강)	6	6	6	변화 없음.	
	예술	2	3	6	예술교육 강화로 예술과목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기술	정보기술	無	2	4	정보기술은 2003년 4시간 필수과목이 되어 정보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노동기술(통용기술)	4 또는 2주	3주	4	
	종합 실천 활동	과학기술예체반회(연구성 학습)	9	9	15	과학기술예체활동 등이 연구성 학습으로 2003년부터 개설됨. 사회실천은 6주에서 6시간으로 감소. 2000년 이 세 과목을 종합실천활동으로 부르고 있음.
사회실천		6주	6주	6		
지역봉사(사구봉사)		無	교외	2		

14) 馮生堯(2004), 앞의 책, 14~15쪽.

22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영역	과목	1996	2000	2003	비고
선택과정	백분율	69.2	71.7	61.4	2003년 필수과목은 116학점으로 61.4%를 점함.
	백분율	30.8	28.3	38.1	2003년 선택과목은 38.1%로 역사상 최고 수준임.
	선택 1 (국가급)	13.5 ~21	9.3 ~17.2	29.1	2003년 선택과정이 크게 강화됨.
	선택 2 (지방과 학교급)	9.5 ~17	11 ~19	9.5	2003년 지방과정과 학교과정은 시간이 감소함.

고등학교 과정은 3년이며 과정은 필수와 선택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교 과정은 한 학년 52주 가운데 40주 동안 수업을 하고 사회실천을 1주, 나머지 11주가 방학이다. 한 학기 20주는 두 개의 시기로 나뉘어 한 시기 10주 가운데 9주 동안 수업을 하고 1주는 복습시험을 본다. 한 과목은 매주 4시간씩 한 학기에 36시간을 수업하여 시험을 통과하면 2학점을 받는다. 단 체육과 건강, 예술, 음악, 미술은 18시간을 수업하며 1학점을 받는다. 필수 학점은 11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필수과목은 언어와 문학 영역에서 어문 10학점, 외국어 10학점이고 수학은 10학점이다. 인문과 사회 영역의 사상정치 8학점, 역사가 6학점이고 지리도 6학점이다. 과학은 물리 6학점, 화학 6학점, 생물 6학점이다. 기술은 8학점이고 예술 영역의 음악이나 미술과목은 6학점이다. 체육과 건강이 11학점이다. 이 외에 종합실천활동으로 연구성 학습활동이 3년 동안 15학점이고, 지역봉사(社區服務) 활동 2학점, 사회실천이 6학점으로 모두 116학점이다. 총점은 3년 동안 144학점이 되어야 졸업할 수 있다.¹⁵⁾

15) 『普通高中課程方案(實驗)』, 2~5쪽.

IV. 고등학교 역사과정표준의 내용

중국의 교육부가 제정한 「보통고중역사과정표준(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實驗)」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역사과정은 역사유물주의의 관점에서 인류역사의 발전 과정과 법칙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역사의식과 문화소양, 인문소양을 배양하고 제고하는 기초과정이라고 한다.¹⁶⁾

고등학교 역사과정에서는 인류사회 발전의 기본적 맥락을 이해하고 역사의 경험과 교훈을 총결하며 우수한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민족정신을 발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적 역사관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며, 역사적 각도에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해하고 사고하여 중화민족과 전 인류의 역사적 운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등학교 역사의 필수과목은 『역사(Ⅰ)』, 『역사(Ⅱ)』, 『역사(Ⅲ)』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25개의 중국사와 세계사 관계의 정치, 경제, 사상문화, 과학기술 등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다. 특히 중국과 세계의 내재적 연계를 중시한다.

〈표 2〉 고등학교 실험역사교과서 필수과정 내용표준¹⁷⁾

정치	역사 II : 사회경제와 사회생활	역사 III : 사상문화와 과학기술
1. 고대 중국의 정치제도	1. 고대 중국 경제의 기본구조와 특징	1. 중국 전통문화 주류사상의 변화
2. 열강의 침략과 중국 인민의 반항투쟁	2. 근대 중국 경제구조의 변동과 자본주의의 굴곡적인 발전	2. 고대 중국의 과학기술과 문화

16) 『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實驗)』, 1쪽.

17) 『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實驗)』, 6~16쪽.

정치	역사 II : 사회경제와 사회생활	역사 III : 사상문화와 과학기술
3. 근대 중국의 민주혁명	3.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의 길	3. 근대 중국의 사상해방 조류
4. 현대 중국의 정치건설과 조국 통일	4. 중국 근현대 사회생활의 변천	4. 20세기 이래 중국 중대사상이론의 성과
5. 현대 중국의 대외관계	5. 신항로의 개척, 식민확장과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형성과 발전	5. 현대 중국의 과학기술과 문화
6. 고대 그리스·로마의 정치제도	6. 식민지 확장과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형성과 발전	6. 서방 인문정신의 기원과 그 발전
7. 미부르주아계급 대의제의 확립과 발전	7. 루스벨트의 뉴딜정책과 자본주의 메커니즘의 조절	7. 근대 이래 세계 과학기술의 역사적 족적
8.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에서 사회주의 제도의 건립까지	8. 현재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추세	8. 19세기 이래의 세계 문화예술
8. 현재 세계 정치체제의 다극화 추세		

필수과정인 『역사(I)』에서는 고대 중국의 정치제도, 열강의 침략과 중국 인민의 반항투쟁, 근대 중국의 민주혁명 등 9개의 정치사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다. 중국사와 서구를 중심으로 한 세계사를 통합하여 다루고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현재 중국의 고등학교 실험역사교과서는 인민교육출판사, 인민출판사, 악록서사, 대상출판사(현재는 북경사범대학출판사) 등의 4종이 출판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인민교육출판사의 『역사(I)』은 엄격하게 「역사과정표준」에 따라 편찬되었기 때문에 각 단원이 모두 일치한다. 중국사는 모두 5개 단원을 두고 있는데, 하상주(夏商周)의 정치제도, 진왕조의 중앙집권제도, 한대(漢代)부터 원대(元代)까지의 정치제도의 변화, 명청(明清)시대 군주전제의 강화, 아편전쟁, 태평천국, 8개국 연합군의 중국 침략, 신해혁명, 신민주주의혁명의 시작, 항일전쟁, 신민주주의혁명의 승리, 신중국의 정치건설, 개혁개방 이래의 중국 외교 등을 다루고 있다.

세계사는 인류사회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 등을 중심으로 한 4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그리스의 민주정치, 로마법, 영국 입헌군주제, 미국의 연방정부, 유럽대륙의 부르주아 대의제, 마르크스주의의 탄생, 러시아 10월 혁명, 중국의 사회주의 제도, 양극세계의 형성, 세계의 다원화 추세 등을 다루고 있다. 중국사의 주요 내용을 세계사와 연관시켜 대비시키고 있어 학생들이 역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¹⁸⁾

매 단원에는 '학습소결'이 있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학습소결'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개념해석'에서는 종법제, 군현제, 내각, 군기처 같은 개념을 설명한다. 둘째 '귀납과 총결'에서는 간단하게 단원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셋째 '역사감오(歷史感悟)'의 '학사심득(學史心得)'에서는 학생들이 배운 것을 글로 표현하도록 하고 '학사존의(學史存疑)'에서는 학생들이 생각한 문제를 기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¹⁹⁾

인민출판사의 『역사(I)』은 「역사과정표준」에 나와 있는 주제와 내용 면에서 차이가 없지만 일부 제목을 다르게 달았다. 예를 들면 '2. 열강의 침략과 중국인민의 반항투쟁'은 '2. 근대 중국의 국가주권을 수호하는 투쟁'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인민출판사의 교과서는 개괄적인 지식을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현상을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교과서는 부록에서 중요 단어의 증영문 대조표를 추가하였고, 마지막에 역사학자들의 역사서를 소개하고 있다.²⁰⁾

18)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04),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歷史教科書 歷史 1 必修』, 北京:人民教育出版社, 2004. 5. 1版, 2004. 7 1刷.

19) 姬秉新(2005), 『理解與實踐高中歷史新課程—與 高中歷史教師的對話』, 北京:高等教育出版社, 86쪽.

20) 朱漢國(2004),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必修 1』, 北京:人民出版社, 2004. 8. 1판 1쇄.

26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약록서사의 『역사(I)』은 「역사과정표준」의 9개 주제를 고대 중국의 중앙 집권제도,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정치제도, 근대 서방자본주의 정체(政體)의 건립, 내우외환과 중화민족의 분기(奮起), 마르크스주의의 탄생발전과 중국 신민주주의혁명, 중국 사회주의 건설의 길, 복잡 다양한 당대 세계 등 7개 단원으로 통합했다.²¹⁾ 약록서사의 교과서는 「역사과정표준」의 배열과는 달리 중국사와 세계사를 앞뒤에 배열하여 1단원에서 중국 고대의 중앙집권제도를 배우고 2단원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정치제도를 배우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배열은 역사발전의 시간적 순서를 이해하는 데 편리하고 중국사와 세계사의 내용을 비교하고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 대상출판사의 『역사(I)』의 구성은 「역사과정표준」과 비교할 때 제목에서 수식어를 첨가한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 내용의 구성도 인민교육출판사의 교과서와 유사하다. 대상출판사의 교과서는 캐나다 국제교류센터의 그림 도판 등을 제공받아 편찬된 점이 특이하다.²²⁾ 대상출판사는 이전에 역사 교과서를 편찬해본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중국 내의 전문가를 편집자로 초빙하고 캐나다의 국제교류센터와 협력하여 교과서를 출판하였다. 판매가 부진했던 대상출판사는 최근 교과서 판권을 북경사범대학출판사로 넘겼다.

약록서사의 『역사(I)』은 ‘하상주단대공정’에서 설정한 연대에 따라 기원전 2070년경에 하왕조가 건립되고 기원전 1600년경에 상왕조가 건립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²³⁾ 인민교육출판사와 대상출판사의 『역사(I)』도 기원전

- 21) 曹大爲·趙世瑜(2005),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 必修 1 政治文明歷程』, 長沙: 岳麓書社, 2004. 8. 1판, 2005. 7. 2판.
- 22) 高中歷史教材編寫組·DC加拿大國際交流中心·大象出版社(2004),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 必修 1』, 鄭州: 大象出版社, 2004. 6. 1판.
- 23) 曹大爲·趙世瑜(2005), 앞의 책, 2쪽.



2070년경에 하왕조가 건립되었고 기원전 1046년에 주왕조가 건립되었다고 서술하였다.²⁴⁾ 단 인민출판사의 『역사(Ⅰ)』에서는 하상주왕조 부분에서 구체적인 연대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²⁵⁾ 4종의 고등학교의 역사실험교과서 가운데 3종이 ‘하상주단대공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대를 분명히 명시하였고, 1종만이 연대를 서술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것을 볼 때, 중국 교육부의 검정에서 ‘하상주단대공정’의 연대를 반드시 서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²⁶⁾

『역사(Ⅱ)』에서는 고대 중국 경제의 기본구조와 특징, 근대 중국 경제구조의 변동과 자본주의의 곡절 발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의 길 등 8개의 경제사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다. 『역사(Ⅲ)』에서는 중국 전통문화 주류사상의 변화, 고대 중국의 과학기술과 문화, 근대 중국의 사상해방 조류 등 8개의 사상문화, 과학기술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다.

고등학교 역사의 선택과목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역사적 시야를 확대하며 학생들의 개성을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역사 선택과목은 1. 역사상 중대 개혁 회고, 2. 근대사회의 민주사상과 실천, 3.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4. 중외(中外)역사인물 평설(平說), 5. 역사의 신비 탐색, 6. 세계 문화유산 모음 등 6종이다.

이 역사 선택과목 6권은 41개의 주제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24)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04), 앞의 책, 4~5쪽 ; 高中歷史教材編寫組·DC加拿大國際交流中心·大象出版社(2004), 앞의 책, 3쪽.
- 25) 朱漢國(2004), 앞의 책, 5~7쪽.
- 26) 인민출판사는 2005년 『역사 필수 1』의 2판을 출판했는데, 판형을 키우고 일부 내용을 줄였지만 ‘하상주단대공정’에 의거한 연대를 여전히 사용하지 않고 있다. 朱漢國(2005),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必修 1』, 北京: 人民出版社, 2005. 6. 2판, 2005. 7. 2쇄, 5~7쪽.

28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표 3〉 고등학교 실험역사교과서 선택과정 내용표준(1)²⁷⁾

역사 선택 1: 역사상 중대 개혁 회고	역사 선택 2: 근대사회의 민주사상과 실천	역사 선택 3: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1. 솔론의 개혁	1. 전제이론과 민주사상	1. 제1차 세계대전
2. 상앙의 변법	2. 영국 국회와 국왕의 투쟁	2. 베르사유-워싱턴체제하의 평화
3. 북위 효문제의 개혁	3. 봉건 전제통치에 대한 선전포고	3. 제2차 세계대전
4. 왕안석의 변법	4. 부르주아계급 대의제 정치구조의 구축	4. 알타체제하의 냉전과 평화
5. 유럽의 종교개혁	5. 프랑스 민주역량과 전제세력의 투쟁	5. 전화가 도처에 번지는 국지전쟁
5. 무함마드 알리의 개혁	5. 근대 중국의 민주사상과 전제에 반대하는 투쟁	5. 평화와 발전-현재 세계의 시대적 주제
7. 1861년 러시아 농노제 개혁	7. 인민대중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투쟁	
8. 메이지유신		
9. 무술변법		

역사 선택과목 1. 역사상 중대 개혁 회고에서는 솔론의 개혁, 상앙의 변법 등 중국과 세계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9개의 개혁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교과서는 중국의 개혁개방의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개혁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 개혁의 복잡성 등을 인식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사 선택과목 2. 근대사회의 민주사상과 실천에서는 전제이론과 민주사상, 영국 국회와 국왕의 투쟁 등 7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역사 선택과목 3. 20세기의 전쟁과 평화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베르사유-워싱턴체제하의 평화 등 6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과목에서 한국전쟁이 다루어지고 있다.

27) 『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實驗), 16~23쪽.

〈표 4〉 고등학교 실험역사교과서 선택과정 내용표준(2)²⁸⁾

역사 선택 4: 중국과 외국의 역사인물 평설	역사 선택 5: 역사의 신비 탐색	역사 선택 6: 세계 문화유산 모음
1. 고대 중국의 정치가	1. 역사와 역사의 재현	1. 세계 문화유산의 유래
2. 동서양의 철학자	2. 인류기원의 수수께끼	2. 고대 이집트 문명의 역사유산
3. 구미 부르주아계급 혁명시대의 걸출한 인물	3. 삼성퇴 유적-古蜀문명의 수수께끼	3. 고대 그리스, 로마의 역사유적
4. '아시아 각성'의 선구	4. 마야문명의 소실	4. 유럽 문예부흥 시기의 문화유산
5. 프롤레타리아계급 혁명가	5. 이리두문화의 탐색	5. 중국의 대표적 역사문화유산
6. 걸출한 과학자	6. 미노스궁전 유적과 크레타문명	6.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계유산
	7. 대잠바브웨 유적과 아프리카 문명의 탐색	

역사 선택과목 4. 중국과 외국의 역사인물 평설에서는 고대 중국의 정치가, 동서양의 철학자 등을 다루고 있다.

역사 선택과목 5. 역사의 신비 탐색에서는 역사이론과 인류의 기원, 삼성퇴(三星堆), 마야문명 등 세계사에서 중요한 문화유적을 소개하고 있다.

역사 선택과목 6. 세계 문화유산 모음에서는 세계 문화유산의 유래, 고대 이집트 문명의 역사유산, 중국의 역사문화유산 등을 다루고 있다.

이 6종의 선택교과서 가운데 가장 많은 학교에서 선택하는 과목은 1. 역사상 중대 개혁 회고와 4. 중외(中外) 역사인물 평설이라고 한다.²⁹⁾

역사 필수과목은 한 학기에 36시간 2학점씩 모두 108시간 6학점이고, 역사 선택과목은 한 학기 36시간 2학점이다. 자신의 흥미에 따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인문사회과학을 공부할 학생들은 적어도 3과목을 선택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³⁰⁾

28) 『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實驗)』, 23~29쪽.

29) 인민교육출판사 역사편집실 편집자 李卿 박사와의 인터뷰(2006. 9. 20).

30) 『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實驗)』, 3쪽.

30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고등학교 역사과정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분류되지만 기초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2002년의 「고등학교 역사교과대강」에³¹⁾ 따르면 필수과목은 『중국근대현대사』로 매주 3시간, 모두 99시간을 가르쳤다. 선택과목 1은 『세계근대현대사』로 매주 2시간, 모두 65시간을 가르쳤다. 그리고 선택과목 2는 『중국고대사』로 매주 2.5시간, 총 수업시간이 60시간이었다.

2002년에 제정된 「고등학교 역사교과대강」이 중국 근현대사를 필수로 하고 세계 근현대사와 중국 고대사를 선택과목으로 했던 것에 비해 2003년의 「고등학교 역사과정표준」에 의해 편찬된 고등학교 실험본 역사교과서는 중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하고 정치사, 경제사, 사상문화, 과학기술사 등 분류사의 방식을 취한 것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중국사와 세계사를 함께 가르치는 형태는 1990년대 상해 지역에서 사용되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시작되었다.³²⁾ 그런데 역사 필수과목 3과목과 선택과목 6과목은 중국의 고등학생에게 상당히 큰 학습부담을 준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교과서가 개정되어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사용 중인 고등학교 실험 교과서는 2004년 전국 중소학교재심정위원회의 초심을 통과한 인민교육출판사, 인민출판사, 악록서사, 대상출판사(북경사범대학출판사) 등의 『역사』 4종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중국 교과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민출판사의 교과서는 판형을 크게 키웠고, 악록서사는 교

31) 『全日制普通高級中學歷史教學大綱』, 2~3쪽.

32) 상해 지역의 역사교과서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김유리(2005), 「역사교과대강에서 역사과정표준으로 - 최근 중국의 역사교육과정의 개혁」, 『역사교육』 96.

〈표 5〉 2010년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역사 실험교과서³³⁾

지역	역사교육과정	저자	교과서명	출판사	출판권수
전국	全日制普通高級中學歷史教學大綱	人民教育出版社 歷史室	中國近代現代史(必修) 上下	人民教育出版社	2
			世界近代現代史(選修) 上下	人民教育出版社	2
			中國古代史(選修) 全一冊	人民教育出版社	1
전국	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實驗)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 歷史課程教材 研究開發中心	歷史 1~3(必修)	人民教育出版社	3
				岳麓書社	3
				大象出版社	3
				人民出版社	3
		曹大爲·趙世瑜 高中歷史教材編 寫組·大象出版 社·DC加拿大 國際交流中心	歷史 1~6(選修)	人民教育出版社	6
				岳麓書社	6
				大象出版社	6
				人民出版社	6
				朱漢國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 歷史課程教材 研究開發中心	1: 歷史上重大改革回眸 2: 近代社會的民主思想與實踐 3: 20世紀的戰爭與和平 4: 中外歷史人物評說 5: 探索歷史的奧秘 6: 世界文化遺產薈萃
岳麓書社	6				
大象出版社	6				
人民出版社	6				
上海	上海市中學歷史課程標準(征求意见稿)	華東師範大學	高級中學課本 高中歷史 1~6分冊(試驗本)	華東師範大學出版社	7

사교학용서의 내용을 대폭 보강한 수정판을 출판하였다. 중국의 교과서 제도가 검인정이 되면서 여러 출판사들이 우수한 교과서 필진을 확보하고 인민교육출판사에서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던 연구자를 영입하여 이들 출판사의 교과서 수준이 높아졌다. 고등학교 실험교과서는 2004년 1학기(가을학기)부터 해남성(海南省), 광둥성(廣東省), 영하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 산둥성(山東省) 등 4

33) 이 표는 「2008年秋季普通高級中學教學用書目錄」 등을 참조하여 작성.



개 성에서 실험을 실시하였고, 2006년 가을학기부터 천진시(天津市), 요령성(遼寧省), 강소성(江蘇省), 절강성(浙江省), 복건성(福建省), 안휘성(安徽省), 산둥성(山東省), 광둥성(廣東省), 해남성(海南省) 등으로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다.³⁴⁾ 현재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고등학교 실험교과서가 사용되고 있다.

한편 상해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문명사관이 전면적으로 채택되어 과거의 역사교과서 서술과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해의 고등학교 기초형 과정은 1학년 1학기 교과서의 경우 인류 초기 문명, 인류생활, 인류문화 등 3개의 주제를 다루고³⁵⁾ 2학기에는 문명의 융합과 충돌, 경제 글로벌화 시대의 문명, 문명의 현실과 미래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³⁶⁾ 고등학교의 척전형(拓展型) 과정 교재는 고대 3대 문명의 형성과 변화, 주요 선진국가의 현대화 과정, 18세기 이후의 중국,³⁷⁾ 전쟁과 문명, 세계유산과 인류문명, 과학기술의 발전역정 등³⁸⁾ 6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3개 주제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³⁹⁾ 그러나 이 교과서는 문명사를 위주로 역사교과서를 서술하면서 종래의 혁명사관이 약화되는 형태로 서술되었기 때

34) 中國教育部(2006), 「教育部辦公廳關於做好2006年普通高中新課程實驗地區教材選用工作的通知」.

35) 上海市中小學課程改革委員會(2004), 『高級中學課本 歷史 高中一年級第一學期』(試用本),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3. 8. 1판, 2006. 6. 4쇄.

36) 上海市中小學課程改革委員會(2004), 『高級中學課本 歷史 高中一年級第二學期』(試用本),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4. 1. 1판, 2004. 11. 2쇄.

37) 上海市中小學課程改革委員會(2006), 『高級中學課本 歷史 高中三年級』(試驗本),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5. 8. 1판, 2006. 7. 2쇄.

38) 上海市中小學課程改革委員會(2006), 『高級中學課本 歷史』(試驗本),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6. 1. 1판, 2006. 1. 1쇄.

39) 上海市教育委員會(2004), 『上海市中學歷史課程標準』(試行稿),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64쪽.



문에 중국 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⁴⁰⁾ 결국 상해 교육당국은 상해교육출판사의 역사교과서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2007년 가을학기(중국의 1학기)부터 화동사범대학교의 새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상해 지역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중국의 역사학계는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영향으로 종래의 혁명사관에 대한 비판과 부정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젊은이들은 중국 혁명과 중국공산당사 등 근현대사 지식이 부족하고 역사관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 혁명사를 강조하는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다. 중국 정부는 2007년 봄학기부터 전국의 대학에서 『중국근현대사강요(中國近現代史綱要)』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민족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 중국공산당과 사회주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역사를 가르치기로 결정하였다.⁴¹⁾

개혁개방 이후 다양해진 역사교과서의 역사서술은 중국의 혁명사관과 마찰을 일으키며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상해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미국 등 외국 언론의 보도로 다소 과장된 측면도 있지만 중국의 역사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고등학교 실험교과서의 전문주제(專題)식 교과서 체계는 학생들이 중국사와 세계사를 함께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연구학습의 확대로 학생들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고등학교 실험교과서는 사용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40) “상해 새 표준교과서 ‘마오 퇴출, 게이즈 진입’”, 『연합뉴스』(2006. 9. 1).

41) “解放論壇：爲近現代史成爲大學必修課叫好”，『解放日報』(2007. 1. 20).

첫째, 전문주제 체계는 시간의 순서대로 구성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중학교 과정에서 통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학생의 경우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고등학교의 학습 난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둘째, 각 전문주제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어서 주제와 주제가 유기적으로 구성되지 못했고 연결성이 부족했다.

셋째, 고등학교 역사 필수 교과서는 정치사, 경제사, 사상문화사로 분리되어 있어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나누어 서술하게 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넷째, 자국사와 세계사를 함께 편집했지만 자국사와 세계사의 전문주제 사이의 연관성이 부족하여 혼합편성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했다.⁴²⁾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은 「역사과정표준」의 수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나올 개정 「역사과정표준」과 새 교과서는 자국사와 세계사를 함께 편성하는 체제를 포기하고 다시 과거의 통사체제로 회귀할 것으로 보인다.

42) 李偉科(2009), 「중국 중고등학교 교과과정 개혁 중 교과서의 변화」, 『동아시아의 자국사와 세계사교육 학술회의 발표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29~30쪽.

• 참고문헌

- 高中歷史教材編寫組·DC加拿大國際交流中心·大象出版社(2004),『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 必修 1』,鄭州:大象出版社.
- 教育部基礎教育司(2002),『全日制義務教育歷史課程標準解讀』,北京師範大學出版社.
- 靳玉樂(2003),『新課程改革的理念與創新』,北京:人民教育出版社.
- 上海市教育委員會(2004),『上海市中學歷史課程標準(試行稿)』,上海:上海教育出版社.
- 上海市中小學課程改革委員會(2004),『高級中學課本 歷史 高中一年級第二學期(試用本)』,上海:上海教育出版社.
- 上海市中小學課程改革委員會(2006),『高級中學課本 歷史 高中一年級第一學期(試用本)』,上海:上海教育出版社.
- 上海市中小學課程改革委員會(2006),『高級中學課本 歷史 高中三年級(試驗本)』,上海:上海教育出版社.
- 上海市中小學課程改革委員會(2006),『高級中學課本 歷史(試驗本)』,上海:上海教育出版社.
-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04),『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歷史教科書 歷史 1 必修』,北京:人民教育出版社.
- 諸外國の教科書に關する調査研究委員會(2003),『中國の教育課程改革と新しい教科書-歷史教科書を中心に(中間報告)』.
- 曹大爲·趙世瑜(2005),『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 必修 1 政治文明歷程』,長沙:岳麓書社.
- 鐘啓泉·崔允潔(2004),『新課程的 理念與創新』,北京:高等教育出版社.
- 朱漢國(2004),『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必修 1』,北京:人民出版社.
- 朱漢國(2005),『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必修 1』,北京:人民出版社.
-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2003),『普通高中課程方案(實驗)』,北京:人民教育出版社.
-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2003),『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實驗)』,北京:人民教育出版社.

馮生堯(2004), 『課程改革—世界與中國』, 廣州: 廣東教育出版社.
姬秉新(2005), 『理解與實踐高中歷史新課程—與 高中歷史教師的對話』,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中國教育部(2006), 「教育部辦公廳關於做好2006年普通高中新課程實驗地區教材選用工作的通知」.

「상해 새 표준교과서 '마오 퇴출, 게이즈 진입」, 『연합뉴스』(2006. 9. 1).

「解放論壇: 爲近現代史成爲大學必修課叫好」, 『解放日報』(2007. 1. 20).

김유리(2001), 「中國 教育課程의 變遷과 歷史教育」, 『近代中國研究』 2집.

김유리(2005), 「역사교과대강에서 역사과정표준으로— 최근 중국의 역사교육과정의 개혁」, 『역사교육』 96.

김지훈(2007), 「중국의 신교육과정과 역사과정표준실험교과서」, 『동북아역사논총』 17집.

李偉科(2009), 「중국 중고등학교 교과과정 개혁 중 교과서의 변화」, 『동아시아의 자국사와 세계사교육 학술회의 발표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고대사 서술 분석

선진·진한 시기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배진영

- I. 머리말
- II. '역사유물주의적 관점'의 후퇴와 실용주의 노선의 선택
- III. '중원'에서 '중국'으로 - 중국 고대문명에 대한 이해
- IV. '중국적 정통'의 강조
- V. 맺음말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고대사 서술 분석

선진·진한 시기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배진영

I. 머리말

중국의 역사교과서 서술 내용은 시대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신중국 건설 이후 중국 역사교과서는 1950년대 소련식 모델에 따르는 「역사교학대강(歷史教學大綱)」에 의해 편제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면 미국의 역사교육과정을 모델로 삼아 변화를 꾀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1990년대 중국이 실시한 개혁개방 정책, 중국 사회의 자본주의화 추세 등과 무관하지 않다. 즉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수립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교육정책의 변화와 퇴색은 「역사교학대강」 체제를 더 이상 존립시킬 수 없었으며 이는 미국식 모델을 기반으로 한 「역사과정표준(歷史課程標準)」 체제에 의한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탄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주지하듯이 「역사과정표준」에 의한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가장 큰 특징은 중외합본(中外合本) 방식, 즉 중국사와 세계사가 같은 교과서에 합체가 된 서술방식을 선택하였다는 점이다.¹⁾

1) 김유리(2008), 「중국고등학교 역사과정표준에 따른 4종 판본 『역사』 실험교과서의 구성

「역사교과대강」 체제에 따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중국고대사(中國古代史)』 전1책(이하 『고대사』로 지칭), 『세계근대현대사(世界近現代史)』 상·하책, 『중국근대현대사(中國近現代史)』 상·하책으로 분류되어 각기 1·2·3학년 때 학습한다. 또 「역사과정표준」 체제에 따른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역사(歷史)』 필수(必修) 1·2·3과 선수(選修) 1·2·3·4·5·6(이하 각각 『필수』, 『선수』로 지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교과서는 중국 교육과정의 변천²⁾에 따라 출현한 것으로, 각각의 서술 방향도 변화되었다. 이 두 교과서의 서술체제를 『중국고대사』 전1책의 목차와 『역사』 필수 1·2·3의 목차의 예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중국고대사』 전1책과 『역사』 필수 1·2·3의 목차 구성과 비교

목차	
『중국고대사』 (「역사교과대강」 체제)	제1장 조국 역사의 開篇－先秦 제2장 봉건대통일시기－秦漢 제3장 봉건국가의 분열과 민족 융합－三國, 兩晉, 南北朝 제4장 봉건사회의 변영－隋唐 제5장 민족융합의 진일보 강화와 봉건경제의 지속 발전－五代, 遼, 宋, 夏, 金, 元 제 6장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진일보 발전과 봉건사회 성세로부터 쇠퇴－明, 淸(아편전쟁 이전)
『역사』 (「역사과정표준」 체제)	필수 1 제1단원 고대 중국의 정치제도 제2단원 고대 그리스로마의 정치제도 제3단원 근대 서방자본주의 정치제도의 확립과 발전 제4단원 근대 중국의 반침략, 민주를 구하는 조류 제5단원 과학사회주의이론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의 건립 제6단원 현대 중국의 정치건설과 조국통일 제7단원 현대 중국의 대외관계 제8단원 현재 세계 정치구조의 다급화 추세

체계 분석], 『역사교육논집』 40, 162쪽.

- 2) 김지훈(2007), 「중국의 신교육과정과 역사과정표준실협교과서」, 『동북아역사논총』 17 참조.

42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목차		
『역사』 (『역사과정표준』 체제)	필수 2	제1단원 고대 중국 경제의 기본구조와 특징 제2단원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형성과 발전 제3단원 근대 중국 경제구조의 변동과 자본주의의 왜곡 발전 제4단원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길 제5단원 중국 근현대 사회생활의 변천 제6단원 세계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조정 제7단원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 제8단원 세계 경제의 全球化 추세
	필수 3	제1단원 중국 전통문화 주류사상의 변천 제2단원 서방 인문정신의 기원과 그 발전 제3단원 고대 중국의 과학기술과 문학예술 제4단원 근대 이후 세계의 과학발전 여정 제5단원 근대 중국의 사상해방 조류 제6단원 20세기 이후 중국 중대사상의 이론 성과 제7단원 현대 중국의 과학기술 교육과 문학예술 제8단원 19세기 이후의 세계 문학예술

표 1에서 보듯이 두 교과서의 시대별과 주제별 모듈 체제의 분명한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또 『중국고대사』 전1책의 세부 목차 일부를 보면(표 2 참조) 각 시대마다 각각의 주제별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중국고대사』 전1책 중의 목차 구성의 예

제1장 조국 역사의 開篇-선진	제2장 봉건대통일시기-진한
제1절 원고 사회와 전설시대	제1절 진조의 통치
제2절 하상서주의 교체와 제도	제2절 양한의 통치
제3절 하상서주의 사회경제	제3절 양한 정치경제제도
제4절 하상서주의 문화	제4절 양한시대의 사회경제
제5절 춘추전국 분쟁과 민족융합	제5절 양한시대 변강 각 족의 발전과 민족관계
제6절 춘추전국시대의 사회경제와 사회변혁	제6절 양한시기의 대외관계
제7절 춘추전국시대의 문화	제7절 진한시기의 문화

현재 중국의 역사교과서는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새 「역사과정표준」 체제

에 의한 교과서를 다년간의 실험적 선택사용했다. 이후 현재 대부분의 역사교과서는 이 새 방식에 의한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존의 「역사교학대강」 체제에 따른 역사교과서도 일부에서 사용하여 두 체제에 의한 교과서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 놓여 있는 중국 교과서에 관한 분석과 그 성과가 국내에서도 많이 배출되고 있다.³⁾ 다만 대부분의 연구 내용은 교과서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각 시대별, 각 단계별로 심도 있는 분석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역사교학대강」 체제로부터 「역사과정표준」 체제로 변화되는 과도기에 그 변화의 원인과 그에 따른 변화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향후 중국 역사교육의 지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도 이러한 입장에서 중국 역사교육에서 관철되고 있는 내재(內在) 논리나 중국의 정치적 입장이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육에서 각 시대·분류·주제별로 어떻게 접근되고 구성되어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이 글의 분석시기는 선진(先秦)~진한(秦漢)까지이다. 이에 필자는 현재 중국 전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인민교육출판사에서 출판된 「역사교학대강」에 의거한 『중국고대사』⁴⁾와 실험교과서인 「역사과정표준」에 의한

3) 국내 관련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배진영(2009), 「中國 高等學校 歷史教科書의 中國 古代 農業 敍述의 特徵-先秦·秦漢時代를 中心으로」, 『中國史研究』 61, 주석 1) 내용 참조. 이 밖에 중국 고대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주제별 연구로는 김일권(2006), 「중국역사교과서의 신화·공정론과 민족융합론을 통한 역사통합이론 고찰」, 동북아역사재단 편, 『중국역사교과서의 한국고대사』, 동북아역사재단; 김진순(2006), 「중국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중국문화관련서술검토」, 동북아역사재단 편, 『중국역사교과서의 한국고대사』, 동북아역사재단; 고광의(2006), 「중국역사교과서의 고대문화사 서술검토」, 동북아역사재단 편, 『중국역사교과서의 한국고대사』, 동북아역사재단 등 참조.

4) 人民教育出版社歷史室 編著(2007), 『全日制普通高級中學教科書(選修) 中國古代史 全一冊』, 人民教育出版社, 2008 16次印刷本.

44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역사』⁵⁾ 교과서를 현 단계에서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 두 교과서의 비교 분석을 통해 그간의 중국 역사교육의 변화를 살펴보고⁶⁾ 이를 통해 그 안에 내재된 중국의 정치적 입장이나 논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목표의 변화에 따라 역사 내용 중 일부는 강화된 반면, 일부는 매우 소략하거나 혹은 아예 다루지 않고 있다. 그간의 변화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역사 유물주의적 관점의 약화와 그를 대신한 실용주의적 노선으로의 전환이다. 둘째, 기존에 강조하던 중원 중심주의적 관점이 약화되고 이를 대체하여 ‘중국’ 개념이 새로이 출현하였다. 또 중국적 정통성 부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역사교육을 통해 자본주의적 실용노선을 지속적으로 지향하고, 다민족통일국가를 더욱 확립·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또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문명국이자 일류국가임을 확인하려는 듯하다.

따라서 필자는 그 서술의 특징을 첫째, 실용주의 노선의 선택(역사유물주의 관점의 후퇴), 둘째, 고대 중국 문명에 대한 기존 이해가 중원적 관점에서 중국적 관점으로 변화된 점, 셋째, 중국 정통적인 것의 강조라는 세 가지 측면이 선진·진한 시기에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어떻게 나타나고 체현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5)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編著(2007),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 人民教育出版社, 2008 9次 印刷本(必修 1, 2, 3 및 選修 1, 2, 3, 4, 5, 6의 各本)
- 6) 두 교과서의 전반적 변화는 각 교과서의 목차에서 나타난다. 이 글의 본문 중 표 1, 표 2로 제시한 내용 이외 목차를 참고하려면 그에 대해서는 김지훈(2007), 앞의 글, 233, 247~251쪽, 각 표 참조.

II. ‘역사유물주의적 관점’의 후퇴와 실용주의 노선의 선택

「역사교과학대강」 체제로부터 「역사과정표준」 체제로의 변화에 따른 두 교과서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당연히 역사유물주의적 서술의 후퇴이다. 선행연구에서 이미 포괄적으로 지적한 내용이어서 이를 다시 언급한다는 것이 약간은 진부하지만 이 글의 분석대상에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필수』의 서술이 『고대사』에 비해 중국 사회를 역사유물주의적 관점으로 보는 사회발전의 5단계설 설정이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과 계급투쟁적 면모를 부각시키지 않는다는 점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고대사』에 비해 『필수』와 『선수』에서 보이는 관련 용어가 현저히 감소되거나 사라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고대사』에서는 사회발전의 5단계설(이하 5단계설로 지칭)에 입각하여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점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堯舜禹는 원시사회에서 노예사회의 과도 시기로, …… 부락 수령은 점차 권세를 가진 씨족귀족과 노예주로 변하였고, 가난한 씨족성원과 전쟁포로를 노예로 삼았다. 이에 노예주와 노예의 두 계급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부락의 민주적 선거인 禱禱制는 지속될 수 없었고 원시사회는 노예사회로 대체되었다.⁷⁾

夏왕조는 노예사회, 商왕조 역시 노예사회로 그 노예제는 매우 잔혹하였다.⁸⁾

7) 『고대사』, 3쪽.

8) 『고대사』, 3쪽.

春秋戰國시기는 노예제사회에서 봉건사회로 가는 대변혁기이다.⁹⁾

秦王조에서는 전제주의 중앙권력을 강화하여 봉건경제 발전에 더욱 유리하였다.¹⁰⁾

이처럼 『고대사』에 따르면 하(夏)·상(商)을 노예제사회로, 춘추전국시기는 노예제사회에서 봉건제사회로 가는 과도기, 진(秦) 이후는 봉건제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대사』의 역사서술이 역사유물주의적 관점인 5단계설에 입각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곳곳에서 반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다. 사회경제 서술 부분에서 ‘토지국유제인 정전제(井田制)하에서 노예주는 노예를 압박하여 정전(井田)에서 집단경작을 하게 하였’는데,¹¹⁾ 이는 춘추전국시기에 이르면 정전제인 공전(公田)에서 사전(私田)이 출현함에 따라 사전 경전자의 착취방식이 변모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기존의 노예는 봉건농민으로 변모하고, 사전 주인은 봉건지주가 되어 농민은 지주에게 지조(地租)를 냄으로써 봉건 토지소유제의 착취방식을 취하였다”¹²⁾는 언급은 5단계설 중 노예제사회로부터 봉건사회로의 변화를 의미한다.¹³⁾ 또 춘추전국시기의 개혁과 변법 서술에서는 “전국시기 노예주의 토지국유제는 이미 대부분 봉건토지사유제로 대체되었고”, 상양변법(商鞅變法)은 “노예주 귀족의 세습적 특권을 폐지하고 봉건경제의 발전을 촉진하였다”¹⁴⁾고 설명하여 이러한 시각이 잘 반영되고 있음을 알

9) 『고대사』, 10쪽.

10) 『고대사』, 24쪽.

11) 『고대사』, 5쪽.

12) 『고대사』, 14쪽.

13) 배진영(2009), 앞의 글, 7쪽 참조.

수 있다.

한편 이러한 5단계설에 입각하여 각 사회 변화의 과정을 계급투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춘추전국시기의 개혁과 변법 부분에서 “신흥지주의 경제와 정치세력은 원래의 노예주 귀족의 완강한 세력과의 모순도 갈수록 심화되었고”,¹⁵⁾ “진말(秦末) 농민투쟁은 사회 모순이 매우 심화되었으며, 진시황 사후 진(秦) 2세 통치는 더욱 우매하고 잔폭하여 농민 대(大)기의를 유발시켰다. …… 형벌이 엄격하고 가혹하였으며, 부세는 매우 무거웠고, 토지겸병은 심각하여 수많은 농민이 토지를 잃었다. 진의 폭정은 계급 모순을 격화시켰다”¹⁶⁾ 라고 하여 계급투쟁의 모순을 분명하게 제기하고 있다.

한편 『필수』에서는 이러한 역사유물주의적 관점이 상당히 후퇴하고 있음이 여실히 나타난다. 『필수1』의 내용을 보자. 『고대사』에서는 요순우시기를 원시에서 노예제로 가는 과도기로 표현한 것에 비해, 『필수1』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후에禹는 기타 부락과 투쟁 중에서 또한 미증유의 승리를 거두어 부락연맹 중 극히 높은 지위를 향유하였다. 이는 그가 중국 역사상 건립한 첫 왕조와 왕위 세습을 실행하는 데에 기초를 다졌다.¹⁷⁾

기원전 2070년,禹는 중국 역사상 첫 왕조인 夏를 건립하였다. 중국은 조기 국가 정치제도가 출현하였다. 선양의 관례를 계승하여 繼位者를 뽑았다. 단禹가 죽자 그의 아들인 啓가 왕위를 빼앗았고, 또 자기 후대에게 지위를 전

14) 『고대사』, 15쪽.

15) 『고대사』, 15쪽.

16) 『고대사』, 24~25쪽.

17) 『필수1』, 4쪽.

해주었다. …… 이는 정치권력이 賢人에게 전승하는 것으로부터 아들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변한 것이다. …… 원시사회 후기의 선양제는 왕위세습제로 대체되었다. 상왕조 건립 후 왕위는 어떤 때는父子상속, 어떤 때는兄弟상속으로 이어졌다. 夏商의 최고 통치자는 자기의 통치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자기의 행위를 天의 의지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고, 국가 大事는 모두 占卜의 방식을 통해 결정되었다. 왕권은 신비한 색채를 갖추었다. 夏商 시기는 이미 초보적으로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는 행정관리제도가 건립되었다.¹⁸⁾

기원전 1046년 周 武王이 …… 商을 멸망시켜 周왕조를 건립하였다. …… 효과적인 통치를 하기 위해 西周는 分封制를 실시하였다. 주 무왕은 왕기 이외의 광대한 지역의 토지와 인민을 王族, 功臣과 고대 제왕의 후대에게 나눠주고, 그들에게 제후국을 건립하게 하고 왕실을 지키게 하였다. …… 분봉제가 형성된 통치 질서를 강화하고, 귀족 간에 권력·재산·토지계승상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서주는 분봉제와 상호 표리를 이루는 정치적 성격을 갖춘 宗法制를 실시하였다. ……¹⁹⁾

서주 말년 왕실이 쇠미하고 서부 소수민족이 침범하여 周 幽王이 피살되고, 서주는 멸망하였다. …… 각 제후국은 더욱 많은 토지와 인민을 장악하기 위해 상호 전쟁을 벌였다. …… 기원전 221년 秦王 嬴政은 마침내 오랜 제후 할거 국면을 끝내고 중국 역사상 최초로 통일적 중앙집권적 봉건왕조인 秦왕조를 건립하고 수도를 咸陽으로 정하였다. …… 처음 천하를 통일 후 진왕 영정은 …… 스스로를 始皇帝라 칭하였고, 이로부터 황제는 중국 고대 최고통치자의 칭호가 되었으며 역대 봉건왕조가 이를 계속 사용하였다.²⁰⁾

漢 초는 秦이 실시한 郡縣制를 모방하는 동시에 제후를 분봉시켰다. 후에

18) 『필수1』, 4쪽.

19) 『필수1』, 5~6쪽.

20) 『필수1』, 8~9쪽.

제후왕의 세력이 점차 강대해져 조정에 대해 위협이 되었다. …… 한 왕조는 계속 제후왕의 권위를 삭감하여 중앙권력을 강화시켰다.²¹⁾

이상 인용이 다소 길었지만, 『필수1』에서는 기존 『고대사』에서 보이는 각 왕조의 사회발전단계 즉 노예제사회, 봉건제사회 등에 대한 규정이나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 사회경제를 서술한 『필수2』에서는 어떠한가?

소농경제하의 농민은 …… 자기의 한정된 토지에서 경작기술을 높이는 데에 노력하여 농업에서의 精耕細作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단 봉건지주계급의 엄청난 착취하에서 농민은 매우 부담스러운 徭役을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소농경제는 매우 약하였고, 매번 붕괴되고 약해졌다. ……²²⁾

夏, 商, 西周 시대에 모든 토지는 국가에 속하였다. …… 국왕에게 공납을 냈으며, 서민과 노예는 귀족 封地에서 경작하였다. (이들은) 잔혹한 착취를 당하였으며 노역을 담당하였다. …… 제후는 자기 강역 내의 토지를 개인 재산으로 보았다. …… 봉건토지사유제하에서 지주는 정치경제적 특권에 의지하여 농민 토지를 대량 겸병하고 사회의 양극화를 조성하여 부자는 발이 阡陌을 이었고 가난한 자는 입추의 여지도 없었다.²³⁾

우선 앞선 인용문의 ‘봉건지주계급’의 계급은 사실 일반적이고 포괄적 의미에서 쓰인 것이어서 각 시대를 변혁하는 5단계설의 계급투쟁적 의미에서 사용된 용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계급은 계급투쟁이라는 기존의 변혁적·투쟁적 면모가 사라져 사회 속에 존재하는 다른 신분이라는 의미로 일

21) 『필수1』, 12쪽.

22) 『필수2』, 7쪽.

23) 『필수2』, 16쪽.

반화되거나 파편화되어 나타난다. 두 번째 인용에서도 기존의 ‘귀족노예주’에서 노예주를 빼서 일반적인 ‘귀족’으로, 또 계급을 뺀 ‘지주’라는 용어로 대체된 것으로 보았을 때, 이는 분명 계급투쟁의 역사나 역사유물주의적 입장에 따른 용어로 표현하거나 재정리하는 대신, 일반적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로써 역시 역사유물주의적 관점이 매우 약화되고 파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후퇴는 백가쟁명 부분에서 여실하게 엿볼 수 있다. 『고대사』에서는 춘추 만기 노자(老子) 사상을 “소박한 변증법(辨證法) 사상이 내재되어 있다”²⁴⁾고 하였지만 『필수3』에서는 변증법이라는 용어가 사라졌다.²⁵⁾ 또 순자(荀子) 부분에서도 『고대사』에서는 그가 유물사상(唯物思想)을 가졌다고 서술하고 있지만,²⁶⁾ 『필수3』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²⁷⁾ 이 밖에 『고대사』에서는 걸출한 유물사상가로서 왕충(王充)과 그의 유물사상을 서술하고 있지만,²⁸⁾ 『필수3』에서는 왕충이 언급되지 않았고, 내용도 백가쟁명 이외에는 전통사상에 유가사상이외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단편적·선택적 서술은 이미 이전에 이에 대한 기초내용을 학습했기 때문에 서술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역사과정표준』에 의거한 고등학교 『역사』가 각 주제별로 나누어져 있고, 이미 기초내용을 중학교과정에서 학습한다²⁹⁾는 점에서 이러한 각 주제별 내용 중에 소홀히 다루어지는 부

24) 『고대사』, 16쪽.

25) 『필수3』, 3~6쪽.

26) 『필수3』, 18쪽.

27) 『필수3』, 6쪽.

28) 『고대사』, 43쪽.

29) 중학교 역사교육과정 중 중국 고대사는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7학년, 중국 근현대사는 8학년, 세계사 과목은 9학년에 있다. 각 학년에는 『중국역사』 상책·

본은 이를 통해 보완이 될 것이다. 실제 중학교 과정인 초중(初中) 『중국역사(中國歷史)』 7년급(年級(上·下冊))은 중국 고대사(근현대 이전) 부분을 담고 있는데, 그중 상책(上冊)에 이 시대를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든 각 내용에 대해 중학교 교과서를 함께 참조한다면 이러한 변화상을 보다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의하면 노자에 대해서는 모든 사물에는 대립적인 측면이 존재하는데 선후(先後), 장단(長短), 난이(難易) 등과 같은 대립적인 쌍방이 존재하며 상호 전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³⁰⁾ 또 순자에 대해서도 “천명(天命)을 제어하여 그것을 이용하며(制天命而用之)” 사람은 자연 규율을 인식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³¹⁾ 또 왕충에 대해서는, 신선이나 귀신의 미신사상이 성행하는 진한시기에 이를 비판한 사상가로 왕충이 가장 걸출한 대표가 되는데, 그의 저서인 『논형(論衡)』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점을 약간의 예를 들어 제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유물주의 사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고 단지 그가 세계에는 귀신의 존재가 없다고 인식한 것에만 주목하고 있다.³²⁾ 즉 노자나 순자나 왕충 모두 그들의 인식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한 후 다시 이를 유물사상이라 규정하지 않았고, 유물사상과 관련된 용어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역사유물주의적 시각을 배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서술상의 변화는 기존 역사유물주의적 관점이 상당히 후퇴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역사유물주의적 관점의 쇠퇴는 당연히 “신중국 성립 이후

● 하책이 있다.

30) http://www.pep.com.cn/czls/jszx/7s/dzkb/200412/t20041215_147036.htm, 『中國歷史』七年級, 47쪽.

31) http://www.pep.com.cn/czls/jszx/7s/dzkb/200412/t20041215_147036.htm, 『中國歷史』七年級, 49쪽.

32) http://www.pep.com.cn/czls/jszx/7s/dzkb/200412/t20041215_147036.htm, 『中國歷史』七年級, 93~94쪽.

역사유물주의에 기초한 애국주의적 교육이 1990년대 개혁개방과 21세기 중국의 자본주의화의 대세나 그에 따른 사회 변화에 결코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³³⁾과 그에 따른 새로운 역사교육 목표와 체계의 정비 등과 같은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친 결과일 것이다.

즉 「역사교학대강」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관철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입장과 관점, 방법을 이용하며, 유물변증법과 역사변증법의 관점으로 자연현상과 사회생활의 법칙을 해석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³⁴⁾ 그러나 그러한 모식이 사회주의 건설단계에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역사교학대강」 체제에 의한 역사교육은 개혁개방 시대를 거친 이후 중국의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낡은 방식으로,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역사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하거나 새 시대에 적당하지 않은 혁명사관이나 유물주의 사상에 대해 기계적 암기만이 존재하는 구식의 교육체제로 전락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와 동서 대립

33) 이러한 비판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즉 역사학과는 고등학교 교육 중의 전통기초 학과인데, 근년에 그 지위는 날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인재배양의 모식과 과정체계가 완전히 전부 새 시대의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눈앞에서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인재배양에 대한 새로운 요구는 역사학과의 경우 원래의 인재배양 모식과 이미 완전히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또 전문적이고 세세한 지식 전수를 강조하여 학생의 기초적 기술과 종합적 소질의 제고를 홀시하였다. 그리고 교학내용과 방법이 낡은 방식이어서 교재도 낙후되어 최신의 성과를 반영하거나 새로운 학술 유파의 반영도 적어 교학 내용은 어떤 것은 몇십 년 동안 똑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王富春(1998), 「談高教歷史學科的教學改革」, 『歷史教學』 9, 44쪽.

34) 이 외에 이론과 실천의 결합,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과학의 원리, 법칙, 규율을 중국의 농공업 생산건설과 혁명투쟁에 연계시키며, 교육의 법칙을 존중하여 각 교과목의 목적과 학생의 연령적 특징을 존중하고, 소련의 선진적 경험을 흡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소연(2006), 「중국역사교육과정의 변화와 추이」, 『중국근현대사연구』 31집, 190쪽.

구도가 사라진 이상, 또 국가 간 경쟁력이 더욱 치열해지고 강화된 현실에서도, 혁명사관에 의한 이러한 관점의 견지는 바람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에 비해 2000년대에 들어서면 사회주의 이념교육에서 탈피하면서 학생들의 소질(소양)교육을 강화한다는 실용적인 교육목표의 성격에 따라 이러한 이념적 색채가 많은 부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역사과정표준」에서는 계급투쟁적 요소나 역사유물주의적 관점의 퇴색과 파편화로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³⁵⁾ 따라서 중국 역사교육은 21세기 이후 세계 역사교육의 새로운 추세에 부응하여 중국 역사교육의 목표를 기존의 사상교육에서 소질교육으로 크게 전환시키게 됨에 따라 근본적인 변화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³⁶⁾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록 역사유물주의적 관점이 쇠퇴하였을지라도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중국의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개혁개방의 물결이 1990년대 이후의 대세라 할지라도 「역사교학대강」에 따른 『고대사』는 2002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전히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담보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또 비록 그러한 내용이 후퇴되고 파편화되었을지라도 「역사과정표준」에 의거한 실험교과서에서도 완전히 그러한 내용을 배제하고 있지는 못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회주의 이념의 퇴색과 학생 개인의 소질 교육에 맞추는 21세기 역사교육 방향과 그에 따른 내용에는 역사유물주의 관점의 후퇴와 계급투쟁적 면모를 교과서에서는 강력하게 부각시키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중국의 건설과 동시에 자본주의화의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는 중국 정

35) 홍성구(2006), 「중국과 한국 역사교과서의 중국 역사 서술과 용어의 문제」, 『역사교육 논집』 37, 129쪽.

36) 권소연(2006), 앞의 글, 186~187쪽.

부의 딜레마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면은 비록 2002년 출판되었지만 대학교재로 사용되는 것 중 하나인 『중국고대사(中國古代史)』에서도 계급투쟁, 농민전쟁, 역사동력문제가 강하게 나타나며, 중국 전통사회는 계급사회이며 계급모순과 계급투쟁은 중국 역사의 중요 내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³⁷⁾

따라서 고등학교 역사교육의 성격을 “역사유물주의 관점에서 인류역사의 발전과정과 규율을 설명하고 고등학생들의 역사의식과 문화적 소양, 인문적 소양을 더욱 배양하고 제고하는 기초과정”으로서, 또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적 역사관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며 역사적 각도에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해하고 사고하여 중화민족과 전 인류의 역사적 운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³⁸⁾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면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역사교육이 자국의 정치적 입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또 시대와 사회적 대세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상과 같은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육과정의 목표가 얼마나 관철될 수 있을지, 또 현재 중국의 역사교육이 이념적 지향에서 탈피하여 자본주의화 물결을 타고 있는 중국 사회, 그리고 인간의 인식능력의 확대와 자아의 발전이라는 시민교육 개념을 강조하는 21세기 세계 역사교육의 대세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을지, 즉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이러한 모순과 부조화를 어떻게 조화시켜나갈지는 앞으로 중국 역사교육계가 풀어야 할 과제이며 이를 풀기 위해 또 한 차례의 실험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된다.

37) 趙韜峰(2003), 「中國古代史的編寫思考」, 『中國大學教學』 4, 30쪽.

38)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制訂(2008), 『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實驗)』, 人民教育出版社, 2008年 6月 第5次 印刷本, 1쪽.

III. ‘중원’에서 ‘중국’으로 - 중국 고대문명에 대한 이해

중국 역사교과서에 반영된 중국 문명에 대한 이해는 최근까지의 고고학적 발굴성과와 연구성과를 종합한 중국 문명의 다원성(다중심발전론)에 기반한다. 중국 신석기 문명에 대한 이해는 신중국 성립 이후 대규모의 고고학적 발굴이 쏟아져나오기 전까지는, 주지하듯이 기존의 황하 중하류 유역, 이른바 중원(中原)지역을 중심으로 성립된 황하문명만이 존재하였다고 인식하였다. 또 중원 이외의 사방(四方, 동·서·남·북적으로 칭해지던 四夷지역)에는 문명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혹은 존재하였더라도 낙후한 비문명지역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낙후된 비문명지역은 이후 중원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문명을 흡수하는, 열등하거나 아류적인 지역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 고고학의 황금시대를 거치면서 현대 중국 강역 안에 중원 이외의 이른바 사이(四夷)지역에서도 발달된 고대문명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이러한 각 지역의 문명을 모두 ‘중국 문명’으로 종합하여 기존 황하문명이라는 호칭 대신 이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중원중심에서 다중심발전론으로 변화된 중국 문명에 대한 이해는 역사교과서에서도 뚜렷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현대 중국 판도 내의 모든 고대문명을 중국 문명으로 삼게 됨에 따라 또 하나의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즉 과거 이민족이 살던, ‘사이’ 지역의 고대문명을 중국의 고대문명으로 흡수함에 따라 이 지역에 살던 이민족의 존재 역시 중국의 민족으로 삼아야 하는 이른바 ‘민족융합’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민족융합은 중원의 외연에 존재하는, 종족·습속·언어·문화 등 모든 것이 중원과 다른 이질적 정치체(政治體)이자 문화체인 이민족을, 현재 중국 내 소수민족의 일원으로 편



입시켜, 이른바 다민족통일국가의 형성³⁹⁾이 이미 이처럼 오래전부터 기초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게 된다. 즉 중국 문명에 대한 서술은 중국 문명의 다중심발전론과 민족융합이라는 두 가지 장치가 연동(聯動) 작용하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민족통일국가의 형성은 춘추전국시기 민족융합이 밀거름 되어 진시황에 의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이해한다.⁴⁰⁾ 그러나 현대 중국 내에서도 일부 지역의 소수민족이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독립투쟁을 하고 있다. 또 이러한 저항과 투쟁이 없더라도 중국 정부가 이들을 계속 주시하며 해체시키거나 중국 내에 편입시키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고대에 다민족국가라는 개념이 성립하고 또 그를 기반으로 다민족국가의 형성이 가능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될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중국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중국 각지의 신석기문명과 청동문명시기에도 일정하게 관찰시키고 있다.

즉 과거 이민족의 대표 지역인 요동(遼東)지역, 사천(四川)지역, 오월(吳越)지역 및 감숙(甘肅) 등지에서 전개된 모든 문명은 중국 화하족(華夏族)의 문명이며, 화하족의 증원문명과 융합됨에 따라 중국 문명으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과연 얼마나 타당한지 더욱 치열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부분이지만, 중국 문명의 다중심발전론은 두 체제의 고등학교 역사서술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일정한 차이점 또한 존재한다.

가령, 『고대사』와 『선수5』를 비교하면, 중국 문명에 대한 서술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고대사』의 중국 문명 서술 대상은 장강유역의 하모도(河姆渡)

39) 이에 대해서는 김유리(2005),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역사교육과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북방사논총』 6 참조.

40) 『고대사』, 12쪽.





문화와 황하유역의 반파(半坡) 및 대문구(大汶口)문화이다. 그에 비해 『선수5』에 서는 이리두(二里頭)문화와 삼성퇴(三星堆)문화가 그 대상이 된다. 우선 『고대사』 서술 부분을 살펴보자.

7000~5000년 전에 중국 장강유역의 河姆渡문화와 황하유역의 半坡문화는 母系 씨족공동체의 변영단계에 진입하였다. 이 시기 사람들은 정착생활을 거쳐 원시 농경시기로 진입하였다. 하모도 원시 거주민은 이미 水稻[벼]를 재배하였고, 반파의 원시 거주민은 粟[조] 재배기술을 장악하였으며 또 채소와 마를 재배하였다. 중국은 세계상 水稻와 粟을 최초로 재배한 국가이며 인류에 걸출한 공헌이 있었다. …… 4500년 전 중국의 이들 지구는 부계 씨족공동체시기에 진입하였다. 황하 하류의 大汶口문화 중만기는 이 시기의 전형이 된다.⁴¹⁾

이상 『고대사』 내용에서 볼 때, 서술 대상인 각 문명권은 역사유물주의적 관점인 5단계설 중에서 원시공동체사회에서 계급사회로 가는 전형적인 사회를 잘 보여주는 지역의 유적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중원 핵심지역의 반파유적지, 황하 하류지역에 위치하여 오래전부터 중원문명과 일정 교류를 통해 중원지역 문명과 매우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는 산둥지역의 대문구문화, 장강 유역의 하모도문화가 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중국 신석기문명의 다중심발전론이 일부 수용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중원지역 이외 다른 지역의 문명을 제시하였지만 『고대사』에서는 중원지역이 여전히 중국 역사와 문명의 중심지라는 인식이 내재하는 듯하다. 비록 하모도와 대문구문화를 제시하였지만, 발굴 당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킨 요서(遼西)·요동(遼東)지역의 홍산문화(紅山文化)를 비롯하여 사천지역

41) 『고대사』, 2쪽.



의 대계문화(大溪文化)나 감숙지역의 마가요문화(馬家窯文化) 등에 대해서는 전혀 서술되지 않았다. 비록 다중심발전론을 일부 수용하였을지라도, 또 각 지역의 수많은 문명을 모두 다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그 서술 대상의 선택에서 볼 때, 중원중심적 혹은 중원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춘 문명만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은근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모도나 대문구는 중국 역사과정에서 비교적 일찍이 중국 안에 편입된 강남지역과 산둥지역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에 비해 요동지역이나 사천, 혹은 감숙지역이 중국에 편입된 시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늦었다는 점에서, 이들 지역은 오랫동안 소위 변방(邊疆)지역으로 존재하였고 중원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점은 이들 지역이 중국 문명의 서술 대상이 되지 못한 이유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특히 하모도가 서술 대상이 된 것은 앞서 언급한 이유 이외에 중국 신석기 문명 중 황하문명의 개념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등장한 지역이 장강지역이었다는 점에서 황하문명과 장강문명을 중국의 2대 문명권으로 보려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⁴²⁾ 또 이 지역은 이러한 상징적 의미 이외에도 도작(稻作)의 기원지라는 점 때문에 앞서 모계 씨족 공동체사회를 잘 보여준다는 점 이외에도 이를 모두 고려해서 서술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반파 유적지가 대상이 된 것도 이 지역이 화하문명(華夏文明)의 기원지이자 동시에 속작(粟作)농업의 기원지라는 점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하모도의 도작과 반파의 속작을 모두 제시한 것은 세계 농업사적으로 도작과 속작이 모두 중국에서 기원했다고 드러내기

42) 이러한 점 때문에 중원 중심주의적 황하문명에서 장강지역 문명을 포함시켜 신석기시대 중국문명을 河江文明이라 칭하기도 한다.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⁴³⁾

사실 홍산문명의 경우에는 중국 민족의 시원지가 어디인가를 재탐구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반향을 일으킨 문명이고, 최근 홍산문화를 비롯한 이들 지역의 문명을 요하문명(遼河文明)이라는 대문화권으로 설정하여 지속적인 발굴과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문명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중국의 중심은 중원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처럼 중원을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 다른 서술에서도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제(齊)는 존왕양이(尊王攘夷)의 구호를 들어 황하 중류 제후를 연합하여 북으로는 이적(夷狄)을 방어하고 남으로는 초만(楚蠻)을 제어하여 중원의 패주 지위를 승인받았다”⁴⁴⁾는 부분에서는 중원의 표현이 나타나고, 이적·초만 등의 용어가 함께 서술되어 명확히 사이(四夷)사상이 드러난다.

또 춘추전국시기의 민족융합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춘추전국시기는 중원의 華夏族을 제외하면 사방에 다른 민족이 생활하였다. 북방은 匈奴·東胡, 서방은 戎, 남방은 越 등등이다. 경제문화교류와 빈번한 전쟁을 통해 각 민족이 점차 융합되었다. 이런 융합과 겸병과정은 후에 진의 통일적 다민족국가 건립을 위한 기초가 되었다.⁴⁵⁾

중원시장에서는 남방의 상아를 매매하고, 북방의 말, 동방의 물고기와 소금, 서방의 피혁을 매매하였다.⁴⁶⁾

43) 이에 대해서는 배진영(2009), 앞의 글, 21~23쪽 참조.

44) 『고대사』, 10쪽.

45) 『고대사』, 12쪽.

46) 『고대사』, 14쪽.



또 5절 ‘양한(兩漢) 시기 변강(邊疆) 각 족의 발전과 민족 관계’를 설정하여 북방의 흉노(匈奴)·오환(烏桓)·선비(鮮卑), 동북의 부여(夫餘), 남방의 월족(越族)·서남이(西南夷)와 서역 각 족이 존재하였고 그들은 중원과 왕래와 연계가 강화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어⁴⁷⁾ 이 지역은 중원과 분리된 공간이며 중원과는 다른 정치체가 존재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 서남이와 백월(百越) 부분에서도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서남지역은 언어와 풍속이 각기 다른 소수민족이 분포한다. …… 통칭하여 西南夷라 한다. 漢武帝 시기 서남이 지구에 郡을 설치하였다. 서한 말년에 夷인이 기병하여 반항하였다. 동한 초 서남이는 漢왕조의 판도에 새로 진입하였다. …… 한왕조 시기에 華東·華南지역의 越人族은 부족이 매우 많아 百越이라 총칭한다. ……⁴⁸⁾

이는 중원과 사이의 존재와 인정 및 그들 사이의 분명한 분리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고대사』 단계의 서술에서는 중국의 중심은 여전히 중원이며 중원과 중원 이외 지역은 분리 인식이 일정하게 존재한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변강지역 고대 이민족에 대한 언급은 『필수』 등 실험 교과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중학교 교과서에서 일부 언급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제14과에 ‘흉노의 흥기와 한조와의 화친과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가장 먼저 박스 안에 제시한 것은 소군(昭君) 묘에 관한 것이다. 또 소군이 흉노에 시집가서 한족과 흉노가 우호적인 관계를 촉진하는 데 공헌하였다는 것을

47) 『고대사』, 36~39쪽.

48) 『고대사』, 38쪽.





화두로 삼아 서술을 하고 있다. 이후 목돌(冒頓)선우가 몽골 초원을 통일하여 국가를 건립한 내용과 위청과 광저병이 흉노를 친 내용 및 소군이 흉노에 시집간 내용이 차례로 나온다. 그리고 흉노 부녀의 머리장식에 대한 언급이 따로 나온다.⁴⁹⁾

전반적 내용은 고등학교 『고대사』 교과서 내용과 거의 비슷하지만 흉노 부녀의 머리장식의 높은 수준에 대한 내용이 가미되었고, ‘연구하다(動腦筋)’란에 “흉노족은 우리나라(我國) 고대 역사상 어떠한 공헌을 하였는가? 현재 56개 민족 중 흉노족이 있는가?”⁵⁰⁾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있다. 이는 고대 중국에 적대적인 이민족 국가인 흉노를 56개 소수민족의 하나로 삼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 외 서남이, 백월 등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나는 이상의 내용 이외에 소위 변강지역의 이민족에 대한 언급은 「역사과정표준」 체계에 의한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중국 문명에 대해서는 『고대사』에 비해 『선수5』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의도적 부분을 엿볼 수 있다. 이리두문화를 선택한 점은 학습요점 중 하나가 ‘하사(夏史) 탐색 중 이리두문화의 작용’⁵¹⁾이라는 점에서 그 의도가 분명하다. 여기에서는 이리두문화가 지층관계상, 고사 전설상, 연대상 모두 역사상의 하(夏)와 밀접한 관련이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⁵²⁾ 그 발굴 과정과 내용을 매우 깊이 있게 밝히면서 이를 근거로 삼아, 비록 문자자료가 없지만 이리두 유적지의 문화가 하(夏)와 관련된, 하(夏)의 도성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고

49) http://www.pep.com.cn/czls/jszx/7s/dzkb/200412/t20041215_147036.htm, 『中國歷史』七年級, 77~81쪽.

50) http://www.pep.com.cn/czls/jszx/7s/dzkb/200412/t20041215_147036.htm, 『中國歷史』七年級, 78쪽.

51) 『선수5』, 65쪽.

52) 『선수5』, 76~77쪽.

62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있다.⁵³⁾

이리두문화를 서술한 의도는 당연히 중국 최초의 왕조인 하(夏)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이제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의도임에는 말할 것도 없다. 동시에 이는 하상주(夏商周) 단대공정 과정과도 맞물려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층관계상 맨 아래의 하남용산문화(河南龍山文化), 그 위의 이리두문화 유적지, 또 그 위의 이리강(二里崗)문화 유적지 순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그들 간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한편, 용산문화의 시간, 이리강 상대 유적지의 시간 및 고사 전설상의 하(夏)를 결합시켜, 기원전 2070년을 하(夏)의 시작으로 정한 근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 정당성을 찾으려는 시도로 생각할 수 있다.

어찌 되었든 이 이리두문화의 제시는 이러한 복잡한 의도가 전제되었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남용산문화와의 연계성을 강조하여 중원의 신석기문명과 청동문명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중원의 문명이 중국 문명의 기반이 되었음을 일정하게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의 문명이 국가성립단계가 되면서는 중원과 화하족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전개되었음을 은밀하게 의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그럼에도 ‘삼성퇴(三星堆)유적지-고촉문명(古蜀文明)’을 서술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분명 중원 이외의 사이지역에서의 다른 문명을 어쨌든 인정한 것이다. 즉 중국은 현대 중국의 판도 안에 존재하는 사천(四川)지역에서 발생한 고대의 이 지역 문명이 중국의 문명으로 통합되고 융합되었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중국 문명의 발굴과 연구를 통해 이러한 인정은 이미 『고대사』 단계에서도 통용되었고 이에 따라 하모도문화가 서술 대상이었음은 물론이지만, 장강이 중국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국을

53) 『선수5』, 78~79쪽.



대표하는 두 강의 하나라는 점에서 하모도가 대상이 된 것은 이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무튼 삼성퇴문화는 하상주 시기 사천지역의 고도로 발달한, 중원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갖춘 청동문명이다. 특히 이 문명에서 출토된 유물은 그 유례가 없을 정도의 독특함과 찬란함으로 세계적인 관심과 반향을 일으켰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찬란한 청동문명은 당연히 중국 문명의 하나로 귀속시켜야만 했을 것이다. 따라서 삼성퇴문화에 대한 서술은 중원과의 연관성에 주로 집중하고 있다. 이는 유물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촉왕본기(蜀王本紀)』, 『화양국지(華陽國志)』 등의 문헌기록과 연관시키는 방법을 통해 이미 중원에서 이 지역과 일정한 왕래가 존재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즉 고촉(古蜀) 민족은 '추계좌임(推髻左衽)'한다는 문헌기록은 바로 삼성퇴의 청동인상(青銅人像)을 통해 증명할 수 있고, 고촉의 왕들과 관련된 벌레, 물고기, 새, 동물 등도 삼성퇴 유물에서 보인다고 지적한다.⁵⁴⁾ 또 삼성퇴에서 출토된 대량의 해패(海貝)를 통해 주변과의 교역을 설명하는데, 특히 당시 하상(夏商)왕조가 장악한 중원지구와의 교역에 집중하여 제시하고 있다.⁵⁵⁾ 다만 이 문화가 발견된 후 제기된 여러 문제 중 해결하지 못한 의혹⁵⁶⁾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지만⁵⁷⁾ 이 중

54) 『선수5』, 95쪽.

55) 『선수5』, 100쪽. 고대 사천이 연계에 편한 지구이며, 三星堆의 선민은 장강의 수로를 통해 중원과 동남연해에서 무역을 하였다. 다음으로 그들은 또 사천 서남지구의 雲貴 고원과 西藏지구와 교왕하고, 연후에 운남 大理 등지를 통과하여 미얀마에 이르러 인도반도, 서아시아, 유럽과 간접무역 해서 태평양과 인도양 지구의 海貝도 三星堆에 이룰 수 있었다고 서술하였다. 또 이 海貝는 하남 安陽 殷墟 婦好墓에서 나왔기 때문에 삼성퇴만이 아니라 당시 商왕조에서도 화폐를 사용하였고, 따라서 이는 삼성퇴만의 기이한 상황이 아니라 부연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삼성퇴와 상왕조의 연계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56) 『선수5』, 98쪽. 그 의혹은 다음과 같다. ① 삼성퇴문화는 어디에서 왔는가?, ② 삼

64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삼성퇴 거주민의 족속(族屬)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고촉(古蜀)의 민족, 족속 문제도 전혀 거론되지 않는다.

앞서 『고대사』에서 서술된 북방의 흉노·오환·선비, 동북의 부여, 남방의 월족 및 서남이와 서역 각 족 등도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고대사』가 중원과 사이의 존재와 인정 및 그들 간의 분명한 분리를 보여주는 데에 비해 이번 서술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단지 중원지역의 상주와 사천지역의 고촉이 같은 시간대에 교왕하고, 존재하였다는 것만을 제시해줄 뿐이다. 어쨌든 이는 중원지역의 상주왕조가 중국 청동문명의 중심지라는 이왕의 주장과는 달리 청동문명 역시 중원만이 중심지가 아니라 각 지역에서 청동문명이 동시에 발전하였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는 셈이다.

『선수5』의 이러한 서술에서 두 가지 현상을 볼 수 있다. 첫째, 기존 『고대사』의 서술처럼 중원과 사이지역의 분명한 분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수5』에서는 사실 입론의 근거가 마땅하지 않음에도 사천의 삼성퇴문화와 중원의 상주문화가 서로 교왕하고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그들 간의 일정한 공존과 함께 상호 거리를 압축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 각 문화와 각 민족이 이미 이때부터 함께 교왕하고 융합될 여지를 암암리에 제시해주는 것이다.

둘째, 이런 점에서 기존의 ‘중원’ 개념이 ‘중국 문명과 역사의 중심지역’이라는 의미였다면 이제 그 의미가 서서히 약화되고, 단지 ‘중국의 중앙에 위치

성퇴 유지 居民의 족속은 누구인가?, ③ 삼성퇴 고정권의 성질과 종교형태는 어떠한가?, ④ 삼성퇴 청동문화는 어떻게 생산된 것인가?, ⑤ 삼성퇴 古蜀國은 어떻게 쇠망하였는가?, ⑥ 삼성퇴 제사갱의 성질과 연대는?, ⑦ 삼성퇴 金杖의 미스테리는 어디에 있는가? 등이다.

57) 『선수5』, 98~100쪽.

한'이라는 단순한 방위적 개념으로서, 하나의 지역구로 퇴색함을 갈파할 수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남용산문화-이리두문화-이리강문화의 계기적 연관관계를 통해 중국 역사와 문화에서 중원에 여전히 그 무게 추를 두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삼성퇴와 같은 세계적인 청동문명을 중국 문명 안으로 포섭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의 중원의 상주문명은 이 삼성퇴와 같은 주변지역의 찬란한 문명의 존재로부터 중국 내 문명의 중심적·주도적 역할을 주장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결국 중원 청동문명만의 우세와 중심적 입장보다는 '중국'이라는 포괄적 범위로 비중원(非中原)지역의 문화와 문명을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 속으로 포섭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고대사』 단계에서 상주왕조만 언급하였지, 다른 지역의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선수5』에서는 동일시간대의 사이지역인 사천지역의 삼성퇴문화를 서술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서술은 결국 중국에서 '중원'만의 중심 추가 일정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또 그에 따라 화하족과 이민족의 분리, 지역 간의 분리, 각 문화 간 분리가 서서히 사라져서 그들 간의 구분이 애매해지거나 없어지게 된다. 비록 중원 중심주의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닐지라도, 또 이러한 중원 중심주의의 일정한 포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결국 고대 각 지역 문화와 문명의 융합으로 유도됨으로써 이들은 모두 하나의 '중국'의 문명이며, 중국 다민족 중의 하나가 되어 중국에서 의도하는 중국의 범위 안에 모두 포섭되는 것이다. 따라서 삼성퇴문화를 “중국[我國]의 고대문명이며 고족문명은 중국의 보귀(寶貴)한 문화유산의 중요 내용”⁵⁸⁾이라 서술한 것이다.

58) 『선수5』, 85쪽.

여기에는 중원의 중심 추를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았지만 또한 고대의 비중원문명을 인정하며 광대한 중국의 판도를 지키고, 다민족국가를 유지하면서 이들을 화하족으로 통합해야만 하는 중국 정부의 딜레마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과연 중국 문명이라는 거대한 용광로를 만들어낸 다민족국가 중국이 앞으로 어떤 복잡한 장치를 구상하고 작동시키면서 어떻게 이를 대처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왜냐하면 삼성퇴문화처럼 고대의 찬란한 문명을 중국 문명화시키고,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삼고자 한다면, 오랫동안 변강지역에 존재하던 다른 지역 문명에 대해서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공정이 뒤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홍산문명을 중국의 보귀한 문화유산으로 삼기 위해서는 동북공정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문제점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고대세계에서도 소위 현대적 의미에서의 ‘중국’을 성립시키고자 한다면 지난한 과정과 충돌이 예상되며, 여기에는 중국적 패권주의와 신(新)중화주의가 작동될 것으로 우려된다.

IV. ‘중국적 정통’의 강조

두 교과서 서술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가장 중국적이고 고유한 특징이 나타나는 부분, 즉 중국의 정통적인 것을 매우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각국 교과서에서 자국이나 자민족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며 중국에서도 이 두 교과서 모두 중국적인 특질이나 정통성을 강조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일부에서는 그 강도나 강조점이 달라진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중국의 가장 특징적인 정치제도인 황제지배체제(皇帝支配體制)와 중국의 고유한 전통사상인 유가(儒家)와 공자(孔子)이다. 황제지배체제에 대한

『고대사』 서술을 살펴보겠다. 다음은 진시황의 중국 통일에 대한 서술이다.

전제주의적 중앙정권을 강화하고, 봉건경제의 발전에 더욱 유리하여, 조국 강역에 대해 초보적 기반과 국가의 통일 발전을 강화하고 화하족이 주체가 되는 중화민족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일으켰다.⁵⁹⁾

이는 황제지배체제의 특징을 전반적으로 서술한 것이며, 동시에 진말 농민 전쟁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사회모순이 매우 심화되었고, 진시황 사후 秦 2세의 통치가 더욱 우매하고 잔혹하여 마침내 농민 대기의를 유발시켰다.⁶⁰⁾

또한 “요역이 무거웠고, 형벌은 엄격하고 가혹하였다. 부세는 매우 무거웠고, 토지 검병이 심각하였다. 이에 대량의 농민이 토지를 잃고 진의 폭정에 계급 모순이 격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⁶¹⁾ 또 ‘연습(練習)’ 부분에서 “강대한 진왕조는 왜 빨리 망했는가?”⁶²⁾와 같이 학생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보인다. 이는 진시황이 이룩한 황제지배체제의 의의와 동시에 문제점을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술의 경향은 한대(漢代)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한 무제가 즉위할 때 西漢 국고에는 대량의 양식과 화폐가 축적되었다. 국가 실력은 상당히 옹후하여 중앙집권을 강화시킬 조건이 존재하였다. 동시에 국가에는 토지 검병, 상인 팽창, 변경 불안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런 배

59) 『고대사』, 24쪽.

60) 『고대사』, 24쪽.

61) 『고대사』, 24~25쪽.

62) 『고대사』, 26쪽.

경하에서 한 무제는 봉건 대통일을 실현할 조치를 추진하였다. 정치방면 : 첫째, 관제를 개혁하고 內朝와 外朝를 조성하고 皇權을 강화시켰다. 둘째, 대량의 인재를 선발하여 관리의 임용과 고시를 중시하고 刺史제도를 실행하여 조정이 지방관료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였다. 셋째, 국왕의 세력을 약화시켜 중앙의 권력을 강화시켰다. 넷째, 완전한 봉건법제를 강화하고 호족 지주세력을 타격하고 봉건 사회질서를 유지시켰다. …… 서한 후기에 외척과 환관을 중임하여 정국이 혼란스러웠다. 국가권력은 약화되었다. 서기 9년에 외척 王莽이 자립하여 황제가 되어 국호를 新이라 하였다. 서한은 멸망하였다.⁶³⁾

東漢 중기 이후 황제가 즉위하여 대부분 나이가 비교적 어리면 외척과 환관이 번갈아가며 조정을 장악하였다. 그들 사이에 여러 차례 투쟁과 각종 음모와 私利는 東漢 정치의 하나의 검은 그림자였다. …… 桓帝 이후 동한 조정은 오랫동안 환관에 의해 좌우되었다. …… 역사에서는 이를 黨錮之禍라 칭한다.⁶⁴⁾

이상 『고대사』의 서술은 황제지배체제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황제지배체제의 모순인 측근정치와 그로 인한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비해 『필수1』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황제지배체제를 매우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단 그의 문제점이나 모순점은 서술하고 있지 않다.

秦이 천하를 통일한 후 군신은 국가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 승상 王綰은 燕, 齊, 楚 등의 故地는 거리가 수도 함양과 멀어 제후를 설치하지 않으면 아마도 지키기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李斯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즉 周王이 同姓 자제를 분봉하여 제후로 삼았

63) 『고대사』, 27~28쪽.

64) 『고대사』, 29쪽.

지만 후에 서로 상호 주벌하여 周 天子도 제지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는 제 후 분봉을 반대하고 군현제를 실시하면 비교적 쉽게 통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분봉제를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군현제를 채용할 것인지는 진왕조에 대해서뿐 아니라 후세에 대해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 기원전 221년 진왕 영정은 마침내 오랜 제후할거 국면을 끝내고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적 중앙집권적 봉건왕조인 진왕조를 건립하고 수도를 함양으로 정하였다.⁶⁵⁾

처음 천하를 통일한 후 진왕 영정은 자기의 덕이 三皇보다 높고 공이 五帝를 넘는다고 생각하여 왕의 칭호로는 자기의 권위와 지위를 현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삼황과 오제의 명칭을 합하여 황제라 하였다. 자기의 존호를 정하여 자칭 시황제라 하였고 자기부터 시작하여 자손은 二世, 三世에서 萬世에 이르기까지 전해질 것을 희망하고 영원히 정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이로부터 황제는 중국 고대 최고 통치자의 칭호가 되었고 역대 봉건왕조가 이를 계속 사용하였다.⁶⁶⁾

진시황의 통일시기 전국의 정치·경제·군사 등의 대권은 모두 일체 황제로부터 총괄되었다. 중앙과 지방의 주요 관원도 모두 황제로부터 임명되었다. …… 한편으로는 황권이 지극히 높아 지위를 넘볼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중국 고대 전제제도의 중요 특징이다. 진시황은 전국 관제의 기초 위에서 황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권을 조직하였다. 중앙에서 丞相, 御史大夫와 太衛라는 세 개의 최고 관직을 설치하였다. 승상은 백관의 수장으로 황제가 전국 정사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어사대부는 부승상으로 君臣奏章을 집행하고 황제의 조서와 명령을 하달하고 아울러 백관을 감찰하는 책임을 지냈다. 태위는 전국 군무를 관리할 책임을 졌다. 승상 아래는 또한 諸卿이 있다. 국가의 각 항의 구체적 사무를 분별 관장하는 것은 중앙정

65) 『고대사』, 8쪽.

66) 『고대사』, 9쪽.

70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부의 직능 부분이다.⁶⁷⁾

진왕조 중앙의 주요 관직은 지위, 직책과 권리 방면에서 서로 배합되어 서로 견제하여 군정 대권은 황제 수중에서 조정되었다. 그러나 군정 대사의 결책에 대해 일반적으로 먼저 승상, 어사대부와 諸 卿으로부터 조의가 진행되었고, 최후로 황제로부터 결정되었다. 이는 어느 정도에서 군주 전제하의 중대한 사정의 결정적 실수를 감소시켰다.⁶⁸⁾

진왕조는 군현제를 통해 지방정권에 대해 직접적이며 효율적으로 통제하였다. 이는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피라미드 단계의 통치기구를 건립하여 전국의 각 지방, 각 戶人家를 모두 국가 정치체제 안으로 집어넣었다. 진왕조가 형성한 중앙집권제도는 중국의 2000년이 넘는 정치체제의 기본 구조를 갖추어 역대 왕조가 계속 사용하게 되었고 또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완비되었다.⁶⁹⁾

이상의 긴 인용을 통해 보면 진시황이 시행한 황제지배체제에 대해 체계를 갖춘 제도로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구체적이고 자세한 서술에도 불구하고 앞서의 『고대사』에서 보이는 농민 대기와의 내용은 없다. 황제지배체제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다. 또 비록 황제가 전권을 휘두를 지라도 군주전제하의 중대한 사정의 결정적 실수를 관료와의 조의(朝議) 과정에서 감소시켰다고 서술하고 있다. 더욱이 『고대사』에서 제시한 한대에 나타난 황제지배의 문제점은 전혀 서술되어 있지 않다. 외척·환관의 발호와 그에 따른 전한(前漢)의 멸망과 당고지화(黨錮之禍), 후한(後漢)의 멸망 등도 언급되어

67) 『고대사』, 9쪽.

68) 『고대사』, 10쪽.

69) 『고대사』, 11쪽.

있지 않다. 이것보다는 추은지령(推恩之令)과 같이 황제지배체제, 즉 중앙집권이 강화되어가는 과정⁷⁰⁾이나 찰거제(察舉制) 등을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⁷¹⁾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역시 중학교 단계에서 이미 학습되어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된 중학교 역사 서술내용을 참조하면, 진이 봉건 전제주의적 중앙집권제도를 창립하였고 최고 통치자는 황제이며 지고무상한 존재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 중 제11과 '무도함을 벌하고 포악한 진을 치다(伐無道, 誅暴秦)' 장에 진의 폭정이라는 주제로 설명하고 있다.⁷²⁾ 주로 사서 기록에 기초하여 폭정의 내용을 제시하고 진시황 사후 이세 황제의 실정과 진승(陳勝)·오광(吳廣)이 진의 폭정에 반항하여 일으킨 농민 기의를 언급하고 있다. 또 '활동과 삼(活動課三)' 항목에서 진시황의 공과(功過)에 대한 논쟁⁷³⁾을 다루고 있다. 또 한대의 경우에도 외척 왕망(王莽)이 정권을 탈취하고 동한시기에 오면 외척과 환관이 교대로 전횡을 하여 당시의 정치가 매우 어두웠다고 설명하고, 또 외척 양익(梁冀)의 전횡을 제시하였다. 결국 정치적 암흑기가 동한 말기에 지속되어 흉년이 들어 농민이 살 길이 없게 되자 대규모 농민전쟁이 폭발하여 동한 멸망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⁷⁴⁾ 이런 서술은 사서 기록에 의한 일반적인 진한제국의 특징과 멸망과정을 제시한 것으로 『고대사』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70) 『고대사』, 12쪽. 한초는 군국제 실시에 따른 제후왕의 위협에 대한 내용과 평정, 이후 추은지령을 통해 중앙집권이 강화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71) 『고대사』, 14쪽.

72) http://www.pep.com.cn/czls/jszx/7s/dzkb/200412/t20041215_147036.htm, 『中國歷史』七年級, 56~63쪽 참조.

73) http://www.pep.com.cn/czls/jszx/7s/dzkb/200412/t20041215_147036.htm, 『中國歷史』七年級, 97~99쪽.

74) http://www.pep.com.cn/czls/jszx/7s/dzkb/200412/t20041215_147036.htm, 『中國歷史』七年級, 67~70쪽.

72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다만 『필수1』은 정치제도를 주제로 한 것으로 고등학교 때 반드시 학습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주제 중에서 다루는 제1단원 ‘고대 중국의 정치제도’ 중 제2과 ‘진왕조 중앙집권제도의 형성’, 제3과 ‘한에서 원까지의 정치제도의 변화’에서는 중국의 중앙집권체제의 전반적 내용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비록 중학교 때 언급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상당히 간략하였다. 또 간략하더라도 이를 기초내용으로 삼았다면, 고등학교 학습과정에서는 이 중앙집권체제를 전체적으로 심화시켜야 함에도 체제의 모순과 문제점 부분은 모두 삭제시킨 후 일부만을 선택하여 이를 검토하였다는 것은 또한 일정한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선택적 서술은 고유한 중국적 특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황제지배체제를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통치에 편리한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이나 군현제, 관료제와 같은 통치구조 등을 부각시켜 고대세계에서 이 체제를 가장 완비된 통치시스템으로 이해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의도적 서술이 출현하게 되었는가? 이는 역사교과서가 기존의 중국사와 세계사를 분리하여 서술하는 체제 대신 중국사와 세계사 내용을 함께 서술하는 획기적인 ‘중외합편(中外合編)’의 방식을 사용한 점에서, 또 “인류사회 발전의 기본맥락을 이해하고 역사의 경험과 교훈을 총결하며, 우수한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민족정신을 발양해야 한다”⁷⁵⁾는 중국 고등학교 역사 교육과정의 목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필수1』의 1단원은 ‘고대 중국의 정치제도’이지만, 2단원은 ‘고대 그리스·로마의 정치제도’이며 그중 제5과는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치’, 제6과는 ‘로마법의 기원과 발전’이라는 목차에서만 보아도 고대 서양의 정치제도에 뒤처지지 않는 고대 중국의 선진적인 정

75)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制訂(2008), 앞의 책, 1쪽.

치제도가 제시되어야 했을 것이다. 또 동시에 가장 중국적인 제도가 필요하였고 이에 중국 고유의 황제지배체제가 완벽한 모습으로 재현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가장 중국적 특질을 갖춘 제도와 인물이 선정되었고, 그것의 장점을 부각시켜 세계 역사와 문화에서 중국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하게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선수4』에 중국의 대표 인물을 진시황과 공자로 보았는데, 진시황의 폭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서술하고⁷⁶⁾ 주로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의 성립과 통일 과정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진시황이 중국 전통시대에 미친 역할과 공로를 부각시키고 있으며(사실 『필수1』의 내용과도 많이 중복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적 특질을 완성한 인물로 규정하고 있다. 아마도 『선수1』의 ‘역사상의 중대개혁’에서 중국 개혁가 중의 하나로 상앙(商鞅)이 선택되었던 것⁷⁷⁾은 황제지배체제의 강조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즉 상앙변법을 통해 진(秦)의 부국강병과 통일의 완성뿐 아니라 황제지배체제의 여러 물질 기반을 이룩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필수3』에서 공자를 중국의 대표적 사상가로, 유가를 중국의 정통 사상으로 서술한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 부분의 서술에서도 황제지배체제에 대한 서술처럼 구체적이고 주로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어 기존 『고대사』에서 서술한 것과는 차이가 나타난다. 『고대사』에서는 공자의 정치사상 중의 보수적인 성향을 지적하고 있다. 즉 주왕조의 예(禮)를 유지하고 보호하며, 귀천(貴賤)에는 순서가 있다는 공자의 주장을 보수적이라고 서술하고 있다.⁷⁸⁾ 그러나 『필수3』이나 『선수4』에서는 유가와 공자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다음과 같은 내용은 공자의 위상

76) 『선수4』, 6쪽.

77) 『선수1』, 21~29쪽.

78) 『고대사』, 17쪽.

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공자는 세계 10대 문화 名人과 10대 사상가의 하나로 숭앙받으며 중화민족의 자랑과 영광이다. 공자를 대표로 하는 유가문화는 이미 중화민족 정신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 국제적으로 또 국내에서 거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오늘날에 공자의 사상 내지 그의 영향은 사람들의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며 유학은 세계에서 의식 있는 사대부들에게 희망의 빛이 된다.⁷⁹⁾

이처럼 그에 대해서는 세계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뿐, 한계 등은 서술하고 있지 않다. 물론 중학교 교과서에서 이미 공자에 대한 언급이 있고, 또 대교육가라는 점 이외에 공자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즉 공자의 교육사상이 모두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번지(樊遲)가 농사짓는 것과 채소밭 가꾸는 것을 물었을 때 공자가 그런 지식은 장래가 없다고 인식하였다”⁸⁰⁾는 것을 들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아마도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노동(농사)을 천시하는 공자의 태도가 당연히 문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공자의 불찰을 지적하고 있지만 아마도 이런 선상에서 언급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앞서 『고대사』에서 설명한 보수주의적 성향의 지적이나 혹은 공자에 대한 심화된 학습이기 때문에 그의 공적뿐 아니라 한계 등이 심도 있게 제시될 수 있었을 것이지만 『필수3』, 『선수4』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고대사』에서는 유교 이외에 불교의 전파 등을 서술하였지만 『필수3』

79) 『선수4』, 26쪽.

80) http://www.pep.com.cn/czls/jszx/7s/dzkb/200412/t20041215_147036.htm .
『中國歷史』七年級, 46~47쪽.

에서는 백가쟁명이나 유교 이외에는 전혀 서술되지 않았다. 즉 중국 고유의 사상인 유가 이외에는 다른 사상이나 외래종교 등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앞서의 지적과 같이 가장 중국적인 것, 가장 고유한 것, 가장 전통적인 것, 가장 중국 정통적인 것을 부각시켜 그것이 갖는 세계사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이러한 중국적 특질을 보여주는 서술은 다른 주제 부분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난다. 앞서 언급하였던 수도(水稻)와 속(粟)의 기원지를 중국으로 보는 내용⁸¹⁾이나, 수공업 부분에서 세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중국의 영도적 지위나 특히 세계 최초의 양잠업의 나라⁸²⁾라고 서술한 점, 또 중국의 과학문명 부분에서도 중국에서 최초로 선보인 종이, 중국의 4대 발명과 천문학의 발달 등을 각기 서술하여 그것이 인류사회에 갖는 공헌과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⁸³⁾

물론 이러한 서술은 객관적 사실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그것을 통한 중국적 정통의 강조가 일정한 의미가 있을지라도, 문제는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점도 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황제지배체제 모순의 회피나 유교나 공자의 한계, 공과 등이 함께 설명되지 않은 채, 오로지 가장 중국적이기 때문에 세계 역사에서 가장 가치 있는 완벽한 상품으로 이들을 포장할 경우, 그것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가도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더욱이 근대화 과정이나 사회주의 사회 건설과정에서 이미 중국의 전통적인 정치제도와 봉건경제제도, 또 공자와 유교의 비합리성에 대해 비판이 있었다는 점에서, 비록 동양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뒤따르

81) 『필수2』, 4쪽.

82) 『필수2』, 9쪽.

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지라도 단지 동양적이고 중국적이기 때문에 각각에 내재한 문제점에 대해 비판 없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향후 정치적 입장에 따라 또 다른 비판을 야기할 가능성이 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비판적이고 객관적 판단을 담보하지 못한 중국적 정통성에 대한 강조는 재고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맺음말

일반적으로 역사교과서에는 각국의 역사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규정하며 반영하고 있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의 경우는,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을 하나로 통합하여 중국을 구성하는 여러 민족을 단결시키고 이를 통해 중국 변강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주된 관심사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러한 정치적 입장에서 중화민족주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교육 역시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치적 입장이 상당히 반영되어 중국 역사상 다민족국가의 형성과정을 강조하고 그를 통한 다민족통합에 중점을 둔 교육방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역사교과서에 관련된 문제는 각기 다른 역사인식의 차이점을 여전히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은 특히 이와 같은 방침 때문에도 그 주변국가와 민족의 역사 이해에 상당한 왜곡을 발생하게 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런 상황에 대처하고 객관적 연구를 하기 위해 중국의 이러한 정치적 입장이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중에 어떻게 체현되고 있는가

83) 『필수3』, 36~41쪽. 이상에 대해서는 배진영(2009), 앞의 글, 28쪽 참조.

를 선진·진한 시기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 특징은 역사유물주의 후퇴와 실용주의 노선의 선택, 중국 문명에 대한 기존의 중원중심적 시각이 중국이라는 포괄적 범위로 확대되었고, 또 중국적 정통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특징은 비록 “역사유물주의 관점에서 인류역사의 발전과정과 법칙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역사의식과 문화적 소양, 인문적 소양을 배양하고 제고하는 기초과정”으로서의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육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 강화, 다민족통일국가로의 지향과 중화민족주의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사회주의 국가의 견지는 여전하겠지만 현 사회적 추세에 맞지 않는 역사유물주의적 관점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사회적 추세에 맞는 실용주의 노선을 대신 선택한 점은 중국 사회가 더욱 자본주의화되고 있는 현실과 국가 간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국가경쟁력의 강화 측면은 56개의 다민족이 공존하는 중국을 더욱 강하게 결합시켜 분열되지 않도록 다져야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중화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우선시해야 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다민족통일국가론을 형성하는 전제가 될 것이다. 중국적 정통 또한 중화민족의 통일과 화합,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화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술의 특징에는 중국의 정치적 입장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 중국의 견지와 자본주의화의 대세 속에서, 그리고 비록 중국적 관점으로 전화하였을지라도 중원 중심주의를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은 채, 현대 중국의 판도와 다민족을 모두 포괄해야 하는 중국 정부는 두 가지 모두를 융합시켜나가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은 교과서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지향점과 현실 간

의 모습, 그리고 융합의 부조화와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아마도 중국 역사교과서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궤도를 찾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일정한 실험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중국적 정통의 강조는 또한 “우수한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민족정신을 발양해야 한다는”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육의 목표에 부합되는 면이 있지만 자칫 중국적인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는 역사 왜곡과 은폐가 더욱 조장되거나 혹은 중국의 문화적 패권주의가 출현할까 매우 우려된다. 이는 아마도 중국이 공자를 그토록 강조하는 것이 현재 중국 정부가 야심 차게 진행하고 있는, 전 세계에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을 500여 곳 설립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공자학원⁸⁴⁾은 중국 교육부가 세계 각 나라에 있는 대학교와 교류해, 중국의 문화나 중국어 등의 교육과 전파를 위해 세워진 교육기관으로 중국 정부가 운영비를 매년 20~30% 정도를 지원한다고 한다.⁸⁵⁾ 그런데 이 학원에서는 유교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대표 사상가인 공자를 내세워 중국 문화를 보급하고 또 중국어 교육을 주로 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중국 문화와 중국어의 세계적 보편화를 의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는 중국의 정치적 패권주의와 맞물려 향후 중국의 문화적 패권주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84) 중국의 공자학원은 <http://www.hanban.org> 참조.

85) 위키백과 참조(<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122926>) ; 이 공자학원은 중국 교육부와 中國國家對外漢語教學領導小組(조장: 중국 교육부장관 周濟)가 중국과 세계 각국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세계 각국 국민의 중국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편, 각국의 중국어 학습자에게 편리하고 우수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건을 갖춘 국가에서의 중국어 교육을 주요 활동으로 한다.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은 2004년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공자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http://www.cis.or.kr/main.htm> 참조).

• 참고문헌

人民教育出版社歷史室(2007), 編著, 『全日制普通高級中學教科書(選修) 中國古代史 全一冊』, 人民教育出版社, 2008 16次 印刷本.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07) 編著, 『普通高中 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 人民教育出版社, 2008 9次 印刷本.

中和人民共和國教育部制訂(2008), 『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實驗)』, 人民教育出版社, 2008年6月第5次印刷本.

http://www.pep.com.cn/czls/jszx/7s/dzkb/200412/t20041215_147036.htm. 『中國歷史』 七年級.

王富春, 「談高教歷史學科的教學改革」, 『歷史教學』(1998. 9.)

趙韞峰, 「中國古代史的編寫思考」, 『中國大學教學』(2003. 4.)

고광의(2006), 「중국역사교과서의 고대문화사 서술검토」, 동북아역사재단 편,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고대사』, 동북아역사재단.

권소연(2006), 「중국역사교육과정의 변화와 추이」, 『중국근현대사연구』 31집.

김유리(2005),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역사교육과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북방사논총』 6.

김유리(2008), 「중국고등학교 역사과정표준에 따른 4종 판본 『역사』 실험교과서의 구성체계 분석」, 『역사교육논집』 40.

김일권(2006), 「중국역사교과서의 신화긍정론과 민족융합론을 통한 역사통합이론 고찰」, 동북아역사재단 편, 『중국역사교과서의 한국고대사』, 동북아역사재단.

김지훈(2007), 「중국의 신교육과정과 역사과정표준실험교과서」, 『동북아역사논총』 17, 2007.

김진순(2006), 「중국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중국문화관련서술검토」, 동북아역사재단 편, 『중국역사교과서의 한국고대사』, 동북아역사재단.

배진영(2007), 「中國 高等學校 歷史教科書의 中國 古代 農業 敘述의 特徵-先秦·秦漢時代를 中心으로-」, 『中國史研究』 61.

홍성구(2006), 「중국과 한국 역사교과서의 중국 역사 서술과 용어의 문제」, 『역사교육논집』 37.

<http://www.hanban.org>,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122926>

<http://www.cis.or.kr/main.htm>,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중세사 서술 분석

군산대학교 박영철

- I. 머리말
- II. 계급에서 민족으로
- III. 위진남북조의 민족융합과 5호 문제
- IV. 수당(隨唐) 통일적 다민족국가와 소수민족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권
- V. 맺음말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중세사 서술 분석

군산대학교 박영철

I. 머리말

이 글은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중세사 부분, 즉 위진남북조수당사 부분을 대상으로, 우리 역사와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본 것이다. 현재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는 기존의 「역사교학대강(歷史教學大綱)」 체제에서 「역사과정표준(歷史課程標準)」 체제로 변화해 가고 있는 중이다. 2003년에 제정된 「역사과정표준」에 의거한 교과서에는 인민교육출판사(人民教育出版社)와 악록서사(岳麓書社), 대상출판사(大象出版社), 인민출판사(人民出版社) 등 4개 출판사에서 발행된 전국을 대상으로 한 4종의 교과서와 상해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동사범대학출판사(華東師範大學出版社)와 상해교육출판사(上海教育出版社)에서 발행된 2종의 교과서가 있다. 따라서 현재 분석대상이 되는 교과서는 기존 교학대강(教學大綱)에 의거한 인민교육출판사에서 발행한 『중국고대사(中國古代史)』를 포함해 7종이 된다. 「역사과정표준」은 기존의 개설적인 교과과정을 지양하고 정치사, 경제사, 문화사, 과학사 등으로 분류



하여 필수로 가르치고 선택과목은 또 주제별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기존 교육체제보다 다채롭고 개성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과서를 제공하는 면도 있지만 그만큼 산만하다는 문제점도 낳고 있는 것 같다.¹⁾

예를 들면 『역사과정표준』에 의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 4대 출판사에서 발행된 교과서에는 필수와 선수(選修)를 망라해서 이 글이 주제로 다룰 위진남북조수당사에 관한 기술이 매우 소략하게 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보인다. 『역사 필수1』에서 위진남북조수당시대는 거의 언급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인지 6책의 주제별 교과서 중 제1분책인 『역사상중대개혁회보(歷史上重大改革回眸)』에는 북위(北魏) 효문제(孝文帝)의 개혁이 상양(商鞅)의 변법(變法), 왕안석(王安石)의 변법과 나란히 독립적인 단원을 형성하고 있으나 필수과목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본문에서 다루겠지만 위진남북조시대는 중국 역사교과서가 가장 강조해서 가르쳐야 할 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를 이룬, 춘추전국시대를 뒤이은 민족대융합의 제2차 고조기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주제별 교과서인 선수 교과서에는 이 글의 주제와 관련된 위진남북조수당사 부분은 거의 취할 것이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이다. 이 글에서는 필연적으로 인민교육출판사에서 발행된 『중국고대사』(인터넷판)와 상해지구에서 사용되는 화동사범대학출판사의 『고중역사(高中歷史)』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또한 이 글은 현행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1) 중국의 「歷史課程標準」과 역사교과서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논고로는 김지훈(2007), 「중국의 신교육과정과 역사과정표준실험교과서」, 『동북아역사논총』 17을 참조. 教學大綱에서 課程標準으로의 변화에 대해서는, 김유리(2005), 「역사교과대강에서 역사과정표준으로-최근 중국의 역사교육과정의 개혁」, 『역사교육』 96을 참조.



는 역사적 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교과서와의 비교적 고찰을 유용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인민교육출판사에서 발행된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교과서와 현행 교과서를 적절히 비교하기로 했다.

이 글에서 특히 중시하고자 한 문제는 민족문제로, 교과서의 중요한 문제는 대개 민족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에서는 위진남북조 시기의 5호(胡) 문제와 민족융합 문제, 특히 북위 효문제의 개혁의 평가 문제, 그리고 수당에 와서 특히 강조되기 시작하는 통일적 다민족국가와 소수민족 문제 및 최근에 새로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 동아문화권의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II. 계급에서 민족으로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 이후의 중국에서는 교육방면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서방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면서 기존의 마르크스주의 유물론 사관에 입각한 역사교육의 방향도 변화를 보이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나타나게 된 큰 변화의 하나는 교과서의 역사 서술에서 계급투쟁의 일원적인 강조에서 중화민족을 더불어 강조하는 이원적인 시각 내지는 계급보다 민족을 더 중시하는 시각의 대두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와 2000년대 교과서의 장절에 나타나는 시대구분은 곧 이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이다. 참고로 중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민교육출판사의 교과서를 고대부터 명청시대까지 비교해보자.

우선 시대구분의 기준 자체가 1980년대의 교과서가 원시사회, 노예사회, 봉건사회 등의 전형적인 계급사관에 입각한 것이라면, 2009년의 교과서는 처

1981년 『중국역사』 1, 2책 ²⁾		2009년 『중국고대사』	
제1편 原始社會	제1장 我國境內的原始人類	제1장 祖國歷史的開篇 — 先秦	제1절 遠古社會化和傳說時代
	제2장 氏族公社		제2절 夏商西周的經濟和制度
			제3절 夏商西周的社會經濟
제2편 奴隸社會	제1장 奴隸社會的形成和發展—夏, 商		제4절 夏商西周的文化
	제2장 强盛的奴隸的國家—西周		제5절 春秋戰國戰爭和民族融合
	제3장 奴隸社會的瓦解—春秋		제6절 春秋戰國時期的社會經濟和社會變革
			제7절 春秋戰國時期的文化
제3편 封建社會(1) — 封建社會的形成和初步發展—戰國秦漢	제1장 封建社會的形成期—戰國	제2장 秦的統一和秦末農民戰爭	제1절 秦朝的統治
	제2장 封建大一統時期—秦漢		제2절 西漢的統治
	제3장 强盛的西漢		제3절 西漢政治經濟制度
	제4장 東漢的統治和黃巾大起義		제4절 西漢時期的社會經濟
	제5장 秦漢時期的文化		제5절 西漢時期邊疆各族的發展和民族關係
			제6절 兩漢時期的對外關係
		제7절 秦漢時期的文化	

2) 陳光中·臧嶸 編(1981), 『初級中學課本 中國歷史』 제1책, 人民教育出版社; 王劍英·王宏志 編(1982), 『初級中學課本 中國歷史』 제2책, 人民教育出版社.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고중교과서를 비교해야 하나 1980년대에는 고등학교 중국 역사교과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의 교과과정상 고등학교에서는 중국사가 아니라 세계사만 배우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와서 중국사 교육을 강조하게 되어 고등학교에서도 중국사를 가르치게 되었다. 김지훈(2006), 「현대중국 역사교과서의 역사 1949~2006년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75 참조.

3) 人民教育出版社, website, www.pep.com.cn. 『中國古代史』, 2009. 1. 10 접속.

封建社會(2)－ 封建國家的分裂和民 族大融合－三國 魏晉 南北朝	제1장 三國和兩晉	제3장 封建國家的分裂 和民族融合－三 國, 兩晉, 南北朝	제1절 三國兩晉南北朝政 權的更替
	제2장 南朝和北朝		제2절 魏晉南北朝時期的 民族融合
	제3장 三國兩晉南北朝時 期的文化		제3절 魏晉南北朝時期的 社會經濟
封建社會(3)－ 封建社會的繁榮－隋 唐	제1장 隋的統一和隋末農 民戰爭	제4장 封建社會的繁榮 －隋唐	제4절 魏晉南北朝時期的 文化
	제2장 唐朝前中期的繁榮		제1절 短暫的隋朝
	제3장 唐朝的衰落和唐末 農民戰爭		제2절 唐朝的開國和盛世
	제4장 隋唐時期的文化		제3절 唐朝後期的政局
			제4절 隋唐制度的革新
			제5절 隋唐時期社會經濟 的繁榮
			제6절 隋唐統一多民族 國家的發展
封建社會(4)－ 民族融合的進一步加 強和封建經濟的繼續 發展－五代遼 宋夏金 元	제1장 北宋和遼金元的 關係	제5장 民族融合的進一 步加強和封建經 濟的繼續發展－ 五代遼宋夏金元	제7절 隋唐時期的交往 友好
	제2장 南宋和金的掙扎時		제8절 隋唐時期文化的 繁榮
	제3장 元朝的統治		제1절 五代十國
	제4장 宋元時期的文化		제2절 北宋的建立和中央 集權制度的加強
			제3절 北宋中期的社會危 機和改革
			제4절 遼西夏的建立和宋 遼夏的和戰
			제5절 金的建立與宋金的 和戰
			제6절 元朝的建立和統一 多民族國家的發展
			제7절 遼宋夏金元經濟的 發展與對外經濟 交流
			제8절 五代遼宋夏金元時 期的文化

封建社會(5)- 統一的多民族國家的 鞏固和封建制度漸趨 衰落-明清(牙片戰爭 以前)	제1장 明朝的政治經濟和 對外關係	제6장 統一的多民族國 家的進一步發展 和封建社會由盛 而衰-明清(阿片 戰爭以前)	제1절 明朝的建立和專制 制度的加強
	제2장 明末農民戰爭和 清軍入關		제2절 明朝中後期政治的 腐敗和明末農民戰 爭
	제3장 清朝前期的統治		제3절 清朝的建立和專制 主義中央集權的強 化
	제4장 明清時期的文化		제4절 明清時期社會經濟 的發展和資本主義 萌芽
			제5절 明清時期統一多民 族國家的發展
			제6절 明清時期的對外關 係
			제7절 明清時期的文化

음부터 '원시사회'가 아니라 '조국역사의 개편(開篇)'으로 시작하는 애국주의
 적인 편성을 취하고 있는 것이 주목되는데, 이 새로운 편성은 봉건사회의 발
 달과 민족융합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배합하여 편성되어 있다. 새로운 편성
 은 제1장의 제5절 춘추전국전쟁과 민족융합, 제2장 제5절 서한(西漢) 시기 변
 강 각 족(邊疆 各族)의 발전과 민족관계, 제3장 제2절 위진남북조 시기의 민족융
 합, 제4장 제6절 수당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발전, 제5장 제6절 원조(元朝)의 건
 립과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발전, 제6장 제5절 명청(明清)시기 통일적 다민족국
 가의 발전 등을 배치하여 중국이 춘추전국시대부터 명청시대까지 어떻게 민
 족을 융합하여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형성해온 것인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충만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장절 편성은 2001년도 교과서에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⁴⁾ 특히 1장의 제5절 '춘추전국전쟁과 민족융합'은 민족문제를 춘추전
 국시대부터 인지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보이는데, 불과 10년 사이에 중국 역
 사교과서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키워드로 하는 현저히 민족주의적인 경

향이 짙은 교과서로 변해버린 인상을 준다. 물론 1980년대 교과서에도 큰 구분으로 민족융합이나 통일적 다민족국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러나 세부의 장절에까지 노골적으로 민족문제를 언급하지는 않고 계급과 민족 두 개의 주축에 입각한 사관을 견지하려고 하였던 것인데,⁵⁾ 중국 역사교과서는 갈수록 계급보다는 민족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 참고로 1990년대의 교과서에서는 아직도 계급과 민족 두 개의 주축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이 남아 있다. 가령 위진남북조의 도입부분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동한 말년 각 군사집단은 할거하여 혼전을 벌였고, 국가는 분열되고 사회는 혼란에 빠져 최후에 위, 촉, 오 삼국이 정립되는 국면을 형성했다. 곧 사마씨의 위왕조를 대체하고 서진왕조를 건립한 후 중국을 통일했지만 잠시 후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의 격화로 서진은 급속히 멸망하고 말았다. 사마씨의 황실은 후에 강남에서 동진 정권을 건립했다. 흉노, 선비, 저, 갈, 강 등 소수민족은 선후하여 북방에서 16개의 할거정권을 건립하여 동진과 16국 대치의 국면을 형성했다. 삼국·양진 시기에는 관도, 적벽, 비수의 전투 등 세 차례나 소수가 다수를 이기는 저명한 전투가 일어났다. 남조시기에는 남천

- 4) 人民教育出版社歷史室 編著(2001), 『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校科書 中國歷史』 제 1책, 人民教育出版社.
- 5) 박영철(2003),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사서술과 그 인식」, 『한국사론』 38 참조.
- 6) 한편 岳麓出版社와 人民出版社의 교과서는 1990년대 이래 새롭게 등장한 문명진화사관을 취하고 있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문명진화사관이란 유물사관에 의한 5종 사회형태에 의한 시대구분이 중국의 사회발전 상황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국 문명 진화의 특유한 여정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시대구분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때 중국 문명이란 물질문명, 정신문명, 정치문명, 제도문명 등이 진화한 역사를 의미한다. 혹은 이러한 문명진화사관의 출현을 19세기 말 梁啓超 등의 史學革命(‘新史學’), 20세기 중엽 范文瀾 등의 유물사관에 이은 중국 역사학계의 혁명적 변화라고 지칭하기도 할 정도로 중국 역사교과서의 서술은 변화하고 있다. 김유리(2008), 「중국 고등학교 역사과정표준에 따른 『역사』 실험교과서의 서술내용 분석」, 『역사교육』 105 참조.

한 북방 노동인민과 남방 노동인민의 공동개발로 강남 경제에 큰 발전이 있었고, 북방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사족지주는 이 시기에 정치·경제 등 방면에서 특수한 지위를 점유하여 부패한 기생계층을 이루었다. …… 북방에 출현한 민족대융합의 추세는 북위 효문제의 개혁을 촉구시켰고 개혁은 다시 민족대융합의 과정을 가속시켰다.⁷⁾

이에 비해 2009년판의 도입부분은 다음과 같다.

삼국, 양진, 남북조 또는 위진남북조는 중국 고대사상 국가분열과 민족대융합의 시기이다. 적벽대전은 삼국정립의 기틀을 마련했다. 삼국의 정치·경제·외교는 각각 특색 있고 생기가 충만했다. 서진 통일국면은 잠깐이었으며 서북방면의 소수민족이 대량으로 內遷했다. 동진, 남조 시기에 강남은 어느 정도 개발되기에 이르렀다. 북조 때 황하유역의 각 민족은 상호 교류하여 융합국면이 출현했다. 동일시기의 외부세계의 변화도 거대했다. 강대한 로마제국은 분열했고, 이후 서로마제국이 멸망하고 프랑크왕국이 건립되면서 유럽은 봉건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페르시아의 사산왕조가 강대해지고 인도의 굽타왕조가 인도 대부분을 통일해 인도도 봉건화 과정을 시작했다. 조선은 '삼국' 시대에 있었고, 일본 야마토조정[大和朝廷]은 기타 각 부를 정복하고 통일적인 야마토국가를 건립하기 시작했다.⁸⁾

양자를 비교하면 1990년대 교과서의 기술에서는,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의 격화로 서진은 급속히 멸망하고 말았다”, “남천한 북방 노동인민과 남방 노동인민의 공동개발로 강남 경제에 큰 발전이 있었고”, “사족지주는 이 시기에 정치·경제 등 방면에서 특수한 지위를 점유하여 부패한 기생계층을 이루었다”

7) 人民教育出版社歷史室 編著(1992), 『高級中學課本 中國古代史(選修)』, 人民教育出版社, 74쪽, 제10장 ‘三國和兩晉’ 도입부 및 85쪽 제11장 ‘남북조’ 도입부.

8) 『中國古代史』, 52쪽 도입부.

는 등 계급사관을 중시하는 기술이 눈에 띈다. 강남의 개발도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남천한 북방 노동인민과 남방 노동인민의 공동개발이었다는 점을 교과서가 강조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비해 현재의 교과서에서 이런 표현이 보이지 않고 소수민족의 대량 내천(內遷)과 각 민족이 상호교류하여 융합 국면이 출현했다는 온건한 기술, 그리고 당시에 있어서 세계사의 동향을 배정한 것은 기존 교과서에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면이다. 이하 구체적으로 위진 남북조수당사 부분을 대상으로 중국 역사교육 서술의 지향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III. 위진남북조의 민족융합과 5호 문제

갈수록 민족을 강조하는 교과서 서술의 경향을 잘 반영하는 부분이 인민교육출판사판 『중국고대사』의 제3장 제2절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시기의 민족융합’일 것이다. 위진남북조수당사 부분은 중국 역사교과서가 자국의 역사에 대해 가장 강조하는 것이라고 해도 좋을 중국사의 특징인 ‘통일적 다민족국가’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의 역사로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 같다. 이 절에는 ‘소수민족의 내천(內遷)’, ‘북위 효문제의 개혁’, ‘민족대융합의 출현’이라는 세 개의 꼭지가 배치되어 각각이 전후하여 인과관계를 이루어 민족융합이 자연스럽게 설명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우선 ‘소수민족의 내천’에 대해 살펴보자.

소수민족의 내천 : 동한, 위진 시기에 우리나라의 북부와 서북부의 소수민족은 끊임없이 내천하고 있었다. 내천한 민족에는 흉노, 선비, 갈, 저, 강 등

의 족이 있었는데 역사상 “五胡”라 칭한다. 그들은 지금의 감숙, 섬서, 산서에서 하북, 요령 남부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거주하며 서진 통치자의 잔혹한 착취와 압박을 당했다. 그들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군인도 되어야 했고 심지어 掠賣당해 노비가 되기도 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파산된 후 유민으로 전락했다. 그들은 漢族 인민과 날이 갈수록 깊은 관계를 가졌지만 대다수는 자신의 언어와 습관과 부락조직을 보존했다. 서진 말기에 전란이 빈번해지고 중원의 인구가 격감하자 소수민족의 내전 속도도 빨라졌다.⁹⁾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선 ‘5호(五胡)’ 대신 ‘소수민족’이라는 용어를 교과서가 쓰고 있다는 점이다. 5호를 소수민족으로 치환하는 것은 현재의 정치적 입장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좋은 일례이다. 소수민족이란 용어는 현재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55개의 소수민족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것으로써 과거의 5호를 지칭하는 것은 역사왜곡을 초래하기 쉽다. 말할 필요도 없이 당시 중원을 휩쓸었던 중원의 지배자로서의 5호의 역사적 실체는 현재 중국 한족에 복속된 말 그대로 소수민족인 이들과 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소수민족에 비해 1990년대의 교과서에 쓰인 ‘각족 인민(各族人民)’이라는 용어가 훨씬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해줄 것이다.¹⁰⁾ 1990년대의 교과서 서술을 여기에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민족융합추세의 출현 : 북위가 황하유역을 통일한 후 各族人民은 공동으로

9) 『中國古代史』, 56쪽.

10) ‘소수민족’ 외에 소수민족의 ‘內遷’이라는 용어에도 주의하고 싶다. 왜냐하면 內와 外도 중국의 중원을 중심으로 해서 변방에 사는 소수민족이 중원을 흡수해서 ‘귀순’하는 식의 무언가 한족 중심의 가치관이 담겨 있는 용어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가령 ‘移住’라면 훨씬 객관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하고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민족대융합의 추세가 출현했다. 북방 각족 인민은 점점 원래의 유목생활을 바꾸어 선진 농업생산기술을 배워 농업정주민이 되었다. 漢族 인민도 각 형제민족의 목축업 경험을 배워 생산지식을 풍부하게 제고시켰다. 그들은 또한 각 족 통치자의 착취와 압박에 반항하는 투쟁에서 연대와 우의를 강화시켰다.¹¹⁾

소수민족이 아니라 각족 인민이라는 용어를 쓰면 그 역사적 상황도 한족 인민과 대등한 관계로 보다 객관적으로 기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어의 문제와 함께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는 5호에 대한 평가 문제이다. 이는 북위 효문제의 개혁과 관련된 것이다. 우선 2009년 교과서의 효문제의 개혁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자.

북위 효문제의 개혁 : 북위 효문제 때 吏治가 혼란하고 재정이 곤란해져 북부는 유목민족의 무력 위협을 받았다. 동시에 각 족이 장기적으로 교류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북방에는 민족대융합의 추세가 출현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하에서 북위의 통치자는 일련의 개혁을 진행했는데, 주요 개혁은 다음과 같다…… 네번째로 漢族문화의 학습이다. 낙양으로 천도한 이후 효문제는 한족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따르고 선비인들에게 한어를 배워 민족 간 교류의 언어장해를 제거할 것을 제창했다. 또한 선비의 복성을 한자의 단성으로 고치고, 목 좁고 소매 짧은 胡服을 입는 것을 금하고, 남조의 복장을 모방해 관리와 부녀의 관복을 제정하고, 한족과 통혼할 것을 제창했다. 북위 효문제는 우리나라 역사에 공헌을 한 정치가·개혁가이다. 그는 역사의 발전조류에 순응하여 예의를 개혁하고 일련의 민족융합을 촉진하는 조치를 채택하여 선비족의 봉건화를 촉진하고 각 민족의 융합을 위한 조건

11) 『高級中學課本 中國古代史』, 88쪽. 이 교과서가 같은 면에서 효문제는 우리나라 고대의 걸출한 소수민족 정치가·개혁가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태도이다.

을 만들었다.¹²⁾

또한 1990년대 교과서는

북위 효문제의 개혁은 북방 각 족의 봉건화의 과정을 가속시켰고 북방민족의 대융합을 촉진했다. 효문제는 우리나라 고대의 걸출한 소수민족 정치가·개혁가이다.¹³⁾

라고 서술한다. 1990년대 교과서에 이미 효문제가 중국 역사상 소수민족의 정치가·개혁가로서 한 인물로 자리매겨져 있다는 것이 주목되는데, 1980년대의 교과서는 이와 약간 달리 서술되어 있어 주목된다. 그 서술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한족의 선진문화를 접수하고 황하유역의 한족 대지주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494년, 북위 효문제는 낙양으로 천도했다. 그는 또한 선비귀족이 한족의 성을 채용하게 하고 한족과 통혼하게 하고 한족의 복장으로 갈아입게 하고 한어를 배우게 했다. 북위는 또한 한족 통치계급의 정치제도를 채용했다. 북위 효문제의 개혁은 당시 북방 각 소수민족 봉건화의 과정을 가속화하고 북방민족의 대융합을 촉진했다.¹⁴⁾

현재의 교과서에 따르면 효문제의 낙양 천도는 단순히 선진 한족 문화를 학습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전 교과서에 따르면 이처럼 “황하유역의 한족 대지주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계급적인 이익이 내포되어 있는

12) 『中國古代史』, 57쪽.

13) 『高級中學課本 中國古代史』, 88쪽.

14) 陳光中·臧麟 編(1981), 앞의 책, 120쪽.



것이였다.¹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급사관이 농후한 서술도 북위 효문제의 개혁에 대해 북방민족의 대융합을 촉진했다고, 적어도 민족융합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이것은 계급주의 사관이 농후한 1980년대의 교과서와 민족주의 성향이 농후한 현재의 교과서가 이렇게 서술의 경향이 미묘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통일적 다민족국가'라는 중국의 국시적(國是的) 명제에 투철히 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교과서의 민족주의적 기술 성향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미 중화민국의 성립과 더불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가령 1913년에 출간된 『공화국교과서 본국사(共和國教科書 本國史)』는 '선비족이 중국에 동화되다'라는 절을 편성하고,

효문제는 스스로 胡俗을 비루하다 여기고 華風을 깊이 사모한 참으로 漢晉 이래의 대개혁가이다. 논자는 그가 옛날의 強武함을 망각하고 유약한 풍조에 휩쓸려 국세가 쇠퇴하는 씨앗이 여기에서 싹텄다고 하지만, 그러나 효문제가 平城을 버리고 낙양으로 옮긴 것에 대해 말한다면 형식상의 문제라면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효문제 후의 국정 혼란은 宣武帝와 胡后(靈太后)가 내정을 번갈아 하면서 일으킨 것일 뿐이다. 비루한 누습을 개혁하고 문명화한 것이 어찌 효문제의 잘못인가? …… 선비족이 중국에 동화한 것은 효문제의 공이 크다.¹⁶⁾

15) 1990년대 교과서에는 “한족의 선진문화를 접수하고 황하유역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494년, 효문제는 귀족대신의 반대를 뿌리치고 낙양으로 천도했다”고 되어 있다. 『高級中學課本 中國古代史』, 88쪽.

16) 趙玉森(1913), 『共和國教科書·本國史』上卷, 上海: 商務印書館, 50쪽; 劉超(2007), 『“五胡亂華”和“孝文帝改革”: 事件, 敘述與認同—以清末民國時期中學中國歷史教科書爲中心』, 『安徽大學學報』5, 哲學社會科學版에서 인용.





라고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저자가 반박한 논자의 의견이란 중화민국이 건국되기 전인 1907년에 출간된 서념자(徐念慈)의 『중국역사강의(中國歷史講義)』나 여서정(呂瑞庭)의 『신체중국역사(新體中國歷史)』에 개진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한다.

효문제는 仁孝하고 학문을 좋아했다. 馮太后 사후 문제가 친정하면서 예악을 일으키고 제도를 정하니 후위의 문물이 비로소 볼 만한 것이 있었다. 문제는 그 국속이 비루한 것을 싫어하여 낙양으로 천도하고 국성을 元氏로 고치고 호어와 호복을 금하고 종실과 중국의 각 족이 결혼하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사치롭고 유악한 풍조가 점차 유행하여 국세가 쇠퇴해지는 조짐이 나타났다.¹⁷⁾

(효문제의 개혁에 대해서) 종실과 훈구 중에서 반기지 않는 자들이 많았다. 혹은 호복을 입고 몰래 옛 수도로 돌아가려는 자도 있었고 혹은 舊土를 그리워하여 반란을 꾀하는 자도 있었다. 당시 북위의 세력이 극성하다고 하였지만 날래고 용맹한 기풍은 점차 사라졌고 많은 우환만 남기게 되었다.¹⁸⁾

이처럼 1907년에 출간된 교과서들이 북위 효문제의 개혁에 대해 북위의 국력이 약화되는 계기로 설명하고 있었던 것은 주목해야 할 점이다. 효문제의 개혁은 단순히 북위왕조의 내정 차원에서 설명되고 있고 그것은 한족과 북방 민족 간의 융합과는 무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교과서가 서술된 시대적 상황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시 말해 1912년에 일어난 중화민국의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교

17) 徐念慈(1907), 『中國歷史講義』, 上海: 宏文官, 69쪽. 劉超(2007), 앞의 글에서 인용.

18) 呂瑞庭(1907), 『新體中國歷史』 권3, 上海: 商務印書館, 29쪽; 劉超(2007), 앞의 글에서 인용.



과서 서술방식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즉
민국 성립 후의 오족공화(五族共和)의 이념은 이전의 한족을 위주로 하는 교과서
서술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면적 비판을 가하게 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전에는 漢族을 위주로 하였고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 (새로운 교과서는) 五族共和를 강령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滿, 蒙, 回, 藏 4족의 흥륭과 진화 및 세력의 분합 등에 대해서는
모두 빠짐없이 찾아 현세에 부합해야 한다. 漢族과 접촉 충돌하는 곳은 모
두 평등하고 절대 우열이 없어야 하며 오족연합의 감정을 빌려 함께 융합
한다.¹⁹⁾

이 새로운 강령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전에는 한족(漢族)을 위주로
하였고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하는데, 이것은 가령 중국 최초
의 신식 통사라고 평가받는 청말에 출간된 하증우(夏曾佑)의 『최신중학교과서·
중국역사(最新中學教科書·中國歷史)』의 서술을 지칭한 것인데, 하증우는 5호와 관
련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劉聰이) 僞位에 즉위하여 그 무리 呼延晏, 王彌, 劉曜에게 남침을 명하니
晉의 군대는 모두 패하였다. 오랫동안 낙양을 포위하더니 이를 함락시키고
병사를 풀어서 크게 노략질하고 천자(懷帝)를 포로로 잡고 태자와 백관 이하
3만여 명을 살해하고 洛水 북쪽에 시체를 높이 쌓았다. 황제를 平陽에 옮긴
후 유충이 황제에게, “경의 집안의 골육상잔은 어찌 그리 심하오?”라고 물
으니, 황제가 “이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늘이 폐하를 위해 서로 없애도록
시켜서 한 것일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유충이 다시 황제에게 술을 따르도

19) 鍾毓龍(1915), 『新制本國史教本』 제1책, 上海：中華書局, 1쪽；劉超(2007), 앞의
글에서 인용.

록 하자 庾珉과 王隽이 일어나서 통곡하였다. 유충이 드디어 황제를 시해하고 庾珉 등도 함께 죽었다. 愍帝가 장안에서 즉위하자 유충은 다시 유요를 시켜 장안을 함락시키고 황제를 잡아 平陽으로 돌아갔다. 유충이 晋의 뜻을 살피려고 황제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술잔을 씻게 하고 옷을 갈아입히게 하고 또 황제에게 일산을 받쳐 들게 하자 많은 사람들이 흐느껴 울었고 혹은 실성하는 자도 있었다. 辛賓이 일어나 황제를 안고 통곡하니 유충은 다시 황제를 시해하고 辛賓 등도 함께 죽었다.²⁰⁾

흉노족이 중국을 침입해 서진(西晉)을 멸한 후 벌어진 망국의 처참한 비극적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이 문장을 보고 흉노족과 한족의 민족대융합을 운운할 독자는 없으리라. 하중우의 5호에 관한 관점은 중국 최초의 근대적 교과서로 영향을 끼친 일본의 이시무라 산지로(市村瓚次郎), 구와바라 지쓰조(桑原鷲藏)의 서술과 같은 관점으로, 5호의 역사는 서진을 멸망시키고 중원 인민을 약탈하고 중국 문화를 파괴한 것으로 요약되는데, 민족 성립 전의 청말에 매우 영향력이 컸다고 한다.²¹⁾ 청말에 이러한 관점의 역사교과서가 유행한 것은 유초(劉超)가 잘 지적한 대로 청말의 민족주의가 한족 중심의 종족적 민족주의였기 때문일 것이다.²²⁾

바꾸어 말하면 국민당의 전신인 중국혁명동맹회의 멸만흉한의 구호하에서

- 20) 夏曾佑(1906), 『最新中學教科書·中國歷史』 제3책, 上海: 商務印書館, 40쪽; 劉超(2007), 앞의 글에서 인용.
- 21) 그러나 5호 자체에 대해서는 일본과 중국의 시각 차이가 있음은 흥미로운 점이다. 즉 劉超(2007), 앞의 글에 따르면 市村瓚次郎과 桑原鷲藏은 5호를 중국과 대등한 별개의 나라로 간주하는 데 비해, 夏曾佑는 5호의 침입을 마치 황건적의 난과도 같은 국내적인 소란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앞서 5호를 소수민족으로 치환하는 데 대해 비판한 바 있었지만, 5호와 민족융합을 연결시켜 보지 않는 夏曾佑의 관점에서 5호가 소수민족과 치환되는 논리가 발견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 22) 劉超(2007), 앞의 글 참조.

는 민족융합이라는 입장에서의 역사서술은 존립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신해혁명 이후 중화민국이 건국된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져서 오족공화의 이념이 제창되기 시작했고 그때까지 파괴적으로만 다루어져왔던 5호의 증원 침입은 민족융합을 위한 하나의 역사적 수단으로 서술되기 시작한다. 가령 다음과 같은 서술을 보자.

5胡의 소란으로 황하 남북 우리 선조 대대로 경영해온 구역, 우리 천백 성현들이 창조해온 사회 예속이 모두 여러 민족들에게 친숙한 것이 되었다. 형식상으로 말하자면 소부분 파괴를 면치 못한 것은 있으나 정신상으로 말하자면 대부분 모두 자국을 받고 크게 느껴 서로 전하여 화합한 것이다. 이에 五族의 발달은 일보 증진하였다. 무릇 우리 국민은 앞의 역사에 대해 마땅히 선민이 이루어놓은 바를 느껴 크게 빛낼 길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²³⁾

5호에 의한 증원의 파괴는 형식이요 오족의 화합은 정신이라는 이 관념적인 서술은 앞서 인용한 하중우의 처참한 설명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민국 성립 전후의 종족적 민족주의와 국민적 민족주의 사이의 괴리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전달해준다. 어쨌든 오족공화를 이념으로 추구하는 국민적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교과서 서술은 이후 주류적 흐름이 된 것 같다. 그리하여 효문제의 개혁은 이제 청말의 교과서에서처럼 단순한 내정개혁이 아니라,

孝文帝는 북위의 한 걸출한 인물이다. 낙양으로 천도하고 北語를 중단하고 族姓을 개정하고 胡服을 금지하고 漢人과 통혼하고 학교를 일으키고 제도를 개정하였다. 이후부터 선비족은 한족과 동화하였다.²⁴⁾

23) 趙玉森(1913), 앞의 책, 53쪽; 劉超(2007), 앞의 글에서 인용.

24) 呂思勉(1990/1923), 『白話本國史』 2편,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44쪽.



라는 여사면(呂思勉)의 서술처럼 한족과의 동화라는 관점에서 서술되는 것이다. 이미 말한대로 5호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서술 배경에는 오족공화라는 국민적 민족주의가 시대적 이념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이념은 자칫 애국주의를 사실 속에 불어넣음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기 쉽다. 가령 1928년의 한 역사교과서가 효문제 시기에 대해,

拓拔魏는 태무제 燾가 북방을 통일한 이후 삼진하여 효문제 宏에 이르러 北鄙의 平城에서 낙양으로 천도하여 학교를 일으키고 균전을 만들고 유술을 숭상하고 胡俗을 버리고 모든 것을 漢制에 따라 고쳤다. 실로 魏의 극성시대였다.²⁵⁾

라고 하면서 효문제 시기가 북위의 극성시대였다고 서술한 것은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효문제의 친중화적인 개혁은 북위의 융성을 가져오기는 커녕, 나라를 뒤흔드는 내분을 가져와 효문제 사후 일 세대만에 결국 북위의 망국을 초래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효문제의 호한융합(胡漢融合) 정책은 결코 20세기 중화민국의 오족공화와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중화민국 성립 이후 민족통일을 선포하고 아울러 법률적 형식으로 민족평등을 규정하면서 어떻게 중국 경내 각 민족을 하나로 포괄하는 새로운 국가인식을 구축하느냐가 필수적인 문제가 되어왔다고 유초가 날카롭게 지적했듯이²⁶⁾ 중화민국이란 법률적 형식에 의해서 갑자기 생겨난 근대적 국민 국가이고 오족공화는 이 근대적 국민국가의 정신이 되어야 할 그 무엇이였다. 이러한 근대적 법률형식에 의해 생겨난 국민국가인 중화민국과 근대적 민족

25) 金兆梓(1928), 『初中本國史』 제1책, 上海：中華書局, 72~77쪽；劉超(2007), 앞의 글에서 인용.

26) 劉超(2007), 앞의 글, 121쪽.



평등의 이념을 담은 오족공화를 효문제의 일방적 한화정책과 동일시하는 것은 시대착오에 불과할 것이다.

이미 앞에서 5호 자체에 대해서도 일본인 사가와 중국인 사가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다고 밝혀두었지만 5호는 민국시기의 오족공화의 개념으로 간단히 해석하기 어려운 복잡한 역사적 실체인 것이다. 북위 효문제 개혁에 대해서는 효문제를 비롯한 동시대의 당사자의 입장에서의 역사적 이해의 추구가 더욱 많은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역사교과서가 역사적 사실의 정확한 전수와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민족주의 이념의 선전도구로 교묘히 전락되는 장면을 계속 보게 될 것이다.

효문제의 개혁이 사실은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내포한 것이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마지막 꼭지인 ‘민족대융합의 출현’에서는 효문제의 개혁이 없이도 민족대융합이 달성된 것으로 이해되도록 서술되어 있다.

민족대융합의 출현 : 동한 말년 이후 끊임없이 증원으로 천거한 흉노, 선비, 갈, 저, 강 등 소수민족은 한족과 400년쯤의 통혼잡거를 통해서 서로 배우고 생산하여 상보하고 북조 말년에 이르러 호한의 차이는 점점 사라져 민족대융합을 실현했다. 그때 소수민족은 한족문화를 학습한 것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봉건화를 촉진했고, 봉건화는 또한 민족 간의 융합에 유리했다. 민족융합의 실현은 수당시기의 통일과 번영의 조건을 마련했다.²⁷⁾

호한이 서로 도와 민족융합을 실현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소수민족이 한족문화를 학습한 것이 민족융합을 촉진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은근히 한족문화의 우월성을 고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경향은 다른 예에서도 발견된다.

27) 『中國古代史』, 58쪽.

남북조 후기에 한 남조 관원이 낙양에 와서 북방민족이 융합된 후의 국면을 보고 감개무량하여 말했다. “우리들은 늘 장강 이북은 전부 조야하고 낙후한 夷狄의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보고 비로소 북방이 예의가 모두 갖추어져 있고 인재가 수두룩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관과 사족은 모두 중원에 있군요.”²⁸⁾

교과서는 “남조 관원이 낙양에 와서 북방민족이 융합된 후의 국면을 보고 감개무량하여 말했다”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인용한 남조 관원의 말 어디에서도 북방민족이 융합한 흔적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다. 오히려 남조 관원의 말에서는 북방 이적(夷狄)에 의해서 무력으로 정복된 땅이니만큼 옛 중원문화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그렇지 않고 중원문화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놀랐다는 것을 읽을 수 있는데, 요컨대 호한의 융합이라기보다는 호족(胡族)의 한화(漢化) 현상이 서술되고 있을 뿐인 것이다.

한편 상해 지구에서 쓰이는 화동사범대학출판사 판 교과서에서도 남북조 시기는 민족융합의 중요한 시기로서 ‘남북대치여민족융합(南北對峙與民族融合)’이라는 한 과를 설정하여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인민교육출판사보다 노골적으로 통일적 다민족국가와 함께 그 배경에 있는 중화민족의 우수성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여기에 인용해보기로 하자.

중국은 옛날부터 다민족국가이고 중화민족의 부단한 성장은 바로 각 민족의 교류와 융합 중에서 실현된 것이다. 16국 시기에 內遷한 북방소수민족과 한족은 중원지구에 같이 섞여 살면서 빈번하게 접촉하고 교류하게 되어 민족융합의 발걸음을 가속시켰다. 북방소수민족의 사회, 경제, 문화가 상대적으로 낙후하기 때문에 선진의 한족 문화를 인정하고 접수하는 것이 융합의

28) 『中國古代史』, 58쪽.

중요한 한 측면을 형성했다. 많은 胡族 군주들이 힘써 농경을 장려하고 漢의 정치제도를 채용하고 漢籍을 습득하고 儒學을 제창하여 漢문화의 영향을 깊게 만들었다.²⁹⁾

이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가하여 중국 역사상의 민족융합 시기로 제1차 고조기(高潮期)로 춘추전국시기를 들고 다음 제2차 고조기로 위진남북조시기를 들면서 앞서 말한 16국 중의 호족 군주들의 구체적인 예로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고 있다. 즉 흉노족의 유연(劉淵)이 중국의 고전에 밝았다는 사실과 함께 한족 유사(儒士)를 고관에 임용했다는 것, 갈족(羯族)의 석륵(石勒) 또한 한족 사인 장빈(張賓)을 임용하고 농상을 장려하고 유학을 제창하고 학교를 설립했다는 것, 저족(氐族)의 부견이 왕맹(王猛)을 중용하고 한족 제도로서 정치를 개혁하고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점 등을 열거한다. 이어서 북위 효문제 시기는 민족융합이 더욱 새로운 고조를 맞게 된다고 설명한다. 효문제가 친정하기 전에는 조모 풍(馮)태후의 섭정으로 삼장제와 균전제 등의 개혁이 이루어졌고 풍태후의 사후에는 효문제의 친정으로 전면적인 한화 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유명한 사실이다.

교과서는 효문제가 낙양 천도를 단행한 이후 행한 한어 사용, 한복 착용, 성씨 개정, 관제 개편, 율령 제정, 호한(胡漢) 통혼, 공자 존숭, 예제 실행 등에 대해 기술하고 풍태후와 효문제의 개혁이 민족융합의 진행을 가속화시키고 북방소수민족의 사회, 경제, 문화를 진보시키는 데 중대한 공헌을 했다고 기술한다.³⁰⁾

그러나 어떻게 진보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주목되는 것

29) 『高級中學課本 高中歷史』第二分冊(試驗本),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7, 47쪽.

30) 『高級中學課本 高中歷史』第二分冊(試驗本), 48쪽.

은 이어지는 다음과 같은 설명인데, 소수민족의 일방적인 한족 문화 수용이라는 기술방식에 부담을 느꼈는지 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민족융합은 언제나 쌍방향적이다. 북방유목민족의 용맹한 민족성이 중원농경민족에 깊은 감동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호족 문화의 우수한 부분도 한문화에 널리 흡수되었다. 목축 생산기능과 경험이 수입되어 중원경제가 다양하게 발전하도록 자극을 주었고, 호족의 생활습속은 한족에게 더 심원한 영향을 미쳤다. 胡床의 전래는 발 달린 가구의 유행을 낳아 결국 한족의 앉아서 생활하는 전통적인 기거방식을 완전히 개변시켰다. 胡服과 胡餅, 치즈, 불에 구운 고기 등 胡食의 유행은 사람들의 사회생활을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해주었다. 胡樂과 胡舞는 한족의 가무와 융합하여 전통예술문화에 현란한 색채를 더해주었다.³¹⁾

설명대로 민족융합은 언제나 쌍방향적일 것이고 여기서의 설명 또한 별 무리가 없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한 가지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호족의 한족 문화 수입방식에 대해서는 늘 후진이 선진을 채용해서 발전에 영향을 받았다는 식인 데 비해서 한족의 호족 문화 수입방식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쳤고, 변화를 주었고, 색채를 더해주었다는 식의 기술방식이다. 호족, 즉 소수민족은 열등민족이고, 한족은 우등민족이라는 절대 부동의 입장에서 교과서가 서술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것은 중국의 국시와도 같은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서술태도가 아닐까 우려된다. 호족과 한족이 요컨대 유목과 농경이라는 서로 다른 생활양식을 갖고 있는 별개의 민족집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상대

31) 『高級中學課本 高中歷史』 第二分冊(試驗本), 이어서 앉는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자세하게 가해지고 있는데, 北齊 시기의 '校書圖' 중에 보이는 胡床까지 삽화로 제시하는 친절을 보여준다.

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한다면 선진과 후진의 방식으로 문화융합을 서술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통일적 다민족' 국가관의 배경에 있는 한족 우월주의의 그림자가 여기에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족융합은 언제나 쌍방향적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중국의 소수민족을 대하는 입장에서는 늘 한족 우월주의가 잠재되어 있는 전형적인 사고방식의 일례로서 바로 이 화동사범대학출판사판에 소개되어 있는 유명한 제갈량(諸葛亮)의 칠종칠금(七縱七擒)의 고사를 소개해보자. 인민교육출판사판이 삼국시기 촉(蜀)과 오(吳)의 소수민족과의 관계에 언급하면서 민족융합을 촉진하였다고 간략히 기술하는 데³²⁾ 비해 화동사범대학출판사 판은 매우 적극적으로 삼국의 민족융합을 기술한다. 즉 “제갈량은 또한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남중(南中) 8군(지금의 운남성 귀주성과 사천성 서남부 지구)을 개발하는 데 힘을 쏟았고, 방법을 생각하여 산지운송의 낙후한 모습을 개선시켰다. 제갈량의 여러 가지 조치는 서남지구의 경제발전과 민족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하면서 칠종칠금의 고사를 소개하고 있다.

諸葛亮的七縱七擒 고사는 후세에 널리 알려져 있다. 南中 지구의 소수민족 수령 孟獲이 한왕조에 반란을 일으키자 諸葛亮은 마음을 공략하는 방책을 상책으로 삼아 일곱 번 맹획을 잡아 일곱 번 풀어주었다. 결국 마음속으로 제갈량에게 깊이 감복한 맹획은 다시는 이반하지 않겠다면서 진심으로 말하기를 “공의 위엄은 신과 같아서 南人은 다시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남중의 소수민족은 잇달아 歸附하고 당지의 사회경제는 순조롭게 개발되게 되었다.³³⁾

32) 『中國古代史』, 58쪽.

33) 『高級中學課本 高中歷史』 第二分冊(試驗本), 44쪽.

이 유명한 제갈량의 칠종칠금의 고사는 사실은 허구가 다분한 것으로서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서 이렇게 교과서에 실어도 될 것인지 의문이다. 우리는 소설 삼국지를 통해서 이 유명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정사에는 극히 간략히 기술되어 있을 뿐이다. 즉 『삼국지 촉서(三國志 蜀書)』, 「제갈량전(諸葛亮傳)」에 “건흥(建興) 3년(225) 봄, 제갈량이 군사를 이끌고 남정하였다. 그해 가을 모두 평정하였다. 군수 물자가 소출되어서 나라가 풍요해졌다”가 전부이고 배송지(裴松之) 주(注)가 인용하는 『한진춘추(漢晉春秋)』에 칠종칠금과 맹획이 심복하였다는 기사가 나오지만 소설 삼국지의 구체적인 묘사는 모두 작가의 허구일 뿐인 것이다. 제갈량의 남중(南中) 정벌은 당시 남중에 모반이 일어나서 이를 평정하고, 촉(蜀)에 필요한 물자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지역은 서남이(西南夷)라고 불리던 묘족(苗族), 요족(瑤族), 로로족 및 타이, 미얀마 계통의 소수민족이 잡거하던 곳으로 한무제 때 한족의 지배에 들어갔던 곳이었는데, 한의 부패한 관리와 현지 호족의 수탈로 백성들이 여러 차례 반란을 일으켰던 곳이다. 그런데 이 칠종칠금 끝에 이루어진 남중 정벌은 결코 평화롭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즉 『한진춘추』에 따르면 당시 제갈량은 남중을 평정한 후 현지에 주둔병을 남기지 않고 남중을 현지인의 자치에 맡겼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이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제갈량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한족을 남기게 되면 군대를 주둔시켜야 되고 군대를 주둔시키게 되면 식량을 공급할 수가 없어서 곤란하다. 둘째, 이번 반란으로 夷人에게 많은 사상자가 생겼는데, 한족을 남기고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으면 민족분쟁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니 곤란하다. 셋째, 夷人이 누차 반란죄를 지어 스스로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한족을 남기게 되면 결코 신뢰하지 않을 것이니 곤란하다. 지금 내가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고 식량을 운반시키지 않는 것은 기강이 대개 잡혀졌고 夷族과 漢族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기 때

문이다”라고 답했다.³⁴⁾

제갈량의 대답에서 보듯이 남중 정벌과정은 평화롭게 진행된 것이 아니었으며 제갈량은 한족과 이족의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칠종칠금의 화려한 고사 뒤에는 정사(正史)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를 통해서 확대되어 그려진 제갈량의 영웅적인 면모와 현재의 교과서에서까지도 계승되고 있는 소수민족의 한족 영웅에 대한 진정한 감복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의 강자에 의한 약탈과 약자의 보복이라는 어두운 악순환의 그림자를 상정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군수 물자가 소출되어서 나라가 풍요해졌다”는 것은 그 증거이겠거니와 또 하나의 증거로서 축이 위급할 무렵 남중으로 천도 하려고 생각한 후주 유선에 대해서 초주(譙周)가

공명이 남정을 한 후에 남중의 백성은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고 병력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나라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가서 의지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반란을 만날 수 있습니다.³⁵⁾

라고 반대한 것도 남중 정벌의 칠종칠금의 실상을 전달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점에서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 운남의 소수민족에게 전해져 오는 칠종칠금의 고사이다. 칠종칠금은 말할 필요도 없이 제갈량이 맹획을 사로잡은 이야기로 알려져 있지만 운남 소수민족의 칠종칠금은 거꾸로 맹획이 제갈량을 칠종칠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³⁶⁾ 이렇게 운남 소수민족에게

34) 「諸葛亮傳」, 『三國志 蜀書』, 建興 3年春, 注 2).

35) 「譙周傳」, 『三國志 蜀書』.

36) 鄧拓(1962), 「三種諸葛亮」, 『燕山夜話』 4集 참조.

는 제갈량이 조롱의 대상으로 여겨져왔다면 역사교과서의 칠종칠금의 고사는
은남 소수민족에게는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임이 틀림없다.

제갈량의 칠종칠금 고사에 비판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비슷한 문제로
긍정적으로 주목되는 것이 인민교육출판사에서 출간된 선수 과목으로 6책의
주제별 교과서 중 제1분책 『역사상중대개혁회모(歷史上重大改革回眸)』에 실린 북
위 효문제의 개혁에 관한 부분이다. 이것은 본문이 아니라 본문 후에 ‘탐구학
습총결(探究學習總結)’ 난의 토론방[爭鳴]에 실린 것이다. 역사상 중대한 개혁을 회
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분책에는 중국 외의 것으로는 아테네의 솔론
의 개혁, 유럽의 종교개혁, 이집트의 무하마드 알리의 개혁, 러시아의 농노제
개혁, 일본의 명치유신이 배열되어 있고, 중국의 것으로는 상양의 변법, 북위
효문제의 개혁, 왕안석 변법, 무술변법이 배열되어 있는데, 북위 효문제의 개
혁이 ‘소수민족’의 자발적 한화정책으로서 민족융합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은 앞서 분석한 같은 인민교육출판사의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서술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본문은 아니지만 토론의 형식을
빌려 효문제 개혁의 역사적 실상의 진실에 접근하는 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爭鳴：

효문제 개혁의 의의에 대해 학술계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다른 의견도 적지 않다. 499년 효문제가 세상을 떠난 후 북위는 내
부동란이 끊이지 않게 되었고 20여 년 후에는 6진의 반란이 폭발했다. 다
시 10여 년 후에 북위는 동위와 서위로 분열해 실권은 高歡과 宇文泰 등에
게 돌아갔다. 이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북위가 이렇게 된 근원은 거슬러 올
라가면 효문제의 개혁에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효문제가 平城을 버리
고 낙양으로 천도하고, 선비족의 武勇한 풍습을 버리고 한인의 문약한 풍습

을 취하여 점차 북위의 군사적 역량을 삭감시킨 것이 결국 위나라가 강성하지 못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또 효문제의 개혁이 배워온 것은 주로 한족의 단점인 부패이고 버린 것은 다름 아닌 탁발족의 장점인 용맹질박이니 이것이 북위의 쇠퇴를 가속시켰던 것이다.

이 의견에 동의하는가?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자.³⁷⁾

효문제 개혁은 한족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견 역사기술의 매우 좋은 호재일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6진의 난을 야기하고 국가를 분열과 쇠퇴의 길로 이끌었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악재가 된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1분책의 이 쟁명(爭鳴)은 건전한 역사교육의 본모습을 보여주는 보기 드문 사례로 주목된다.

IV. 수당(隋唐) 통일적 다민족국가와 소수민족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권

인민교육출판사의 『중국고대사』에 따르면 북조 말기에 민족융합이 실현된 후 수당 시기에는 통일적 다민족국가가 진일보 발전하고 안정되는 시기로 서술된다. 그러나 그 내용은 공허하다. 통일적 다민족국가는 중국 역사교과서에서 진시황 이래의 명제이지만,³⁸⁾ 2009년도 교과서는 1980년대와 1990년

37)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選修1, 『歷史上重大改革回眸』, 人民教育出版社, 2008, 43쪽.

38) 가령 1980년대의 계급투쟁사관이 농후한 교과서에서도 秦은 최초의 통일적 다민족국가였다고 서술되어 있으며[陳光中·臧嶸 編(1981), 앞의 책, 59쪽], 2009년 교과서에도 秦漢왕조는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基礎시대라고 한다(『中國古代史』, 25쪽, 도입부).

대의 교과서와 비교할 때도³⁹⁾ 특히 수당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이 시기 수당왕조를 위협했던 유목민족인 돌궐, 회흘, 토번 그리고 남조 등에 대해서는 변강의 소수민족으로 굳이 자리를 매기고 조국의 발전을 위해 공헌했다는 식으로 서술하는 태도가 눈에 띈다. 여기에 관련 부분을 인용해보자.

북방의 突厥, 回紇, 靺鞨, 서남의 吐蕃, 南詔 등은 선후하여 정권을 건립하고 조국의 변강지구를 개발했다. 교통의 발달은 중원과 변강의 왕래를 가깝게 하였고 변강지구의 경제문화의 발전을 촉진했다. 중앙왕조의 통치자 특히 당조 전기의 통치자는 비교적 개명적인 민족정책을 추진하였는데 변강 소수민족 지구에 기구를 설립하고 중앙왕조의 각 민족지구에 대한 관할을 강화하여 한족과 변강민족의 교류는 전에 없이 빈번해졌다. 당조 전기의 강역은 전에 없이 넓어져 동으로는 大海에 이르고 서로는 咸海, 동북으로는 外興安嶺, 庫頁島 일대, 남으로는 南海에 이르렀다.⁴⁰⁾

필자는 “북방의 돌궐, 회흘, 말갈, 서남의 토번, 남조 등은 선후하여 정권을 건립하고 조국의 변강지구를 개발했다”라는 식의 서술에서 역사에 대한 무감각적인 시대착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 천수백 년 전의 돌궐, 회흘, 말갈, 토번, 남조 등을 대상으로 조국을 운운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앞에서 필자는 5호를 소수민족으로 치환하는 비역사성을 비판했지만 그와 같은 문제는 여기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역사가 오랜 중국이라고 해서 과거의 당왕조를 현재 중화인민공화국과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처럼

39) 人民教育出版社의 1981년도나 1992년도 교과서의 경우 突厥이나 回紇의 발전에 대해 약간씩 언급이 있는 데 비해 2009년도 교과서는 그러한 언급 없이 소수민족에 관련된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

40) 『中國古代史』, 85쪽.

과거의 당왕조의 강력한 적수였던 돌궐이나 티베트를 제압한 후 도독부나 도호부를 설치하여 통제했다고 해서 오늘날의 소수민족과 동일시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진(秦)제국 이래의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이념에 집착하는 한 버리기 어려운 고질적인 중화적 민족주의의 유산일지도 모른다.

교과서가 “돌궐은 우리나라 고대의 소수민족이다”⁴¹⁾라고 서술하는 것은 당왕조의 강력한 적수였던 당시의 돌궐에 대한 역사적 위상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회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교과서는 회흘이 주로 당에 귀부하는 과정에 대해 서술한 다음,

8세기 후반 回紇은 回鶻로 개명했다. 9세기 중엽 回鶻汗國은 와해되어 어떤 이는 서쪽으로 이동하여 신강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維吾爾族의 조상이다. 어떤 이는 서쪽으로 이동하여 감숙성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裕固族의 조상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서쪽으로 이동하여 중앙아시아까지 이동했다.⁴²⁾

라고 회흘 또한 (중국) 고대의 소수민족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데, 이는 현재의 상황을 과거에 투영해 거꾸로 역사를 해석하고 현재를 정당화하려는,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토번에 대해서도 장족(藏族)의 조상이 건립한 한 왕조라고 서술함으로써 과거부터 토번은 미약한 소수민족정권이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토번에 대해서는 약간 사정이 다른 것이 유명한 송찬간포(松贊干布)와 당태종의 문성공주(文成公主)와의 결혼이 기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만큼 토번의 실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사건이기도 한데 특히 9세기 중엽에 토번

41) 『中國古代史』, 85쪽.

42) 『中國古代史』, 86쪽.

과 당 사이에 맺어진 회맹비가 그림과 함께 실려 있는 것은⁴³⁾ 토번을 소수민족 취급하기는 어려운 것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발해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말갈에 관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말갈과 발해국 : 말갈은 송화강과 흑룡강 유역에 분포해 있고 주로 어로와 목축으로 생활한다. 7세기 중엽 이후 말갈의 黑水와 粟末 양 부가 강대해졌다. 8세기 전반, 당왕조는 흑수말갈 지구에 도독부를 설치하고 그 수령을 도독으로 임명했다. 흑수말갈 지구는 정식으로 당조의 판도에 편입되었다. 속말말갈은 중원 봉건문화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았다. 7세기 말 속말부의 수령 大祚榮이 정권을 수립했다. 개원 초에 현종은 대조영을 渤海郡王으로 봉하고 忽汗州를 통할하게 하고 忽汗州都督을 除授했다. 이로부터 속말말갈은 발해라고 부르게 되었다. 발해도 정식으로 당조의 판도에 편입되었다. 발해는 당을 따라 주현제를 실행했다. 농업은 중원의 선진기술을 채용하여 수도의 산출량이 높고 품질이 좋았다. 수공업은 방직을 주로 했는데 당에 진공한 魚牙網, 朝霞網은 상당히 정치했다. 발해와 당의 무역은 빈번했고 당은 登州에 발해관을 설치하여 발해의 사자와 상인을 따로 접대했다.⁴⁴⁾

교과서가 말갈도 소수민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돌궐이나 토번처럼 명시하지는 않는 것은 현재 한국과의 역사분쟁을 고려해서인 것인지도 모르는데, 특히 흑수말갈과 속말말갈에 대해 각각 “정식으로 당조의 판도에 편입되었다”고 못박은 것은 이전 교과서의 설명에는 보이지 않는 방식이어서 눈에 띈다. 서술 내용도 이전에 비해서 덜 우호적인 설명인 것으로 느껴

43) 『中國古代史』, 87~88쪽.

44) 『中國古代史』, 86~87쪽.



진다.⁴⁵⁾ 이 부분에 관한 교사용 지도서의 지침을 보면, “당왕조의 강역은 광활했다.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 북정도호부(北庭都護府)가 관할한 지구와 한해도독부(瀚海都督府), 흑수도독부(黑水都督府), 발해도독부(渤海都督府)가 관할한 지구는 역사상 모두 중국 영토였다”라는 점을 사상교육목표(思想教育目標)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⁴⁶⁾ 그러나 역사상 모두 중국 영토였다는 설명은 영토의 분쟁만을 초래할 위험한 지침이 아닌가 우려된다. “역사상 모두 중국 영토였다”라는 말을 뒤집은 “역사상 모두 중국 영토가 아니었다”는 말도 성립되며 사실 또 그러하기 때문이다. 역사학은 사물의 기원을 찾는 학문이지만 하지만 역사와 현실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역사학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 현실 정치의 선동에 봉사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인민교육출판사의 수당사(隋唐史) 기술이 소수민족의 역사성을 강조하면서 수당 시기의 통일적 다민족국가상을 강화시키려고 애썼다고 한다면, 화동사범대학출판사의 기술에서는 통일적 다민족국가상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느낌을 받는다. 인민교육출판사가 전체 8절 중에 제6절을 수당통일다민족국가적 발전(隋唐統一多民族國家的發展)으로 설정한 데 비해 화동사범대학출판사의 절 구성은 수당정치신격국(隋唐政治新格局), 정관지치여개원성세(貞觀之治與開元盛世), 중외문화교류(中外文化交流), 찬란적문학예술(燦爛的文學藝術) 4개 절로 되어 있을 뿐이다. 이것은 앞서 본론에서 비판한 바와 같이 인민교육출판사의 수당시대의 무리한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반성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통일적 다민족국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본문 중에는 태종의 치적을 설명하면서, “태종은 각 족의 존재에 대해 일시동인(一視同仁)으로 대하고 모두 신뢰하고 중

45) 王劍英·王宏志 編(1982), 앞의 책, 20~21쪽 ; 『高級中學課本 中國古代史』, 111~112쪽 참조.

46) 人民教育出版社歷史室 編著(2008), 『中國古代史全一冊 教師教學用書』, 162쪽.





용했다. 태종의 진정어린 대우가 주변의 각 족이 (당왕조에) 귀부하게 만들었고 각 민족문화의 상호교류가 당 문화의 번영과 진작을 이루게 했으며 통일적 다민족국가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했다⁴⁷⁾는 기술이 한 곳 있을 뿐인데, 앞뒤로 전혀 설명이 없다.

확실히 수당조를 설명하는 제4단원 ‘수적창제화당적정성(隋的創制和唐的鼎盛)’이라는 단원설명에도 ‘통일적 다민족국가’라는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당은 수의 통일 뒤를 이어 대통일 국면을 공고히 했을 뿐 아니라 중세 역사상 휘황찬란한 大唐氣象을 창조했다. 수당이 창립한 3성6부제도와 貞觀의 치가 보여준 통치자의 허심하고 개명한 모습은 후세 왕조의 모범이 되었다. 건국 이래 팔구십 년의 노력 끝에 결국 저명한 開元의 성세를 이루는 데 성공했다. 대당왕조는 관용과 개방의 태도로 주변 각 족을 평등하게 대하고 외래문화를 흡수하고 그 독특한 매력으로 동아시아 중화문화권의 핵심을 이루어 그 이름을 널리 떨쳤다.⁴⁸⁾

여기서 통일적 다민족국가 대신에 보이는 동아시아 중화문화권이라는 말이 주목되는데, 본문 중에는 ‘중외문화교류’라는 장 중에 ‘비단길의 전성’과 ‘동아문화권(東亞文化圈)’을 설정하여 전자에서는 비단길을 통한 소구드, 아랍, 페르시아 상인들과의 활발한 무역 상황을 서술하고 후자에서는 바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동아문화권의 개념에 대해 교과서는 아무 설명도 없는데 필자의 추정으로는 아마 일본 학계에서 시작된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필자의 추정은 이 부분의 기술이 너무나 일본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될 것 같은데,

47) 『高級中學課本 高中歷史』 第二分冊(試驗本), 56쪽.

48) 『高級中學課本 高中歷史』 第二分冊(試驗本), 50쪽.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기술할 뿐인 이 절이 이렇게 일본에 편중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 부분은 두 쪽^(62~63)이 할애되어 있는데, 한국에 관한 기술은 다섯 줄도 채 안 되는 데 비해 일본에 관한 부분은 한 페이지 반에 달하며 석 장의 삽도도 모두 일본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관련 부분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당왕조와 東鄰 조선, 일본의 왕래는 더욱 긴밀하다. 신라는 조선반도에 통일국가를 건립한 후 늘 당왕조와 서로 사절을 파견했고 아울러 끊임없이 유학생을 중국에 공부시키려 보냈다. 학생 수는 총계 2,000명에 달한다. 귀국한 유학생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율령, 과학기술, 불교, 유학, 학교교육, 과거제도 등 당 문화의 정수는 모두 신라에 널리 흡수되었다.⁴⁹⁾

한편 일본에 관한 부분은 견당사(遣唐使)를 십여 차례 파견한 것 외에 유학생이 귀국해서 활약했다는 비슷한 이야기를 보다 상세하게 삽도를 넣어서 설명하고 있다. 삽도에는 일본 유학생 기비노마키비(吉備眞備), 당의 건축을 모방해서 지은 나라(奈良)의 쇼다이지(招提寺), 가나를 만든 승려 구카이(空海)의 필적 등이 있는데, 한국의 경우 흔히 인용되는 최치원의 이름도 보이지 않는 것은 분명 공평을 잃은 서술이다.⁵⁰⁾ 이 교과서는 단원설명에서 “대당왕조는 관용과 개방의 태도로 주변 각 족을 평등하게 대하고 외래문화를 흡수하고 그 독특한 매력으로 동아시아 중화문화권의 핵심을 이루어 이름을 널리 떨쳤다”고 하면서 옛날의 당왕조만큼도 주변민족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는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49) 『高級中學課本 高中歷史』第二分冊(試驗本), 62쪽.

50) 人民教育出版社의 경우는 한국과 일본의 비중이 비슷하나 한국의 경우 신라시대 기마인물상 삽도가 있어 더 대우를 받고 있는 편이다. 『中國古代史』, 88~89쪽.



그러나 중국 교과서에서 통일적 다민족국가 대신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은 일본과 한국에 이어 중국 교과서에까지 나타난 새롭게 공유될 수 있는 개념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물론 중국 교과서는 일본이나 한국과 달리 “19세기 서방의 영향이 진입하기 전에는 동아시아 나라들은 중국 본토를 지리적 중심으로 하고, 중국 문화를 주축으로 하는 한자문화권이나 유교문화권이라 불리기도 하는 동아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다”⁵¹⁾라고 서술하듯이 자국을 의식하는 면이 강하다.

그러나 이어지는 다음 기술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러한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성숙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동아문화권 내에서 우세한 지위에 있는 당 문화는 강력한 흡인력과 방사력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당 문화를 널리 섭취하는 것은 기타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된 경향이다. 그러나 일본, 신라 등의 나라는 당문화를 흡수할 때 주체의 선택성을 꾀하는 데 비상한 주의를 기울였고 음미하고 소화하고 나아가 창신하여 토착화를 실현했다. 조기의 모방과 복제 단계를 지난 후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는 모두 揚棄와 재창조의 기초 위에서 점차 비교적 선명한 토착성을 형성했고 반대로 중국 문화에 대해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서 하나의 기초 위에서 형성된 동아문화권이란 실제로는 다양하지만 통일된 상호 작동하는 하나의 문화유기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⁵²⁾

그러나 밑줄 친 부분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동아시아 문화권이란 어디까지나 하나의 기초, 하나의 문화유기체라는 것을 사실과 어긋나게 지나치게 강조하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한자공동체, 유교공동체라고는 하

51) 『高級中學課本 高中歷史』 第二分冊(試驗本), 63쪽.

52) 『高級中學課本 高中歷史』 第二分冊(試驗本), 63쪽.



지만, 21세기 지금까지도 실제 한중일 삼국은 유럽공동체처럼 단일화폐를 사용한다든지 국경을 자유롭게 통과한다든지 하는 자유롭고도 통일된 유기적인 문화공동체를 경험해본 역사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혹시 통일적 다민족국가관을 동아시아 문화권에까지 연장해서 적용하려고 한 사고방식의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지적해두고 싶은 것이 중국 역사교과서에서의 고구려사의 부재와 관련된 역사교과서의 이상화 문제이다. 역사교과서는 과거를 미화하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 과거를 조작하거나 과장하는 것도 역사의 왜곡이지만 숨기는 것도 결과적으로 일방적인 지식의 주입을 전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왜곡의 효과를 낳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가령 교과서는 정관(貞觀)의 치(治)에 대해서 두 쪽 반을 할애하면서 태종의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문성공주 이야기와 함께 토번의 사신을 접대하는 삽화를 실으면서 대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고구려에 원정 가서 패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 화해와 투쟁의 역사를 회피하려고 해서 진정한 역사교육이 될 수 없다. 역사교육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인류가 과거의 불행하고 고통스러웠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과거의 불행과 고통이야말로 더 정확하고 용기 있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앞에서 수당왕조를 위협했던 유목민족인 돌궐, 회흘, 토번 그리고 남조 등에 대해서는 변강의 소수민족으로 굳이 자리를 매기고 조국의 발전을 위해 공헌했다는 식으로 서술하는 태도의 비역사성을 비판했지만, 한국사와 관련해서 주목되어야 할 고구려가 인민교육출판사 판에서도 화동사범대학출판사 판에서도 서술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한편 주제별 학습을 위해 마련된 선수 교과서의 하나인 『중외역사인물평설(中外歷史人物評說)』 중에 배치된 당태종 편에도 주로 정관의 치와 토번과의 화친을 통한 민족

단결의 촉진 등 교과서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는 수준에 머무를 뿐 고구려와의 전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다만 한 가지 당태종의 '개방적 대외정책' 중에서 "조선반도에 중국의 고대전적(古代典籍), 시가(詩歌), 예술(藝術), 전장(典章) 제도 등이 널리 전파되어 고구려[高麗], 백제, 특히 신라가 대량으로 한(漢) 문화를 흡수했다"⁵³⁾는 한 문장이라도 서술되어 있어 그나마 외국의 하나로서 고구려가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교과서의 편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지도 모르겠다.

교사용 지도서에도 고구려에 출병했다가 패배한 내용을 가르쳐도 좋다고는 되어 있지만,⁵⁴⁾ 교과서 자체에서 고구려의 역사가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중국 역사교과서의 상황은 과거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즉 1992년의 교과서에도 수양제의 고구려 원정에 관련된 기술이 있었고 한반도의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에 관한 기술도 있었던 것이다.⁵⁵⁾ 거슬러 올라가 1980년대의 교과서는 더 정확하게 고구려 원정의 패배를 기술하고 있다.

612년, 隋軍의 백여만 군대는 해륙 양로로 나누어 고구려로 진공했으나 대패하고 말았다. 계속해서 수양제는 두 차례에 걸쳐 고구려에 전쟁을 걸었으

53)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選修 4), 『中外歷史人物評說』, 人民教育出版社, 2008, 11쪽.

54) 인민교육출판사에서 출간된 교사용 지도서에는 "위진에서 수당 사이에 조선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병립해 있었는데, 수양제와 당태종이 고구려에 출병했다가 패배하고 돌아왔다. 신라의 세력이 점점 강성해져 676년 조선반도의 대부분을 통일했는데 당왕조와 적극적으로 우호관계를 발전시켰다. 교사는 수업 시에 학생들에게 세계사상 삼국의 형성과 통일에 관한 내용을 기억하도록 계발해도 좋다"고 지시되어 있다. 人民教育出版社歷史室 編著(2008), 앞의 책, 173쪽.

55) 『高級中學課本 中國古代史』(選修), 人民教育出版社, 101, 121~122쪽.

120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나 모두 실패했다.⁵⁶⁾

당왕조 초년 조선반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세 개의 국가가 있었다. 당태종은 돌궐을 격파한 이후 고구려에 대해 전쟁을 걸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후에 당고종이 이어서 용병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했다. 곧 당군이 철수하고 신라가 조선반도를 통일했다. 신라와 당왕조는 계속 우호관계를 지속했다.⁵⁷⁾

1980년대 이후 중국이 개혁개방을 선언하면서 교과서의 내용도 사회주의보다는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지만 이처럼 자기에게 불리한 면을 감추는 역사서술은 개혁개방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은 아닌가 우려되는 것이다.

이상 수당 시기의 통일적 다민족국가와 소수민족 문제를 살펴본 결과 1980년대의 교과서에서처럼 “당왕조의 강역이 광대해졌을 때 각 족 인민의 연대가 강화되고 변강소수민족지구는 진일보 개발될 수 있었다. 각 족 인민은 공동으로 조국의 발전을 위해 거대한 공헌을 하였다”⁵⁸⁾라는 식의 노골적인 애국주의적인 설명은 보이지 않지만 과거 당조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유목민족들을 현재의 소수민족에 건강부회해서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틀을 유지해가려는 서술은 역시 경계해야 할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것이다.

끝으로 ‘통일적 다민족국가’라는 말은 중국 역사교과서에서 금과옥조와도 같이 중시되는 개념이지만 뜻밖에도 교과서 내에서의 서술내용은 매우 빈약하다는 점을 지적해두고 싶다. 가령 인민교육출판사의 경우 진의 통일이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발전을 위해 기초를 놓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56) 王劍英·王宏志 編(1982), 앞의 책, 4쪽.

57) 王劍英·王宏志 編(1982), 앞의 책, 25쪽.

58) 王劍英·王宏志 編(1982), 앞의 책, 23쪽.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진의 강역 내에는 각 족 인민 2,000여만 명이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밖에는 없다.⁵⁹⁾ 그러나 고대 세계 어느 왕조도 각 족 인민을 거느리지 않은 왕조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설명만으로 통일적 다민족국가가 이해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편 대상출판사의 경우는 “중앙집권제도의 형성” 내에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형성’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진시황은 군대를 파병하여 남으로 百越을 정벌하고 동남과 영남지구를 통일하고 閩中郡, 南海郡, 桂林郡, 象郡을 설치하였다. 아울러 靈渠를 수리하여 長江과 珠江 수계를 연결하였다. 진왕조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적 다민족적 봉건국가이며 당시 세계 동방의 한 강국이었다.⁶⁰⁾

진시황이 군대를 파병하여 영토를 확장시켜나간 것과 최초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라는 것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를 내포한 서술도 없는데, 교과서의 저자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라는 것이 무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 이렇게 서술한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 문장이다. 당시 진왕조는 통일적 다민족국가이기 때문에 동방의 한 강국이었던듯이, 마찬가지로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도 통일적 다민족국가이기 때문에 세계적 강국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한 것일까?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청말의 종족적 민족주의와 중화민국 시기의 국민적 민족주의가 5호에 대한 해석을 달리했던 것만 상기해보더라도, 현재 55개의 소수민족을 내포한 ‘통일적 다민족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을 2,000여 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진왕조와 같은 체제로 동일시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리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59) 『中國古代史』, 26쪽.

60)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必修1), 鄭州: 大象出版社, 11쪽.

V. 맺음말

중국 역사교과서는 남북조시대 중 오호십육국의 혼란기에 대해서 이 시기가 여러 민족이 융합하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의 교과서는 이렇게 이 시기를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과연 이 시대를 긍정적으로만 가르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시대는 전란의 시대였고 이산과 난민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융합이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수많은 사람의 희생 위에서 가능했던 것이라는 점을 교과서는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시각은 교과서의 집필자들이 현재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역사적 반성 없이 그대로 과거에 투영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예로서 '5호(五胡)'를 교과서에서 '소수민족'으로 치환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반성의 자료가 되는 것이 청말과 중화민국 시기의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5호에 대한 상반된 서술이다. 이것은 역사서술은 궁극적으로 서술자의 정치적 입장과 시대관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역사교과서는 역사적으로만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청말기 근대적인 역사교육이 처음 시도되었을 때만 해도 5호라는 것은 중국에 재난을 가져온 것으로, 또 효문제의 개혁은 북위 몰락의 원인으로 간주되었던 것인데, 중화민국의 성립 이후의 역사서술에서는 5호의 난은 중원 인민에게 다소 재난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북방민족이 한족에 동화되어 중국 민족의 발전을 촉진하였다는 것으로 현저한 서술의 변화를 보였다. 가령 멸만흥한(滅滿興漢)을 기치로 내건 손문의 삼민주의가 왕성한 시절의 역사교육에서는 북위 효문제가 소수민족의 개혁가로 기술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교과서는 북위 효문제가 민족융합을 촉진하는 개혁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

문에 중국 역사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라는 관점에서 민족융합을 위한 것이라면 무조건 공헌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위 효문제의 개혁만 하더라도 효문제 사후 곧 내분으로 북위의 망국을 초래했을 정도이니 그것이 과연 민족융합에 얼마나 큰 공헌을 한 것이었는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가 선비족으로서 한족 문화를 사모하여 한화정책을 취한 것 자체가 중국을 지배한 이민족의 역사에서도 유례없는 일이며, 한족이 절대다수인 중국에서 역사적으로 대필하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대사건임에는 틀림없겠지만, 냉철히 생각하면 그의 정책은 수많은 선비족의 이반과 내분과 내란을 초래했던 것이다. 도대체 선비족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효문제가 그러한 정책을 실행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현재의 사가는 아직도 질문하고 있거니와 우리는 좀 더 동시대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역사적 사실의 정확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역사교과서가 역사적 사실의 정확한 전수와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민족주의 이념의 선전도구로 교묘히 전락하는 장면을 계속 보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전 중국의 초중교과서를 분석하면서 중국의 민족주의는 적어도 진시황 이래의 '통일된 다민족국가'까지 소급되는 역사가 오랜 것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민족주의이며 이러한 '통일적 다민족국가주의'가 역사교과서의 서술에서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⁶¹⁾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국이 진시황 이래 통일적 다민족국가였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20세기 중국의 대표적 역사가인 진인각(陳寅恪)이 중국사에서 민족문제는 5~6세기의 북조시대에 와

61) 박영철(2003), 앞의 글 참조.

서는 혈연적 종족보다 문화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갈파한 것은⁶²⁾ 중국사에서 통일적 다민족국가는 적어도 호족과 한족의 대규모의 문화적 융합이 일어났던 남북조시대를 경과한 이후에야 논의할 수 있는 문제임을 시사해준다고 생각된다. 진시황 때부터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민족주의에 따른 정치적 요구일 것이다.

현행 역사교과서는 5호의 난이 재난을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이 민족융합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약 1세기 전의民国시대의 교과서보다 오히려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된다. 민족주의가 역사서술에 끼치는 부정적인 일례로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 최근의 인민교육출판사의 교과서에서 효문제 개혁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주목된다. 화동사범대학출판사 교과서도 민족융합의 쌍방향성을 지적하는 등 객관적인 태도를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인 방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제갈량의 칠종칠금 고사와 같은 것은 소수민족정책과도 관련해서 신중을 기울여야 할 소재일 것이다. 전반적으로 교과서들이 주장하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은 한족우월주의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칠종칠금도 그 일례에 속할 것이다.

끝으로 중국 역사교과서를 분석하면서 느낀 큰 모순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것은 현대 중국의 사회주의 당국자들이 과거의 봉건왕조의 역사에 기대어 현재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점이다. 인민의 노동력을 착취한 착취계급의 총체로서 기탄의 대상이 되어야 할 봉건왕조들이 형성한 과거의 영토에 대해서 현재의 이른바 사회주의 당국자들이 경건한 존경심으로 경배하는 현상은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봉

62) 『唐代政治史述論稿』, 重慶: 商務印書館, 1943.

건왕조와 전쟁을 벌였던 많은 이민족을 현재의 소수민족과 동질화시켜 지금의 '통일적 다민족국가'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평화롭게 모순 없이 존재해왔다고 자국사를 기술하는 것은 역사의 왜곡일 것이다. 그리하여 고구려처럼 중국을 위협하거나 결국 중국에 의해 비극적으로 제거된 어두운 역사는 교과서에서 지워버리게 되는, 역사의 말살이라는 우려스러운 사태도 생겨나는 것 같다. 역사가 너무 오랜 나라라서 과거의 역사에 구속되는 것은 숙명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결국 새로운 사관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본문에서 현행 교과서가 이전 교과서보다, 아니 100년 전의 역사교과서보다 못한 점이 있다고 말했지만 100년 전의 과학과 민주를 외쳤던 5·4운동의 그 정신을 다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는 않은가 반성해보게 되는 시점이다.

• 참고문헌

- 김유리(2005), 「역사교육대강에서 역사과정표준으로-최근 중국의 역사교육과정의 개혁」, 『역사교육』 96.
- 김유리(2008), 「중국 고등학교 역사과정표준에 따른 『역사』 실험교과서의 서술내용 분석」, 『역사교육』 105.
- 김지훈(2006), 「현대중국 역사교과서의 역사 1949~2006년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75.
- 김지훈(2007), 「중국의 신교육과정과 역사과정표준실험교과서」, 『동북아역사논총』 17.
- 박영철(2003),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사서술과 그 인식」, 『한국사론』 38.
- 陳光中·臧嶸 編(1981), 『初級中學課本 中國歷史』 제1책, 人民教育出版社.
- 王劍英·王宏志 編(1982), 『初級中學課本 中國歷史』 제2책, 人民教育出版社.
- 人民教育出版社歷史室 編著(2001), 『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校科書 中國歷史』 제1책, 人民教育出版社.
- 人民教育出版社歷史室 編著(1992), 『高級中學課本 中國古代史(選修)』, 人民教育出版社.
- 趙玉森(1913), 『共和國教科書·本國史』 上卷, 上海: 商務印書館.
- 劉超(2007), 「“五胡亂華”和“孝文帝改革”: 事件, 敘述與認同—以清末民國時期中學中國歷史教科書爲中心」, 『安徽大學學報』 5, 哲學社會科學版.
- 徐念慈(1907), 『中國歷史講義』, 上海: 宏文官.
- 呂瑞庭(1907), 『新體中國歷史』 권3, 上海: 商務印書館.
- 鍾毓龍(1915), 『新制本國史教本』 제1책, 上海: 中華書局.
- 夏曾佑(1906), 『最新中學教科書·中國歷史』 제3책, 上海: 商務印書館.
- 呂思勉(1990/1923), 『白話本國史』 2편,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 金兆梓(1928), 『初中本國史』 제1책, 上海: 中華書局.
- 『高級中學課本 高中歷史』 第二分冊(試驗本)(2007),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選修 1) 歷史上重大改革回眸』(2008), 人民教育出版社,

人民教育出版社歷史室 編著(2008), 『中國古代史全一冊 教師教學用書』.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選修 4) 中外歷史人物評說』(2008), 人民教育出版社.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必修 1)』(2004), 鄭州: 大象出版社.

『三國志 蜀書』, 「諸葛亮傳」.

『三國志 蜀書』, 「譙周傳」.

鄧拓(1962), 『燕山夜話』 4集.

陳寅恪(1943), 『唐代政治史述論稿』, 重慶: 商務印書館.

* 웹사이트

人民教育出版社, www.pep.com.cn.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보이는 10~15세기 서술의 내용과 특징

전북대학교 김성규

I. 머리말

II. 분석의 대상과 방법

III. 오대, 송, 요, 서하, 금, 원의 정치 및 사회와 상호 관계

-첨부: 명·청대 대외관계 기술의 특징

IV. 송, 요, 하, 금, 원의 경제발전과 대외 경제교류

V. 오대, 요, 송, 하, 금, 원 시기의 문화

VI. 맺음말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보이는 10~15세기 서술의 내용과 특징

전북대학교 김성규

I. 머리말

현재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 중 특히 경계를 요하는 부분은 '민족'과 '영토'를 둘러싼 대목일 것이다. 중국 측의 역사 서술이 '민족'과 '영토'를 주제로 삼을 때 그것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국과 늘 관련되지 않을 수 없고, 그로부터 우리의 이해와 부딪치는 경우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과거의 역사는 현재에도 계속 살아 있는 문제인 것이다.

이 같은 '민족'과 '영토'의 문제가 중국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기 중의 하나가 10~15세기이다. 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일대에 거란(요), 탕구트(서하), 여진(금), 몽골(원) 등의 민족과 그들이 세운 국가가 차례로 나타나 남쪽의 한족 중심의 국가인 '중국'을 압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족'과 '영토'를 중심으로 한 갈등이 끊임없이 표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중국은 이 같은 과거의 여러 민족과 영토를 모두 포함하여 성립한 거대한 국가이며, 그 위에 근래에 '중화'를 다시 표방하려는 의도 속에서 과거의 역사를 현재적 시

점과 필요에 따라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즉 과거에 갈라져 있던 다양한 민족과 영토는 결국 원래부터 하나였다는 논리이다.

본 장에서 의도하는 주된 목적의 하나는 이상과 같은 현대 중국의 의도가 교과서 상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위한 분석과 검토를, 앞에서 언급한 10~15세기를 중심으로 행하려는 데에 있다.

동시에 본 연구에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로는 10~15세기에 나타나 있는 중국 교과서의 일반적인 특징을 분석해야 하는 점도 있다. 과거의 중국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우리 측의 연구는 한국과 관련이 있는 부분, 또는 특정 주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많고, 교과서의 내용 자체를 분석한 것은 적은 것처럼 보인다. 주어진 범위 안에서 중국 교과서의 전체적인 경향과 특징을 파악하는 것도 본 장에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인 것이다.¹⁾

또 본문의 분석 대상에는 10~15세기 부분 이외에 명대사(明代史)의 일부로서 그 국제관계를 추가하고자 한다. 이렇게 다소 애매함을 무릅쓰고 범위를 명대의 일부에까지 걸치게 한 것은, 필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국의 대외관계사에서 중요한 사건인 '정화의 원정'이 이 시기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문에서 다루는 대외관계 부분에서는 요(遼), 송(宋), 하(夏), 금(金), 원(元) 시기 이외에 명대의 대외관계, 필요에 따라서는 청대에까지 범위를 넓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즉 본문은 오대(五代)~원(元)까지의 역사를 대상으로 하되 명·청 시기에 대해서는 대외관계에 한정해 선택적으로 분석의 범위를 확대한 셈이다.

1) 이상의 중국 교과서 분석에 관한 연구와 관련해서는 본서에 함께 수록된 김지훈의 專論을 참조.

II. 분석의 대상과 방법

많은 연구에 의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현재 중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교육은 다양한 방식과 교과서를 이용하여 행해지고 있다. 먼저 전국적으로는 2002년도에 제정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대강」(이하 「역사교과서대강」이라 칭함)에 입각한 세 종류의 교과서, 즉 『중국근대현대사』(상·하), 『세계근대현대사』(상·하), 『중국고대사』(모두 1책, 이상의 교과서는 모두 인민교육출판사가 발행하였다)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중 『중국근대현대사』(상·하)만이 필수로 되어 있고, 나머지 2종의 교과서는 그중 한 가지만을 선택(選修)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 검토하려는 중국 역사의 10~14세기 부분 및 명대사(국제관계)는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중국고대사』(이하 『고대사』로 약칭함)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이 『고대사』만이 중국에서 말하는 ‘고대사(즉 아편전쟁 이전의 역사)’를 유일하게 통사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본 장에서 다룰 『고대사』의 관련 부분을 목차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고대사』(選修)의 본문 목차[오대~명대(국제관계)의 역사]

교육과정	종류(본문에서의 약칭)	편저자	발행시기	오대~명대(국제관계)와 관련된 항목
全日制普通高級中學歷史教學大綱	『고대사』	인민교육출판사 역사실	2007년 제2판	제5장 : 민족 융합의 진전과 봉건 경제의 계속적인 발전 -오대, 요, 송, 하, 금, 원 제1절 : 오대십국 1) 오대십국의 변천/2) 남방경제의 발전 3) 통일 추세의 진전과 周 세종의 개혁 제2절 : 북송의 건립과 중앙집권제도의 개혁 1) 북송의 건립과 분열 국면의 종결 2) 중앙집권의 강화/3) 과거제의 발전 제3절 : 북송 중기의 사회 위기와 개혁

교육과정	종류(본문에서의 약칭)	편저자	발행시기	오대~명대(국제관계)와 관련된 항목
全日制普通高級中學歷史教學大綱	『고대사』	인민교육출판사 역사실	20007년 제2판	1) 북송 중기의 사회 위기/2) 경력신정 3) 왕안석 변법 제4절 : 요, 서하의 건국과 송, 요 및 송, 하의 화의 1) 거란의 흥기와 건국/2) 송, 요의 화전 3) 서하의 건국과 송, 하의 화전 제5절 : 금의 건립과 송, 금의 화전 1) 금의 건국/2) 요와 북송의 멸망 3) 남송 초년의 항금투쟁/4) 송, 금 대치 국면의 형성 제6절 : 원조의 건립과 통일다민족국가의 발전 1) 몽고의 흥기/2) 쿠빌라이의 원조 건립과 전국 통일 3) 통일다민족국가의 발전/4) 원조의 형성 제도 5) 원조의 멸망 제7절 : 요, 송, 하, 금, 원 경제의 발전과 대외 경제교류 1) 농업 생산의 발전/2) 수공업의 발전 3) 상업과 도시의 번영/4) 대외 경제교류 제8절 : 오대, 요, 송, 하, 금, 원 시기의 문화 1) 과학기술/2) 이학(理學)과 사학 3) 문학/4) 회화예술 제6장 :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진일보 발전과 봉건사회의 성쇠 - 명, 청(아편전쟁 이전) 제5절 : 명청 시기 통일다민족국가의 발전 제6절 : 명청 시기의 대외관계 정화의 서양 원정, 척계광의 왜구 진압, 포르투갈의 마카오 점거, 정성공의 타이완 수복

한편 현재 중국에서는 「역사교과대강」에 입각한 교과서와는 별도로 전국적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또 다른 역사교육 방식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것은 「고등학교 역사과정표준」(이하 「역사과정표준」으로 약칭)에 입각한 것으로, 『역사』 교과서를 『역사』1(정치), 『역사』2(경제), 『역사』3(문화)의 3종류로 나누어 이를 모두 필수로 지정한 것과, 다시 『역사』를 주제별로 『역사』1(選修)¹⁾~『역사』6(選修)²⁾으로 세분한 위에 이 중 3종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

2) 『역사』1(選修)~『역사』6(選修)이 다루고 있는 주제를 순서대로 제시하면 '역사상 중대

하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는 중국사와 세계사를 하나의 교과서 안에서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이 종전과 다른 큰 특징으로 지적되며,³⁾ 아직 '실험교과서'로 명명(命名)되고 있는 이상, 그 성공의 여부는 조만간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기에는 종전과는 다르게 출판사도 네 곳⁴⁾이나 참여하고 있고, 따라서 한 출판사가 결국 아홉 가지의 교과서(필수 3책, 선택 6책)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36책의 교과서가 존재하는 셈이다.

본 장에서는 36종에 이르는 이들 교과서 모두를 분석하지는 않는다. 먼저 모두 필수로 지정된 『역사』1(정치), 『역사』2(경제), 『역사』3(문화)의 경우는 네 종류의 교과서 가운데 입수(入手)의 문제로 인해서 분석의 대상이 인민출판사를 제외한 세 종류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또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역사』1~『역사』6의 경우는 역시 입수 문제로 네 종류의 출판사 중 '인교판'만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역사』1(選修)~『역사』6(選修)에서는 '인교판'의 채택률이 가장 높은 상태이고,⁵⁾ 또 이 중 본문과 특히 관련이 있는 주제는 『역사』1(選修)만 주로 보이므로 그 밖의 교과서[『역사』2(選修)~『역사』6(選修)]는 본문에서 다를 필요가 없어 보인다.

개혁과 회고', '근대사회의 민주사상과 실천',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중국과 외국의 역사인물 평설(評說)', '역사의 신비 탐색', '세계 문화유산 모음'이다.

- 3) 金裕利(2005a), 「역사교과서대강에서 역사과정표준으로」, 『역사교육』 제96집.
- 4) 「역사과정표준」에 근거해 『역사』(필수)1 ~ 『역사』(필수)3과 『역사』(選修)1 ~ 『역사』(選修)6의 교과서를 출판하고 있는 곳으로는 인민교육출판사(이하 이곳에서 발행되는 교과서를 '인교판'이라 부른다), 악록서사(이하 이곳에서 발행하는 교과서를 '악록판'이라 부른다), 대상출판사(이하 이곳에서 발행하는 교과서를 '대상판'이라 부른다), 인민출판사(이하 이곳에서 발행하는 교과서를 '인민판'이라 부른다) 등이 있다.
- 5) 본서의 일부를 이루는 김지훈의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대사 인식」 참조.

〈표 2〉 『역사』1(필수)의 본문 목차(오대~원대의 정치)

교육 과정	종류 (본문에서의 약칭)	편저자	발행 시기	오대 ~ 명대(국제관계)의 정치 부분과 관련된 목차
普通高中 歷史課程 標準 (실험 교과서)	인교관	인민교육 출판사 과정 교재연구소	2007년 제3판	제1단원 : 고대 중국의 정치제도 제3과 : 漢에서 元에 이르는 정치제도의 변천 중앙집권의 발전 / 군주 專制의 변천 選官, 用官 제도의 변화
	악록관	조대위 등 총 주편	2005년 제2판	제1단원 : 중국 고대의 중앙집권제도 제3과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투쟁 변진 할거와 오대십국의 분열 국면 宋初, 중앙집권의 강화 제4과 : 전제왕권의 부단한 강화 삼성육부제의 확립과 그 변천
	대상관	왕아민 등 총 주편	2004년 제1판	제1단원 : 고대 중국의 정치제도 제3과 : 漢에서 元에 이르는 정치제도의 변천 3공9경, 삼성육부제에서 二府制로의 변천 / 郡國并行政에서 行省制로의 변화

〈표 3〉 『역사』2(필수)의 본문 목차(오대~명대(국제관계)의 경제)

교육 과정	종류 (본문에서의 약칭)	편저자	발행 시기	오대 ~ 명대(국제관계)의 경제 부분과 관련된 목차
普通高中 歷史課程 標準 (실험 교과서)	인교관	인민교육 출판사 과정 교재연구소	2007년 제3판	제1단원 : 고대 중국 경제의 기본 구조와 특징 제1과 : 발달한 고대 농업 精耕細作的 전통 농업 제2과 : 고대 수공업의 진보 발달한 官營手工業 / 민간 수공업 제3과 : 고대 상업의 발전 중농역상 아래의 고대 상업 市의 변천과 도시[城市]의 발전 官의 통제하에 있던 대외무역 제4과 : 고대의 경제정책 海禁과 閉關鎖國
	악록관	조대위 등 총 주편	2005년 제2판	제1단원 : 중국 고대의 農耕 경제 제2과 : 중국 고대의 토지제도 租佃관계의 보편화

교육 과정	종류 (본문에서 의 약칭)	편저자	발행 시기	오대 ~ 명대(국제관계)의 경제 부분과 관련된 목차
普通高中 歷史課程 標準 (시험 교과서)	약록판	조대위 등 총 주편	2005년 제2판	제3과 : 區域 경제와 중심의 南移 중원 인구의 대량 外遷 중국 고대 경제 중심의 南移 제4과 : 농경시대의 수공업 금속 冶煉術의 진보 / 衣被天下 燒陶에서 制瓷 제5과 : 농경시대의 상업과 도시 상업의 발전 / 도시의 변형 중농역상
	대상판	왕아민 등 총 주편	2004년 제1판	제1단원 : 고대 중국 경제의 기본구조와 특징 제2과 : 耕作細作의 농업생산 耕作細作 농업의 뛰어난 성과 제3과 : 뛰어난 수공업 선진 기술과 정교한 공예 제4과 : 상업의 발전과 변형 唐宋상품경제의 발전과 변형 제5과 : 자본주의 맹아의 완만한 발전 명청의 “海禁”과 청조의 “閉關鎖國” 정책

〈표 4〉 『역사』3(필수)의 본문 목차(오대~원대의 문화)

교육 과정	종류 (본문에서 의 약칭)	편저자	발행 시기	오대 ~ 명대(국제관계)의 문화 부분과 관련된 목차
普通高中 歷史課程 標準 (시험 교과서)	인교판	인민교육 출판사 과정 교재연구소	2007년 제3판	제1단원 : 중국 전통문화에서 주류 사상의 변천 제3과 : 宋明理學 程朱理學 / 陸王心學 제8과 : 고대 중국의 발명과 발견 사대발명 / ‘授時曆’과 四大農書
	약록판	조대위 등 총 주편	2005년 제2판	제1단원 : 중국 고대 사상의 보고 제4과 : 宋明理學 程朱理學 / 陸王心學 제6과 : 중국 고대의 과학기술 사상과 실천 천문학의 업적 / 고대 농서 고대 과학기술의 이정표 - 사대발명 제2단원 : 중국 고대 문예 제8과 : 筆墨丹青 文人意趣 / 民間 風情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보이는 10~15세기 서술의 내용과 특징 137

교육 과정	종류 (본문에서 의 약칭)	편저자	발행 시기	오대 ~ 명대(국제관계)의 문화 부분과 관련된 목차
普通高中 歷史課程 標準 (실험 교과서)	약목판	조대위 등 총 주편	2005년 제2판	제9과 : 詩言志 歌咏言 宋詞와 元散曲 제10과 : 傳奇에서 小說로 傳奇와 話本 제11과 : 梨園春秋 南戲와 잡극
	대상판	왕아민 등 총 주편	2004년 제1판	제1단원 : 중국 전통문화에서 주류 사상의 변천 제2과 : 宋明의 理學 理學사상의 토대를 담은 정호와 정이 이학의 집대성자 주희 제2단원 : 고대 중국의 과학기술과 문화 제5과 : 고대 중국의 과학기술 업적(2) 뛰어난 조선 기술 제7과 : 고대 중국 문학의 찬란한 업적(2) 꽃피는 宋詞 / 元曲 제8과 : 화려 다채로운 중국 고전 희극 參軍獻에서 元잡극으로 제9과 : 고대 중국의 書法 회화 중국 고대 회화의 기원과 발전

〈표 5〉 『역사』1(選修) “역사상 重大 개혁 회고”의 본문 목차

교육 과정	종류 (본문에서 의 약칭)	편저자	발행 시기	오대 ~ 명대(국제관계)와 관련된 목차
普通高中 歷史課程 標準 (실험 교과서)	인교판	인민교육 출판사 과정 교재연구소	2007년 제3판	제4단원 : 왕안석 변법 제1과 : 사회의 위기와 慶曆新政 날로 격화되는 사회 모순 積貧積弱의 형성 / 慶曆新政 제2과 : 왕안석 변법의 주요 내용 왕안석 기용 / 富國之法 강병지법 / 取士之法 제3과 : 왕안석 변법의 역사 작용 변법의 운명 / 적빈국면의 改變 적약국면의 개선 / 탐구학습 총결

이상의 전국 규모로 시행된 교육과정 이외에 중국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선진적인 도시에 속하는 상해시(上海市)가 독자적으로 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교육과정도 있으며, 다음의 표 6은 그와 관련된 한 교과서의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표 6〉 『역사』(拓展型課程教材, 시험본) “전쟁과 문명”

교육 과정	종류 (본문에서 의 약칭)	편저자	발행 시기	오대 ~ 명대(국제관계)의 정치와 관련된 항목(목차)
上海市 中學歷史課程 標準 (試行考)	상해 『역사』	상해 사범대학	2006년 제1판	주제 1 : 전쟁과 문명 3. 몽고제국의 정복전쟁 제6과 : 몽고의 아시아, 유럽 각국에 대한 침입 몽고 기병 / 西征 / 남침 제7과 : 몽고제국의 통치 블라디미르 대공 / 合贊汗의 개혁 元朝統治台南 제8과 : 동서방 문명의 교류 驛站 / 三大 발명의 西傳 로마 천주교의 東傳

이상과 같이 중국 교과서의 체계는 구조가 복잡하며 한국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하 본문에서는 이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에 있어 중심이 되는 교과서를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 경우 통사체(通史體) 형식의 『고대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 분석의 방법으로서 『고대사』에서 기술되어 있는 순서와 형식에 따라 그 내용을 먼저 검토하면서, 한편으로 그와 관련된 주제나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다른 여러 교과서들의 해당 부분을 필요에 따라 인용하여 여러 교과서의 내용을 함께 분석하려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언뜻 잡다할 정도로 다수 존재하는 중국 각 교과서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전체 교과서 간의 특징과 공통점도 추출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이하 본문에서는 이에 입각해 오대~원대의 시기를 정치(명대의 국제관계를 포함), 경제, 문화의 세 부분으로 대별해서 검토해가려고 한다. 이미 언급한 『역사』1~3(필수)도 각 권이 정치, 경제, 문화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서술 방식과 호응을 이룬다.

III. 오대, 송, 요, 서하, 금, 원의 정치 및 사회와 상호 관계 - 첨부 : 명 · 청대 대외관계 기술의 특징

1. 송, 요, 서하, 금, 원 간의 대외관계와 민족융합에 대한 기술

현행 중국 교과서의 집필방향을 제시한 「역사교학대강」과 「역사과정표준」 사이에는 성격상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전자에서는 교육과정에 강제성이 강하게 보이는 데 비해, 후자에서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역사관의 도입이 인정되는 등 집필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진 점이 발전으로 인정된다.⁶⁾

이러한 차이는 「역사교학대강」과 「역사과정표준」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쉽게 파악된다. 전자에서는 ‘중국 고대사 교학(古代史 敎學) 내용 개술’ 속에서 ‘민족융합’과 ‘통일다민족(統一多民族)’이라는 개념이 전면에 내세워져,⁷⁾ 그것이 각

6) 김유리(2005a), 앞의 글 참조.

7) 김유리(2005b)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역사교육과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북방사논총』 6호, 272쪽.

시기마다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반면, 후자에서는 ‘내용표준’의 ‘학습점’에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간략한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을 뿐, ‘민족융합’ 등의 표현은 일체 보이지 않는다. 각 교과서들은 이 지침에 입각해서 융통성 있는 서술을 하는 셈이며, ‘민족융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 수위를 알아서 조절하면서 각기 서로 다른 설명방식을 택하고 있다.

「역사교과학대강」에 입각한 『고대사』의 정치와 외교 부분은 ‘민족융합’에 대한 설명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곳이다. 『고대사』의 제5장은 제1절~제3절이 오대와 북송의 정치적 특징을 기술하고 있고, 제4절~제6절에서는 요, 서하, 금, 원 등 각 왕조의 역사와 그들 간, 혹은 그들과 송조의 대외관계 내지 민족문제를 서술하고 있다. 이 중 후자에서는 역사적 사실로서 송과 북방민족 간의 충돌, 즉 송과 요, 송과 서하, 송과 금의 항쟁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간의 민족문제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과 같은 갈등의 과정은 존재했지만, 결국은 거시적으로 보아 민족융합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⁸⁾

예를 들어 송과 요의 관계에 대해서는 양자 간에 대립이 존재한 것을 설명한 후, 그 뒤에 맺어진 ‘전연(澶淵)의 맹(盟)’으로 인해, “두 나라 간의 변경이 안정되고, 쌍방의 무역이 왕성했으며, 사자(使者)의 왕래가 끊이지 않아 한족(漢族)과 거란족의 우호관계가 강화되어 민족융합이 촉진되었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중국 학계에서 거란과 송 사이에 존재한 전쟁과 대립을 단지 ‘중국 경내(境內)의 두 분열정권’ 사이의 ‘내전’ 혹은 ‘중국’ 내부의 ‘민족관계’로 설정하지

8) 아울러 현대 중국에서는 요, 서하, 금, 원 등의 왕조가 한족 왕조를 정복하기는 했지만, 그 영향은 정치상에 한정되며, 한족의 사회, 경제, 문화의 기본적인 면모는 계속 유지 발전되었다는 설명이 일반적이다. 屈文軍(2006), 「論中國歷史上的北方民族政權：以遼, 西夏, 金, 元四朝爲重點」, 『西北民族研究』 제2기 참조.



나, 거란의 침략전쟁 역시 외침과 저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동 대 진보', 혹은 '정의 대 비정의'의 투쟁으로 인식하였다는 입장⁹⁾을 교과서가 암묵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연의 맹'을 현재의 학계 입장에서 볼 때 '민족융합'의 관점이 없지는 않지만, '민족융합'을 주된 시각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도 많다.¹⁰⁾

『고대사』에서는 서하(西夏)에 대해서도 그 문화의 독자성을 강조한 다음, 송과의 관계에 대해서 1044년의 화의(和議, 즉 慶曆和議)를 통해, “그 이후 송(宋)·하

9) 윤영인(2009), 「거란과 금 시대의 다원적 국제질서」, 동국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주최 2009년도 동아시아문화연구소 학술발표회 '고중세 동아시아의 외교와 교역' 발표집, 89~91쪽; 李錫厚(2007), 「論“澶淵之盟”非“城下之盟”」, 『澶淵之盟新論』, 上海人民出版社, 18쪽; 黃震雲(2003), 「契丹的由來和遼代的建元(上, 下)」, 『遼寧工程技術大學學報(社科版)』, 第1~2期, 60~61쪽; 武玉環·陳德洋(2007), 「澶淵之盟與遼宋關係」, 『澶淵之盟新論』, 上海人民出版社, 59. 한편 宋德金(1998), 「二十世紀中國遼金史研究」, 『歷史研究』 第4期에서 중국 학계의 요·금의 역사적 지위와 兩宋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遼宋, 金宋 관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1950년대 이래로 우리 역사상 민족관계에 대해서 토론할 때마다 부딪치는 문제이다. 遼와 金이 당시에 중국이었던지 아니면 외국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되는 의견이 있다. 한 가지 의견은 거란과 여진은 당시 국내의 민족으로 요와 금은 중국에 속했다는 의견이다. 다른 하나는 거란과 여진은 당시 外族으로 요와 금은 ‘중국’이 아니라 외국이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 遼·金과 兩宋 간의 전쟁의 성질에 대한 문제에는 세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하나는 요·금과 兩宋의 전쟁은 침략과 반침략의 전쟁으로, 外族, 外國의 중국에 대한 침략이라는 인식이고, 두 번째는 요·금과 兩宋의 전쟁은 국내전쟁으로 침략과 반침략의 성질을 띠고 있지 않으며, 다만 反動과 진보, 非正義와 正義의 분이 있을 뿐이다라는 인식이며, 세 번째는 요·금과 兩宋은 당시 적대적인 민족과 국가로서 자주 전쟁을 치렀지만, 현재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형제간의 집안 싸움이었고, 여진이 복송을 멸한 것은 사리에 맞는 잘된 일이었다는 인식이다.”

10) ‘澶淵의 맹’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는 최근 그 10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세미나의 결과를 정리한 연구서인 張希清 등 主編(2007), 『澶淵之盟新論』(上海人民出版社)이 대표적이다. 이 학회에서는 ‘충돌과 융합’이라는 假題를 설정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融合’은 과거의 중국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설정한 의미의 ‘민족융합’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㉔ 두 나라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평화상태가 유지되었고, 민족융합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논평한다. 한족과 북방민족의 관계를 논할 경우 종래의 역사서에서는 대립과 항쟁이 더 강조되었으나, 현행 교과서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지양하고 ‘민족융합’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상과 같은 『고대사』의 서술방식은 「역사교과대강」의 ‘중국 고대사 교학 내용 개술’의 제(五) 부분에서 개괄한,

북송이 건립된 후 專制 통치가 한층 강화되었다. 거란족이 건립한 요, 당항족이 건립한 夏, 여진족이 건립한 金이 차례로 북송 및 남송과 대립하였다. 요, 송, 하, 금 시기에 민족전쟁은 빈번하였으나, 각 민족의 경제·문화의 교류는 친밀했고, 민족융합이 한층 강화되었다.

는 방향성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주변 민족을 대부분 통합한 원조(元朝)에 이르러서는 민족융합이 최고조로 달한 것이 된다. 실제로 『고대사』에서는 이와 관련해 원조에서 대규모의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그 양상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점에서 포착된다고 설명한다.¹¹⁾

1. 漢族이 대량으로 변경지구로 이주하면서 선진적인 기술을 통해 변경의 경제를 개발하였고, 변경의 각 민족은 대량으로 中原과 江南으로 들어와 한족과 잡거함으로써 민족융합을 진행시켰다.
2. 요·금 시기에 황하유역에 入居한 거란인과 여진인은 한족과 서로 융합하였고, 元朝에서는 이미 ‘漢人’으로 취급되었다.
3. 唐朝 이래로 이슬람교를 믿는 적지 않은 페르시아인, 아랍인이 중국의 일

11) 『고대사』, 100쪽.

정한 지역에 定居하고 있었다. 그리고 원조가 되어서는 더 많은 대량의 페르시아인과 아랍인이 중국으로 이주해왔다. 그들은 한, 몽고, 위구르 등의 민족과 장기간 잡거하고 또 통혼함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민족, 즉 回族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4. 元朝 시기에 西藏이 정식으로 원조의 행정지구로 들어왔다. 원조는 澎湖에 巡檢司를 두어 琉球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고대사』의 제5장에서는 오대(五代)시기에서 원(元)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민족융합이라는 현상이 발전하고 있다는 관점을 보이고 있으며, 그 같은 점에서 장(章)의 제목도 ‘민족융합의 진전(進展)과 봉건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라고 붙인 것으로 이해된다.¹²⁾

『고대사』보다 비교적 자율적으로 집필되었다고 하는 「역사과정표준」에 입각한 ‘실험교과서’들에서는 『고대사』보다 정도가 떨어지고 또 서로 차이가 적지 않지만, 역시 ‘민족융합’에 대해 언급한 것들이 보인다. 거기서는 중국의 ‘민족융합’이 오대~원 시기에서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시기부터 존재하며, 또 이 시기 이후에도 꾸준히 발전하는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상판(필수) I에는 진시황이 흉노와 백월(百越)을 통일한 결과, “진이 중국 역사상 첫 번째 통일적 다민족봉건국가를 이루었다”고 하고,¹³⁾ 인교판(필수) I에도 “춘추전국시기의 제후 투쟁을 거쳐, 진(秦)에 이르러 통일다민족국가가

12) 『고대사』 제5장의 도입부에는 이 시기의 특징과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한족을 중심으로 하는 兩宋정권과 몽고족이 세운 원조가 중앙집권을 한층 강화하였고, 거란, 당항, 여진 등의 소수민족정권이 兩宋과 병립하였다. 이 무렵 전쟁이 빈번하기는 했지만 각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교류는 긴밀했다. 또 소수민족의 정권은 모두 서로 정도 차이는 있지만 한족의 선진적인 경제문화의 영향을 받아, 봉건화의 과정을 완성하였고, 각 민족의 융합도 진일보하였다”고 총평하고 있다.

13) 『고대사』, 11쪽.

144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형성되고 나서, 황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제도가 건립되었다”¹⁴⁾고 설명한다. 진제국(秦帝國)의 출현은 중국이 처음으로 통일되었을 뿐 아니라 ‘민족융합’이라는 점에서도 거대한 일보를 내디뎠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교과대강」 이외에 「역사과정표준」을 따르는 실험용 교과서에서도 ‘내용표준’의 ‘학습요점’에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지만, 적지 않은 교과서에서 ‘민족융합’의 문제가 역시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행 교과서에 따르면 중국사에서 민족융합은 이처럼 다양한 시기와 또 다양한 상황에서 연출되고 있었으며, 그 밖의 사례로는 북위(北魏)의 효문제(孝文帝) 시기,¹⁵⁾ 그리고 명·청 시기¹⁶⁾를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현대 중국의 역사에서는 그 태생적인 불가피성 때문에 ‘민족융합’이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되었고, 그것이 국내적으로도 민감한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 이 점은 한국과 같이 인접한 외국과도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로 작용한다. 물론 중국의 한 학자가 지적하듯이, 중국 측의 입장에서 볼 때, 민족융합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중국인은 엄격하게 말하면 황하 유역의 중원인(中原人)에 국한될 뿐이고, (과거에 그렇게 지칭되었던) 동이

14) 『고대사』, 제1단원 ‘머리말’.

15) 개역 『역사』 42~43쪽에는 ‘민족의 교류와 융합’이라는 소제목 아래에, “북위 효문제의 개혁은 민족 모순을 완화하는 한편 봉건통치를 공고히 했고, 민족의 대융합을 촉진했으며, 장기적인 분열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가 통일을 향한 기초를 쌓았다. …… 경제생활의 변화는習俗의 변화를 일으켜 漢族의 풍속 습관이 모든 사회의 풍속과 습관의 주체를 이루었다. 동시에 선비족이 원래 갖고 있던 문화가 한족의 문화 속으로 녹아들어, 특히 선비족의 목축 생산의 경험과 기술은 북방 漢人들에게 보급되어 그 생산경제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16) 『고대사』 제6장 제5절의 도입부에는 “명·청 시기에 중국의 통일적인 다민족국가는 한층 더 공고해지고 발전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 특히 邊疆지구와의 관계는 전례 없이 강화되었다. 중국의 광대한 판도는 청조 전기에 최종적으로 정해졌고, 각 민족 간에 不可分離의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되어 있다.

(東夷), 서융(西戎), 남만(南蠻), 북적(北狄), 그리고 절강(浙江) 지역의 월인(越人)과 장강(長江) 중류 유역의 초인(楚人)까지 모두가 중국인이라고 할 수 없는”¹⁷⁾ 논리가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현대 중국의 ‘민족융합’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같은 ‘민족융합’이 실현되기 이전의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는 ‘민족융합’인 것이다.

2. ‘민족영웅’에 대한 묘사

한편 본 장에서 다룬 시기의 민족문제와 관련해 또 한 가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악비’와 관련된 점이다. 악비는 금과의 항쟁에서 반드시 언급되는 ‘민족의 영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현행 교과서에서는 악비의 항금(抗金) 투쟁의 내용은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지만, 그에게 충신이라든지 애국자라는 가치판단을 부여한 설명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에 제5절의 말미에 있는 ‘연습’란에서 “악비가 영원히 후세인들의 추앙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학생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악비를 둘러싸고 최근에 갑자기 나타난 소위 ‘악비 논쟁’이 불러온 사태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즉 최근의 중국에서는 민족영웅으로 의심치 않았던 악비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역사학계에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는 동시에 ‘다민족국가론’의 극치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역사 속에서 금은 남송의 적대국이며 또 오랑캐로 여겨진 나라였고 그러한 맥락에서 악비는 영웅이었지만, 이제 송과 금이 한 ‘가정’을 이룬 현대 중국에서 악비는 내전에서 공을 세웠을 뿐 중국이라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이 수십 개의 다민족국가로 이루어진 만큼,

17) 李唐(1961), 『遼金元史』, 香港宏業書局, 98~100쪽 참조.



한족의 영웅을 전체 중국의 영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현대 중국의 성립(1949)과 더불어 중국의 과거 전통시대의 인물에 대한 평가가 크게 바뀐 적은 이미 여러 차례 있지만, '다민족국가론'에서라면 실로 놀라운 궤변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¹⁸⁾ 하지만 현행 교과서에서는 이 같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논평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악비에 대한 서술 형태와 입장은 문천상(文天祥)에 대해서도 비슷하다. 악비와 똑같이 중국에서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되는 남송(南宋) 말기의 문천상은 원조(元朝)의 회유와 협박에도 끝까지 저항하다 순국(殉國)한 것으로 이름 높지만, 여기서도 송과 원의 적대적 관계는 언급하지 않고 문천상의 숭고한 기절(氣節)만을 강조하고 있다.¹⁹⁾ '악비 논쟁'의 논리에 따라 문천상도 '더 이상 민족영웅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 역시 현재는 꼬리를 내리고 있는 모양새이다.²⁰⁾

그런데 악비와 문천상에 대한 평가와는 달리, 명말(明末)에 왜구 소탕으로 유명한 척계광(戚繼光)에 대해서는 『고대사』는 "민족영웅인 척계광의 항왜(抗倭)

18) 악비 논쟁과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많은 주장이 있지만, 현재는 대체로 그가 민족영웅이 아니라는 설이 비판을 받고 있다. 악비 논쟁과 관련해서는 李偉東(1996), 「岳飛崇拜的文化原因再探」, 『華東交通大學學報』; 朱天運(1998), 「岳飛是民族英雄嗎」, 『運城學院學報』; 蕭丁(2003), 「驚聞岳飛不是民族英雄」, 『檢察風雲』 2 등을 들어둔다.

19) 『고대사』의 이와 관련된 부분은 111쪽 "臨安이 함락하자 남송의 대신인 문천상과 張世杰, 陸秀夫 등은 계속해서 동남 沿海 일대에서 抗元 투쟁을 견지했다. 오래되지 않아 문천상은 포로가 되었다. 그는 원군의 투항 권유를 거절하고, '人生에自古로 누구에게 죽음이 없겠는가, 丹心을 남겨 汗青(史冊)에 비출 뿐'이라는 불후의 詩句를 남겼다"고 보인다. 이 밖에 중국 교과서에서 문천상에 관한 설명으로는 상해 『역사』 26쪽에 원조의 남송 공격과 관련해서 그의 일생에 관한 내용이 보인다.

20) 이와 관련된 문천상의 문제로서는 降大任(2003), 「民族英雄問題再思考-從岳飛, 文天祥的評價說起」, 『晉陽學刊』 4; 江華(2003), 「不要再炒作岳飛, 文天祥是不是“民族英雄”的問題」, 『內蒙古宣傳』, 編輯部郵箱, 第3期를 들어둔다.



업적은 그 위대함이 만고(萬古)에 남았다”²¹⁾는 설명이 보인다. 이는 현재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금과 달리 일본이 ‘외국’이기 때문에 수반된 당연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3. 명·청대 대외관계 기술의 특징

『고대사』에서는 제6장의 제5절과 제6절에 걸쳐 명·청 시기의 대외관계에 대해 기술한다. 여기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분석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현재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점이다. 즉 제5절과 제6절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 내지 민족은 원래 명·청 시대 당시로서는 모두 외국의 범주에 들어가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5절에서는 몽고, 신강지구, 서남지구의 소수민족, 개토귀류(改土歸流), 대만 등과의 문제를 ‘명·청 시기 통일다민족국가의 발전’이라는 제목 아래에서 별도로 취급하고 있고, 제6절에서는 정화의 원정, 북로남왜(北虜南倭)의 문제, 포르투갈과 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역시 따로 다루고 있다. 이것은 전자(前者)와 후자 모두가 원래 타자(他者)였지만, 전자가 현대에는 ‘중국’의 일원으로 전화(轉化)된 것에 상응한 구별이라고 볼 수 있다. ‘악비 문제’로 대표되는 현재적 관점에서의 역사 이해는 이곳에서도 포착된다.

명·청 시대의 대외관계 기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정화의 원정에 대한 인식이다.²²⁾ 이 문제에 대해서 『고대사』는 본문의 설명 이외에 제6장 제6절의 말미에 있는 ‘연습(練習)’ 부분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고, 또 제6장 전체의 말미에서는 ‘정화 원정이 초래한 역사적 작용과 그 한계’라는 주제를 제시하

21) 『고대사』, 127쪽.

22) 중국에서는 정화의 원정을 ‘鄭和의 下西洋’이라 하나, 여기서는 우리 학계의 관행대로 ‘정화의 원정’이라 칭한다.

여 학생들이 주어진 여러 자료를 읽고 서로 토론하게 하는 ‘활동(活動)’란을 두고 있다. 이 ‘활동’은 교과서치고는 상당히 많은 분량에 해당하는 4쪽에 달하여 높은 비중을 엿보게 한다.

‘활동’을 위해 학생들에게 주어진 여러 참고자료들은 대체로 두 가지 계통의 내용으로 구별된다. 한 가지는 예를 들어,

정화의 원정은 인류가 海洋을 개척한 長擧였다. 이는 지리상의 대발견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콜럼버스가 1492년에 美洲에 도달한 것보다 87년 앞서고, 바스코 다 가마의 희망봉 발견보다는 82년 앞선다. …… 정화 원정의 규모는 비할 것이 없는 것이었다. 1차 원정 때는 대형 寶船이 62척, 官兵이 27,800명, 寶船의 큰 것은 44丈, 넓이는 18丈에 달했다. …… 정화의 원정 결과 중국과 아시아, 아프리카 각국과의 평화 왕래가 확대되었고, 중국과 아시아, 아프리카 각국과의 경제 문화 교류가 발전되었다. 정화의 원정은 평화리에 진행된 것이며, 정벌이나 살상은 없었다.²³⁾

와 같은 유형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화는 방대한 船隊를 이끌고 7회나 원정을 떠나, 멀리 香港과 아프리카 동해안에 이르러 무역과 교류 활동을 했다. 그 규모와 航程은 당시에 세계적으로 비할 것이 없었다. …… 그러나 이후 중국의 역대 봉건왕조는 태도를 바꾸어 海禁정책을 취하였다. 중국이 해금정책을 실행한 것과 상반되게 西方의 신흥 자산계급은 항해무역을 적극 추진하여, 서방의 식민지주의자들에게 거대한 해외 이익을 개척하여, 해양 운수사업의 발전을 촉진했고, 또 유럽 각국이 신속히 번성하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다.²⁴⁾

23) 張曄之 주편, 『21세기를 향한 課程 教材·중국역사 원, 명, 청 권』.

24) 『정화연구논문집·근대 이래 중국 해양 개발의 역사적 교훈』.

는 식의 설명이다.

전자는 정화의 원정이 서양에 비해 시기적으로 훨씬 빠르며 규모도 컸다는 중국인의 원양(遠洋) 개척의 선진성, 그리고 그 주목적이 평화적이고 친선(親善)적인 외교와 교류였고 정복과 살상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후자는 중국의 해양 진출이 정화 이후부터 적극적이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서방과의 경쟁에서 밀려 자본주의로의 진입에도 늦었다는 설명이다. 여러 점에서 서양과의 비교를 통해 중국의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처럼 보이는 현행 중국 교과서에서, 이같이 정화 원정이 식민지 개척에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은 명말·청초에 모습을 드러냈던 자본주의 맹아가 결국은 좌절되었다고 보는 중국 학계의 설명²⁵⁾과 더불어서, 그 이전까지는 세계를 선도하던 중국이 결국 서양에 뒤처지게 된 대표적인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현행 교과서에서는 정화의 원정에서 나타난 친선외교가 ‘문명 대국의 중요한 책임²⁶⁾’을 완수한 것이라고 하는 중국 학계의 또 다른 견해도 소개하고 있다. 『고대사』의 제6장 제6절의 말미에 있는 ‘연습’에서는 《읽기와 생각하기》라는 코너를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자료1

정화 함대가 “그곳에 이르면, 그곳 사람들은 (정화가 가지고 간) 모든 貨物을 그들 나라의 여기저기로 가지고 가서 판다. 혹은 이웃나라에도 팔고, (정화 함대가) 돌아갈 무렵이 되면 그곳의 물건(夷貨)으로 우리(명나라)에게 보답한다. 그 나라에 진주가 많을 때에는 商人들이 큰 진주를 얻어가 팔아 수

25) 예를 들어 악록판 『역사』(필수)2, 29~31쪽.

26) 데이비드 문젤로 저, 김성규 역(2009), 『동양과 서양의 위대한 만남, 1500-1800』, 휴머니스트, 265쪽 참조.

십 배의 이익을 본다. …… 그곳 사람들(夷人)은 우리(명나라)의 배가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배가 돌아갈 때마다 몇 명인가를 인질로 맡겨서 후에 다시 와줄 것을 바라고 있다.” — 張燮, 『東西洋考』

재료2

명나라 천曆 3년(1623) 가을, 남경 湖廣道 御使 游鳳翔이 상주하여 말하기를 “畝은 閩(복건)지방 사람입니다. 민은 紅夷(네덜란드)가 침범한 이래로 澎湖에 城을 쌓고 우리 백성을 위협해 互市를 하고자 합니다. …… 우리에게 붙잡혀 죽은 자가 수십 명에 달합니다. 和를 청해 우리를 농락하고 배를 돌려보내거나 城을 부수겠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달래려 합니다. 이제 그로부터 1년이 지나려 하는데도 그들은 배를 돌려보내거나 성을 부수지 않을 뿐더러, 오는 이들이 오히려 날로 늘어나 우리의 배와 사람 600여 명을 잡아 두고서 날마다 식사를 제공하면서 돌을 날라다 城中에 교회당을 짓기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나아가서는 공격하기가 쉽고, 물러나서는 지키는데 유리하여 마치 하나의 敵國을 이루고 있습니다. — 『熹宗天啓實錄』

교과서에는 이와 관련해 “위의 자료를 읽고 정화가 해외에서 보인 활동과 홍이(紅夷, 네덜란드인)가澎湖에서 보인 행위의 같고 다른 점을 찾아내고, 두 항해의 본질은 어디에서 구별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보자”라는 질문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유럽의 식민지 개척이 무도(無道)한 점이 있고, 이에 비해 정화의 원정은 상대적으로 정도(正道)를 취했다는 도덕적 평가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4. 그 밖의 정치적 기술의 특징

중국의 역사교육은 ‘애국주의’ 교육의 일환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전 근대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에서는 항상 왕조사관인지 계급투쟁사관인지,



혹은 민족항쟁인지 민족융합인지라는 기술상의 딜레마를 안고 있었다.²⁷⁾ 그러나 동시에 교과서는 시대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도 수시로 바뀌어, 현재 후자 부분에 대해서는 민족융합이 강조되고 있는 점은 이미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이와 함께 최근의 교과서에서는 계급사관이 현격히 줄어들어 과거의 양상과 크게 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다.²⁸⁾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 '왕안석(王安石)의 개혁'에 대한 교과서들의 관점일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왕안석의 개혁은 중국의 왕조시대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진보적 사례이며, 특히 소위 '봉건 지배계급'을 개혁하고 '인민 계급'을 옹호하려 했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의 초기 입장이 반영되어 '계급투쟁사관'이 적극적으로 강조되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교과서에서는 이 같은 관점은 전면적으로 퇴조하여, '계급'적인 구별과 대립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다. 『고대사』에서는 왕안석의 개혁이 여전히 비중 있는 주제로 크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그 기술 방법은 사실(史實) 위주로 개혁이 일어난 배경과 개혁의 골자 및 의의를 서술하면서 현대적 입장이 투영된 논평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는 '계급 모순'과 '국내 민족 간의 모순'이라는 표현이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등장할 뿐이다.

한편 『역사』의 경우 '필수'에서는 왕안석에 대한 언급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선수1'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고대사』보다도 한층 사실 위주의 기술이 기초를 이룬다. 이 정도로 가치판단을 생략한 현행 중국 교과서의 내용은 그것이 '국사'라는 점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어질 뿐, 한국이나

27) 나카무라 사토루 편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역(2005), 『동아시아 역사교과서는 어떻게 쓰여 있을까?』, 에디터, 84쪽.

28) 나카무라 사토루 편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역(2005), 위의 책, 68~87쪽을 참조.



일본의 세계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왕안석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또한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이용되고 있는 중국의 실험교과서에서는 『역사』(필수1)에서 정치제도 등을 위주로 다루고 있는 반면 정치적 사건 내지 인물은 『역사』(선수1)에서 선택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역사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양쪽 모두에서 다루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이 알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는 염려가 있어 보인다.

사실 이 같은 점에 현행 중국 교과서의 한 특징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그것은 역사교과서의 성격이 '정신교육'에서 '역사교육'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²⁹⁾ 현행 교과서에서 사료(史料)를 곁들이면서 설명되는 역사적인 사건들,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경제 제도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 학생들이 보기 좋게 배치한 그림과 지도 등은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들이다. 특히 단원이 끝나는 부분에서 자주 등장하는 학생들에 대한 질문이나 단원 정리 같은 방식은 한국의 교과서를 연상시키는 면이 많다.

IV. 송, 요, 하, 금, 원의 경제발전과 대외 경제 교류

현행 중국 교과서들은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술한다. 『고대사』에서는 정치에 비해 경제와 문화의 비중이 다소 적지만, 『역사』(필수2)에서

29) 나카무라 사토루 편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역(2005), 위의 책, 86쪽.

는 경제를 독립된 1책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후자에서는 그 내용이 상당히 자세한 부분까지 언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 고대의 농업을 비롯한 경제, 상업의 우수성이 강조되고 있다. 여기서도 ‘정치’ 면의 기술처럼 그 내용들을 주로 사실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적극적인 가치 부여는 찾아보기 힘들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교과서에서는 마르크스 유물사관에 입각한 ‘원시사회’, ‘노예제 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로의 계기적(繼起的) 역사 서술이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이었으나, 이러한 논법은 이미 지양된 지 오래이고 이는 현행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는 교과서 상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만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송대의 경제적 변영

『고대사』의 제6장 제7절에서는 송조와 요, 서하, 금, 원 등 각 왕조의 경제적 특징과 대외교류를 함께 서술한다. 먼저 중국사에서 송대는 ‘농업혁명기’로 평가되며, 중국 교과서에서도 그 같은 송대 경제의 변영상이 강조되고 있다. 『고대사』가 한정된 지면 조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경제 부분을 취급한 『역사』(필수2)에서는 송의 경제적 변영을 훨씬 상세하게 소개한다.

『역사』(필수2)에서는 교과서를 불문하고 중국이 세계 농업 발상지의 하나로, 근대 농업이 출현하기 이전까지 세계를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설명한다. 또 중국 농업의 가장 큰 특징이 일가의 생계를 위해 그들이 소유한 작은 토지 위에 집약경영을 통해 토지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찾아내어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이는 ‘정경세작(精耕細作)’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역사』 교과서의 설명은 거의 일치한다.



송대는 그러한 ‘정경세작’이 절정기를 맞은 시기로, 그 배경에는 여화(犁鋤)·답려(踏犁) 등 농기구의 개량,³⁰⁾ 제전(梯田)과 우전(圩田) 등 경지면적의 확대^{31)·32)} 점성도(占城稻) 등 신품종의 도입, 면화 재배의 확대가 있었다고 묘사되었다. ‘1년 양숙제(兩熟制)’ 혹은 ‘1년 3숙제’도 이 무렵에 보편화된 것으로 설명한다.³³⁾ 또한 이러한 발전은 특히 남방에서 현저했고, 중국 경제에서 중심이 북방에서 남방으로 완전히 넘어간 것을 교과서들은 남송시대로 강조한다.³⁴⁾

- 30) 송대의 농기구 개량과 관련해서는 그 밖에 대상관 『역사』(필수2), 10쪽에 “당대에 발명된 曲轆犁는 심경과 碎土에 편했고, 또 畜力도 줄였다. 宋元시기에는 더욱 改進하여 犁轆이 더 축소되어 사용에 효과적이었다”라고 되어 있다.
- 31) 송대의 경지면적 증가와 관련해 인민관 『역사』(필수2), 7쪽에는 ‘탐구학습총결’ 부분에 “계산에 따르면 송조의 경지면적은 5.6억 畝, 명조에서는 8.5억 모로 증가하였고, 청조에서는 다시 11~12억 모로 증가하였다. 새로 증가된 경지 중에서 개간에 곤란한 토지가 적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다.
- 32) 후술하는 것처럼 교과서에는 근대 이전의 중국의 수공업, 과학기술, 학술 등의 발전이 유럽보다 월등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데, 농업에서도 그러한 점이 보인다. 인민관 『역사』, 악록판 『역사』, 대상관 『역사』는 모두 제2권의 도입부에서 예를 들어 “중국은 세계 농업 발상지의 하나이다. 근대 농업이 출현하기 이전까지, 중국의 농업은 세계를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고, 인류 문명에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 고대 중국 농업이 발달한 비결을 알려면 그 경제의 기본구조와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대상관 『역사』(필수2), 2쪽]고 설명한다. 또 경지면적의 확대와 관련해서 대상관 『역사』(필수2), 10쪽은 “低洼한 곳에서는 호수를 둘러쌓아 경지를 만들었는데, 이를 圍田 혹은 圩田이라 칭했다”하고, “토지 이용률이 크게 늘어나 ‘種無閑田’, ‘種無虛日’의 단계에 이르렀다. 유럽에서 농업이 가장 발전한 프랑스는 18세기가 되어도 반 이상의 농전이 휴경 상태였다”고 한다. 다시 대상관 『역사』(필수2), 11쪽에는 “施肥도 商周시대부터 사용이 시작되어 명·청시대에는 130여 종의 비료가 존재했다. …… 유럽 중세와 비교하면 유럽의 耨는 무겁고, 中耕도 없었고, 施肥의 사용은 11세기에 이르러 사용되어 중국보다 훨씬 늦었다”고 보인다.
- 33) 인민관 『역사』(필수2), 6쪽에는 “송조 이후에 남방의 사회경제가 날로 발달하면서 중국의 경제 중심은 점차 江浙지구로 轉移하였다. 강남은 점차 안정적인 稻麥輪作的 1년 兩熟制가 형성되었고, 어떤 지방에서는 1년 3熟制가 형성되어 토지의 이용 효율의 제고를 극대화하였다. …… 송조에서는 水力을 이용한 高轉筒車가 출현했다”고 설명한다.
- 34) 악록판 『역사』(필수2), 1쪽에 “戰國에서 中唐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경제 중심은 계속





농업의 발달과 함께 송대에는 수공업과 상업 및 도시가 연쇄적으로 발달·변성하였고, 교과서에는 그러한 점이 반영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 시기에 석탄의 채굴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나 연료의 고급화가 진행되었다고 하고, 그를 배경으로 철광업, 견직업, 면방직업, 제자업(制漆業), 조선기술이 발달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농업과 마찬가지로³⁵⁾ 전통시대 중국의 수공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에 있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³⁶⁾ 이러한 맥락에서 송대에서는 제자업의 수준이 전대(前代)를 크게 넘어섰고, 특히 경덕진이 남송과 원시대에는 저명한 자기

해서 북방에 있었다. 다만 역사의 변천에 따라 북방의 중심적 지위는 점차 상실되어 마침내 兩宋之際에 장강 중하류 지역에 그 지위를 넘겨주어, 중국 경제의 중심은 북방에서 남방으로의 轉移가 완성되었다. 이 변화는 중국 사회경제의 공간 구조를 바꾸었다"고 되어 있다. 또 같은 악록판 『역사』(필수2), 12~13쪽에는 “통계에 따르면 남조 劉宋 초년까지 南渡 인구는 이미 90여만에 이르러, 당시 남방 총인구의 6분의 1를 점하였다”, “중원 인구 남천의 제2차 파고는 당나라 안사난 이후에 발생했다. …… 中唐 이후 남방의 인구는 신속히 증가하여 경제 실력이 크게 높아졌다”, “兩宋之際에 靖康의 난은 북방 인구의 제3차 남천 파고를 일으켰다”, “북송왕조의 입국 기반은 동남의 財富에 의지하는 데에 있었다. 남천 후에 남방의 경제건설에 더욱 힘을 기울여 경제상으로 南强于北의 국면이 완전히 확립되었다. 남방이 정식으로 중국 고대 경제의 중심이 되었다”, “경제 중심의 남방으로의 이동은 문화 중심의 이동을 수반하였다. ……”고 보인다.

35) 본문 주 17) 참조.

36) 대상판 『역사』(필수2), 14쪽에 “고대 중국의 수공업 역사는 유구하며 왕성히 발달하여 도자, 야금, 制漆, 견직물, 造紙, 인쇄, 석탄 채취와 조선 등 중요한 수공업 부문에서 찬란한 업적을 이루었고, 그 생산기술과 제조, 공예와 생산품의 질은 오랫동안 세계의 최고 수준이었고, 그 상품은 국내 소비는 물론 대량으로 해외에 수출되어 환영과 영예를 얻었다”고 하고, 악록판 『역사』(필수2), 1쪽은 “농업경제의 보충을 위해 중국 고대의 공상업은 고도로 발달하였고, 수공업 생산품과 상품경제는 오랫동안 세계를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며, 다시 인교판 『역사』(필수2), 3쪽에서는 “농업의 발전은 수공업과 상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중국 고대의 수공업은 세계를 리드하였고, 관영 수공업의 발달과 민간수공업의 발전은 고대 중국 수공업의 특징을 이루었다”고 하고 있다.



제조 중심지가 되었다고 하고, 조선업에서는 그 기술이 당시로서는 세계적인 수준³⁷⁾에 있었다고 설명한다.

상업과 도시 부문에 대해서는 ‘방제(坊制)’와 ‘시제(市制)’로 상징되는 속박에서 벗어난 송대의 활발한 분위기와 그 속에서 오락 중심지인 ‘와자(瓦子)’의 출현, 시진(市鎮)의 총생(叢生) 등이 전에 없던 것으로 소개되었고, 세계 최초의 지폐인 교자(交子)가 사용된 것도 강조된다.

이상과 같은 송의 경제상에 대한 설명은 학계의 일반적 평가에 비추어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다만 고등학교 수준에서 상당히 깊은 부분까지 언급된 감도 있지만, 그것이 중국으로서는 ‘국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납득이 갈 만한 수준으로 생각된다.

2. 요, 하, 금, 원의 경제

이른바 정복왕조에 속하는 요, 하, 금, 원조의 역사는 현재 중국사의 일부를 이루고 있지만, 현행 교과서에서는 생각보다 다루는 분량이 많지 않다.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는 소수민족에 대한 사료가 한쪽의 것보다 자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튼 현행 교과서에서는 『고대사』에서만 설명이 보이고 그 밖의 실험교과서에서는 필수이건 선수이건 설명이 미미한 실정이다. 다만 몽골과 원은 역사적 작용이 상대적으로 커서인지 비교적 자세한

37) 약록판 『역사』(필수2), 20쪽에는 “진한시기는 중국 고대 조선사의 하나의 절정기였다. 유적과 유물에 의하면 당시에 이미 무게 50~60톤의 大船을 제조한 것을 알 수 있다. 漢代에는 방향을 조종하는 선진 설비인 舵를 발명하고 광범히 사용했다. 이것은 船尾 舵의 최초의 발명이다. 타의 발명과指南침은 모두 수운사업을 일대 진보하게 했다. 당송 시기에는 水密隔艙 기술이 발명되어 해상 항해의 안정성을 높였고, 이는 유럽보다 1,000년 앞서는 것이다. ……”

부분도 많다.

『고대사』 제5장 제7절에서는 소수민족의 경제와 관련해 먼저 농업 생산을 중시하였다고 설명한다. 요에서는 빈민에게 경우(耕牛)를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농업 발전에 힘을 썼고, 서하에서는 사막지대에 관개시설이 완비되었으며, 그곳의 경작방법은 중원(中原)과 다를 바 없었다고 설명한다. 금에서는 중원에 진출한 이후 선진 농업기술을 지닌 한인들을 동북지방에 보내 황지(荒地)를 개척한 점을 설명하고, 원에서는 농작물의 품종이 증대했고 농목업(農牧業)의 회복과 발전이 원의 인구를 8,000만 명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설명한다.

수공업에서는 요, 서하, 금 모두에서 제철업이 발전했고, 모직(毛織) 부분에서는 서하의 제품이 『동방견문록』을 인용하여 당시 세계 최고의 품질이었다고 강조하고, 제자업에서는 요와 금에서 유목민족의 용도에 맞는 편리한 자기가 생산되었다고 설명한다.

한편 요, 서하, 금에서도 대도시가 출현하였고, 그곳은 상업이 번성한 기지로서 설명된다. 요의 남경(南京), 서하의 양주(涼州), 금의 중도(中都)가 대표적인 도시로 소개되고 있고, 이들 나라의 변경에는 호시(互市)가 설치되어 송과의 무역이 있었음을 설명한다. 원조(元朝)에 대해서는 운하와 해운 등의 교통 운수가 크게 발전하였고, 이를 통해 남방의 풍부한 물산(物産)이 북의 대도(大都)로 옮겨짐으로써 상업이 번성한 대도가 항주나 천주와 더불어 원대에서 가장 저명한 도시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3. 대외 경제의 교류

이곳에서는 송대와 원대의 해외무역이 계속해서 전대(前代)를 초과하는 활황을 보였음을 설명한다. 먼저 송조에서는 광주 이외의 여러 곳에 시박사를

설치하여 무역을 관장하는 한편 상세(商稅)를 거두었고, 그 통상국은 50여 국으로 이들 국가에 견직물, 자기, 차 등을 수출하고, 향료와 보석 등을 수입했다고 하고, 원에서도 각 항구에 시박사가 설치되어 각국과의 통상이 활발했다고 하였다.

특히 동아시아와 관련된 경제교류의 설명이 많은 것이 눈에 띈다. 남송시대에는 명주(明州)를 통해 수입된 고려의 화물(貨物)이 40종에 이르고, 일본에서 남송으로 온 상선(商船)은 많을 때에는 매년 45척에 달한다고 하였다. 원조의 경우는 고려의 인삼이 수입품으로 인기가 있었다 하고, 중국의 면 방직 기술이 이 시기에 고려에 전해졌으며, 일본에서는 조판인쇄술 장인을 중국에서 초빙하여 일본의 인쇄술을 발전시켰다고 적고 있다. 한편 요와 금의 경우는 고려와 사절 간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관계와 동시에 변경에는 각장(榷場)을 통한 교역이 있었고, 일본, 페르시아, 아랍 등의 나라도 요나 금과의 무역관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고대사』에는 ‘대외경제의 교류’ 말미에 원과 서양의 교류를 간단히 다루고 있다. “이 무렵 중국은 유럽, 아프리카와도 왕래가 있었다. 이탈리아의 여행가 마르코 폴로는 원(元) 세조(世祖) 시에 대도를 찾아왔다. 원조의 위구르(畏兀兒) 출신인 랍반 사우나는 서아시아, 유럽 등을 여행하여 중국인으로서는 첫 번째로 유럽 각국을 방문한 여행가가 되었다”는 것이 그 전문(全文)이다. 한국이나 일본 교과서의 경우, ‘동·서양의 교류사’는 ‘원대의 역사’와 연관되어 비교적 자세히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고대사』에서는 아주 간단히, 그것도 ‘원대의 정치’(『고대사』의 제5장 제6절) 부분에서가 아니라 ‘요, 송, 하, 금, 원의 경제 발전과 대외 경제교류’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이색적으로 보인다.

『고대사』 이외에 중국 교과서로서 ‘동·서양의 교류’를 비교적 자세히 다룬 것은 상해 『역사』가 거의 유일하다. 여기서는 ‘3대 발명의 서전(西傳)’과 ‘로

마 천주교의 동전(東傳)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후자에서는 중국에 당대(唐代) 이래로 전파된 기독교가 원대에 크게 유행한 사실을 설명한다. 1245~1342년에 로마 교황청에서 파견된 여러 선교사 중에서도 몬테고르비노의 업적을 자세히 설명하여, 그가 대도에서 포교의 자유를 얻어 교회당의 건립, 『신·구약전서』의 몽골문 번역, 6,000명에 이르는 신자 확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상의 송대 경제와 송·원 시대의 국제교류 등을 중심으로 볼 때 내용 면에서의 다양성과 심화 정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내용은 대부분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에서도 언급되는 것이다.

V. 오대, 요, 송, 하, 금, 원 시기의 문화

1. '중국 과학기술의 우수성'과 그 배경

중국 교과서에서 두드러지는 내용의 하나는 전통시대의 중국의 과학기술이 매우 뛰어나 오랫동안 세계를 선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는 점이다. 이 점은 특히 서양과의 비교를 통해 기술되는 경우가 많다. '문화'를 다룬 『역사』(필수3) 교과서에서는 모두 이 점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교판 『역사』(필수3), 35쪽에는 다음과 같이 보인다.

중국 고대의 과학기술은 (그 성과가) 찬란하여 장기간 세계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통일대민족국가의 공고함과 발전, 농업경제의 변형은 중국 고대의 발명과 창조력을 保障해주었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의 성과가 이용되고

전파되는 데에도 그 조건을 만들어주었다. 근면하고 지혜로운 중국 고대의 과학자들은 천문학, 기상학, 醫藥學, 농학, 수학 등의 영역에서 독특한 공헌을 하였다. 4대 발명을 대표로 하는 중국 고대 발명과 발견은 주변국가에 대해서 또는 세계 문명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거대한 영향을 주었다.

역사상 중국인이 수많은 발명과 발견의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며,³⁸⁾ 『역사』(필수3) 교과서에는 소위 4대 발명품 이외에도 천문학, 기상학, 수학, 건축학, 조선업, 광업, 의학학, 농학 등에서의 업적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되는 부분은 중국에서의 과학기술의 발달 배경을 '통일다민족 국가의 공고함과 발전'에서 찾고 있는 중국 교과서의 관점이다. 지금 인용한 인교판 『역사』 제3권에도 그것이 보이나, 더 구체적으로는 악록판 『역사』(필수3), 29쪽의 '중국의 고대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원인'란에,

통일다민족국가의 공고함과 발전, 농업경제의 고도한 번영은 중국 고대 과학기술이 얻은 찬란한 업적의 근본 保障이었다. 제지기술의 개혁은 궁정에서 관원의 주도로 얻어져 황제가 승을 내려 推廣되었다. 장건, 반초, 감영 등의 탐험가가 실크로드를 개척해 동서교류를 촉진한 것도 모두 조정이 조직한 것이다. 항해기술 수준의 지표가 된 정화의 원양 항해도 완전히 국가가 조직 영도한 것이다. 天文을 관측하고 연구하는 기구-司天監은 고급관리인 太史令이 직접 영도한 것이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천문 기

38) 일례로 인터넷의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hinese_inventions에는 그와 관련된 130개 이상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또 중국인 학자 馬明中에 따르면 “중국의 古代에 이루어진 중요한 과학기술들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기원전 6세기 이전은 57%, 기원전 6세기에서 기원전 1년까지는 50%, 기원 1년에서 400년까지는 62%, 기원 401년에서 1000년까지는 71%, 기원 1001년에서 1500년까지는 58%에 달한다”고 한다. 馬明中(2001), 「中國四大發明及其對世界歷史的景響」, 『綏化師傳學報』 제21권 제1기.

록을 가졌던 이유의 중요한 부분은 중앙집권 국가의 支持와 조직에 있었다. 기원전 221년에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한 이후, 각 왕조는 교통의 발전, 도로 수축, 운하의 개통, 역참의 설치 등을 중시했다. 전국의 4통8달은 국가의 통일을 공고히 했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의 교류와 전파를 촉진했다. 정국이 안정되고, 경제가 번영하고, 도로가 暢通한 정황하에서 승일행, 심팔, 광수경, 이시진, 서하객 등이 비로소 대규모, 대범위의 과학적 고찰을 할 수 있었다.

고 하고 있다. 이것은 일찍부터 고도로 발달한 중국의 중앙집권체제에 의해서 과학기술이 국가 주도로 발달하였다는 것을 설명한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그 후에 유럽이 결국 중국을 과학기술 면에서 넘어섰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그러한 점에서는 중국 과학기술의 국가 의존적인 성격이 오히려 계속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었다는 역설도 담겨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2. 3대 발명과 그것의 외국으로의 전파

과학기술의 높은 수준을 강조하는 중국 교과서에서 송대는 3대 발명(화약과 화기, 나침반, 인쇄술)이 출현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절정기로 다루고 있다.³⁹⁾ 교과서들은 이들과 관련된 외국학자들의 설명을 소개하여 4대 발명이 갖는 세계사적인 의미를 강조하기도 한다.⁴⁰⁾

39) 『고대사』에는 “북송 과학자 심팔이 지은 『몽계필답』은 중국 고대, 주로 북송시대의 많은 과학기술의 업적을 총결하였고, 중국과 세계 과학기술사에서 중요한 지위를 갖는다. 영국의 과학자 니담은 심팔을 ‘중국 과학사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이라고 칭하고, 『몽계필답』을 ‘중국 과학사의 이정표’라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40) 악록판 『역사』(필수3), 28쪽에서는 미국의 학자 카터의 “유럽 문예부흥 초기에 4종의



다만 이들 발명품이 중국에서 출현한 것은 모든 교과서에서 이론이 없지만, 그것이 외국으로 전파된 경위에 대한 설명은 교과서에 따라 입장이 다소 다른 것이 주의된다. 또한 다른 교과서와는 달리 대상판 『역사』(필수3)는 4대 발명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 점도 이색적이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4대 발명을 소개하는 대신에 중국의 다른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소개하는 쪽으로 그 지면을 할애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내용을 알리려 하는 데에 의도가 있어 보인다.⁴¹⁾

1) 인쇄술

4대 발명 중에서 ‘활자인쇄술’, 특히 그 전파 부분은 교과서에 따라 서술의 차이가 비교적 많은 곳이다. 이것은 한국의 인쇄술 전통이 부분적으로 중국을 앞서고 있고, 또 유럽에서도 인쇄술이 중국의 영향 없이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는 입장이 한편에 있어, 그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위대한 발명품이 轉入流傳되어 현대 세계의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했다. 제지술과 인쇄술은 종교개혁의 길을 열었고, 광대한 농민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화약의 발명은 봉건제도를 없애고 國民軍制를 만들었다. 지남침의 발명은 美洲를 발견하게 하여 전 세계로 하여금 더 이상 유럽이 역사의 무대가 아니게 만들었다”는 설명을 인용하였고, 인교판 『역사』(필수3), 37쪽에는 “화약, 지남침, 인쇄술 — 이것은 자본계급사회의 도래를 미리 알리는 3대 발명이다. 화약은 기사계급의 해체를, 지남침은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식민지를 건립하였고, 인쇄술은 新教를 만들어내는 工具, 즉 과학을 부흥시키는 수단이 되었고, 정신의 발전에 대해서 꼭 필요한 강대한 지렛대를 만들었다”는 마르크스의 『機器, 자연력과 과학의 응용』의 한 부분을 인용하였다.

41) 대상판 『역사』(필수3), 22쪽에는 “중국 고대 과학기술은 오랫동안 세계의 선도적인 지위에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아는 4대 발명 이외에도 수많은 업적이 있어 인류의 문명에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 외국 학자 중에는 일찍이 감탄하여, ‘근대세계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발명과 발견에 의지하고 있는데, 그 반 이상이 중국에서 나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하였다. 본 장에서는 4대 발명 이외의 중국 고대 과학기술의 업적을 강술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먼저 통사체(通史體) 교과서인 『고대사』에서는 11세기 중엽에 필승이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여 세계문명을 위해 중대한 공헌을 했다고 한 다음, 인쇄술의 전파와 관련해,

활자인쇄술 발명 이후 東으로는 조선과 일본에 전해졌고, 西로는 이집트와 유럽에 전해졌다. 유럽인의 활자를 이용한 排版인쇄는 필승보다 4세기 이상 늦은 것이다.

고 하여, 간단하지만 활자인쇄술이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그리고 유럽으로도 전파된 것으로 설명한다. 이 점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악록판 『역사』(필수3)이다. 여기서는,

북송시기에 평민 필승이 활자인쇄술을 발명하였다. …… 이후 또 木활자가 출현했고, 13세기에는 금속활자가 출현했다. 13세기 중기에 활자인쇄술이 조선에 전해졌고, 이후 또 서역에서 유럽으로 전파되었다.⁴²⁾

고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13세기의 금속활자’는 13세기 후반경으로 추정되는 석(錫) 활자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지금의 악록판 교과서의 서술방식에 따르면 중국의 석활자가 13세기에 한국으로 전해졌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현재 기록상 최초의 활자본은 고려시대의 『상정고금예문(詳定古今禮文)』(1234)이므로 악록판 『역사』의 설명은 전후관계를 무시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악록판 『역사』가 중국에서 금속활자가 먼저 출현했다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추가설명 없이 넘어간 것은 한국

42) 악록판 『역사』(필수3), 28쪽.

의 금속활자를 의식한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악록판 『역사』(필수3)은 중국 교과서에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며, 목판인쇄술에 대해서도 아마도 한국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8세기 전반경)을 의식했기 때문인지 “현재 세계에서 현존하는 시기가 명확히 기재된 가장 이른 인쇄품은 868년에 조판(雕版) 인쇄된 『금강경(金剛經)』이다”⁴³⁾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는 “시기가 명확히 기재된 가장 이른 인쇄품”이라는 전제 하에서 세계 최초의 조판 인쇄품이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설명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인교판 『역사』(필수3)은 활자인쇄술의 설명에서 한국과 관계되는 설명이 아예 보이지 않는다. 즉 여기서는 북송시대에 만들어진 활자인쇄술이 인쇄업의 일대 혁신이라는 비교적 사실적인 설명만을 했다. 그리고, 그 전파와 관련해서는 동아시아와의 관계는 기술이 보이지 않고, 유럽에 대해서만

유럽인들은 중국의 인쇄술을 거울삼아 자신들의 활자인쇄기를 만들어내 대적으로 문예부흥운동과 종교개혁을 추진해 사상의 해방과 사회의 진보를 촉진시켰다.⁴⁴⁾

고 하였다. 이것 역시 한국의 인쇄술을 의식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인쇄술의 문제를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종합적(整合的)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에서 상해 『역사』가 주목된다.⁴⁵⁾ 같은 책에는 인쇄술의 전파와

43) 악록판 『역사』(필수3), 27쪽.

44) 인교판 『역사』(필수3), 36쪽.

45) 상해 『역사』, 183~184쪽은 동아시아에 대한 종이의 전파에 대해서는 “조선, 일본, 월남 등의 나라는 중국 문화의 영향이 비교적 깊었고, 그들은 제지술과 인쇄술의 기술도 다른 나라에 앞서 장악했다. 중국의 종이는 東漢시기에 조선과 월남에 傳入되었고,

관련해 다음처럼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본문(전자)과 참고문(후자)을 모두 소개해둔다.

11세기에 중국은 필승이 먼저 泥활자를 발명하였으나, 다만 근대 이전에 중국의 인쇄는 조판이 위주였다. 조선은 조판용의 재목(梓木)이나 조목(棗木) 등 양질의 재료가 부족했던 관계로, 중국에서 발명된 활자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조선인은 기원 13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금속활자를 발명했다. 알파벳을 사용하는 유럽인에게는 활자인쇄가 훨씬 유리하여, 독일인인 구텐베르크는 1456년에 일종의 새로운 금속활자의 인쇄방법을 창조하였다. 제지술과 인쇄술은 서방에서 광범하게 전파되어, 서방 대학의 흥기와 근대 과학기술 혁명에 필요한 물질적 기초를 제공하였다.⁴⁶⁾

한자는 표의문자로, 활자를 만드는 데에는 수천 개의 單字가 필요하였고, 또 고대에 常用된 經史書籍의 종류도 많지 않아 조판을 하나만 만들면 여러 해 동안 인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조판의 효과는 활자와 비교해 그리 떨어지지 않았다. 조선에서는 11세기 후반에 인쇄업이 상당히 발달하였으나, 조판에 이용되는 재나무와 대추나무 등 細紋硬木을 중국에서 수입해야 했고, 이것이 조선으로 하여금 활자에 대한 연구를 재촉하여 泥模澆鑄의 금속활자를 발명하게 했다.

여기에서는 중국과 한국, 그리고 유럽이 저마다 처한 고유한 환경과 조건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인쇄술의 발전 형태를 보였다는 설명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먼저 중국에서는 11세기에 세계 최초로 활자인쇄술이 발명되기는 했지만, 표의문자라는 한자의 특수한 사정, 상용(常用)된 책의 종류가 많지 않다는

위진시대에 이들 나라에는 중국의 책이 流傳되었고, 일본은 3세기에 조선인을 통해 중국의 종이와 종이를 만들어낸 『논어』를 얻었다”고 설명한다.

46) 상해 『역사』, 184~185쪽.

사정 등으로 활자보다 조판인쇄가 오히려 인쇄술의 주류를 이루었다고 설명한다. 그에 반해 한국에서는 조판인쇄에 필요한 재목(材木)이 부족한 현실 때문에 활자에 관심을 크게 기울여 세계에서 가장 빨리 금속활자를 발명했다고 하였다. 또 유럽에 대해서는 그들의 문자가 알파벳이었기 때문에 그에 더 적절한 활자인쇄가 개발되었다는 논리를 소개하지만, 그것의 중국 또는 한국과의 관계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는 중국, 한국, 유럽의 인쇄술에 대해 나름대로 논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을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발명국이라고 분명히 기술한 점 등에서 여러 교과서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진보적이라고 평가된다.

2) 화약·화기와 나침반

중국 교과서들은 모두가 화약이 9세기 무렵에 연단가(煉丹家)들의 단약(丹藥) 제조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그것이 송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군사용으로 사용되면서 화기의 개발도 뒤따랐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화약과 화기의 서방으로의 전래는 대체로 몽고 → 아랍 → 유럽 순으로 전파되었다고 설명한다. 다만 그 전래 시기는 13세기, 13~14세기, 14세기 등으로 통일적이지 않다.⁴⁷⁾ 또한 화약과 화기의 발명이 결과적으로 유럽의 봉건제를 해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설명도 보인다.⁴⁸⁾

47) 『고대사』에서는 “화약과 화약무기는 13세기 중기에 아랍으로 전입되었고, 그 후에 또 아랍을 통해 유럽으로 들어갔다”고 하였다. 상해 『역사』에서는 “몽고인은 송금과의 전쟁 중에 화약과 화기 만드는 것을 배웠고, 아랍인은 또 몽고와의 전쟁 중에 화약무기를 배웠으며, 13~14세기에 유럽인은 아랍인과 몽고인에게 화기제조의 비밀을 얻어, 화기는 뒤에 유럽 시민계층을 위해 봉건귀족을 반대하는 무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다시 약록판 『역사』(필수3), 28쪽에서는 “14세기 초에 화약은 아라비아인이 유럽으로 전하여, 서방사회에서 거대한 震動을 낳았다”고 하였다.



나침반은 대체로 화약에 대한 설명과 유사하다. 이미 전국시대에 그 원리를 알고 있던指南침은 송대에 항해에 사용되었는데, 이후 이슬람과 유럽으로 전해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화약과 마찬가지로 나침반의 전파도 정확한 시기를 확정하기 어려워 교과서에 따라 12세기 또는 13세기에 아랍세계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한다.⁴⁹⁾ 아울러指南침 역시 특히 유럽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주어 지리상의 대발견을 가져오게 했다고 대부분의 교과서는 특별한다.⁵⁰⁾

VI. 맺음말

이상 중국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10~14세기 역사 서술의 주요한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양한 체제로 구성된 현행 중국 교과서들은

- 48) 인교관 『역사』(역사3), 36쪽에서는 “화약은 유럽으로 들어가 유럽 화약무기의 발전을 推動시켜 봉건시대의 성채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여 기사계급의 쇠락을 야기시켰다”고 되어 있고, 또 상해 『역사』에서는 “13~14세기에 유럽인은 아랍인과 몽고인에게서 화기제조의 비밀을 얻어, 화기는 뒤에 유럽 시민계층을 위해 봉건귀족을 반대하는 무기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 49) 『고대사』에서는 “13세기에指南침은 아랍과 歐洲 각국에 傳入되었다”고 하고, 상해 『역사』에서는 “12세기에指南침이 아랍과 유럽으로 전해졌다”고 하고, 다시 악록 『역사』(역사3), 28쪽에서는 “13세기에指南침은 西歐로 轉入되어, 지리상의 대발견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설명한다.
- 50) 예를 들어 상해 『역사』에서는 “1405년에 명대의 항해가인 정화가 7차에 걸쳐 서양을 원정했고, 15~16세기에는 포르투갈인 바스코 다 가마가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에 달하는 항해를 하였으며,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마젤란과 그 함대의 세계 일주가 가능했던 것은 모두指南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럽에서指南침을 사용한 가장 이른 기록은 1180년의 파리였다”고 설명한다.



저마다의 특징을 한편으로 갖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한 민족모순의 지양과 민족융합의 발전이라는 시각이다. 본문이 다룬 10~14세기는 한족(漢族)과 북방민족의 대립과 충돌이 어느 시기보다도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현행 교과서들은 이들 현상이 결국 평화적으로 해소되어 상호가 하나로 융합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설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이 같은 민족융합은 중국사 전체를 통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이며, 10~14세기는 그러한 과정의 한 단계였다.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문제와 관련된 역사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도 ‘영웅’이라든지 ‘충신’이라는 평가는 쉽게 부여되지 않는다. 과거에 충신의 대명사로 묘사되던 ‘악비’나 ‘문천상’에 대한 묘사도 ‘다민족국가론’ 안에서는 사실 위주의 묘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중국 학자들 가운데 이른바 ‘대송사(大宋史)’의 연구방법을 주창하는 이가 있다는 점이다. 즉 서하사가(西夏史家)인 왕천순(王天順)에 따르면 10~13세기의 중국은 송, 요, 서하, 이어서 남송, 금, 서하가 정립하는 ‘삼국시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의 역사는 각각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즉 宋史를 확대한 ‘大宋史’의 입장)에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그래야만 중국사를 정확히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대송사’는 한 덩어리의 전체적인 단대사(斷代史)로서, 이 개념은 연구과정 중에서 드러나야 하고, 그것이 송·요·하·금조라는 몇 개의 부분을 서로 합쳐서 이루어진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⁵¹⁾ 왕천

51) 이상의 주장에 대해서는 王天順(1999), 「西夏史如何走進‘大宋史’」, 『中州學刊』 제5기 (총제113기) 참조.

순은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홀시(忽視)되어온 서하사(西夏史)⁵²⁾에 대한 중국사(中國史)로의 정식 편입은 물론, 그 서하사까지를 포함해서 이해해야 중국사의 참다운 이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⁵³⁾ 따라서 이것은 민족 간의 융합과 마찬가지로 선상에서 역사 면에서도 통합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작금의 추세상 제기될 법한 논리로 보인다. 다만 여기서 사용된 ‘대송사’라는 단어로부터는 ‘한족 중심의 사관(史觀)’이라는 인상이 남는다.

아울러 중국의 역사학계 일각에서는 10~13세기를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경향도 있다.⁵⁴⁾ 이 시기에는 북송, 요, 서하, 그리고 그에 이어서 남송, 서하, 금이 병립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종래 북송과 요, 또는 남송과 금을 ‘남북조 시대’라고 칭하는 예가 있던 것에 비추어보면, 이 역시 중국의 입장에서는 주장할 만한 것이라 생각된다. 아직 교과서에서까지는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이 ‘삼국시대’ 역시 ‘대송사’와 함께 중국의 ‘민족융합’이라는 의도를 보강하는 개념으로 보인다.

현행 교과서의 또 한 가지 두드러지는 특색은 중국 역사의 우수성, 선진성, 세계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점이다. 물론 그 내용은 대부분이 역사적 사실

52) 이와 관련해서는 李范文(2002), 「西夏在中國歷史中的地位」, 『寧夏社會科學』 제3기(총제112기)를 참조.

53) 왕천순의 위 논문에 따르면 ‘大宋史’라는 용어는 아마도 왕천순이 처음 사용한 것 같지만, 방법론으로서의 ‘대송사’ 적인 태도는 그보다 先代 학자인 鄧廣銘, 漆俠 등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54) 위에서 인용한 王天順의 논문에도 10세기에서 13세기까지 요, 하, 북송, 이어서 하, 금, 남송의 ‘三國局面’이 이어졌다 하고, 朱篠新(1988), 「評遼在夏, 宋關係中的作用」, 『寧夏大學學報(社會科學版)』 1(總第34기)도 “북송, 요, 서하는 우리 역사상에서 또 하나의 삼국 정립 시기였다”고 설명한다. 또 일반인들의 이용이 많은 www.wikipedia.org 중국어 판 ‘遼國’ 조에도, “聖宗結好西夏, 西夏搖擺于宋, 遼之間以圖存, 形成遼, 宋, 西夏三國鼎立的后三國時代”라고 보인다.

170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로서 인정되지만, 교과서들은 그 의미를 자주 그리고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교과서에서는 수많은 부분에서 선진적인 업적을 이루어 낸 전통시대의 중국이 결국 근대세계에 들어와 유럽에게 추월당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자문자답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 같은 양면적인 설명은 본문에서 많은 분량을 할애한 정화의 원정, 경제, 과학기술 등의 주제 속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정화의 원정은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서양에 앞서 대양을 호령했던 '쾌거'였고, 그 행위가 무력을 앞세운 식민주의가 아니라 선린외교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자찬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같은 중국의 소극적 행동이 결과적으로 서방과의 경쟁에 밀리게 해 자본주의 진입도 늦었다는 인식을 보인다.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방면에서도 중국은 오랫동안 세계의 중심이었다고 중국 교과서들은 강조한다. 이 또한 사실로서 인정되는 부분이 많아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중국 경제가 유럽에 뒤쳐진 것은 그 이면에 새로운 경제 요소의 성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역시 자가 진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악록판 『역사』(필수2) 1쪽에는,

농업경제의 보충을 위해 중국 고대의 상공업은 고도로 발달하였고, 수공업 생산품과 상품경제는 오랫동안 세계를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중농역상정책은 상업과 도시경제의 발전을 제한하였다. …… 보수적인 군주 전제통치와 封閉는 새로운 경제 요소의 성장을 저해하여, 최종적으로 중국을 현대화의 세계적인 큰 흐름 속에서 낙오하게 만들었다.

고 보고 있다.

과학기술 방면에서도 4대 발명을 비롯해 전통시대 중국의 우수성이 유감 없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중국 교과서들은 중국의 전통과학이 유럽의



근대과학에 밀리게 된 이유를 밝히기보다 그것이 근대 유럽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설명으로 대신하고 있다. 상해 『역사』의 ‘복습과 생각하기’란에서는, “4대 발명이 중국 사회의 발전에 어떠한 작용을 했는가? 왜 이들의 기술과 발명이 유럽에 끼친 영향은 중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처럼 자국사를 세계사와의 관계 속에서 기술하면서 그 우수성을 강조하고 또 일정한 위상을 확보하려는 중국사 서술방식은 현대 중국이 취하고 있는 방향성과도 닮은 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울러 끝으로 부연하고 싶은 것은 중국 교과서가 내용적으로 여전히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상당히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이다. 이미 ‘사회주의 시장경제’ 노선이 정착한 1990년대에 중국 교과서에서도 계급투쟁사관에 기초한 1960년대 이래의 장(章)의 설정 및 내용 구성이 모두 바뀌었고, 농민혁명을 기축으로 한 기술 대신에 사회·경제, 기술·문화 등으로 서술의 중점이 옮겨졌으며, 왕조지배 시기의 정치사에 대한 기술도 이제까지의 교과서에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던 사서(史書)의 기술이 빈번히 인용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말하자면 ‘정신교육’을 위한 역사교과서에서 ‘역사교육’을 위한 교과서로 서서히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⁵⁵⁾ 이 점은 소론(小論)이 본문에서 다룬 일정한 범위 안에서이지만 어떤 점에서는 1990년대의 교과서보다 한층 진보된 것처럼 보인다. 이 같은 점들은 중국에서 역사 연구와 그를 통한 교과서 편찬이 한층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사’와 ‘세계사’로서의 의미와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중국의 교과서들을 한국이나

55) 나카무라 사토루 편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역(2005), 앞의 책, 86쪽.



일본의 동아시아 교과서들과 객관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는 시기에 충분히 도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오창훈 외(2007), 『고등학교 세계사』, 지학사.
- 오دم성 외(2008), 『고등학교 세계사』, 금성사.
- 김은숙 외(2008), 『고등학교 세계사』, 교학사.
- 岸本美緒 외(2007), 『詳説 世界史B』, 山川出版社.
- 김유리(2005), 「역사교과대강에서 역사과정표준으로」, 『역사교육』 제96집.
- 나카무라 사토루 편저, 김성규·김종식 역(2005), 『동아시아 역사교과서는 어떻게 쓰여 있을까?』,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 이성규(1996), 「중국분열체제의 모식과 東亞諸國」, 『한국고대사논총』 8.
- 조병한(1997), 「90년대 동아시아 담론의 개관」, 『상상』 1997 여름호.
- 김경일(1998),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문화과학사.
- 데이비드 문젤로 저·김성규 역(2009), 『동양과 서양의 위대한 만남, 1500~1800』, 휴머니스트.
- 何茂春(1996), 『中國外交通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馬明中(2001), 「中國四大發明及其對世界歷史的影響」, 『綏化師傳學報』 제21권 제1기.
- 王天順(1999), 「西夏史如何走進‘大宋史’」, 『中州學刊』 1999년 제5기(총제113기).
- 李範文(2002), 「西夏在中國歷史中的地位」, 『寧夏社會科學』 2002년 제3기(총제112기).
- 朱篠新(1988), 「評遼在夏, 宋關係中的作用」, 『寧夏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88~1(總第34기).
- 屈文軍(2006), 「論中國歷史上的北方民族政權：以遼, 西夏, 金, 元四朝爲重點」, 『西北民族研究』 2006년 제2기.
- 윤영인(2009), 「거란과 금 시대의 다원적 국제질서」, 동국대 동아시아연구소 주최 2009년도 동아시아문화연구소 학술발표회 ‘고중세 동아시아의 외교와 교역’ 발표집.
- 李錫厚(2007), 「論“澶淵之盟”非“城下之盟”」, 『澶淵之盟新論』, 上海人民出版社.
- 黃震雲(2003), 「契丹的由來和遼代的建元(上, 下)」, 『遼寧工程技術大學學報(社科



- 版』, 2003年 第1-2期.
- 武玉環·陳德洋(2007), 「澶淵之盟與遼宋關係」, 『澶淵之盟新論』, 上海人民出版社
- 宋德金, 「二十世紀中國遼金史研究」, 『歷史研究』1998年 4期.
- 張希清 등 主編(2007), 『澶淵之盟新論』, 上海人民出版社.
- 李偉東, 「嶽飛崇拜的文化原因再探」(『華東交通大學學報』, 1996,(03)), 朱天運, 「嶽飛是民族英雄嗎?」(『運城學院學報』, 1998,(02)), 蕭丁, 「驚聞“嶽飛不是民族英雄”(『檢察風雲』, 2003,(02))
- 降大任, 「民族英雄問題再思考—從嶽飛、文天祥的評價說起」(『晉陽學刊』, 2003,(04)), 江華, 「不要再炒作嶽飛, 文天祥是不是“民族英雄”的問題」(『內蒙古宣傳』, 編輯部郵箱 2003年 03期)
- 豬口孝(1974), 「傳統的東アジア世界秩序試論」, 『國際法外交雜誌』.
- 山本達郎(1974), 「歷史上から見た東アジアの國際關係の形態」, 『國際基督教大學學報3-A』 8.
- 古賀登(1980), 「中國複合文化試論」, 『中國前近代史研究』, 雄山閣.
- 荒野泰典 등 편(1994),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アジアと日本』, 東京大學出版會.
- 溝口雄三(1994), 『アジアから考える』, 東京大學出版會.
- 小林一美(1996), 「中華世界における華夷關係の歴史的展開」, 『中世史講座』 11, 學生社.
- 村井章介(1997), 『中世後期における東アジア國際關係』, 山川出版社.
- 茂木敏夫(1997), 『變容する近代東アジアの國際秩序』, 山川出版社.
- 濱下武志 편(1999), 『東アジア世界の地域ネットワーク』, 山川出版社.
- 岸本美緒(1999), 『近世の東アジア』, 山川出版社.
- 李成市(2000), 『東アジア文化圈の形成』, 山川出版社.

- Edymion Wilkinson(2000), *Chinese History: A Manual*, Harvard University Press.
- John, K. Fairbank ed.(1968),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Morris Rossabi ed.(1983),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Mark Mancall(1984), *China at the Center: 300 Years of Foreign Policy*, New York : The Free Press,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청대사 서술 분석

전북대학교 이은자

- I. 머리말
- II. 역사과정표준의 청대사 서술 기본방향
- III. 역사과정표준 실험교과서의 청대사 서술 내용
- IV. 맺음말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청대사 서술 분석

전북대학교 이은자

I. 머리말

이 글에서는 현재 중국에서 사용 중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청대사(清代史) 서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중국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2002년 「역사교학대강(歷史教學大綱)」에 의거한 인민교육출판사(人民教育出版社) 교과서 1종, 2003년 「역사과정표준(歷史課程標準)」에 의거한 인민교육출판사, 악록서사(岳麓書社), 대상출판사(大象出版社), 인민출판사(人民出版社) 교과서 4종이 출판, 사용되고 있다.

중국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중국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사 서술 내용을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중국 역사교과서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중화민족론에 관한 연구, 중국의 역사교과과정과 역사교과서 연구 등도 진행되었다.¹⁾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1) 임상선 외(2008), 『중국과 타이완, 홍콩 역사교과서 비교』, 동북아역사재단 ; 연민수



있는 중국 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국의 새로운 교학과정과 역사과정표준 실험교과서의 전반적인 상황, 중국 고등학교 역사과정표준에 따른 『역사(歷史)』 실험교과서의 서술 내용과 구성체계를 분석한 연구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 교과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²⁾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역사과정표준에 의거한 실험교과서는 역사교과대강 교과서와 내용과 구성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청말(淸末) 이래 통용되어 오던 중국사와 세계사의 분리체제를 해체하고 각 책별로 중국사와 세계사의 내용을 연계하여 하나의 교과서로 서술하였다. 또한 정치사 중심의 통사식 서술 대신 필수과정(必修課程)은 각 책별로 정치, 경제사회, 사상문화의 분류사 체제로 구성하였고, 선수과정(選修課程, 한국의 선택과정에 해당됨)은 주제사 체제를 도입하였다.

이런 점에서 역사과정표준 실험교과서의 구성체제는 중국사와 세계사의 내용을 하나의 교과서로 서술하였다는 점, 또한 통사식 서술이 아니라 분류사, 주제사 체제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교과서의 구체적 서술 내용은 어떠한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외(2008), 『동아시아 역사교과서의 주변국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 동북아역사재단 편(2006), 『중국 역사교과서의 민족, 국가, 영토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 강만길 외(2004), 『근대 동아시아 역사인식 비교』, 선인 ; 김지훈(2006a), 「현대 중국 역사교과서의 역사 : 1949~2006년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75 ; 김지훈(2006b), 「중국의 역사과정표준 고등학교 실험역사교과서의 한국 관련 서술」, 『한국근현대사연구』 36 ; 유용태(2005), 「중화민족론과 동북지정학—“東北工程”의 논리적 근거」, 『東洋史學研究』 제93집.

- 2) 김지훈(2007), 「중국의 신교육과정과 역사과정표준실험교과서」, 『동북아역사논총』 17 ; 김유리(2008a), 「중국 고등학교 역사과정표준에 따른 『역사』 실험교과서의 서술 내용 분석」, 『역사교육』 105 ; 김유리(2008b), 「중국 고등학교 역사과정표준에 따른 4종 판본 『역사』 실험교과서의 구성 체계 분석」, 『역사교육논집』 40. 중국 학계의 연구성과는 앞서 언급한 각 논문의 주석, 혹은 참고문헌을 참고할 것.



이 글은 역사과정표준 4종 교과서 중 가장 채택률이 높은 인민교육출판사 교과서의 청대사 서술 내용을 분석하되, 기존 역사교과대강 교과서의 청대사 서술 내용과도 비교할 것이다.³⁾

II. 역사과정표준의 청대사 서술 기본방향

현행 역사과정표준 실험교과서는 2003년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에서 제정한 「보통고중역사과정표준(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實驗)에 의거하여 만들어졌다. 과정표준은 크게 전언(前言), 과정목표, 내용표준, 실시건의로 구성되었다. 이하 내용표준을 검토해보자.⁴⁾

내용표준은 필수과정, 선수과정으로 구분된다. 필수과정에는 역사1, 역사2, 역사3의 3개 모듈이 있다. 역사1은 정치(9개의 테마), 역사2는 사회경제와 사회생활(8개의 테마), 역사3은 사상문화와 과학기술(8개의 테마) 영역을 반영하였다. 각 모듈의 학습요점과 그중 청대사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3) 분석 대상 교과서는 아래와 같다. 歷史課程標準『歷史』必修1, 北京：人民教育出版社, 2008；歷史課程標準『歷史』必修2, 北京：人民教育出版社, 2007；歷史課程標準『歷史』必修3, 北京：人民教育出版社, 2008；歷史課程標準『歷史』選修1, 北京：人民教育出版社, 2008；歷史課程標準『歷史』選修2, 北京：人民教育出版社, 2009；歷史課程標準『歷史』選修3, 北京：人民教育出版社, 2008；歷史課程標準『歷史』選修4, 北京：人民教育出版社, 2008；歷史課程標準『歷史』選修5, 北京：人民教育出版社, 2008；歷史課程標準『歷史』選修6, 北京：人民教育出版社, 2009；歷史教學大綱『中國古代史』, 北京：人民教育出版社, 2008；歷史教學大綱『中國近代現代史』上下, 北京：人民教育出版社, 2007.
- 4) 이하 역사과정표준의 내용은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制訂(2003), 『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實驗), 北京：人民教育出版社에 의거한다.

〈표 1〉 『歴史』 必修1 : 학습요점과 청대사 관련 내용

학습요점	청대사 관련 내용
1. 고대 중국의 정치제도	(4) 청조 군기처 설치 등의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군주전제제도의 강화가 중국 사회 발전에 미친 영향을 인식한다.
2. 열강의 침략과 중국 인민의 반항투쟁	(1) 1840년에서 1900년간 서방 열강의 중국 침략 사실을 열거하고 중국 軍民이 외래 침략에 반항한 투쟁의 사적을 개술하며, 중화민족의 용감하고 굴복하지 않는 투쟁 정신을 이해한다.
3. 근대 중국의 민주혁명	(1) 태평천국의 주요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농민기위가 민주혁명 시기에 미친 작용과 한계성을 인식한다 (2) 신해혁명의 주요 과정을 간략히 서술하고 군주전제제도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건립한 역사적 의의를 인식한다.
4. 현대 중국의 정치 건설과 조국통일	없음
5. 현대 중국의 대외관계	없음
6. 고대 그리스, 로마의 정치제도	없음
7. 구미 부르주아 대의제의 확립과 발전	없음
8.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에서 사회주의 제도의 건립까지	없음
9. 현재 세계정치 구조의 다극화 추세	없음

『역사』 필수1에서 청대 전기는 청조 군기처 설치를 통한 군주전제제도의 강화, 청대 후기는 열강의 침략과 중국 인민의 반항 투쟁에 대한 개술(1840~1900), 태평천국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그 한계, 신해혁명의 주요 과정과 의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역사』 필수2에서 청대 전기는 중농역상 및 해금정책과 자본주의 맹아 문제, 청대 후기는 근대 자본주의 탄생의 역사적 배경, 반식민지 반봉건사회의 조건하에서 자본주의의 위상과 작용 등을 다루고 있다.

〈표 2〉 『歷史』 必修2 : 학습요점과 청대사 관련 내용

학습요점	청대사 관련 내용
1. 고대 중국 경제의 기본구조와 특징	(4) '중농역상', '해금' 등의 정책과 그 영향을 이해하고 중국 자본주의의 맹아 발전이 완만한 원인을 분석한다.
2. 근대 중국 경제구조의 변동과 자본주의 발전의 우여곡절	(1) 아편전쟁 후 중국 경제구조의 변동과 근대 민족공업 흥기의 사실을 간략히 서술하고 근대 중국 자본주의 탄생의 역사적 배경을 인식한다. (3) 반식민지 반봉건사회의 조건 아래서 중국 근대 역사발전 진행 중 자본주의의 위상과 작용을 탐색한다.
3.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길	없음
4. 중국 근현대 사회생활의 변천	없음
5. 신항로의 개척, 식민 확장과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형성과 발전	없음
6. 루스벨트 신정과 자본주의 운행 시스템의 조절	없음
7. 소련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과 교훈	없음
8. 현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추세	없음

〈표 3〉 『歷史』 必修3 : 학습요점과 청대사 관련 내용

학습요점	청대사 관련 내용
1. 중국 전통문화 주류 사상의 변천	(4) 이지, 황종희, 고염무, 왕부지 등 사상가를 열거하고 명청 시기 유학사상의 발전을 이해한다
2. 고대 중국의 과학기술과 문화	(3) 명·청 소설 등의 문학적 성취를 압으로써 중국 고대의 서로 다른 시기의 문화 특색을 이해한다. (4) 경극 등의 탄생과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그 예술적 성취를 설명한다.
3. 근대 중국의 사상 해방 조류	(1) 아편전쟁 후 중국이 서방을 학습하고 변혁을 탐구하는 사상 과정을 이해하고, 유신변법사상의 근대 중국 사회 발전 과정 중에 일어난 작용을 이해한다.
4. 20세기 이래 중국의 중대 사상 이론 성과	없음
5. 현재 중국의 과학기술과 문화	없음
6. 서방 인문정신의 기원과 그 발전	없음
7. 근대 이래 세계 과학기술의 역사적 발전	없음

『역사』 필수3에서 청대 전기는 유학사상의 발전, 소설 등의 문화적 성취, 경극 등의 탄생과 발전과정, 청대 후기는 아편전쟁 후 새로운 사상과 유신변법사상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술한 필수과정 내용표준과 청대사 관련 내용을 검토해보면, 청대 전기의 내용은 근기처 설치를 통한 청대 전제군주제의 강화, 중농역상 및 해금정책과 자본주의의 맹아, 유학사상, 소설, 경극의 탄생과 발전 등이다. 청대 후기의 내용은 열강의 침략과 중국 인민의 반항 투쟁(1840~1900), 태평천국의 한계, 신해혁명의 의의, 근대 자본주의 탄생의 역사적 배경, 자본주의의 위상과 그 작용, 아편전쟁 이후 새로운 사상과 유신변법사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선수과정은 선수1, 선수2, 선수3, 선수4, 선수5, 선수6의 6개 모듈로 구성되었다. 각 모듈별 내용표준은 다음과 같다.

〈표 4〉 『歴史』 選修1, 選修2, 選修3 내용표준

選修1: 역사상 중대 개혁 회고	選修2: 근대사회의 민주사상과 실천	選修3: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1. 슐론의 개혁	1. 전제 이론과 민주사상	1. 제1차 세계대전
2. 상앙의 변법	2. 영국 국회와 국왕의 투쟁	2. 베르사유-워싱턴 체제하의 평화
3. 북위 효문제의 개혁	3. 봉건 전제통치에 대한 선전포고	3. 제2차 세계대전
4. 왕안석의 변법	4. 부르주아 대의제 정치구조의 구축	4. 알타 체제하의 냉전과 평화
5. 유럽의 종교개혁	5. 프랑스 민주 역량과 전제 세력의 투쟁	5. 전화가 계속 이어지는 局部 전쟁
6. 무하마드 알리의 개혁	6. 근대 중국의 민주사상과 전제 반대 투쟁(*)	6. 평화와 발전-현재 세계의 시대적 주제
7. 1861년 러시아 농노제 개혁	7. 인민대중의 민주 요구 투쟁	
8. 메이지유신		
9. 무술변법(*)		

(*)는 청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된 항목임.

『역사』 선수1(역사상 중대 개혁 회고)에서는 전체 9개의 테마 가운데 무술변법이 포함되었다. 내용표준에 따르면, 무술변법 탄생의 역사적 근원, 강유위와 양계초 등 유신파 인물의 정치적 주장과 백일유신의 주요 내용을 개술하고, 무술변법 실패를 통해 중국 근대화 길의 우여곡절을 탐색하는 것이다. 『역사』 선수2(근대사회의 민주사상과 실천)에서는 전체 7개의 테마 가운데 근대 중국의 민주사상과 전제(專制) 반대 투쟁이 선정되었다. 내용표준에 따르면, 여기에는 19세기 후반 ‘중학위체 서학위용(中學爲體 西學爲用)’의 기본 주장, 강유위, 양계초와 손중산의 민주에 대한 주요 논설 등을 포함한다. 『역사』 선수3(20세기의 전쟁과 평화)에서는 청대사 관련 내용이 없다.

〈표 5〉 『歷史』 選修4, 選修5, 選修6 내용표준

選修4: 중국과 외국의 역사인물 평론	選修5: 역사의 신비 탐색	選修6: 세계 문화유산 모음
1. 고대 중국의 정치가(*)	1. 역사와 역사의 중시	1. 세계 문화유산의 유래
2. 동서양의 철학자	2. 인류 기원의 수수께끼	2. 고대 이집트 문명의 역사유산
3. 구미 부르주아 혁명시대의 걸출한 인물	3. 삼성퇴 유적-古蜀문명의 수수께끼	3. 고대 그리스, 로마의 역사유적
4. '아시아 각성'의 선구(*)	4. 마야문명의 소실	4. 유럽 문예부흥 시기의 문화유산
5. 프롤레타리아 혁명가	5. 이리두문화의 탐색	5. 중국의 역사문화유산 대표(*)
6. 걸출한 과학자	6. 미노스궁전 유적과 크레타문명	6. 경고의 의미를 갖고 있는 세계유산
	7. 대짐바브웨 유적과 아프리카 문명의 탐색	

(*)는 청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된 항목임.

『역사』 선수4(중국과 외국의 역사인물 평론) 중 ‘고대 중국의 정치가’에서는 강희제가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공고히 하는 작용을 논평하도록 하였다(그 외 중국의 정치가로 진시황, 당태종을 거론하였다). ‘아시아 각성’의 선구에서는 손중산이 청왕조의 군

주전제제도를 무너뜨리고 부르주아 공화국을 건립하는 주요 사실을 개술하고, 그것이 20세기 중국 사회의 변화에 미친 역사적 작용을 평가하도록 했다(그 외 간디의 인도 민족해방운동, 케말 파샤의 터키 민족 독립운동이 포함되었다). 『역사』 선수5(역사의 신비 탐색)에서는 청대사 관련 내용이 없다. 『역사』 선수6(중국의 역사문화유산 대표)에서는 북경 명청 고궁(明清 故宮), 이화원과 황가 능침(皇家 陵寢) 등 고건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서술한 선수과정의 내용표준에서 청대사 관련 부분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청대 전기의 내용은 강희제의 업적, 청대 고건축, 청대 후기의 내용은 무술변법, 중체서용의 내용, 강유위와 양계초의 민주에 대한 논설, 신

〈표 6〉 選修課程 내용표준과 청대사 관련 내용

選修課程	내용표준	청대사 관련 내용
選修1	9. 무술변법	(1) 무술변법 탄생의 역사적 근원을 이해한다 (2) 강유위, 양계초 등 유신파 인물의 정치적 주장과 백일유신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고 그 특징을 분석한다. (3) 무술변법 실패의 기본적 사실을 알고, 중국 근대화 길의 우여곡절을 탐색한다
選修2	6. 근대 중국의 민주사상과 전제에 반대하는 투쟁	(1) 19세기 후엽 '중학위체 서학위용'의 기본주장을 이해하고 당시 중국 사회 각 계층의 서방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반응을 인식한다. (2) 강유위, 양계초와 손중산의 민주에 대한 주요 논설을 간략히 서술하고 그 관점의 차이를 비교한다.
選修3	없음	
選修4	1. 고대 중국의 정치가 4. 아시아 각성의 선구	(3) 강희제가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공고히 하는 중의 작용을 평술한다. (1) 손중산이 청왕조의 군주전제제도를 무너뜨리고 부르주아 공화국을 건립하는 주요 사실을 개술하고, 그것이 20세기 중국 사회의 커다란 변화 중에 미친 역사작용을 평가한다.
選修5	없음	
選修6	5. 중국의 역사문화유산 대표	(3) 북경 명청 고궁, 이화원과 황가 능침 등 고건축을 이해함으로써 중국 고대 최고의 건축기술을 안다.

해혁명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무술변법, 양무운동, 신해혁명 등은 필수와 선수과정에서 모두 거론되고 있는 주제이다. 이런 점에서 선수과정의 내용표준에 의거하면, 청대 후기 중에서도 개혁, 자본주의, 민주 등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혁, 자본주의, 민주 등의 주제는 근대화, 서구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이다. 여기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사의 내용은 축소되거나 아예 거론되지 않았다.⁵⁾

III. 역사과정표준 실험교과서의 청대사 서술 내용

1. '강옹건 성세(康雍乾 盛世)' -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공고화

역사과정표준 교과서 필수1, 필수2, 필수3은 각각 정치, 사회경제와 생활, 사상문화와 과학기술 영역을 반영하고 있다. 청대 전기의 정치에 대해서는 필수1에서 군기처의 설립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그에 의하면, 군기처의 설립이 행정 효율을 높이고 각종 문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국의 군정(軍政) 대권(大權)이 황제의 수중에 완전히 집중되어 군주 전제가 강화되고 중앙 집권이 더욱 공고화될 수 있었다고 한다.⁶⁾

필수1, 필수2, 필수3에서 강옹건 성세와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지만, 선수4(중국과 외국의 역사 인물 평론)에서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보위자 강희제에 관한

5) 일본사의 경우 『歴史』 選修2에서 명치유신을 다루고 있다.

6) 『歴史』 必修1, 18쪽.

내용이 4쪽에 걸쳐 서술되었다. 관련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단원 고대 중국의 정치가

제3과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보위자 강희제

소년 황제/ 통일국가의 공고/ 국가주권의 보위

도입부의 학습목표에서는 강희제가 몽고 갈단을 친정(親征)하여 패배시킨 내용을 소개하면서 주된 탐구문제로 ‘강희 초년의 형세는 어떠한가’, ‘강희는 다민족국가의 공고한 통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강희제의 역사적 공헌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의 세 가지를 지적하였다.

「통일국가의 공고」, 「국가주권의 보위」에서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681년 대만을 점거한 정성공의 아들 鄭經이 죽자 정경의 아들 鄭克塽이 자리를 이었다. 강희제는 시기를 포착하여 대만을 수복하기로 결정하였다. …… 정극상을 압박해서 청에 항복하도록 했다. 곧이어 대만부를 설립하고 그 아래 3현을 두고 복건성에 예속시켰다. 아울러 總兵, 副將을 설치하여 대만, 팽호에 주둔하도록 했다. 대만은 다시 중국 정부의 관할하에 통일되었다. 이때에 漠西에서 유목하는 몽고 준가르부가 발전하여 준가르의 칸 갈단이 南疆 回部를 정복하고 西藏을 독점하였으며 青海, 漠北 갈카[喀爾喀] 몽고에 진공하였다. 심지어 러시아의 지지하에 병사들 안으로 끌어들였다. 갈단은 일찍이 강희제에게 “聖上은 남방의 군주가 되고, 나는 북방의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하여, 청조의 강토를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야심을 폭로하였다. 강희제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병의 명을 내렸다. 그는 ‘악을 제거하는 데 온 힘을 다한다’는 기백으로 사막 깊숙이 들어가 세 차례 親征하여 청군을 지휘하여 전후로 烏蘭布通, 昭莫多 전역의 승리를 쟁취하였고, 또한 갈단이 回部, 青海로 가서 西藏과 연락하는 통로를 단절하였다. 반군과 인척에게서 유리된 갈단이 음독자살

함으로써 반란은 평정되었다(『통일국가의 공고』).⁷⁾

2. 한족 지구에서 성장한 만주족 정치가로서 강희제는 학습과 창조에 뛰어나고 중국 각 민족의 문화 전통을 존중하였다. 그는 제1차 南巡에서 曲阜에 이르러 孔廟에서 공자를 향해 三跪九叩의 예를 행하고 친히 '萬歲師表'를 써서 대성전 위에 걸었다. 그는 유가 문화를 숭상하고 과거를 시행하여 인재를 구하고 한족 文士를 연모함으로써 계급, 민족모순을 완화하였다. 또한 만족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였다. 그는 몽고족, 장족의 단결을 강화하여 특히 라마교를 존중하였다. 烏蘭布通 전역의 승리 후 강희제는 多倫에서 내외 몽고 수령과 회맹하여 정식으로 전체 갈가 몽고 귀족과 라마의 신복을 받아들였다. 청조는 蒙藏 지구에서 달라이, 판첸, 저부준 단바[哲布尊丹巴], 창가[章嘉]의 4대 活佛을 특별히 봉하여 몽장 지구의 라마 교무를 나누어 관장하도록 하였다. 4대 活佛은 청정에 직할되었다. 이렇게 하여 불교를 보호하고 活佛을 존숭하였으며 '나누어 다스리는' 목적을 이루었다(『통일국가의 공고』).⁸⁾

3. …… 1689년 중국과 러시아 쌍방은 '네르친스크조약'을 체결하였다. …… 이것은 양국이 평등 협상을 거쳐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성질을 갖춘 邊界 조약이었다. 청조는 서방 식민주의자가 중국을 침략하는 풍조가 형성되기 이전에 법률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동단의 변계를 확정하고 흑룡강과 오소리강 유역의 사할린을 포괄하는 광대한 지구가 모두 중국의 영토임을 증명하였다. 이로써 변계 170여 년의 안정을 유지하였다. 조약의 한편인 청조는 처음으로 '중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大清'이라는 朝號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청조가 행사하고 보위하는 것이 중국의 주권임을 표명하였다(『국가주권의 보위』).⁹⁾

7) 『歷史』選修4, 14쪽.

8) 『歷史』選修4, 14~15쪽.

9) 『歷史』選修4, 15~16쪽.

첫 번째 인용문은 대만 수복과 갈단 원정에 대한 내용이다. 정극상의 항복으로 대만이 다시 중국의 통치로 들어왔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준가르 부족의 수장 갈단을 청조 강토를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야심을 가진 무리로 규정하고, 강희제가 세 차례 친정을 거쳐 갈단을 제거한 사실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인용문은 만주족 황제 강희제가 중국 각 민족의 문화 전통을 존중하는 데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설명하였다. 예컨대 한족의 유가 문화를 존송하고, 몽장(蒙藏) 지역의 불교를 보호하고 활불(活佛)을 존송했음을 서술하였다. 마지막 인용문에서는 러시아와 네르친스크조약을 체결하여 중국과 러시아 동단 변계를 확정하고 흑룡강과 오소리강 유역 사할린을 포괄하는 지역이 중국의 영토임을 규정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네르친스크조약에서 청조가 ‘대청(大清)’이라는 조호가 아니라 ‘중국(中國)’이라는 국호를 처음 사용하였음에 주목하여, 중국의 주권을 행사하고 보위하는 데 노력하였음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강희제에 대해 “그는 공전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창조하고 공고히 하였다”고 서술한 뒤, “그의 자손 옹정, 건륭은 그의 기업을 계승하여 중국 역사상 장대한 150년의 ‘강건 성세’를 공동으로 창조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역사교과서 대강 교과서에는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발전과 관련한 내용을 몽고와 신강, 서장(西藏), ‘개토귀류(改土歸流)’와 대만부(臺灣府)의 설치, 정성공의 대만 수복, 알바진 보위진, 청조 전기 강역(疆域)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6쪽에 걸쳐 서술하였다.¹⁰⁾ 따라서 선수4에서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보위자로서 강희

10) 歷史教學大綱 『中國古代史』에는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발전과 관련한 내용이 6쪽에 걸쳐 서술되었는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몽고와 신강에 관해, 몽고를 복속하고 신강을 직접 통치하고 군대를 주둔시킨 상황을 조국을 보위하고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공고히 한 행위로 규정하였다. 둘째, 서장 지구에 관해서는 청조 중앙정부가 겐룩과 수장 달라이와 판첸에 대한 감독과 임명권을 장악하고, 駐藏大臣을 파견하여 달라이, 판첸과 공동으로 서장 사무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서장 관할을 강화하였다



제를 4쪽에 걸쳐 언급함으로써 필수 교과서에서 강용건 성세와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공고화 관련 내용이 빠진 부분을 일정 정도 보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대 전기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강용건 성세와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발전에 관한 내용이 필수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류사, 주제사를 표방한 역사교과대강 교과서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2. 사회의 위기-자본주의 맹아의 발전과 '폐관쇄국(閉關鎖國)'

필수2에 자본주의 맹아의 발전과 폐관정책에 관한 내용이 서술되었다. 관련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단원 고대 중국 경제의 기본 구조와 특징

제1과 발달한 고대농업

제2과 고대 수공업의 진보

발달했다고 알려진 관영 수공업/ 경영이 어려운 민간 수공업/ 중국

고 언급하였다. 셋째, '改土歸流'와 대만부의 설치에 관해서는 '개토귀류' 정책이 서남 소수민족의 낙후, 할거 분쟁의 상황을 바꾸고, 민족 간의 경제·문화 교류를 촉진하여 통일다민족국가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데 유리했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정씨 일족의 투항으로 대만이 청조의 판도에 들어오고 대만 개발을 촉진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넷째, 정성공의 대만 수복에 관해, 정성공이 네덜란드 식민 세력을 몰리치고 대만을 차지한 뒤 개발한 사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섯째, 알바진 보위전에 관해, 중국과 러시아 간 체결된 네르친스크조약으로 흑룡강과 오소리강 유역, 사할린이 중국의 영토임을 긍정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여섯째, 청조 전기 강역에 대해, 현재 중국 전체와 대만, 몽골인민공화국, 러시아령 연해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歷史敎學大綱『中國古代史』, 121~125, 127~128쪽 참고).



고대 수공업이 세계에 이름을 알리다

제3과 고대 상업의 발전

제4과 고대의 경제정책

토지제도의 변화/ 중농억상/ 해금과 폐관쇄국

자본주의 맹아 문제는 제2과 고대 수공업의 진보 중 「경영이 어려운 민간 수공업」에 일부 서술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조 중·후기 사회 생산력과 상업경제의 발전에 따라 강남 일부 수공업 부문에서 자본주의 성질의 생산관계가 출현하기 시작하였는데, 학술계에서는 이를 ‘자본주의 맹아’라고 칭한다. 청조에 들어서자 자본주의 맹아가 계속 발전하였다.¹¹⁾

이에 따르면, 자본주의 맹아와 관련한 내용이 상당히 소략하다. 또한 “학술계에서 ‘자본주의 맹아’라고 칭한다”고 서술함으로써 자본주의 맹아 문제를 학술계의 하나의 견해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자본주의 맹아의 구체적 내용은 본문에서 서술하지 않고 ‘학사(學思)의 창’에서 다루었다.¹²⁾

역사과정표준 교과서는 자본주의 맹아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오히려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예컨대 제4과 고대의 경제정책 중 「중농억상(重農抑商)」, 「해금(海禁)과 폐관쇄국(閉關鎖國)」의 내용이 그러하다.

1. 명청 시기 공상업은 공전의 발전을 하였으나 봉건 정부는 의연히 重農抑

11) 『歷史』必修2, 10쪽.

12) 『歷史』必修2, 10쪽.

商 정책을 고수하였다. …… 명대와 청대에 계속 전매제도를 실행하여 소금과 차 등 중요 상품의 경영을 독점하였고, 민영 상업에 대해서는 商稅를 가혹히 징수하여 공상업의 정당한 경영을 파괴함으로써 자본주의 맹아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重農抑商』).¹³⁾

2. 淸初 동남 연해의 抗淸 투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海禁을 엄격히 실행하고 관민이 사사롭게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였다. 또한 연해 주민을 수십 리 안쪽으로 이주시켜 인민이 널빤지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것을 불허함으로써 ‘폐관쇄국’ 정책을 실행하였다. 명칭 통치자는 비록 일찍이 해금을 개방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폐관정책을 실행하였다. 청정부는 심지어 天朝大國은 물산이 풍성하고 없는 것이 없어 외국과 무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정상적인 해외무역은 정체에 빠지게 되었다. 청조가 장기적으로 실행한 폐관쇄국정책은 해외시장 개척을 방해할 뿐 아니라 자본의 원시적 축적을 억제하고 자본주의 맹아의 자장을 막았다. 또한 중국과 세계를 단절시켜 중국이 점차 세계조류보다 낙후되도록 했다(『海禁과 閉關鎖國』).¹⁴⁾

첫 번째 인용문에서는 명칭 왕조의 정책이 자본주의 맹아의 발전을 저해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폐관쇄국정책이 해외시장 개척을 막고 자본의 원시적 축적을 억제했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 맹아의 자장을 막았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중국과 세계를 단절시켜 중국을 낙후하게 만들었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역사교과대강 교과서는 자본주의 맹아 문제와 폐관정책에 관한 내용을 2쪽에 걸쳐 비교적 같은 비중으로 자세히 서술하였다.¹⁵⁾

13) 『歷史』 必修2, 18쪽.

14) 『歷史』 必修2, 18쪽.

15) “청대 자본주의 맹아는 계속 발전하였다. …… 그러나 자본주의 맹아의 발전은 아주



주지하듯이 청대의 유명한 문학작품 『홍루몽(紅樓夢)』에 대한 이해에서 제기된 자본주의 맹아 문제는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역사학계의 중요한 연구 주제였다. 등척(鄧拓)은 1955년 1월 9일자 『인민일보(人民日報)』에 「홍루몽의 사회 배경과 역사 의의를 논함(論“紅樓夢”的社會背景和歷史意義)」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봉건 경제체계 내부에서 자본주의 경제 요소의 맹아가 성장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이후 학자들 간에 토론이 제기되면서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일찍이 모택동은 중국 봉건사회 내 상품경제 발전은 이미 자본주의 맹아를 잉태하고 있고, 만일 외국 자본주의의 영향이 없었다면 중국도 완만하게 자본주의 사회로 발

완만하였다. 명대 중·후기부터 출현하여 아편전쟁 전야까지 비록 장대하였으나 돌파하지 못하고 시종 맹아 상태로 배회하여, 모든 생산이 공장수공업 단계로 진입하지 못했다. 그 역량은 봉건 생산방식을 분해하기에 부족하여 전국 범위 내에서 자급자족의 봉건경제는 여전히 주도적 지위를 차지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부패한 봉건제도가 자본주의 맹아의 성장을 크게 저애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농민은 잔혹한 봉건적 착취로 인하여 절대 빈곤 상태에 있었고, 시장에서 수공업품을 살 능력이 없었다. 지주와 상인은 벌어들인 금전을 대량으로 저택과 토지 구입에 사용함으로써 수공업의 확대재생산에 큰 영향을 주었다. 봉건국가는 關卡를 여러 곳에 설치하여 상품에 대해 중세를 거두고 수공업생산 규모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청 정부는 폐관정책을 실행하여 해외무역을 금지 혹은 제한하였다.”(「수공업의 진보와 자본주의 맹아」, 『中國古代史』, 119쪽) (명청 시기의 상업도 계속 변형하였다)…… 청조 통치자는 폐관정책을 실행하여 한편으로는 國人이 바다로 나가 무역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 상인이 중국에 와서 무역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이때 중국의 수출상품은 시장 상품 총량의 3% 정도를 점했을 뿐이다. 전체 경제 중 대외무역의 비중이 아주 적어 공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어려웠다. 장기적으로 세계와 단절됨으로써 중국은 점차 세계 조류의 뒤편으로 떨어졌다. 청대 초기에 조정은 여러 차례 海禁을 반포하였고 외국에 대해서 ‘공헌한 바가 없으면 무역을 불허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강희제는 일찍이 해금을 풀었으나 중국 연해에서 서방 식민주의자의 불법 활동이 계속되었다. 청정부는 廣州 한 곳만의 海關을 남겨두고 통상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특허한 ‘公行’이 대외무역의 일체 사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실제로 청 정부는 여전히 폐관정책을 실행하였던 것이다.”(「상업의 변영과 대외무역 상황」, 『中國古代史』, 120쪽 참고)



전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토론의 논점은 중국 봉건사회에 존재하는 자본주의 맹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맹아의 출현 시기가 언제인가에 집중되었는데, 대부분 학자는 명청 시대 맹아설을 주장하였다.¹⁶⁾ 역사교과과정 교과서는 명청 맹아설에 관한 내용을 충실히 서술하고 있다. 역사과정표준 교과서 역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략하다. 후술하겠지만, 자본주의 '맹아' 보다는 자본주의 '탄생과 발전'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3. 혁명과 현대화

열강의 침략전쟁과 중국 혁명에 관한 내용은 필수1에 수록되어 있다. 관련 목차는 다음과 같다.

- 제4단원 근대 중국 반침략, 求民主의 조류
- 제10과 아편전쟁
- 제11과 태평천국운동
- 제12과 갑오중일전쟁과 8개국 연합군의 중국 침략
- 제13과 신해혁명

우선 제4단원의 개요에 따르면, 근대 중국의 아편전쟁, 제2차 아편전쟁, 갑오중일전쟁, 8개국 연합군 침략전쟁 등 열강의 중국 침략이 중국 인민에게 큰 재난을 주었지만 중국 인민은 굴복하지 않고 침략에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부

16) 신승하(2000), 『중국사학사』, 고려대학교출판부, 372~376쪽 ; 羅志田 主編(2001), 『20世紀的中國：學術與社會』, 史學卷(상), 濟南：山東人民出版社, 202~204쪽 ; 周朝民 等 編著(1989), 『中國史學四十年』, 南寧：廣西人民出版社, 16~83쪽.

홍의 길을 탐색하였다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그 부흥의 길은 태평천국운동, 신해혁명을 거쳐 중화민국 시기에 오사애국운동과 중국공산당의 탄생, 항일전쟁, 해방전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¹⁷⁾ 그러면 열강의 침략과 그 영향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보자.

1. (1842년 8월) 청 정부는 영국에 굴복하여 화의를 요청하였다. 중국은 영국의 압박으로 중국 근대사상 첫 번째 불평등조약인 南京條約을 체결하였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이러하다. 홍콩 섬을 할양하여 영국에게 준다. 배상금은 2,100만 銀元으로 한다. 광주, 하문, 복주, 영파, 상해 5곳을 개항장으로 개방한다. 중국 해관이 영국 상인에게 징수하는 수출입 화물 관세는 쌍방이 서로 의논하여 정한다 등. 아편전쟁은 중국에 거대한 굴욕과 엄청난 재난을 가져다주었다. 이로부터 중국의 대문이 강제로 열렸고 외환이 계속 이어져 중국의 주권과 영토가 부단히 파괴되었다. 중국은 독립 자주의 봉건국가에서 수식민지 半봉건국가로 떨어지기 시작하였다(제10과 중 「아편전쟁」).¹⁸⁾

2. …… 제2차 아편전쟁으로 중국은 대규모 영토를 상실하고 중국의 주권은 더욱 엄중한 침해를 받았다. 청 정부는 열강에 의해 통제되기 시작하였고 중의 반동세력은 공개적으로 결탁하여 중국 인민의 반항을 공동 진압하였다. 중국 반식민지 반봉건화의 정도가 심화되었다(제10과 중 「전쟁이 재연되다」).¹⁹⁾

3. 1895년 4월 청 정부는 일본과 굴욕적인 馬關條約을 체결하였다. 조약은 요동반도, 대만과 부속 도서, 팽호열도를 일본에 할양한다. 일본 군비로 2억

17) 『歷史』 必修1, 49쪽.

18) 『歷史』 必修1, 51~52쪽.

19) 『歷史』 必修1, 53쪽.

양의 白銀을 배상한다. 사시, 중경, 소주, 항주를 개항장으로 개방한다. 일본은 중국 개항장에서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할 수 있고, 상품을 중국 내지로 운반하는 데 내지세를 면제받는다. 마관조약으로 중국의 영토와 주권은 큰 손실을 가져왔다. 거액의 배상금은 중국 인민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 새로운 개항장의 개방은 열강 침략세력을 중국 내지에 깊숙이 끌어들이었다. 외국이 중국 내에서 투자와 공장 건설을 허가함으로써 열강의 대외자본 수출경로가 확장되었다. 이로써 중국 민족자본주의의 발전이 크게 저해되었다. 마관조약의 자극으로 열강이 다투어 중국에서 세력 범위를 확대하여 중국을 瓜分하는 광풍이 일어났다. 중국 사회의 반식민화 정도가 더욱 심화되었다(제12과 중 「갑오중일전쟁」).²⁰⁾

4. …… 신축조약의 체결은 중국에 심대한 위기를 조성하였다. 거액의 배상금은 중국 인민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중국의 세수는 열강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공사관 구역’은 실제로 ‘國中之國’으로 열강이 중국 침략을 획책하는 大本營이 되었다. 청조의 內地 京津에서 山海關에 이르는 광대한 지구가 열강의 무장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의화단을 지지한 관원을 처벌하고, 외무부를 개설하여 열강이 외교통로를 통해 청 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신축조약은 제국주의 열강이 중국에 강요한 또 하나의 불평등조약이다. 열강은 흉악무도하게 중국에 대해 강탈을 강화하는 외에, 청정부를 제국주의의 중국 통치 도구로 만들었다. 청 정부는 洋人の 조정으로 타락하였다. 신축조약의 체결은 중국이 완전히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음을 표현한다(제12과 중 「신축조약의 체결」).²¹⁾

첫 번째 인용문은 아편전쟁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다. 아편전쟁의 결과 중국은 독립 자주의 봉건국가에서 반식민지 반봉건국가로 전략하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두 번째 인용문은 제2차 아편전쟁의 결과 중국은 대량의 영토를

20) 『歷史』 必修1, 58~59쪽.

21) 『歷史』 必修1, 61쪽.

상실하고 주권이 큰 침해를 받았으며, 청 정부와 열강이 결탁하여 중국 인민의 반항 투쟁을 공동 진압함으로써, 중국의 반식민지 반봉건화의 정도가 가속화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세 번째 인용문은 마관조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마관조약 이후 열강의 중국 과분(瓜分) 풍조가 일어나 중국 사회의 반식민화 정도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서술하였다. 네 번째 인용문은 신축조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신축조약의 체결로 중국이 완전히 반식민지 반봉건사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음으로, 중국 혁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천조전무제도는 태평천국의 강령성 문건이다. 그것은 농민의 토지 획득 요구에 대한 강렬한 바람을 반영하는 것으로, 몇천 년 이래 농민 반봉건 투쟁 사상의 결정체이다. 그러나 그것이 체현한 절대 평균주의 사상은 실제의 상황과 맞지 않아 근본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제11과 중 「천조전무제도의 반포」). …… 『資政新篇』은 선진적 중국인이 처음으로 제출한 중국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구상이다. 그러나 당시 형세의 압박으로 실현될 수 없었다. …… 1864년 홍수전이 병사하였다. 오래지 않아 태평군 장사는 天京을 포위 공격한 湘軍과 격렬한 시가전을 벌였다. 최종적으로 천경은 함락되고 태평천국은 실패하였다(제11과 중 「天國의 비극」).²²⁾

2. 신해혁명은 중국 근대 역사상 위대한 부르주아 민주혁명이다. 그것은 청 왕조를 무너뜨리고 중국의 2천여 년 봉건군주 전제제도를 끝냈으며, 부르주아 공화국을 건립함으로써 인민에게 일부분의 민주와 자유의 권리를 획득하도록 했다. 이로부터 민주공화의 관념이 점차 인심에 깊이 들어갔다. 신해혁명은 洋人の 조정을 무너뜨리고 객관적으로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 타격을 주고, 중국 민족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조건을 창출하였다(제13과 중

22) 『歷史』必修1, 55~56쪽.

「중국 민주 과정의 금지탑」).²³⁾

첫 번째 인용문은 태평천국운동에 관한 내용이다. 천조전무제도와 『자정신편(資政新篇)』의 의미와 한계성을 서술한 뒤 태평천국운동이 1864년 실패하였음을 간단히 언급하였다. 두 번째 인용문은 신해혁명의 의미에 관한 내용이다. 신해혁명은 부르주아 민주혁명으로 청조 타도와 봉건 전제제도의 종결 및 부르주아 공화국을 성립시켰다는 점, 제국주의 세력에 타격을 주고 민족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조건을 창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열강의 중국 침략과 중국 혁명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역사교과대강 교과서와 비교하여 내용은 거의 차이가 없다.²⁴⁾ 문제는 서술 분량이다. 이 내용은 역사교과대강 교과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필수 교과서에서는 14쪽(필수1) 분량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 근대사의 중요한 키워드인 반식민지 반봉건사회의 형성, 반제 반봉건(反帝 反封建) 투쟁에 관한 내용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현대화’의 실현으로써 근대 자강운동에 관한 내용은 필수2와 필수3, 선수1과 선수2에 중복 서술되었다. 관련 목차는 다음과 같다.

『역사』 필수2

제3단원 근대 중국 경제구조의 변동과 자본주의 발전의 우여곡절

제9과 근대 중국 경제구조의 변동

자연경제의 점진적 해체/ 양무운동/ 중국 민족자본주의의 탄생

23) 『歷史』 必修1, 65쪽.

24) 역사교과대강 교과서[『中國近代現代史』(上)]에서 아편전쟁, 제2차 아편전쟁, 청일전쟁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이은자(2009), 「중국과 타이완 역사교과서의 중국 근대사 서술 내용 비교 분석」, 『중국과 타이완, 홍콩 역사교과서 비교』, 동북아역사재단 참고.

『역사』 필수3

제5단원 근대 중국의 사상 해방 조류

제14과 '師夷長技'에서 維新變法까지

'눈을 떠서 세계를 보다' / '中學爲體 西學爲用' / 유신 변법사상

『역사』 선수1

제9단원 무술변법

제1과 아편전쟁 후 민족위기의 가속화

馬關條約의 체결과 민족위기의 가속화/ 청 정부의 통치위기/ 중국 민족자본주의의 초보적 발전

제2과 유신운동의 흥기

早期 개량운동/ 강유위와 그 변법운동/ 公車上書와 強學會/ 양계초와 時務報

제3과 백일유신

救亡과 변법의 호소가 다시 일어난다/ 백일유신

제4과 무술변법

新舊 세력의 싸움/ 백일유신의 실패/ 변법 실패의 원인과 변법의 역사적 의의

『역사』 선수2

제6단원 근대 중국의 민주사상과 專制 반대투쟁

제1과 서방 민주사상의 중국에 대한 충격

中體西用/ 晚清 사회 각 계층의 서방 민주정치에 대한 반응

제2과 중국 부르주아의 민주사상

강유위와 양계초의 민주사상/ 孫中山의 민주사상

제3과 부르주아 민주혁명의 조성과 폭발

專制 통치를 구해내는 '豫備立憲' / 신해혁명이 봉건 專制를 무너뜨리다/ 열강의 신해혁명에 대한 간섭

목차를 보아도 열강의 중국 침략과 혁명에 관한 내용과 비교하여, 자강운동 관련 내용이 상당히 풍부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보자.

1. 제2차 아편전쟁 이후 청 정부는 내외외환의 곤경을 맞이하였다. 일부 비교적 개명적인 관료는 봉건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서방의 선진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청조 통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료를 양무파라고 칭한다.…… 그러나 양무파는 서방의 일부 근대 과학기술을 끌어들이고 과학 인재를 배양하여 객관적으로 중국 자본주의 발전을 자극하였다. 중국의 첫 번째 근대기업이 양무파의 주장으로 출현하였는데, 그것들은 외국의 경제침략을 일정 정도 저지하는 작용을 하였고, 중국 봉건경제를 와해시키는 데도 일정 정도 추진작용을 하였다(「양무운동」).…… 19세기 60~70년대 중국 민족자본주의가 탄생하였다. 민족자본주의 기업은 주로 동남 연해 지구에 분포하였는데…… 그 출현은 중국 봉건경제의 해체과정에서 자본주의 생산방식이 탄생하였음을 설명한다(「중국 민족자본주의의 탄생」).²⁵⁾
2. 제2차 아편전쟁 종결 후 내외외환의 형세에 직면하여 청 정부 내부에는…… (양무파는) ‘中學爲體 西學爲用’, ‘師夷長技以自強’의 사상을 제출하였다. 이것은 양무파가 봉건제도를 긍정하고 봉건 綱常倫理를 국가 ‘安身立命’의 근본으로 강조하는 동시에, 서방 선진 과학기술의 채용을 주장한 것이다. 그 목적은 무너져가는 봉건통치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양무파는 魏源이 제출한 ‘師夷長技’의 사상을 실천에 옮겨 일군의 근대기업을 창설하고 신식학당을 개설하여 중국 근대화 과정의 첫걸음을 내디디게 하였다(「中學爲體 西學爲用」).²⁶⁾

25) 『歷史』 必修2, 40~42쪽.

26) 『歷史』 必修3, 69쪽.

3. ……1898년 유신사상의 추진으로 光緒帝가 변법을 실행하였다. 이것이 무술변법이다. 이 변법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부르주아 유신파는 봉건 專制에 반대하고 민권을 일으킬 것을 주장하며 신학을 제창하였다. 또한 사상 계몽의 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인민의 각성을 촉진하였다. 이것은 중국 근대사상 해방의 조류이다(『유신변법사상』).²⁷⁾

첫 번째 인용문은 『역사』 필수2에서 양무운동과 중국 자본주의 탄생에 관한 설명이다. 양무운동의 전반적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뒤, 양무운동의 실패를 지적하면서도 양무운동이 객관적으로 중국 자본주의 발전을 자극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양무파 기업이 중국의 첫 번째 근대기업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두 번째 인용문은 『역사』 필수3에서 양무운동의 ‘중학위체 서학위용(中學爲體 西學爲用)’ 사상에 관한 내용이다. 양무파가 위원(魏源)이 제출한 ‘사이장기(師夷長技)’의 사상을 실천에 옮겨 일군의 근대기업을 창설하고 일군의 신식학당을 개설하여 중국 근대화 과정의 첫걸음을 내디디게 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세 번째 인용문은 『역사』 필수3에서 무술변법 사상에 관한 내용이다. 인용문에서는 서술하지 않았지만 왕도(王韜), 정관응(鄭觀應) 등 초기 변법파의 사상, 강유위(康有爲)와 양계초(梁啓超)의 사상을 설명한 뒤, 부르주아 유신파가 봉건전제에 반대하고 민권을 일으킬 것을 주장하며 신학(新學)을 제창하였고, 사상 계몽의 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인민의 각성을 촉진하였다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유신파의 사상을 중국 근대사상 해방의 조류라고 평가하였다.

『역사』 선수1에는 한 단원을 할애하여 중국 근대의 무술변법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도입부에서는 변법운동이 갑오중일전쟁의 패배 이후 일어난 애국

27) 『歷史』 必修3, 70쪽.



구망(救亡)의 운동임을 언급하였다.²⁸⁾

본문에서는 무술변법의 실패 원인으로 실권을 갖지 못한 광서제와 제당(帝黨)에 의지하여 변법을 실행하려 했던 유신파 세력의 영도력 문제를 지적하면서, 무술변법의 역사적 의미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다. 예컨대 무술변법은 정치개혁운동이고, 부르주아가 사회제도를 변혁한 초보적 시도이며, 근대 중국 최초의 사상 해방 조류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유신운동이 남긴 많은 유산—사상 해방, 관념 변혁, 사단(社團) 건립, 학당 개창, 신문 창간, 여학교 제창, 풍속 개량—은 중화문명 발전사상 귀중한 재부를 이루었다는 결론을 내렸다.²⁹⁾

28) 1894년 폭발한 갑오중일전쟁이 중국 사회에 미친 진동은 공전의 것이었다.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문명의 주도자로 생각했던 중국은 명치유신으로 강대해진 섬나라 일본에 패배하였다. 이 사실은 중국인에게 고통과 굴욕을 안겨준과 동시에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많은 지식인은 일본처럼 서양을 학습하여 변법유신하고 자본주의 제도를 건립하는 것만이 부국강병을 실현하고 민족의 위망(危亡)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변법유신운동은 이로 인하여 서막을 열었다(『歷史』 選修1, 123쪽).

29) 무술변법의 실패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 원인은, 변법의 영도자 부르주아 유신파 세력이 미약한 반면 봉건 완고 세력은 매우 강했다는 데 있다. 유신파는 건고한 조직적 영도력이 부족하였다. 또한 광대한 인민대중을 이탈하여 실권을 장악하지 못한 광서제와 일부 帝黨 관료에게 희망을 걸었다. 심지어 제국주의 열강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요소는 유신파의 실패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결정하였다. 변법 실패의 교훈은 당시 중국에서 개량주의의 길이 통하지 않고 중국 근대화의 길이 멀고 험난함을 입증한다. 무술변법은 정치개혁운동이다. 민족 위기가 가속화될 때 유신파는 변법으로 부강을 도모하고 망국의 상황을 구하며 생존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광범위한 선전활동으로 개혁을 통해 중국을 독립, 민주, 부강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로부터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기만을 벗어날 수 있기를 희망함으로써 강렬한 애국 열정을 표현하였다. 무술변법은 부르주아가 사회제도를 변혁한 초보적 시도이다. 유신파는 정치상 봉건 군주 專制를 부르주아급 군주 입헌제로 변화시키려고 하였다. 또한 경제상 근대공업, 교통운수업을 일으킬 것을 제창함으로써 민족자본주의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창조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역사 발전의 추세에 부합하였다. 무술변법은 또한 근대 중국의 1차 사상 해방의 조류이다. 강유위, 양계초, 담사동, 언복 등 부르주아 유신파는 新學을 제창하고 민권을 일으킬 것을 주장함으로써 봉건사상문화에 격렬한 타격을 주었다. 근대 사상계몽운동을 일으키는 길을 개척함으





『역사』 선수2에는 근대 중국의 민주사상과 전제 반대투쟁의 단원에서 두 과를 할애하여 양무운동과 변법운동의 사상을 소개하였다.

우선, 제6단원 제1과 중 「만청 사회 각 계층의 서방 민주정치에 대한 반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같은 봉건통치집단에 속하기는 하지만 중체서용(中體西用)을 주장한 양무파와 완고파의 구별은 서방 국가의 과학기술 방면의 '장기(長技)'를 학습하여 '자강(自強)'을 해야 하느냐에 있었다. 양무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완고파는 이러한 행위가 '조종성법(祖宗成法)'과 '입국지도(立國之道)'를 위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봉건통치제도와 '강상명교(綱常名教)'를 유지하는 이러한 근본문제에 대해서 두 파는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반면 변법 유신파는 중체서용의 한계를 넘어 서방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제도를 선전, 소개, 학습하려고 했고, 입헌군주제의 실현을 주장하였다.³⁰⁾

로써 중국 인민의 각성을 촉진하였다. 유신운동이 남긴 많은 유산은 예컨대 사상 해방, 관념 변혁, 社團 건립, 學堂 개창, 신문 창간, 여학교 제창, 풍속 개량 등은 중화문명 발전사상 귀중한 재부를 이루었다(「변법 실패의 원인과 변법의 역사적 의의」, 『歷史』 選修1, 138쪽).

30) “中體西用을 주장한 양무파는 봉건통치집단 내에서 차별을 보인다. 예컨대 中·西 문화관계 문제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데 그들은 같은 봉건통치집단의 완고파와 구별되고 심지어 완고파와 격렬한 쟁론을 하였다. 두 파의 分岐와 쟁론의 초점은 서방 국가의 과학기술 방면의 ‘長技’를 학습하여 ‘自強’을 해야 하느냐에 있었다. 양무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완고파는 서방을 학습하는 이러한 행위는 ‘夷를 이용하여 夏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祖宗成法’과 ‘立國之道’를 위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봉건통치제도와 ‘綱常名教’를 유지하는 이러한 근본문제에 대해 두 파는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양무파는 서방의 민주제도 학습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 유신파는 신흥 민족부르주아 상층 계층을 정치적으로 대표한다. 19세기 70~80년대 早期 유신파의 사상은 中體西用의 한계를 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서방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제도를 선전하고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연모하고 학습하려는 바람을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서방국가의 ‘君主’, ‘君民共主’, ‘民主’의 세 가지 제도 중 ‘君民共主’ 제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였고, 심지어 중국에 의회제도의 실현을 바라는 사람





다음으로, 제6단원 제2과 중 「강유위와 양계초의 민주사상」에서는, 강유위와 양계초의 기본적 정치 주장이 모두 군주 입헌이라고 하면서, 군주 입헌은 일종의 부르주아 정체(政體) 형식으로 봉건 군주 전제와 본질적으로 구분되며, 군주 입헌은 일정한 '민주성'을 갖추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³¹⁾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양무운동, 무술변법 관련 내용은 필수와 선수에 모두 수록되었고, 그 분량은 역사교과대강 교과서와 비교해보아도 훨씬 많

도 있었다. 조기 유신파가 이미 일정한 민주정치사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술 변법 시기 유신파의 서방 민주정치에 대한 인식은 한층 명확해졌다. 그들은 서방 민주 정치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고 변법을 실행하였다. 강유위, 양계초, 엄복은 이러한 방면의 대표적 인물이다. 그러나 유신파 인물이 선전하고 주장한 것은 중국에 민주공화제가 아니라 입헌군주제를 실행하자는 것이었다.”(『晚清 사회 각 계층의 서방 민주정치에 대한 반응』, 『歷史』 選修2, 76쪽)

- 31) “…… 강유위의 민주사상은 주로 君主立憲의 주장에 체현되었다. 그는 전통 經學의 포장 속에 托古改制의 이론을 제조하였다. …… 그는 서방을 학습하여 특히 일본 명치유신을 모범으로 삼아 위로부터의 변법을 통해 부르주아 대표인물이 정치에 참여하고 군주입헌 政體를 건립하여 중국의 봉건 專制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백일유신 전야부터 그는 광서제에게 의원 설립, 헌법 제정 등은 재차 주장하지 않고 궁중에 制度局 설립을 통해 전국의 변법을 지도하는 중추기구를 구상하였다. …… 제도국 아래에 법률, 회계, 학교, 農商, 工務, 郵政 등 10여 개 分局을 설립하여 구체적으로 각자 연관된 정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이것은 군주 전제와는 달리 일정한 민주적 요소를 갖고 있었다. …… 양계초는 특히 民權사상을 주장하였다. 그는 民權 고양과 봉건 전제비판을 결합하여 …… 君權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황당성과 君權至尊의 불합리성을 폭로하였다. 또한 民權을 펼치는 것과 民智를 넓히는 것을 연계하여 ‘금일 민권을 펼치고자 하면 반드시 民智를 넓히는 것으로 제1의 뜻을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아울러 학교를 열고 民智를 넓히는 것이 議院 설립의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하여 ‘의원은 학교를 근본으로 삼는다’는 설법을 제시하였다. …… 강유위와 양계초의 기본적 정치 주장은 모두 군주 입헌이다. 군주 입헌은 일종의 부르주아 政體 형식으로 봉건 군주전제와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군주 입헌은 일정한 ‘민주성’을 갖추고 있으나 민주 공화와는 명확하게 차이를 보인다.” (『강유위와 양계초의 민주사상』, 『歷史』 選修2, 78~79쪽)



다.³²⁾ 이는 역사과정표준이 개혁, 자본주의, 민주 등을 강조하고 있음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의 당위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에 따라 역사 서술의 불균형을 가져왔음도 부정할 수 없다.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현행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청대사 서술 내용을 분석하였다. 현재 중국의 역사교육과정은 역사교학대강 체제에서 역사과정표준 체제로 전환 중인데, 이 글은 역사과정표준 4종 교과서 중 가장 채택률이 높은 인민교육출판사 교과서에 서술된 청대사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우선, 역사교과서 편찬의 기본방향을 이해하는 근거인 역사과정표준의 청대사 서술 기본방향을 살펴보았다. 현행 역사과정표준 실험교과서는 2003년 반포된 「보통고중역사과정표준」(실험)에 의거하여 만들어졌는데, 분류사, 주제사 방식을 도입하여 필수과정 역사 필수1은 정치, 필수2는 사회경제와 사회생활, 필수3은 사상문화와 과학기술 영역을 반영하였다. 필수과정 내용표준과 청대사 관련 내용을 검토해보면, 청대 전기의 내용은 군기처 설치를 통한 전제군주제의 강화, 해금정책과 자본주의의 맹아, 유학사상, 소설, 경극 등이

32) 필수2 제9과에서 양무운동과 자본주의의 탄생은 2쪽, 필수3 제14과에서 양무와 변법사상은 3쪽, 선수1 제9단원에서 무술변법은 18쪽, 선수2 제6단원 제1~2과에서 양무와 변법사상은 9쪽에 걸쳐 수록되었다. 歷史教學大綱『中國近代現代史』(上)에서 양무운동과 중국 자본주의 탄생에 관한 내용은 11쪽, 무술변법에 관한 내용은 7쪽 분량이다. 역사과정표준 실험교과서의 분량이 역사교학대강 교과서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역사과정표준 교과서에서 자강운동에 대한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다.

다. 청대 후기의 내용은 열강의 침략과 중국 인민의 반항 투쟁(1840~1900), 태평천국의 한계, 신해혁명의 의의, 근대 자본주의 탄생의 역사적 배경, 자본주의의 위상과 그 작용, 아편전쟁 이후 새로운 사상과 유신변법사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선수1은 역사상 중대 개혁 회고, 선수2는 근대사회의 민주사상과 실천, 선수3은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선수4는 중국과 외국의 역사인물 평론, 선수5는 역사의 신비 탐색, 선수6은 세계 문화유산 모음 영역을 반영하였다. 청대 전기의 내용은 강희제의 업적, 청대 고건축, 청대 후기의 내용은 무술변법, 중체서용의 내용, 강유위와 양계초의 민주에 대한 논설, 신해혁명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무술변법, 양무운동, 신해혁명 등은 필수와 선수과정에서 모두 거론되고 있는 주제이다. 이런 점에서 선수과정의 내용표준에 의거하면, 청대 후기 중에서도 개혁, 자본주의, 민주 등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역사과정표준 실험교과서의 청대사 서술 내용을 ‘강용건 성세’와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공고화, 사회의 위기, 혁명과 현대화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선수 교과서에서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보위자 강희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필수 교과서에서 청대 전기 정치에 대해서는 군기처의 설립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을 뿐, ‘강용건 성세’에 대한 내용은 서술하고 있지 않다. 이는 분류사, 주제사를 표방한 역사과정표준 교과서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청조가 성세에서 위기로 전환한 연유에 대해 자본주의 맹아의 발전을 간단히 언급하고, 그 발전이 더딘 이유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다. 자본주의 맹아의 발전보다는 근대 이후 자본주의의 탄생과 발전에 많은 분량을 할애함으로써 현재적 관점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열강의 침략과 중국 혁명에 대해서는 필수 교과서에서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이는 중국 근대사의 중요한 키워드인 반식민지 반봉건사회의 형성, 반

제 반봉건투쟁에 관한 의미가 점차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현대화의 실현과정으로서 자강운동에 대해서는 필수와 선수 교과서 모두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였다.

역사과정표준 실험교과서는 기존의 통사식 서술이 아니라 분류사, 주제사 체제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 자본주의, 민주를 강조한 결과 양무운동, 변법운동의 주제는 필수와 선수 교과서에 중복 서술되었다. 개혁개방의 역사적 당위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역사 서술의 균형이란 측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필수 교과서가 중국사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정치, 사회경제, 문화의 분류사적 방법으로 구성되었기에, 청대 전기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강용건 성세,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발전에 대한 서술이 빠지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역사과정표준 실험교과서는 '구성' 체계의 측면에서 중국의 역사교육사상 획기적인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청대사 서술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아직 '실험' 중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歷史課程標準『歷史』必修1,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8
- 歷史課程標準『歷史』必修2,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7
- 歷史課程標準『歷史』必修3,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8
- 歷史課程標準『歷史』選修1,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8
- 歷史課程標準『歷史』選修2,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9
- 歷史課程標準『歷史』選修3,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8
- 歷史課程標準『歷史』選修4,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8
- 歷史課程標準『歷史』選修5,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8
- 歷史課程標準『歷史』選修6,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9
- 歷史教學大綱『中國古代史』,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8
- 歷史教學大綱『中國近代現代史』上下,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7
-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制訂, 『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實驗),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3
- 羅志田 主編(2001), 『20世紀的中國: 學術與社會, 史學卷(上)』, 濟南: 山東人民出版社.
- 周朝民 等 編著(1989), 『中國史學四十年』, 南寧: 廣西人民出版社.
- 신승하(2000), 『중국사학사』, 고려대학교출판부.
- 임상선 외(2008), 『중국과 타이완, 홍콩 역사교과서 비교』, 동북아역사재단.
- 강만길 외(2004), 『근대 동아시아 역사인식 비교』, 선인.
- 김지훈(2006), 「현대 중국 역사교과서의 역사: 1949~2006년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75.
- 김지훈(2006), 「중국의 역사과정표준 고등학교 실험역사교과서의 한국 관련 서술」, 『한국근현대사연구』 36.
- 김지훈(2007), 「중국의 신교육과정과 역사과정표준 실험교과서」, 『동북아역사논총』 17.

김유리(2008), 「중국 고등학교 역사과정표준에 따른 『역사』 실험교과서의 서술 내용 분석」, 『역사교육』 105.

김유리(2008), 「중국 고등학교 역사과정표준에 따른 4종 판본 『역사』 실험교과서의 구성 체계 분석」, 『역사교육논집』 40.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인식

성균관대학교 김지훈

- I. 머리말
- II. 「역사교과대강」과 「역사과정표준」 교과서의 현대사 비교
- III.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서술
- IV. 맺음말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인식

성균관대학교 김지훈

I. 머리말

현재 중국의 고등학교에서는 「역사교학대강」¹⁾에 의해 편찬된 교과서²⁾에서 「역사과정표준」에 의해 편찬된 실험교과서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의 고등학교 실험교과서는 2003년 제정된 「역사과정표준」³⁾에 의해 편찬되었다. 2004년 가을학기(1학기)부터 일부 지역에서 실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고등학교 실험역사교과서는 「역사교학대강」에 의거하여 인민교육출판사에서 출판한 교과서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교과과정에 따라 편찬된 교과서는 교과목이 「역사교학대강」 교과서에 비해 보다 다양해졌다.

- 1) 中華人民共和國 教育部(2002), 『全日制普通高級中學歷史教學大綱』,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 2) 「역사교학대강」에 의거하여 2003년에 검정을 통과한 인민교육출판사에서 출판된 필수 과목 『중국근대현대사』 상하책(필수)과 선택과목 『세계근대현대사』 상하책, 『중국고대사』가 중국 전역에서 사용되었다.
- 3) 中華人民共和國 教育部(2003), 『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實驗)』,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우리 학계의 중국 역사교과서 관련 연구에는 중국의 역사교과서가 한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⁴⁾ 또한 중국 역사교과서의 근현대사 인식의 특징과 국가주의·애국주의와의 관련성 등을 연구한 다양한 성과가 있다.⁵⁾ 그러나 가장 최근에 출판된 「역사과정표준」에 의거한 고등학교

- 4) 「역사교과대강」에 의거하여 2003년 편찬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있다. 장세운(2004), 「近刊 한·중 역사교과서의 양국 관련내용 검토」, 『백산학보』 68집 ; 김지훈·정영순(2004), 「최근 중국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한국사」, 『중국근현대사연구』 23집. 중국의 역사교과대강에 의거한 교과서의 한국사 서술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있다. 박영철(2002), 「중국역사교과서의 한국사서술」, 『역사교육』 84집 ; 전인영(2002), 「중국근대사 교육의 관점과 한국사 인식」, 『역사교육』 84집. 중국의 중학교 실험역사교과서의 한국 서술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있다. 김지훈·정영순(2005), 「중국 실험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인식」, 『사학연구』 78호.
- 5) 중국 역사교과서의 근현대사 인식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있다. 이은자(2003), 「아편전쟁과 중국의 '문화개방'에 대한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중국근현대사연구』 19집 ; 박정현(2003), 「청일전쟁에 대한 중국의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방향」, 『중국근현대사연구』 20집 ; 유용태(2004), 「환호 속의 경종 : 전장 중국에서 본 러일전쟁」, 『역사교육』 90집 ; 유용태(2002), 「중국 역사교과서의 현대사 인식과 국가주의」, 『역사교육』 84집 ; 윤휘탁(2002), 「중국의 애국주의와 역사교육」, 『중국사연구』 18집 ; 오병수(2004), 「중국의 위협한 민족수난사 교육 : 근현대교과서의 전쟁사관을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34집 ; 윤휘탁(2005), 「'동아시아 근현대사상 만들기'의 가능성 탐색」, 『중국근현대사연구』 25집.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의 중국의 역사교육과 민족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박장배의 연구가 있다. 박장배(2003), 「근현대 중국의 역사교육과 中華民族 정체성 2 -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의 민족통합문제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20집. 중국의 역사교육과 통일적 다민족국가론과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있다. 김유리(2005),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역사교육과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북방사논총』 6호. 중국의 역사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있다. 오병수(2001), 「중국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서술양식과 역사인식」, 『역사교육』 80집 ; 오병수(2002), 「중국 중등학교 역사교육과정의 추이와 최근 동향」, 『역사교육』 84집 ; 김유리(2001), 「중국 교육과정의 변천과 역사교육」, 『근대중국연구』 2집 ; 김지훈(2006), 「현대중국 역사교과서의 역사 ; 1949~2006년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75.

214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교용 실험역사교과서에 관해서는 편찬체계와 내용 등에 관한 연구⁶⁾가 있지만 교과서 자체의 중국사 서술에 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현재 2003년 「역사과정표준」에 의거한 고등학교용 실험역사교과서는 2004년부터 인민교육출판사, 인민출판사, 악록서사, 대상출판사(현재 북경사범대학출판사)에서 4세트가 출판되어 사용되고 있다. 새로운 고등학교 실험교과서는 현행 교과서에 비하여 기본체제와 내용에서 비교적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중국의 고등학교 실험역사교과서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 교과서의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서술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분석한 교과서는 「역사교학대강」에 의거하여 2003년 검정을 통과한 인민교육출판사의 『중국근대현대사』 하권, 『세계근대현대사』 하권과 2004년과 2005년에 중국의 전국중소학교재심정위원회의 초심을 통과하여 출판된 「역사과정표준」에 의거한 인민교육출판사, 인민출판사, 악록서사, 대상출판사의 고등학교 실험역사교과서이다.

II. 「역사교학대강」과 「역사과정표준」 교과서의 현대사 비교

20세기 중국 근현대사는 중국의 중고등학교 역사교육에서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다. 1990년 중국의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는 중국 근대현대사

- 6) 김지훈(2007), 「중국의 신교육과정과 역사과정표준실험교과서」, 『동북아역사논총』 17 ; 김유리(2008), 「중국 고등학교 역사과정표준에 따른 『역사』 실험교과서의 서술 내용 분석」, 『역사교육』 105 ; 김유리(2008), 「중국 고등학교 역사과정표준에 따른 4종 판본 『역사』 실험교과서의 구성 체계 분석」, 『역사교육논집』 40.

가 필수로 지정되고 중국 고대사가 선택과목이 되었다. 1980년대 고등학교에서 세계사만 가르치던 중국은 1990년대부터 역사과목을 수정하여 중화인민공화국사와 근대 제국주의의 중국 침략사, 중국 인민의 반제투쟁사 교육을 강화하였다.⁷⁾ 이러한 중국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중국근현대사』 교과서가 편찬되었다.⁸⁾ 고등학교용 「전일제보통고급중학 역사교학대강」은 다음과 같이 중국 근대사와 세계 근대사를 서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전일제보통고급중학 역사교학대강의 중국·세계 근대사 부분 내용⁹⁾

중국 근대사	세계 근대사
I. 중국 근대 반식민지 반봉건사회의 시작 1. 아편전쟁 2. 제2차 아편전쟁 3. 서방 자본주의의 국가 경제세력의 침입 4. 태평천국운동 5. 신사상의 태동 II. 중국 자본주의의 탄생, 발전과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형성 1. 청왕조 정국의 변화 2. 양무운동 3. 중국 자본주의의 탄생 4. 변강의 위기와 중프전쟁 5. 갑오중일전쟁 6. 제국주의의 중국 분할의 미친 듯한 기세 7. 무술변법운동 8. 의화단운동과 8개국 연합군의 중국 침략전쟁	I. 자본주의의 유럽에서의 흥기 1. 유럽 자본주의의 상공업의 출현 2. 신흥로의 개척과 초기 식민활동 3. 문예부흥 4. 종교개혁 II. 종교개혁 1. 영국 자본주의 제도의 확립 2. 유럽 봉건국가의 개혁 3. 서구 국가의 식민 확장 4. 유럽 계몽운동 5. 프랑스대혁명과 나폴레옹제국 6. 미국의 건립과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운동 7. 16~18세기의 아시아

7) 臧焜(1999), 『歷史教材縱橫談』,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34쪽.

8) 1990년대 중국 고등학교의 근현대사 교육 강화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김지훈(2006), 앞의 글, 41쪽.

9) 中華人民共和國 教育部(2002), 『全日制普通高級中學歷史教學大綱』,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2. 4. 1판, 2005. 7. 4쇄, 11~22쪽.

216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중국 근대사	세계 근대사
<p>III. 부르주아계급 민주혁명운동과 청조의 멸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르주아계급 민주혁명사상의 전파와 혁명 단체의 출현 2. 중국동맹회의 건립과 혁명형세의 발전 3. 청 정부의 “신정”과 예비입헌 4. 신해혁명의 발발과 중화민국의 성립 <p>IV. 북양군벌의 통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세개의 독재정치 2. 군벌할거하의 중국 정국 3. 중국 민족자본주의의 발전 <p>V. 혁명의 새로운 서광과 국민혁명운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문화운동과 오사운동 2. 마르크스주의 전파와 중국공산당의 탄생 3. 제1차 국공합작의 실현과 국민혁명운동의 흥기 4. 북벌전쟁과 국민혁명운동의 실패 <p>VI. 국공양당의 10년 대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정부 초기의 통치 2. 공농무장할거의 형성 3. “9·18”사변 4. 홍군의 장정 5. 항일민족통일전선의 초보적 형성 7. 중화민족의 항일전쟁 <p>VII. 중화민족의 항일전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7·7”사변과 전민족 항일전쟁의 시작 2. 일본 제국주의의 잔혹한 식민통치 3. 항일전쟁의 정면전장과 국민정부의 내외 정책 4. 적후전장과 중국공산당의 역경에 굴하지 않는 튼튼한 기둥 역할 5. 항일전쟁의 승리 <p>VIII. 인민해방전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화와 민주를 쟁취하는 투쟁 2. 내전의 발발 3. 국민당 통치구역의 위기와 해방구의 토지 개혁 4. 인민해방전쟁의 승리 	<p>III.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초보적 형성과 사회주의 운동의 발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업혁명과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 2. 19세기 전기의 유럽과 1848년 혁명 3. 마르크스주의의 탄생과 사회주의운동의 발전 4. 1860~70년대의 부르주아계급혁명과 개혁 5.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초보적 형성 6. 아시아 혁명의 폭풍 <p>IV. 독점자본주의의 형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차 공업혁명 2. 주요 자본주의 국가의 제국주의 국가로의 이행 3.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민족민주 운동의 발전 4. 사회주의운동의 진일보한 발전과 레닌주의의 탄생 5. 제1차 세계대전 <p>V. 17세기부터 20세기 초의 자연과학과 문학예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과학 2. 문학과 예술



「역사교과대강」의 중국 근대사 부분은 시간적으로 1840년 아편전쟁부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전까지 다루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반봉건사회의 시작과 형성, 부르주아계급의 혁명운동과 청나라의 멸망, 군벌통치와 국민혁명운동, 국공양당의 대립과 중일전쟁, 국공내전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세계 근대사 부분은 14~15세기 자본주의의 흥기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를 다루도록 하고 있다. 주로 유럽 자본주의의 발전과 식민지체제의 형성, 사회주의운동의 발전과 독점자본주의의 형성, 제1차 세계대전 등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시대구분의 차이 때문에 세계 근대사와 중국 근대사의 시작은 각각 14세기와 19세기로 400여 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교 「역사교과대강」은 중국 현대사와 세계 현대사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 전일제보통고급중학 역사교과대강의 중국·세계 현대사 부분 내용¹⁰⁾

중국 현대사	세계 현대사
I. 인민민주정권의 공고와 사회주의로의 길 1. 중화인민공화국 성립과 정권을 공고화하는 투쟁 2. 국민경제의 회복과 초보적 발전 3. 사회주의 제도의 건립과 제1차 5개년계획의 완성 II. 사회주의 건설의 탐색 속에서 곡절과 발전 1. 전면적 사회주의 건설의 시작 2. 사회주의 건설의 곡절과 발전	I. 러시아 10월 사회주의혁명과 민족해방운동의 고조 1. 러시아 10월혁명의 승리 2.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 3. 아시아·아프리카의 민족해방운동 II.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자본주의 세계 1. “베르사유-워싱턴체제”의 건립 2. 20년대 주요 자본주의 국가 3. 1929~1933년 자본주의 세계의 경제위기 4. 파시스트 국가의 확장과 반파시스트 투쟁의 시작

10) 中華人民共和國 教育部(2002), 앞의 책, 2002. 4. 1판, 2005. 7. 4쇄, 13~24쪽.

중국 현대사	세계 현대사
Ⅲ. “문화대혁명”의 10년 1. “문화대혁명”의 개시 2. 林彪, 江青 반혁명집단의 전멸 3. 국민경제의 곡절 발전과 대외관계의 신성취 IV.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신국면 1. 위대한 역사적 전환 2.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신속한 발전 3. 각 민족의 평등, 단결과 공동발전 4. “일국양제”와 조국 통일의 대업 5. 외교와 국방건설의 성취 6.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 V. 신중국 문화의 발전과 사회생활의 변화	Ⅲ. 제2차 세계대전 1.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확대 2.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의 전환과 승리 IV.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 1. 전후의 국제관계 2. 전후의 주요 자본주의 국가 3. 전후의 사회주의 국가 4. 미소쟁패 5. 식민체제의 붕괴와 제3세계의 흥기 6. 아시아 경제의 발전 V. 세계체제의 변화 1. 동유럽의 격변과 소련의 해체 2. 세계 정치체제의 다극화 추세 3. 경제 글로벌화 추세와 인류가 당면한 공동의 문제 VI. 현대과학기술과 문화 1. 과학기술 2. 학술사조와 교육 3. 문학예술

「역사교과대강」에서 중국 현대사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부터 현재까지를 다루고 있고 세계 현대사는 1917년 러시아 10월혁명부터 현재까지를 다루고 있다. 중국 현대사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과 경제회복, 사회주의 제도의 건설과 발전, 문화대혁명과 개혁개방, 신중국 문화의 발전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현대화와 ‘일국양제’, 각 민족의 평등과 발전 등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현대사는 1917년 러시아 10월혁명과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본주의 세계와 제2차 세계대전, 미소의 대립과 동유럽과 소련의 붕괴, 경제의 글로벌화와 현대과학기술과 문화 등을 다루고 있다.

「역사과정표준」의 중국 근현대사의 부분은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지 않

고 간단하게 요점을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음은 「역사과정표준」 역사(1) 필수과목의 중국 근현대사 서술의 요점이다.

2. 열강의 침략과 중국 인민의 반항투쟁

(1) 1840년에서 1900년간의 서방열강의 중국 침략 사실을 열거하고 중국 군민이 외래침략에 반항한 투쟁의 사실을 개술하며 중화민족의 용감하고 굴복하지 않는 투쟁정신을 이해한다.

(2)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의 범죄행위를 열거하고 중국 군민의 항일투쟁의 주요 사실을 약술하며 전민족이 단결하여 항전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항일 전쟁 승리가 중국의 외래 침략에 반항하는 투쟁에서의 역사적 지위를 탐구한다.

3. 근대 중국의 민주혁명

(1) 태평천국운동의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고 농민봉기가 민주혁명시기에 한 작용과 한계성을 인식한다.

(2) 신해혁명의 주요 과정을 약술하고, 군주전제제도를 전복하고 중화민국을 건립한 역사적 의의를 인식한다.

(3) 오사운동과 중국공산당 성립의 사실을 개술하고 중국 사회 변혁에 미친 영향을 인식한다.

(4) 중국공산당이 지도한 신민주주의혁명의 주요 사실을 개술하고 신민주주의혁명 승리의 위대한 의의를 인식한다.

4. 현대 중국의 정치건설과 조국통일

(1)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의 사실을 개술하고 인민대표대회제도, 공산당이 영도한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 민족구역 자치제도의 건립과 완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민주정치の特徴을 인식한다.

(2) '문화대혁명'의 민주법제 유린을 이해하고 민주법제 건설의 필요성과 어려움을 설명한다.

(3)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 이래 우리나라 민주와 법제 건설의 주요 성취를 열거하고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계획의 중요한 의의를 인식한다.

(4) '일국양제'의 이론과 실현을 약술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이 중화민족

부흥에 미치는 중대한 역사적 의의를 인식한다.

5. 현대 중국의 대외관계

- (1) 신중국 건립 초기의 중대한 외교활동을 이해하고, 평화공존 5원칙의 국제관계 처리에서의 의의를 이해한다.
- (2) 중국이 유엔에서 합법적 지위를 회복한 기본 사실을 약술하고 우리나라의 외교방면에서 얻은 중대한 성취를 개괄한다.
- (3) 중미관계의 정상화와 중일 수교의 주요 사실을 이해하고 국제관계에서 일어난 중요한 영향을 탐구한다.
- (4) 개혁개방 이후 우리나라가 국제연합과 지역성 국제기구에서 행한 중요한 외교활동을 예로 들고, 우리나라가 현대화 건설을 위해 양호한 국제환경을 쟁취하고 세계평화와 공동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인식한다.¹¹⁾

「역사과정표준」은 「역사교과대강」과 비교해볼 때 간단하게 교과서 내용의 요점을 서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목차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역사과정표준」의 역사(1) 필수の内容표준을 보면 중국사와 세계사가 모두 아홉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중국사 부분은 1. 고대 중국의 정치제도, 2. 열강의 침략과 중국 인민의 반항투쟁, 3. 근대 중국의 민주혁명, 4. 현대 중국의 정치건설과 조국통일, 5. 현대 중국의 대외관계 등 다섯 개 단원이다. 이 가운데 한 단원만이 고대사이고, 근현대사는 2단원부터 5단원까지 네 개 단원을 할애하고 있다. 역사(2)의 경우도 여덟 개 단원 가운데 네 개 단원이 중국사이며 중국 고대사는 1. 고대 중국 경제의 기본 구성과 특징에서 다루고 있으며 근현대사는 2. 근대 중국 경제구조의 변동과 자본주의의 곡절 발전, 3.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의 길, 4. 중국 근현대 사회생활의 변천

11) 中華人民共和國 教育部(2003), 『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實驗)』,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3. 4, 1판 1쇄, 6~8쪽.

등 3개 단원을 할애하고 있다. 역사(3)의 경우 중국 고대사는 1. 중국 전통문화 주류사상의 변화, 2. 고대 중국의 과학기술과 문화 등 두 개 단원을 할애하고 있으며 근현대사는 3. 근대 중국의 사상해방조류와 4. 20세기 이래 중국의 중대한 사상이론 성과, 5. 현대 중국의 과학기술과 문화 등 세 개 단원을 할애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을 볼 때 「역사과정표준」은 중국 고대사보다는 중국 근현대사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서술

20세기 중국의 역사에서 중일전쟁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일전쟁은 일부 한간(漢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중국인이 함께 항전을 했고, 심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결국 승리한 전쟁으로 전 세계적 반파시즘 전쟁의 일환이었다고 보고 있다.

2002년판 「전일제 보통고급중학 역사교학대강」의 중국 근현대사의 항일전쟁 관련 내용은 2000년에 제정된 「9년의무교육 전일제 초급중학 역사교학대강」(사용수정판)의 항일전쟁 내용과 거의 유사하지만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한 편이다.

「전일제 보통고급중학 교학대강」에서는 국공합작을 기반으로 한 전 민족적 항일전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국민당이 전쟁 초반에 일본군과 벌인 전투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1937년부터 일본군이 벌인 남경대학살을 전대미문의 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일본의 침략정책의 변화로 왕정위 괴뢰정권이 남경에 수립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공산당에 관해서는 중일전쟁 시기 공산당의 항일근거지가 발전하면서 항전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조건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공산당 제7차 전국대표대회는 신중국을 건립하기 위한 강령과 전략을 수립했고 모택동사상이 중국공산당의 지도사상으로 확립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02년판 『전일제 보통고급중학 역사교학대강』은 중국 근현대사 교학내용요점의 “중화민족의 항일전쟁” 항목에서 중일전쟁을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다.

7. 중화민족의 항일전쟁

1. “7·7”사변과 전 민족 항일전쟁의 개시
2. 일본 제국주의의 잔혹한 식민통치
3. 항일전쟁의 정면전장과 국민정부의 내외정책
4. 적후전장과 중국공산당의 튼튼한 기둥 역할(작용)
5. 항일전쟁의 승리¹²⁾

위의 내용을 보면 2002년판 「전일제 보통고급중학 역사교학대강」은 중국 근현대사에서 항일전쟁의 시작과 일본의 잔혹한 식민통치, 공산당의 역할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국민당에 관해서도 3. 항일전쟁의 정면전장과 국민정부의 내외정책이라는 한 개 절을 할애하여 서술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2002년판 「전일제 보통고급중학 역사교학대강」은 세계 근현대사 교학내용 개술에서 다음과 같이 제2차 세계대전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자본주의 세계에는 심각한 경제위기와 정치위기가

12) 中華人民共和國 教育部(2002), 앞의 책, 13쪽.



발발했다. 미국이 실시한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은 국가가 경제발전에 간여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 독일과 일본은 파쇼독재를 확립하고 대외침략을 확장하여 유럽과 아시아 전쟁의 발원지가 되었다.

파쇼국가의 침략에 중국, 조선, 스페인, 이디오피아의 인민들은 용감하게 투쟁했다. 영국, 프랑스, 미국의 유화정책은 새로운 세계대전의 위기를 심화시켰다.

(3) 파쇼국가가 일으킨 국부적인 전쟁은 최종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조성하였다. 각국의 인민은 힘차게 일어나 저항하였고, 영국, 프랑스, 소련, 미국 등 국가는 반파쇼전쟁을 시작하였다. 전쟁의 규모가 끊임없이 확대되면서 각종 반파쇼 역량이 점차 연합하여 세계 반파쇼동맹을 형성하였고, 군사·정치·외교 등의 영역에서 계속된 대결을 하여 최종적으로 세계 반파쇼전쟁에서 승리하였다.¹³⁾

2002년 「전일제 보통고급중학 역사교과학대강」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모순을 설명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종결 후 자본주의 국가 내부의 프롤레타리아계급과 부르주아계급의 모순,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모순, 자본주의 국가와 식민지 반식민지의 모순 및 자본주의 국가 사이의 모순으로 세계의 기본모순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1930년대 이후 파쇼주의세력과 반파쇼주의 진보역량 사이의 모순이 주요 모순이 되었다고 한다.¹⁴⁾

2002년 「전일제 보통고급중학 역사교과학대강」은 1929년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 세계의 위기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뉴딜정책을 시행했고 이탈리아와 독일 등은 파시즘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파쇼국가의 침략에 직면한 중국, 조선, 스페인 등 국가들의 저항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의 유화정책이 제2차 세계대전의 위기를 심

13) 中華人民共和國 教育部(2002), 앞의 책, 19쪽.

14) 中華人民共和國 教育部(2002), 앞의 책, 18쪽.

화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제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반파쇼세력이 연합하여 세계 반파쇼동맹을 형성해서 결국 반파쇼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인민교육출판사의 『중국근대현대사』 하권의 제2장 중화민족의 항일전쟁에서는 중일전쟁을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다.

제2장 중화민족의 항일전쟁

제1절 항일전쟁의 발발

제2절 일본 제국주의의 운함구 식민통치

제3절 국민정부의 내외정책

제4절 공산당의 항전 견지와 항일전쟁의 위대한 승리¹⁵⁾

이 교과서의 제1절에서는 중일전쟁의 발발에서 1937년 7·7사변과 제2차 국공합작이 실현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민정부의 정면전장에서 항전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1937년 남경대학살로 30여만 명이 학살당했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일본 기자의 목격담을 수록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¹⁶⁾ 다음으로는 중국공산당이 건설한 항일근거지와 모택동이 1938년에 발표한 『지구전을 논함(論持久戰)』을 통해 당시 중국 내의 ‘망국론(亡國論)’과 ‘속승론(速勝論)’이 잘못되었으며 중일전쟁이 ‘지구전’이며 인민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¹⁷⁾

제2절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점령지 통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절에

15) 人民教育出版社歷史室 編著(2006), 『全日制普通高級中學教科書(必修) 中國近代現代史 下冊』, 人民教育出版社, 2006. 6. 2판, 2008. 11. 9쇄.

16) 人民教育出版社歷史室 編著(2006), 위의 책, 29쪽.

17) 人民教育出版社歷史室 編著(2006), 위의 책, 31쪽.

서는 일본이 중국에 1940년 3월 설립한 왕정위 등 괴뢰정권 수립과 일본 제국 주위의 농공업 등 경제적 약탈, 노예화 교육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의 ‘치안강화운동’과 ‘청향운동(淸鄉運動)’ 등의 탄압정책과 이에 저항하는 민중의 항일투쟁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다.¹⁸⁾

제3절에서는 국민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941년 국민당군이 신사군을 공격한 환남사변(皖南事變) 등 국민당의 정책 변화와 국민당통치구의 독재정치와 경제적 약탈 등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제4절에서는 1940년 하반기 팽덕회가 팔로군을 지휘하여 일본군을 공격한 백단대전 등 공산당의 항일투쟁과 민중의 투쟁을 설명하고 항일근거지의 발전, 중공 제7차 전국대표대회, 일본의 무조건항복 등을 다루고 있다.¹⁹⁾

이 교과서는 대체로 중일전쟁에서 공산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당의 초기 항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당의 독재와 경제약탈, 항전태도의 변화 등 부정적인 측면도 부각시키고 있다. 중일전쟁의 과정에서 국민당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중국공산당과 민중의 항일투쟁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에 제정된 「보통고중역사과정표준」(실험)은 중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하고 정치사, 경제사, 사상문화, 과학기술사 등 분류사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에서 「역사교과대강」과 큰 차이가 있다. 필수과목인 『역사』 1, 2, 3과 『역사』 선택과목이 주제별로 여섯 과목이 있다.

이 가운데 정치사 위주의 필수과목인 『역사 1』에서 중일전쟁을 취급하고 있다.

18) 人民教育出版社歷史室 編著(2006), 위의 책, 32~35쪽.

19) 人民教育出版社歷史室 編著(2006), 위의 책, 39~43쪽.

〈표 3〉 중국 고등학교 실험교과서의 중일전쟁 서술비교

사용 지역	역사교육 과정	교과서	출판사	중일전쟁 구성	쪽 수
전국	全日制普通高級中學歷史教學大綱	中國近代現代史(必修) 下	人民教育出版社	제2장 중화민족의 항일전쟁 제1절 항일전쟁의 발발 제2절 일본 제국주의의 윤합구 식민통치 제3절 국민정부의 내외정책 제4절 공산당의 항전건지와 항일전쟁의 위대한 승리	20쪽
전국	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實驗)	普通高中課程標準 實驗教科書 歷史1 (必修)	人民教育出版社	제16과 항일전쟁 전민족적 항전, 일본군의 하늘에 사무치는 죄행, 항전의 승리	4쪽
			岳麓書社	제20과 신민주주의혁명과 중국공산당 항일전쟁	3쪽
			人民出版社	전제 2 근대 중국의 국가주권을 수호한 투쟁 3. 위대한 항일전쟁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의 범죄행위 관내외의 항일구망운동 진 민족적 항일전쟁, 항일전쟁의 위대한 승리	8쪽
전국	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實驗)	普通高中課程標準 實驗教科書 歷史1 (必修)	大象出版社	제7과 중화민족의 항일전쟁 항일구망운동의 고양, 노교교사변과 항일민족통일전선의 정식건립 진 민족 항전의 장거 중화민족 항일전쟁의 승리	7쪽
상해	上海市中學歷史課程標準(征求意见稿)	高級中學課本 歷史 高中3年級(試驗本)	上海教育出版社	제41과 민족독립을 향해 가다 항일전쟁	3쪽
상해	上海市中學歷史課程標準(征求意见稿)	高級中學課本 高中歷史6分册(試驗本)	華東師範大學出版社	제1단원 중국인민 항일전쟁 제1과 항일민족통일전선의 건립 제2과 정면전장과 적후항일근거지 제3과 항일전쟁의 승리	15쪽

표 3을 보면 중일전쟁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역사교과서대강」에 의거하여 인민교육출판사에서 출판한 『중국근대현



대사』 하책이다. 이 교과서는 중일전쟁에 관해서 4개 절에 20쪽 정도를 할애하고 있다.²⁰⁾ 『역사과정표준』에 의거하여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는 인민교육출판사, 악록서사, 인민출판사, 대상출판사의 교과서이다.

이 가운데 2004년에 출판된 인민교육출판사의 『역사 1』은 제1판에서는 제2단원 열강의 무장침략과 중국 인민의 반항 2. 항일전쟁에서 중일전쟁에 관해 7쪽에 걸쳐서 다루고 있었다. 인민교육출판사의 『역사 1』 16과의 항일전쟁은 전 민족적 항전, 일본군의 하늘에 사무치는 범죄행위, 항전의 승리의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²¹⁾ 이 교과서는 처음에는 중국사를 앞에, 세계사를 뒤에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사와 세계사의 비교와 연관성을 고려하여 중국사와 세계사의 단원 배치를 변화시켰다. 이 때문에 2007년 출판된 인민교육출판사의 『역사 1』(3판)에서는 제16과에서 중일전쟁을 다루고 있다. 이 교과서의 항일전쟁 부분은 1판에서 일곱 쪽에 걸쳐 서술하고 있던 것을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3판에서는 네 쪽으로 줄였다. 원래 1판에 있었던 본문을 3판에서는 일부 수정했고, 탐구할 주요 내용, 중요 개념, 송호항전 지도, 역사중흥, 일부 사진 등의 내용을 줄였으며, 단원 학습 소결을 삭제했다.

인민교육출판사의 교과서 이외에 악록서사의 『역사 1』도 중일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3쪽 정도로 인민교육출판사보다 적은 편이다. 악록서사의

20) 이 교과서의 제1판에서는 20쪽을 다루고 있었으나 제2판에서는 19쪽으로 약간 감소했다. 人民教育出版社歷史室 編著(2003), 『全日制普通高級中學教科書(必修) 中國近代現代史 下冊』, 人民教育出版社, 2003. 12. 1판 1쇄, 28~47쪽; 人民教育出版社歷史室 編著(2006), 앞의 책, 2006. 6. 2판, 2008. 11. 9쇄, 26~44쪽 참조.

21)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04),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 1 必修』,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4. 5. 1판, 2004. 7. 1쇄, 35~41쪽.

228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역사 1』은 제20과 신민주주의혁명과 중국공산당 안에서 항일전쟁이라는 한 항목으로 중일전쟁을 설명하고 있다.²²⁾ 인민출판사의 『역사 1』은 전제(專題) 2 근대 중국의 국가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 3. 위대한 항일전쟁에서 중일전쟁을 여덟 쪽에 걸쳐 다루고 있다. 인민출판사의 『역사 1』은 전제 2 근대 중국의 국가주권을 수호한 투쟁 3. 위대한 항일전쟁에서 중일전쟁을 설명하고 있으며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의 범죄행위, 관내외의 항일구망운동, 전 민족적 항일전쟁, 항일전쟁의 위대한 승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²³⁾ 대상출판사의 『역사 1』의 경우는 제7과 중화민족의 항일전쟁에서 일곱 쪽을 할애하여 중일전쟁을 설명하고 있다. 대상출판사의 『역사 1』은 제7과 중화민족의 항일전쟁에서 중일전쟁을 서술하고 있으며, 항일구망운동의 고양, 노구교사변과 항일민족통일전선의 정식건립, 전 민족 항전의 장거, 중화민족 항일전쟁의 승리로 구성되어 있다.²⁴⁾

이 외에 상해 지역의 교과서는 2005년 출판된 상해교육출판사의 『고급중학과본 역사 고중3년급』(시험본)은 제41과 “민족독립을 향해 가다”에서 항일전쟁을 한 항목으로 세 쪽에 걸쳐 서술하고 있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2006년 개정된 상해 지역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관해서 “모택동(毛澤東), 어디로 갔는가? 중국의 역사교과서 수정”이라는 보도에서 상해의 역사교과서에서 모택동과 중국 혁명에 관한 내용이 감소되고 빌 게이츠와 제이피(JP) 모건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보도가 나온 후 중국에서 상해

22) 曹大爲·趙世瑜(2008),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 必修 1 政治文明歷程』, 長沙: 岳麓書社, 2008. 7. 3판, 84~86쪽.

23) 朱漢國(2005),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必修 1』, 北京: 人民出版社, 2005. 6. 2판, 2005. 7. 2쇄, 33~40쪽.

24) 高中歷史教材編寫組·DC加拿大國際交流中心·大象出版社(2004),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 必修 1』, 鄭州: 大象出版社, 2004. 6. 1판, 2004. 8. 2쇄, 38~44쪽.

역사교과서를 비판하는 학자들과 언론 보도가 계속되었다. 결국 상해 시 당국은 이 교과서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고 이 교과서의 편찬자인 상해 사범대학의 소지량(蘇智良) 교수는 고등학교 교과서 편찬을 그만두게 되었다.²⁵⁾ 이후 2009년에 화동사범대학출판사에서 출판한 『고급중학과본 고중역사 6책』은 제1단원 중국인민 항일전쟁에서 제1과 항일민족통일전선의 건립, 제2과 정면전장과 적후항일근거지, 제3과 항일전쟁의 승리 등 15쪽에 걸쳐 중일전쟁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²⁶⁾ 따라서 시간적으로 보면 2003년 출판된 「역사교학대강」에 의거한 인민교육출판사의 『중국근대현대사』(필수)의 분량이 20쪽으로 가장 많고 2004년 「역사과정표준」에 의거하여 편찬된 인민교육출판사의 『역사 1』(필수) 1판이 7쪽으로 줄어들었고, 3판에서는 4쪽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상해의 화동사범대학출판사의 『고급중학과본 고중역사 6책』은 통사형태로 전환되면서 중일전쟁 서술이 다시 15쪽으로 분량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민교육출판사의 『역사 1』 3판은 이 과의 개요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12시 일본의 라디오방송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제국정부는 칙령을 받고 이미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 나라의 정부에 우리 제국이 연합선언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접수한다고 통지하였다.

- 25) “중국 역사 교과서 다시 ‘좌향좌’-세계화 다뤘던 상해교과서 1년만에 사용 중단”, 『문화일보』(2007. 9. 18).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0918010329323100020> ; 김지훈(2009), 「최근 상해지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변화」, 『동아시아의 자국사와 세계사교육 학술회의 발표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48~77쪽 참조.
- 26) 上海中小學課程改革委員會(2009), 『高級中學課本 高中歷史 第六分冊(試驗本)』,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9. 1. 1판, 2009. 1. 1쇄, 1~15쪽.

230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일본의 무조건항복의 조서를 읽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시각 라디오 옆에서 방송을 귀 기울여 듣고 있던 일본 장병들은 거의 모두 놀라 어리둥절해졌다. 다년간 진행된 전쟁이 무조건항복으로 끝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시각 8년간의 피 어린 항전을 견지한 중국 인민들은 이 희소식을 서로 전하면서 기뻐 날뛰었다. 우리는 끝내 승리하였다! 몇십 년 동안 중국 인민과 일본의 유식지사(有識之士)들은 모두 일본 제국주의가 도발한 죄악적인 대 중국 침략전쟁이 중일 양국에 무엇을 가져다주었는가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있다.²⁷⁾

이 교과서는 제16과 중일전쟁에 대해서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연합국에 무조건항복을 선언한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이 방송을 듣고 당혹스러워하는 일본 군인들의 모습과 승리했다고 기뻐하는 중국인의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다. 이 항복에서는 항복조서를 읽고 있는 일본 천황 히로히토의 사진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유식지사(有識之士)들은 모두 일본의 무조건항복 소식에 대해, 일본 제국주의가 일으킨 중국 침략전쟁을 반성하고 있다고 서술하여 일본의 지식인들도 중일전쟁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중일전쟁에서 일본 전체를 적으로 보지 않고 일본 안에도 전쟁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인사들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장은 2009년 중국에서 개봉하여 큰 인기를 끈 중국 영화 「남경! 남경!」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 영화는 1937년 남경대학살 당시 중국인의 시각과

27)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07),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 1 必修』,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7. 1. 3판, 2008. 12. 9쇄, 74쪽.

더불어 전쟁에 대해 회의적인 한 일본 군인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이 영화는 전쟁이 침략을 한 쪽과 침략을 받은 쪽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전의 역사서술이 선과 악, 침략과 반침략의 구도였던 것에 비하면 중국의 달라진 시각을 교과서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민교육출판사 『역사 1』의 전 민족적 항전에서는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대만을 점령한 후 계속하여 중국 영토를 탐내었다. 1931년 9·18사변부터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는 일련의 사건을 만들었다. 중국의 동북3성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하였고 화북지역이 나날이 식민지화되었으며 민족적 위기가 심화되었다.

1937년 7월 7일 밤에 일본군은 한 병사가 실종되었다는 구실로 완평성에 들어가 수색하겠다고 요구하였다가 중국 수비군에게 저절당하였다. 일본군은 곧 완평성과 노구교를 공격하였다. 중국 군대는 일어나 저항하였다. 노구교사변은 전국 항일전쟁의 발단이었다. 이어서 일본은 10여만 명의 육군을 파견하여 중국을 침략하였는데 북평, 천진 등이 연이어 함락되었다.²⁸⁾

인민교육출판사의 『역사 1』은 일본이 대만을 점령한 후 중국 영토에 대한 야심을 가지고 있었고, 1931년 9·18사변으로 중국의 동북3성을 점령한 후 화북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여 중국의 민족적 위기가 심화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8년 동안의 중일전쟁의 시작으로 1937년 7월 7일 발생한 노구교사변에 대해서 일본 측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악록서사의 『역사 1』

28)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07), 앞의 책, 2007. 1. 3판, 2008. 12. 9쇄, 74쪽.



3판은 제20과 신민주주의혁명과 중국공산당에서 항일전쟁이 “1937년 7월 7일 일본이 노구교사건을 만들었으며 일본 제국주의의 전면적 중국 침략전쟁의 시작이었고, 중국의 전면항전의 시작이었다”²⁹⁾라고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다. 인민출판사의 『역사 1』은 1927년 일본이 동방회의에서 ‘만몽 정복’의 침략 방침을 확정했고 세계공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일본이 동북을 침략했으며, 1937년 7월 7일 일본군이 군인 한 명이 실종되었다는 핑계로 완평성 조사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공격을 시작했다고 서술하고 있다.³⁰⁾ 대상출판사의 『역사 1』은 제7과 중화민족의 항일전쟁의 항일구망운동의 고양에서 1931년 9·18사변과 1935년 화북사변, 1936년 12월 서안사변을 설명한 후 1937년 7·7사변을 서술하고 있다.³¹⁾

이에 비해 인민교육출판사의 『역사 1』은 1937년 7·7사변 전의 상황에 대해서 역사중흥이라는 항목에서 1931년부터 1935년까지 일본의 침략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역사중흥

1931년에 일본 침략군은 9·18사변을 조작하여 중국 동북군의 주둔지를 포격하고 심양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반년도 안 되어 전 동북을 침략하여 점령하였다.

1932년 1월에 일본 침략군은 중국 상해를 습격하여 1·28사변을 일으켰다. 송호를 지키던 국민당 제19로군은 일어나 저항하였다.

1932년 3월에 일본 제국주의는 청조의 폐위된 황제 부의를 괴뢰로 만들어 중국 동북에 괴뢰[偽]만주국을 세웠다.

29) 曹大爲·趙世瑜(2008), 앞의 책, 84쪽.

30) 朱漢國(2005), 앞의 책, 33쪽.

31) 高中歷史教材編寫組·DC加拿大國際交流中心·大象出版社(2004), 앞의 책, 39~40쪽.



1935년 일본 제국주의는 중국의 화북을 침략하여 점령하기 위하여 일련의 사건을 조작하였는데 이를 화북사변이라고 총칭한다. 수많은 일본 관동군이 관내로 들어와 북평, 천진을 위협하였다.³²⁾

이 교과서는 역사총회에서 1931년 9·18사변과 1932년 상해의 1·28사변, 1932년 3월 만주국 수립, 1935년 화북사변을 미리 설명하여 1937년 7·7사변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일본의 침략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1937년 7·7사변이 발생한 이후 중국의 대응에 관해서 인민교육출판사 『역사 1』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일본의 전면적인 대중국 침략전쟁의 위협에 직면하여 국공 양당은 내전을 중지하고 항일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였으며 전국의 군민들은 일어나 항전하였다. 1937년 가을에 중국공산당은 전 민족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항일전쟁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인민전쟁노선 즉 전면항전노선을 제정하였다. 그 후 팔로군, 신사군은 적후에 들어가 독립자주적인 유격전쟁을 광범위하게 벌여나갔고 항일근거지를 창설함으로써 적들의 후방을 항일의 전선으로 만들었다.

일본군은 북평과 천진을 점령한 후 계속하여 화북과 화중을 공격하면서 3개월 안에 중국을 멸망시키려는 망상을 가지고 있었다. 국민정부는 정면전쟁에서 송호전투, 태원전투, 서주전투, 무한전투 등 여러 차례 중요한 전투를 치렀으며, 광범한 군민들은 일본군의 침략에 용감하게 저항하였다.³³⁾

32)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07), 앞의 책, 2007. 1. 3판, 2008. 12. 9쇄, 74쪽.

33)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07), 앞의 책, 2007. 1. 3판, 2008. 12. 9쇄, 74~75쪽.

234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이 교과서는 일본의 침략에 대해 먼저 국공 양당이 내전을 중지하고 항일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여 항전하였다고 하면서 중국공산당의 전면항전노선과 적후전장에서 팔로군, 신사군의 유격전쟁과 항일근거지 창설을 서술하고 있다. 국민정부에 대해서도 정면전장에서 여러 차례 대규모 전투를 벌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인들의 항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8·13항전을 소개하고 있다.

1937년 8월 13일에 일본군은 상해로 대거 진공하였고 남경을 위협하였다. 중국 군대는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과 송호회전(淞滬會戰)을 벌였다. 쑹방은 상해지구에서 3개월간 격전을 벌였다. 보산현 소재지를 고수한 약 500명의 중국 장병들은 일본군 함정 30여 척의 포격과 많은 비행기의 무차별폭격을 받았는데 성내는 온통 불바다가 되었다. 대대장(營長) 요자청(姚子青)은 성을 수비하는 용사들을 인솔하여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끝까지 성을 고수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틀간 격전을 치르고 최후에 시가전에서 모두 장렬히 희생되었다. 10월에 일본군이 상해시로 쳐들어오자 부연대장(副團長) 사진원(謝晉元)은 약 800명의 장병들을 거느리고 소주하 북쪽 기슭에 있는 사행창고를 고수하면서 고립된 처지에서 4일간 주야로 싸워 적 200여 명을 섬멸하였다. 11월에 상해가 함락되고 송호전투가 종결되었다. 항일전쟁에서 중국 군대는 비록 평형관, 대야장 등의 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하였지만 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었기에 화북, 화중 및 화남의 드넓은 영토를 잃었다. 1938년 10월에 광주, 무한이 함락된 후 항일전쟁은 대치 단계에 들어섰다.³⁴⁾

중국 군대의 저항에 대해서는 1937년 8·13항전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

34)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07), 앞의 책, 2007. 1. 3판, 2008. 12. 9쇄, 75쪽.

하고 있다. 특히 요자청과 사진원 등 용감하게 일본군에 대항하여 전투를 벌인 군인들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하여 중국 군대의 저항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일전쟁 초기 일본군의 침략에 대해 중국 군대의 저항을 설명하면서도 일본군을 막아낼 힘이 부족하여 광주(廣州), 무한(武漢)까지 함락당했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 악록서사의 『역사 1』도 국민당의 송호항전과 서주항전, 무한항전 등을 소개하고, 영토를 희생하여 시간을 버는 중국의 전략으로 일본의 '속결전(速決戰)' 전략이 실패하고 중국에 유리한 지구전으로 전개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³⁵⁾ 인민출판사의 『역사 1』은 전 민족적 항일전쟁에서 일본군의 침략과 중국과 일본의 국력과 군사력을 최근의 연구성과를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³⁶⁾ 이 교과서도 국민당군의 항전이 일본군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었지만 일본군의 공격을 막을 수는 없었고 1938년 10월 광주(廣州)와 무한(武漢)이 점령된 후 전쟁이 대치단계에 들어갔다고 서술하고 있다.³⁷⁾ 대상출판사의 『역사 1』도 국민당의 송호항전 등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만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적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으며 팔로군 등 공산당의 항일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³⁸⁾

이 교과서는 중국을 침략한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제16과 제2장 일본군의 하늘에 사무치는 범죄행위에서는 남경대학살 등 일본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35) 曹大爲·趙世瑜(2008), 앞의 책, 85쪽.

36) 이 교과서는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1994), 『中國抗日戰爭史』中卷, 北京: 解放軍出版社, 4~5쪽의 중국과 일본의 경제력과 군사력 비교를 표로 작성하여 인용하고 있다. 朱漢國(2005), 앞의 책, 36쪽.

37) 朱漢國(2005), 앞의 책, 36~37쪽.

38) 高中歷史教材編寫組·DC加拿大國際交流中心·大象出版社(2004), 앞의 책, 2004. 6. 1판 2004. 8. 2쇄, 41~43쪽.

236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일본 침략자들은 이르는 곳마다 불사르고 죽이고 강간하고 약탈하면서 만행을 저질렀다. 1937년 12월에 일본군은 남경을 함락한 후 남경의 평화적 주민에 대하여 참혹한 대학살을 감행하였다. 6주 동안 일본 침략자들은 적수공권의 남경 평민과 이미 무기를 놓은 중국 군인 30만 명 이상을 학살하였다. 그자들은 사람을 총으로 쏘아 죽였는가 하면 창칼로 찔러 죽이고 생매장하기도 하였으며, 산 채로 불태워 죽이는 등 학살수단이 잔인하기 그지 없었다.

1941년 초 이른 새벽에 일본군과 괴뢰군의 한 개 부대가 하북성 풍운현의 반가육을 물샷없이 포위하고 온 마을의 남녀노소를 모두 마을 서쪽에 있는 큰 웅덩이에 몰아넣고는 팔로군의 행적을 대라고 강요하였다. 반가육 사람들은 죽을지언정 굴하지 않으면서 대답하지 않았다. 잔인무도하기 그지 없는 일본군은 기관총, 수류탄으로 잔혹한 학살을 감행하였다. 이 참살사건으로 온 마을의 1,500여 명 가운데 1,200여 명이 살해당하였다.

흉악한 일본 침략자들은 또 중국 동북에 세균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부대를 설립하였는데 이를 731부대라 불렀다. 그들은 잔인무도하게 중국의 산사람으로 실험을 하였다. 실험용으로 참혹하게 살해된 중국인들은 3,000명 이상에 달하였다.³⁹⁾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의 학살행위에 대해서는 1937년 12월 남경을 점령하면서 발생한 남경대학살로 3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학살당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1941년 하북성 풍운현 반가육에서 팔로군에 관해 자백하지 않은 주민 1,200여 명을 살해한 반가육 학살과 731부대의 생체실험 만행을 설명하고 있다.

악록서사의 『역사 1』도 6주일 동안 일본군의 남경대학살로 3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중국의 사료 이외에도 일본인이 쓴 『동

39)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07), 앞의 책, 2007. 1. 3판, 2008. 12. 9쇄, 75쪽.

사랑일기(東史郎日記)⁴⁰⁾와 독일인 윤 라베의 『라베일기』⁴¹⁾ 등의 해외 사료가 대 학살을 증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⁴²⁾ 또한 이 교과서는 일본 관동 군의 731부대의 세균전과 독가스 사용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일본군 장교 노 다(野田)와 마쓰이(向井)의 100인 목 베기 경기 기사가 실린 일본 『동경일일신문』을 소개하고 있다.⁴³⁾ 일본 군인의 100인 목 베기 경기는 인민출판사의 『역사 1』에도 소개되고 있으며 남경대학살로 3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과 일본군의 세균과 화학무기 사용을 설명하고 있다.⁴⁴⁾ 대상출판사의 『역사 1』은 본문에서 남경대학살로 30만여 명의 중국 민간인과 군인이 살해당했고 국제조약을 위반하고 일본이 세균과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본문에 서술하고 있다. 이 교과서도 본문 옆의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의 폭행”이라는 난에서 역시 일본군 장교의 100인 목 베기 경기를 설명하고 있다.⁴⁵⁾

인민교육출판사의 『역사 1』 1판에서는 항일전쟁 부분의 “사색의 창” 항목에서 남경대학살과 731부대의 만행을 소개한 후 일본 우익세력이 남경대학살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일본 침략자가 인간성을 상실한 야수가 된 원인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었다.⁴⁶⁾ 이 교과서는 제3판에서는 분량을 줄이면서 “사색의 창” 가운데 731부대 이야기를 삭제했다. 인민교육출판사 『역사 1』 제3판에서는 일본인들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서

40) 東史郎(1999), 『東史郎日記』, 江蘇教育出版社.

41) 約翰-拉貝(1997), 『拉貝日記』, 江蘇人民出版社.

42) 曹大爲·趙世瑜(2008), 앞의 책, 84쪽.

43) 曹大爲·趙世瑜(2008), 앞의 책, 84쪽.

44) 朱漢國(2005), 앞의 책, 34쪽.

45) 高中歷史教材編寫組·DC加拿大國際交流中心·大象出版社(2004), 앞의 책, 2004. 6. 1판, 2004. 8. 2쇄, 42쪽.

46)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04), 앞의 책, 2004. 5. 1판, 2004. 7. 1쇄, 38쪽.

“사색의 창”에서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일본 침략자들도 가족이 있었고 아내와 아들딸이 있었으며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면 화기애애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자들은 중국에 침입한 후 인간성을 상실한 채 적수공권의 중국 평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그들은 한 청년을 거리에 끌어내와 옷을 벗기고 몸에 초산을 뿌린 다음 쓰러져 숨을 거둘 때까지 견게 하였으며, 포로가 된 중국 병사들을 기둥에 묶어놓고 송곳으로 찌른 다음 칼로 목을 찢었으며, 난민들을 묶고 과녁으로 삼아 산 채로 찢러 죽였으며, 임신한 여성을 윤간하고 또 배 안의 태이를 꺼내어 칼을 쫓는 행위를 하였다.⁴⁷⁾

이렇게 일본군의 잔인한 행동을 세밀하게 서술한 후 그 아래에 중국에 침입하기 전에 가족과 함께 있는 일본 군인의 모습과 중국인을 학살한 후의 일본 군인의 모습이 담긴 두 장의 사진을 함께 게재하고 무엇이 일본 침략자들로 하여금 인간성이 파괴된 반인륜적 짐승이 되게 하였는가를 묻고 있다.⁴⁸⁾ 이러한 서술방식은 학생들이 왜 자신의 가정에서는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이었던 일본 군인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잔혹한 학살행위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교과서를 읽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일본인의 인간성을 상실한 잔혹행위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여 전쟁의 잔혹성과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있다.⁴⁹⁾

47)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07), 앞의 책, 2007. 1. 3판, 2008. 12. 9쇄, 76쪽.

48)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07), 앞의 책, 2007. 1. 3판, 2008. 12. 9쇄, 75쪽.

49) 李偉科(2009), 「중국 중고등학교 교과과정 개혁 중 교과서의 변화」, 『동아시아의 자국사와 세계사교육 학술회의 발표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23~24쪽.

인민교육출판사의 『역사 1』은 “항전의 승리”에서 다음과 같이 공산당 군대의 백단대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항전의 승리

1940년 하반기에 팡덕회는 팔로군 100여 개 연대를 지휘하여 화북의 2,000킬로미터의 전선에서 적들의 거점 근 3,000개를 파괴하였다. 백단대전은 항일전쟁에서 중국 군대가 주도적으로 일본군을 공격한 대규모 전투였다. 중국공산당은 적후 항일근거지의 군민들을 지도하여 유격전쟁을 폭넓게 벌이면서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의 절반 이상과 상대하여 싸움으로써 항일전쟁의 중견 역량이 되었다.

중국 군대는 중국 경내에서 작전한 것 외에 또 국외 전장을 개척하였다. 1942년 초에 일본군은 타이, 미얀마를 공격하고 또 북상하여 우리나라의 운남 경내로 쳐들어왔다. 국제교통선인 운남-미얀마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원정군을 미얀마에 파견하여 일본군과 작전을 하였다. 미얀마에서 영국군의 일부가 일본군에게 포위되었다. 격전을 거쳐 중국 원정군은 포위된 영국군 7,000여 명을 구원하였다. 1945년 초에 영국과 미국 군대의 협력하에 중국 원정군은 미얀마를 침략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⁵⁰⁾

이 교과서는 백단대전에 대해 항전 기간 동안 팡덕회가 팔로군 100개 연대를 지휘하여 일본군에게 공세를 펼쳐서 일본군에게 어느 정도 타격을 주었지만 이후 일본군의 삼광작전(三光作戰)으로 공산당의 근거지도 타격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운남-미얀마 도로 확보를 위해 중국 정부가 원정군을 파견한 사실을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인의 항전이 단지 중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만이 아닌 전 세계적 반파쇼전쟁이었다는 점

50)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07), 앞의 책, 2007. 1. 3판, 2008. 12. 9쇄, 76쪽.

240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을 학생들이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인민교육출판사의 『역사 1』은 중일전쟁의 승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중국 인민과 세계 반파쇼 역량의 심대한 타격을 받아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제국주의는 하는 수 없이 무조건항복을 선포하였다. 8년간의 항일전쟁을 거쳐 중국 인민은 마침내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항일전쟁의 승리는 중국 인민이 100여 년 이래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 승리는 전국 인민의 민족적 자존심과 자신감을 크게 높여주었다. 중국의 항일전쟁은 세계 반파쇼 전쟁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중국 인민의 항전은 세계 반파쇼전쟁의 승리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중국의 국제적 지위도 높아졌다.⁵¹⁾

이 교과서는 전쟁의 승리에 관해서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항복을 선언했고 8년간의 중일전쟁에서 중국이 승리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항일전쟁의 승리는 중국인이 1840년 아편전쟁 이후 100여 년간의 반침략전쟁 가운데 처음으로 승리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항일전쟁이 세계 반파시즘전쟁의 중요한 일부분이었다는 모택동의 해석을 서술하고 있으며, 항일전쟁이 중국인의 민족적 자존심과 자신감을 높여주었고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높였다고 긍정적인 면을 서술하고 있다.

약록서사의 『역사 1』은 “항일전쟁은 100년 이래 중국이 처음으로 반침략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이고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의 승리에 중대한 공헌을 했다. 항전 승리 후 중

51)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07), 앞의 책, 2007. 1. 3판, 2008. 12. 9쇄, 76~77쪽.

국은 보도(寶島) 대만을 회수했다”⁵²⁾고 서술하고 있다. 이 교과서의 항전 승리에 대한 평가는 인민교육출판사와 거의 유사하지만 대만이 중국의 영토가 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대만에 대한 서술은 인민출판사의 『역사 1』에서도 “10월 25일 대만이 광복되었다”⁵³⁾는 내용을 본문에 서술하고 있다. 이 교과서는 8년간의 항전 기간에 중국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가 3,500만 명 이상이었고 직접손실이 1,000억 달러, 간접손실은 5,000억 달러에 달하였다는 점도 서술하고 있다. 대상출판사의 『역사 1』도 “항일전쟁은 100년 이래 중국 인민이 제국주의 침략에 반대하여 처음으로 완전하게 승리한 민족해방전쟁이었다. …… 중화민족을 쇠퇴에서 진흥으로 나아가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⁵⁴⁾고 평가하고 있다.

인민교육출판사의 『역사 1』 제1판에서는 과의 마지막에서 단원의 주요 내용을 학생들이 요약하도록 했다.⁵⁵⁾ 그러나 이 교과서의 제3판은 제16과 항일전쟁의 본과 요지에서 다음과 같이 이 과의 요점을 설명하고 있다.

- 일본은 일련의 대중국 침략사건을 조작한 후 노구교사변을 일으켰으며 중국 군대는 저항하였다. 항일전쟁이 발발하였다.
- 국공 양당은 항일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여 정면전장과 적후전장에서 용감하게 항전하였다.
-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은 방화, 살인, 강간, 약탈 등 못된 짓을 하면서 남

52) 曹大爲·趙世瑜(2008), 앞의 책, 86쪽.

53) 朱漢國(2005), 앞의 책, 39쪽.

54) 高中歷史教材編寫組·DC加拿大國際交流中心·大象出版社(2004), 앞의 책, 2004. 6. 1판 2004. 8. 2쇄, 43쪽.

55)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04), 앞의 책, 2004. 5. 1판, 2004. 7. 1쇄, 41쪽.

242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경대학살, 반가옥참안 등 무수한 참안을 일으켜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저질렀다.

- 8년간의 고된 항전을 거쳐 중국 인민은 마침내 항일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취득하였다.⁵⁶⁾

마지막으로, 이 교과서의 학습연구에서는 2003년 8월 4일 제제합이시(市)의 한 공사장에 있던 다섯 개의 철통에서 새나온 독가스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이 가스는 중일전쟁 기간에 일본군이 만든 독가스였다. 이 교과서는 인터넷, 신문, 잡지에서 혹은 피해자를 직접 취재하여,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이 버린 화학무기가 중국인을 해친 사실을 수집하고 침략전쟁이 가져다주는 해악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⁵⁷⁾

이러한 교과서 서술은 학생들로 하여금 과거의 전쟁이 현재 자신들의 삶에도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고중역사과정표준」(종합)에서는 선택과목인 『20세기의 전쟁과 평화』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다.

3. 제2차 세계대전

- (1)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국지전쟁에서 차츰 전면전쟁으로 향해갔는지를 개술(概述)한다.
- (2) 국제 반파쇼동맹의 건립과 각 대전장의 중요 전투 등의 사실을 이해하고 반파쇼국가가 어떻게 승리의 문으로 나아갔는지를 인식한다.

56)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07), 앞의 책, 2007. 1. 3판, 2008. 12. 9쇄, 77쪽.

57)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07), 앞의 책, 2007. 1. 3판, 2008. 12. 9쇄, 77쪽.

(3) 반파쇼전쟁 승리의 역사적 의의를 약술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교훈을 얻는다.⁵⁸⁾

「역사과정표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해서 전쟁이 시작된 역사적 배

〈표 4〉 중국 고등학교 실험교과서의 제2차 세계대전 서술비교

사용 지역	역사교육 과정	교과서	출판사	중일전쟁 구성	쪽 수
전국	全日制普通高級中學歷史教學大綱	世界近代現代史(必修)下	人民教育出版社	제2장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자본주의 세계 제3절 1929~1933년 자본주의 세계의 경제위기 제4절 파시스트국가의 확장과 반파시스트투쟁의 시작 제3장 제2차 세계대전 제1절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확대 제2절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의 전환과 승리	28쪽
전국	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實驗)	普通高中課程標準 實驗教科書 歷史3 20世紀的戰爭與和平(選修)	人民教育出版社	제3단원 제2차 세계대전 제1과 1929~1933년 자본주의 경제위기 제2과 국지적 반파시스트투쟁 제3과 세계대전으로 향하다 제4과 제2차 세계대전의 전면 발발 제5과 제2차 세계대전의 확대 제6과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환 제7과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제8과 세계 반파시스트전쟁 승리의 영향	40쪽
			岳麓書社	제3단원 제2차 세계대전 제9과 유럽·아시아전쟁 전원지의 형성 제10과 국지전쟁에서 전면전쟁으로 제11과 전쟁의 확대와 전환 제12과 반파시스트전쟁의 승리 제13과 종합탐구 : 국제군사법정을 모방하여 파시스트전범을 재판	26쪽

58) 中華人民共和國 教育部(2003), 앞의 책, 22쪽.

사용 지역	역사교육 과정	교과서	출판사	중일전쟁 구성	쪽 수
전국	普通高中 歷史課程 標準(實驗)	普通高中 課程標準 實驗教科 書 歷史3 20世紀的 戰爭與 和平(選修)	大象出 版社	제3장 제2차 세계대전 제1절 1929~1933년 경제위기와 새로운 전쟁 진원지의 형성 제2절 전쟁 전의 국지전쟁과 영국, 프랑스 등의 유화정책 제3절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확대 제4절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환과 종결 제5절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교훈	33 쪽
상해	上海市中 學歷史課 程標準(征 求意見稿)	高級中學 課本 高中 歷史6分冊 (試驗本)	華東師範 大學出版 社	제9단원 제2차 세계대전 제30과 유화정책과 '집단안전'의 실패 제31과 전쟁의 발발과 확대 제32과 반파시스트전쟁의 승리	15 쪽

경을 이해하고 국지전쟁이 왜 전면전쟁으로 비화되었는가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역시 국제 반파쇼동맹의 건립과 세계대전의 중요 전투 등의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승리의 원인과 의의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에 제정된 「보통고중역사과정표준」(실험)은 중학교 과정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치사, 경제사, 사상문화와 과학기술사를 필수로 가르치고 선택 과목은 주제별로 나누어 다양한 선택을 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인민교육출판사의 『역사 선택 3 20세기의 전쟁과 평화』에서는 제3단원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다루고 있다. 3단원에서는 유럽·아시아전쟁 진원지의 형성, 1930년대의 국지전쟁,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확대, 국제 반파시스트 전쟁의 전환과 승리,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 경험과 교훈 등을 학습요점으로 제시하고 있다.⁵⁹⁾

59)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08),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歷史教科書 歷史3 選修』, 北京:人民教育出版社, 2008. 3판, 45쪽.

인민교육출판사의 『역사 선택 3』은 제1과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으로 1929년 대공황에 따른 경제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어난 파시즘의 대두를 들고 있다. 또한 제2과에서는 1931년 9·18사변 등 중국의 항전을 다루고 있고 1935년 이탈리아의 북아프리카 침공, 스페인 내전 등을 설명하고 있다. 악록서사의 『역사 선택 3』은 제9과 유럽·아시아전쟁 진원지의 형성에서 파시즘의 흥기와 세계공황, 1931년 9·18사변과 히틀러의 대두 등을 설명하고 있다.⁶⁰⁾ 대상출판사의 『역사 선택 3』은 제1절 1929~1933년 경제위기와 새로운 전쟁 진원지의 형성에서 경제위기 아래 독일의 상황과 히틀러의 대두, 독일의 군비확장을 설명하고, 일본의 경제위기, 일본 파시스트세력의 대두와 정당정치의 종결, 일본의 2·26쿠데타와 중국 침략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제2절 전쟁 전의 국지전쟁과 영국·프랑스 등의 유화정책에서는 이탈리아의 북아프리카 침략과 1930년대 일본의 중국 침략, 스페인 내전, 영국과 프랑스의 유화정책과 뮌헨협정, 독일의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 합병 등을 다루고 있다.⁶¹⁾

인민교육출판사 『역사 선택 3』은 3과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서방국가의 유화정책과 1939년 4월 영국, 프랑스, 소련의 동맹조약 체결 실패와 1939년 8월 독일과 소련의 상호 불가침조약 체결을 설명하고 있다.⁶²⁾

인민교육출판사 『역사 선택 3』의 제4과와 제5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 60) 曹大爲·趙世瑜(2005),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 3 20世紀的戰爭與和平(選修)』, 長沙: 岳麓書社, 2005. 7. 1판, 2008. 2. 5쇄, 38~41쪽.
- 61) 高中歷史教材編寫組·DC加拿大國際交流中心·大象出版社(2008),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 選修 3 20世紀的戰爭與和平』, 鄭州: 大象出版社, 2005. 8. 1판, 2005. 8. 1쇄, 42~56쪽.
- 62)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08), 앞의 책, 2008. 3판, 54~57쪽.

246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발발과 대전의 확대과정을 설명하고 있다.⁶³⁾ 인민교육출판사 『역사 선택 3』의 제6과에서는 소련이 승리한 스탈린그라드전투와 미국이 승리한 미드웨이해전, 영국이 승리한 북아프리카전투 등을 다루고 있다.⁶⁴⁾ 악록서사의 『역사 선택 3』도 제11과 전쟁의 확대와 전환에서 독일의 소련 침략과 일본의 진주만 기습, 스탈린그라드전투와 미드웨이해전, 북아프리카의 엘알라메인전투 등을 서술하고 있다.⁶⁵⁾ 실제로 이들 전투는 연합국의 소련, 미국, 영국이 각각 승리한 전투로 제2차 세계대전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과거의 교과서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소련 위주로 서술을 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미국, 영국, 소련 등 연합국의 승리를 모두 설명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상출판사의 『역사 선택 3』은 제3절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확대에서 특별히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중국전쟁이라는 항목에서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의 항전에 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 총병력 210만 명 가운데 140만 명이 중국 전쟁에 있었다고 하면서 중국 전쟁이 일본군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⁶⁶⁾

악록서사의 『역사 선택 3』도 제12과 반파시스트전쟁의 승리에서 중국전쟁의 공헌을 설명하고 있다. 1931년 9·18사변 이후 중국은 항일전쟁으로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을 입으면서 일본군 155만 명을 섬멸하는 등 세계 반파시

63)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08), 앞의 책, 2008. 3판, 58~67쪽.

64)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08), 앞의 책, 2008. 3판, 68~71쪽.

65) 曹大爲·趙世瑜(2005), 앞의 책, 2005. 7. 1판, 2008. 2. 5쇄, 48~52쪽.

66) 高中歷史教材編寫組·DC加拿大國際交流中心·大象出版社(2005), 앞의 책, 2005. 8. 1판, 2005. 8. 1쇄, 62쪽.

중전쟁의 승리에 공헌했다고 서술하고 있다.⁶⁷⁾

대상출판사의 『역사 선택 3』의 제4절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환과 종결에서는 스탈린그라드전투와 쿠르스크전투, 노르망디상륙작전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과서는 엘알라메인전투와 미드웨이해전에 관해서 “1942년 영국군이 엘알라메인 일대에서 반격을 하여 독일과 이탈리아군이 패배하여 전세가 전환되었다. 이 해 6월 미드웨이해전과 특별히 다음 해 3월의 스탈린그라드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세가 연합군으로 기우는 전환점이 되었다”⁶⁸⁾고 소련의 스탈린그라드전투 승리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인민교육출판사 『역사 선택 3』의 제7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부분에서 연합군의 반격과 독일과 일본의 항복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원자탄이 투하되었던 당시의 히로시마와 2003년 비둘기가 날고 있는 히로시마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⁶⁹⁾

인민교육출판사 『역사 선택 3』의 제8과에서는 세계 반파시즘전쟁 승리의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과에서는 전쟁에 동원된 인력과 사상자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국의 사상자를 3,500만 명으로 제시해서 소련의 3,000만 명을 능가하고 있다. 특히 1937년 12월 남경대학살의 피해자가 30만 명 이상이였다는 것과, 731부대의 만행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1945년 11월 뉘른베르크 전범재판과 1946년 5월 극동국제군사법정의 판결을 설명하고 있다.

67) 曹大爲·趙世瑜(2005), 앞의 책, 2005. 7. 1판, 2008. 2. 5쇄, 56쪽.

68) 高中歷史教材編寫組·DC加拿大國際交流中心·大象出版社(2005), 앞의 책, 2005. 8. 1판, 2005. 8. 1쇄, 67쪽.

69)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08), 앞의 책, 2008. 3판, 75쪽.

인민교육출판사 『역사 선택 3』은 제2차 세계대전이 정의로운 국제 반파시즘전쟁이었으며 전쟁의 영향으로 미국이 자본주의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대두하게 되었으며, 사회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이 발전하여 대부분의 식민지가 독립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원자탄과 로켓 기술 등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하였다.⁷⁰⁾ 악록서사의 『역사 선택 3』은 전후 인류의 이성이 신장되었고, 민주와 인권과 평화사상이 인류의 마음속에 심어졌으며,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유엔이 탄생했고, 유럽이 세계의 중심에서 쇠퇴하여 세계의 중심이 점차 태평양으로 이동하였다고 평가하였다.⁷¹⁾

IV. 맺음말

중국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역사교과학대강」에서 「역사과정표준」으로 전환되고 있다. 21세기부터 시작한 중국의 교과서 개편은 중국사와 세계사를 함께 가르치고 정치사와 경제사, 문화사상사를 분리하며, 주제사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 개혁을 진행하면서도 내용 면에서 극복되지 못한 문제들도 존재한다.

중국 역사교과서는 중국 역사의 시대구분과 세계사의 시대구분에 차이가 있다. 중국 현대사는 1949년 이후 현재까지의 역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세계 현대사는 1917년 러시아혁명을 기점으로 현재까지를 서술하고 있다.

70)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08), 앞의 책, 2008, 3판, 78~79쪽.

71) 曹大爲·趙世瑜(2005), 2005. 7. 1판, 2008. 2. 5쇄, 57~58쪽.

이 때문에 중국사와 세계사에서 현대사의 시대구분에 차이가 발생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가르치는 항일전쟁(중일전쟁)은 중국 근대사에 속하게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은 세계 현대사에 속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구분의 차이는 중국사와 세계사 서술체계에 차이가 있고 현실적인 시대구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 근대사 속의 중일전쟁과 세계 현대사 속의 제2차 세계대전은 서술 내용과 시각에서도 차이가 있다. 중국 근대사 속의 항일전쟁 서술은 중국인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어떻게 공산당이 지도하여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반면 세계 현대사 속의 제2차 세계대전은 자본주의의 모순 속에서 이탈리아, 일본, 독일 등 파쇼 국가들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켰고 반파쇼 진영이 어떻게 승리하였는가를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중국 근대사에서 서술하는 중일전쟁의 주인공은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인 것이고 세계 현대사의 주인공은 과거의 교과서에서는 소련이었고, 개혁개방 이후의 교과서에서는 반파쇼연합전선인 것이다.

중국의 역사교과서는 「역사과정표준」을 채택하면서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다.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인민교육출판사와 악록서사, 인민출판사, 대상출판사 등에서 나온 교재가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교과서의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서술은 중일전쟁의 내용이 「역사교학대강」 교과서에서 「역사과정표준」 교과서로 전환되면서 분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 항일전쟁 내용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반복해서 가르치게 되므로 중복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역사과정표준」에 따라 편찬되었기 때문에 유사성을 보이고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악록서사의 교과서는 「역사과정표준」의 체제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변화를 시도했다. 중국사

와 외국사를 병렬시키고 근대 이후에는 중국사와 세계사를 함께 설명하는 방식을 채택했다.⁷²⁾ 악록서사의 중일전쟁 서술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연구성과를 반영하고 있지만 분량은 가장 적은 편이다. 내용 서술에서도 네 개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유사하지만 각각의 특색을 드러내고 있다. 인민교육출판사의 교과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의 잔혹성을 비판하는 데서 나아가 일본군이 왜 인간성을 상실한 채 잔인하게 중국인을 살해했는가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하고 있다. 대상출판사의 제2차 세계대전 서술은 여전히 소련에 치우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민교육출판사의 교과서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미국과 영국, 소련의 승리를 함께 서술하여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역사학계에서는 종래의 혁명사관이 약화되고 문명사관과 포스트모더니즘, 아날학과 등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인식의 변화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역사교과서가 다양하게 출판되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혁명사관의 약화는 중국공산당 집권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달가운 일이 아니다.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영역에서도 개방이 필요하지만 개방의 결과 중국공산당의 정통성과 집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기존의 관변 역사관에 입각한 혁명사·근현대사 교육에 노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개방을 다시 되돌리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72) 김유리(2008), 앞의 글, 184쪽.

• 참고문헌

- 高中歷史教材編寫組·DC加拿大國際交流中心·大象出版社(2004),『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 必修 1』,鄭州:大象出版社.
- 高中歷史教材編寫組·DC加拿大國際交流中心·大象出版社(2005),『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 選修 3 20世紀的戰爭與和平』,鄭州:大象出版社.
-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1994),『中國抗日戰爭史』中卷,北京:解放軍出版社.
- 東史郎(1999),『東史郎日記』,江蘇教育出版社.
- 上海中小學課程改革委員會(2009),『高級中學課本 高中歷史 第六分冊(試驗本)』,上海:華東師範大學出版社.
- 約翰一拉貝(1997),『拉貝日記』,江蘇人民出版社.
- 人民教育出版社歷史室(2003),『全日制普通高級中學教科書(必修) 中國近代現代史 下冊』,人民教育出版社.
- 人民教育出版社歷史室(2008),『全日制普通高級中學教科書(必修) 中國近代現代史 下冊』,人民教育出版社.
-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04),『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 1 必修』,北京:人民教育出版社.
-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08),『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 1 必修』,北京:人民教育出版社.
-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08),『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 3 選修』,北京:人民教育出版社.
- 臧嶸(1999),『歷史教材縱橫談』,北京:人民教育出版社.
- 曹大為·趙世瑜(2008),『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 必修 1 政治文明歷程』,長沙:岳麓書社.
- 曹大為·趙世瑜(2008),『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 3 20世紀的戰爭與和平(選修)』,長沙:岳麓書社.
- 朱漢國(2005),『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必修 1』,北京:人民出版社.
- 中華人民共和國 教育部(2002),『全日制普通高級中學歷史教學大綱』,北京:人民教

育出版社.

中華人民共和國 教育部(2003), 『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實驗)』,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中華人民共和國 教育部(2005), 『全日制普通高級中學歷史教學大綱』,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중국 역사 교과서 다시 '좌향좌' - 세계화 다뤘던 상해교과서 1년만에 사용 중단」, 『문화일보』(2007.9.18)

김유리(2001), 「중국 교육과정의 변천과 역사교육」, 『근대중국연구』 2집.

김유리(2005),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역사교육과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북방사논총』 6호.

김유리(2008), 「중국 고등학교 역사과정표준에 따른 4종 판본 『역사』 실험교과서의 구성 체계 분석」, 『역사교육논집』 40집.

김유리(2008), 「중국 고등학교 역사과정표준에 따른 『역사』 실험교과서의 서술 내용 분석」, 『역사교육』 105집.

김지훈(2006), 「현대중국 역사교과서의 역사: 1949~2006년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75.

김지훈(2007), 「중국의 신교육과정과 역사과정표준실험교과서」, 『동북아역사논총』 17집.

김지훈(2009), 「최근 상해지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변화」, 『동아시아의 자국사와 세계사교육 학술회의 발표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김지훈·정영순(2004), 「최근 중국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한국사」, 『중국근현대사연구』 23집.

김지훈·정영순(2005), 「중국 실험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인식」, 『사학연구』 78호.

박영철(2002), 「중국역사교과서의 한국사서술」, 『역사교육』 84집.

박장배(2003), 「근현대 중국의 역사교육과 中華民族 정체성 2-중화인민공화국 시기의 민족통합문제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20집.

박정현(2003), 「청일전쟁에 대한 중국의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방향」, 『중국근현대

- 사연구』 20집.
- 오병수(2001), 「중국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서술양식과 역사인식」, 『역사교육』 80집.
- 오병수(2002), 「중국 중등학교 역사교육과정의 추이와 최근 동향」, 『역사교육』 84집.
- 오병수(2004), 「중국의 위험한 민족수난사 교육 : 근현대교과서의 전쟁사관을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34집.
- 유용태(2002), 「중국 역사교과서의 현대사 인식과 국가주의」, 『역사교육』 84집.
- 유용태(2004), 「환호 속의 경중 : 전장 중국에서 본 리일전쟁」, 『역사교육』 90집.
- 윤휘탁(2002), 「중국의 애국주의와 역사교육」, 『중국사연구』 18집.
- 윤휘탁(2005), 「'동아시아 근현대사상 만들기'의 가능성 탐색」, 『중국근현대사연구』 25집.
- 李偉科(2009), 「중국 중고등학교 교과과정 개혁 중 교과서의 변화」, 『동아시아의 자국사와 세계사교육 학술회의 발표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 이은자(2003), 「아편전쟁과 중국의 '문화개방'에 대한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중국 근현대사연구』 19집.
- 장세운(2004), 「近刊 한·중 역사교과서의 양국 관련내용 검토」, 『백산학보』 68집.
- 전인영(2002), 「중국근대사 교육의 관점과 한국사 인식」, 『역사교육』 84집.

• 찾아보기

<ㄱ>

각장 159

감속 57

강용건 성세 187, 191, 207

강유위 205, 207

강희제 185, 186, 188, 190, 207

강희제의 업적 186, 207

개토귀류 148

거란 141

건당사 117

경력화의(慶曆和議) 142

계급 모순 152

계급과 민족 91

계급사관 87, 93

계급투쟁 48, 50, 51, 54

계급투쟁사관 151, 172

고구려 119, 120

고대사 46~51, 54, 57, 58, 61, 62, 65, 66,
68, 69, 71, 72, 74, 75

고등학교 역사교과대강 133

고촉(古蜀) 64, 65, 66

고촉문명(古蜀文明) 63

공자 74, 75, 76, 79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 79

교자 157

9·18사변 234, 246, 247

국경 131

국공합작 222

국민당 236

국민적 민족주의 102

국민정부 235

국제 반파시스트전쟁 245

군기처 206

극동국제군사법정 248

근대과학 172

근대적 국민국가 102

금 169

금강경 165

금속활자 164

기초교육과정개혁강요 17, 19

기초교육사 18

<ㄴ>

나침반 162

남경대학살 222, 225, 236, 237, 238

남만 146

남북조시대 170
 남송 169
 남조 112, 119
 내친(內遷) 93
 노구교사변 232
 노르망디상륙작전 248
 노자 51, 52
 농민혁명 172
 농업혁명기 154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248
 뉴딜정책 224

 <ㄷ>
 다민족국가 67, 143
 다민족국가론 146
 다민족봉건국가 144
 다민족통일국가 45, 57, 78
 다중심발전론 56~58
 단대사 169
 단약 167
 당태종 113
 대계문화 59
 대만 242
 대문구 59
 대문구(大汶口)문화 58
 대문구문화 58
 대상출판사 25, 31, 215, 229, 233, 242, 246, 250
 대송사 169
 대야장 235
 도작(稻作) 59
 독가스 238, 243
 돌궐 112, 119
 동방검문록 158
 동북공정 67
 동아문화권 116, 118
 동아시아 173
 동아시아 문화권 118
 동아시아 중화문화권 116, 117
 동아 145

 <ㄹ>
 라베일기 238
 랍반 사우나 159
 러시아 148

 <ㄴ>
 마가요문화 59
 마르코 폴로 159
 마르크스 유물사관 154
 마르크스·레닌주의 41
 마르크스·레닌주의 입장 53
 마르크스주의 27, 55
 만주국 234

- 말갈 112
- 모택동 16, 225, 229
- 몬테고르비노 160
- 무구정광대다라니경 165
- 무술변법 185~187, 202, 203, 205, 207
- 무한전투 234
- 무한항진 236
- 문명 대국 150
- 문명사관 33, 251
- 문성공주 113
- 문천상 147
- 뮌헨협정 246
- 미드웨이해전 247, 248
- 민족 131
- 민족대융합 100
- 민족대융합의 출현 103
- 민족문제 90
- 민족융합 56, 57, 60, 87, 90, 91, 97, 105, 107, 140, 170
- 민족의 영웅 146
- 민족통일 102
- 민족평등 102
- 민족항쟁 152
- <ㄴ>
- 반가옥 237
- 반동 대 진보 142
- 반파 59
- 반파(半坡) 58
- 반파쇼동맹 225
- 반파쇼연합전선 250
- 반파쇼전쟁 240
- 발해 114
- 발해도독부 115
- 방제 157
- 백단대전 226, 240
- 백월 61, 62, 144
- 100인 목 베기 238
- 백제 120
- 번호
- 변법 유신파 204
- 변법운동 204
- 보통고중과정방안 17, 21
- 보통고중역사과정표준 24
- 부여 61, 65
- 북로남왜 148
- 북아프리카전투 247
- 북적 146
- 비중원문명 67
- 빌 게이츠 229
- <ㄷ>
- 4대 발명품 161
- 사이 60, 63

사이(四夷)지역 56
 사천 57
 사회주의 시장경제 172
 삼광작전 240
 삼국시대 169
 삼국지 108
 3대 발명 159
 삼성퇴 64, 65, 66
 삼성퇴(三星堆)유적지 63
 삼성퇴문화 64, 65, 66, 67
 상세 159
 상양(商鞅) 74
 상양변법(商鞅變法) 47, 74
 상양의 변법 29
 상정고금예문 164
 상해교육출판사 34, 229
 서남이(西南夷) 61, 62, 65
 서용 146
 서주전투 234
 서주항전 236
 서하 169
 서하사 170
 석활자 164
 선비 61, 65
 선수(選修) 42
 선수1 74
 선수4 74, 75
 선수5 57, 58, 62, 65, 66
 세계근대현대사 31, 42
 세균전 238
 소군 61
 소박한 변증법 51
 소수민족 94, 112
 소질(소양) 54
 소학참행규정 15
 속(粟) 76
 속결전 236
 속말말갈 114
 속작(粟作) 59
 솔론의 개혁 29
 송 141
 송찬간포 113
 송호전투 234
 송호항전 228, 236
 송호회전 235
 수도(水稻) 76
 수양제 120
 순자 52
 스탈린그라드전투 247, 248
 스페인 내전 246
 시제 157
 식민주의 171
 신(新)중화주의 67
 신·구약전서 160

신라 120
 신사군 226, 234, 235
 신해혁명 25, 184, 187, 207
 실용적인 교육목표 54
 실용주의 노선 46, 78
 실험교과서 135
 실험구 19

 〈○〉
 아날학파 251
 아편전쟁 218
 악록서사 25, 31, 215, 228, 232, 236, 249, 250
 악비 146
 악비 논쟁 146
 애국주의 151
 양계초 205, 207
 양무운동 187, 202, 204, 205, 207
 양무파 204
 양숙제 155
 엘알라메인전투 247, 248
 역사 44, 51
 역사과정표준 19, 26, 27, 41, 42, 44, 46, 51, 54, 213, 221, 244, 250
 역사교육 153
 역사교학대강 41, 42, 44, 46, 53, 54, 134, 213, 218, 221
 역사변증법 53
 역사유물주의 51, 52, 53, 54, 78
 역사유물주의적 관점 45
 역사(歷史) 필수 42
 연단가 167
 영웅 169
 영토 131
 5·4운동 126
 오월 57
 오족공화 99, 101, 103
 5호 101
 5호(胡) 문제 87
 오호십육국 123
 오환 61, 65
 왕안석 152
 왕조사관 151
 왕천순 169
 왕충 51, 52
 왜구 147
 요 141
 요동 57
 요동(遼東) 58
 요서(遼西) 58
 요하문명 60
 은 라베 238
 용산문화 63
 원자탄 248

월족 61, 65
 유격전쟁 234
 유교 76
 유럽 168
 유물변증법 53
 유물사상 51, 52
 유물주의 53
 유물주의 사상 52
 유신변법사상 184
 유화정책 224, 246
 의무교육과정설치실험방 17
 의무교육전일제 소학, 초급중학 교학계획 17
 이리강 63
 이리강(二里崗)문화 63
 이리강문화 66
 이리두문화 62, 63, 66
 이슬람 168
 2·26쿠데타 246
 이탈리아의 북아프리카 침공 246
 인민 계급 152
 인민교육출판사 25, 31, 32, 213, 215, 228,
 230, 234, 241, 242, 249, 250
 인민출판 25
 인민출판사 31, 135, 215, 229, 236, 242,
 250
 인쇄술 162
 1년 양속제 155
 일본 116, 117, 173
 1·28사변 234
 입시교육 18
 <자>
 자강운동 201
 자본주의 맹아 150, 191, 192, 193
 장족 113
 전국시대 168
 전면항전노선 235
 전연(漣淵)의 맹(盟) 141
 전일제 10년제 중소학 교학계획 시행초안 16
 전일제 중소학 교학계획 16
 점성도 155
 정경세작 154
 정면전장 235
 정신교육 153
 정의 대 비정의 142
 정전(井田) 47
 정전제(井田制) 47
 정화의 원정 132, 148
 제갈량 107
 제2차 세계대전 223, 245
 제이피(JP) 모건 229
 종족적 민족주의 100
 종합실천활동 23
 중국 문명의 다원성(다중심발전론) 56

중국 문화화 67

중국 자본주의 탄생 202

중국고대사 42~44, 55

중국근대현대사 31, 42

중국역사(中國歷史) 52

중국적 정통 67, 78

중국적 정통의 강조 76

중소학교학대강 15

중앙집권제도 145

중외합본(中外合本) 방식 41

중외합편(中外合編) 73

중원 중심주의 66, 78

중원문명 57

중원인(中原人) 145

중원중심 56, 59

중일전쟁 222, 223, 241, 250

중체서용 207

중학잠행교학계획 15

중화 131

중화민국 101, 123

중화민국의 건국 98

중화민족 21, 24, 27

중화민족주의 77, 78

중화인민공화국 15, 112, 122, 218

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 17

지구전 236

지구전을 논함 225

지역봉사[社區服務] 23

진시황 72, 74, 144

<ㄷ>

척계광 147

천주교의 등전 160

청대 전제군주제의 강화 184

청동인상(靑銅人像) 64

청향운동 226

초만(楚灣) 60

촉왕본기(蜀王本紀) 64

최치원 117

주계좌임(椎髻左衽) 64

충신 169

치안강화운동 226

7·31부대 238

칠종칠금 107, 109

7·7사변 225

<ㅋ>

쾌거 171

쿠르스크전투 248

<ㅌ>

타이완 232

태원전투 234

태평천국 184

태평천국운동 199

토번 112, 119

통사체 139, 164

통일다민족(統一多民族) 140

통일적 다민족국가 77, 90, 91, 93, 97, 111, 115, 116, 121, 122, 123, 191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공고화 187, 207

티베트 113

<ㅍ>

파시즘 224

팔로군 226, 234, 235, 237

8·13항전 235

8차 교과과정 20

패권주의 67, 79

팽덕회 240

평형관 235

평화공존 5원칙 221

폐관정책 191, 193

포르투갈 148

포스트모더니즘 34, 251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 16

필수 46, 61

필수1 48, 50, 69, 73

필수2 50

필수3 51, 74, 75

<ㅎ>

하(夏) 62

하남용산문화(河南龍山文化) 63, 66

하모도 59, 64

하모도(河姆渡)문화 57

하모도문화 58, 63

하사(夏史) 62

하상주(夏商周) 단대공정 63

하상주단대공정 27, 28

학습요점 141

한간(漢奸) 222

한국 116

한족 169

한족 우월주의 107

한족 중심주의 111

항일근거지 235

항일전쟁 25, 250

해패(海貝) 64

혁명사관 33, 53, 251

현재주의 148

호족(胡族)의 한화(漢化) 104

호한융합(胡漢融合) 102

홍산문명 60, 67

홍산문화(紅山文化) 58

홍이 151

화기 162

화동사범대학교 34

화동사범대학출판사 230

화북사변 233

화약 162

화양국지(華陽國志) 64

화하문명 59

화하족 57, 63, 67

화학무기 243

환남사변 226

활동 149

활자인쇄술 163

황제지배체제 67, 68, 69, 71, 72, 73, 74, 76

황하문명 56

회맹비 114

회홀 112, 119

효문제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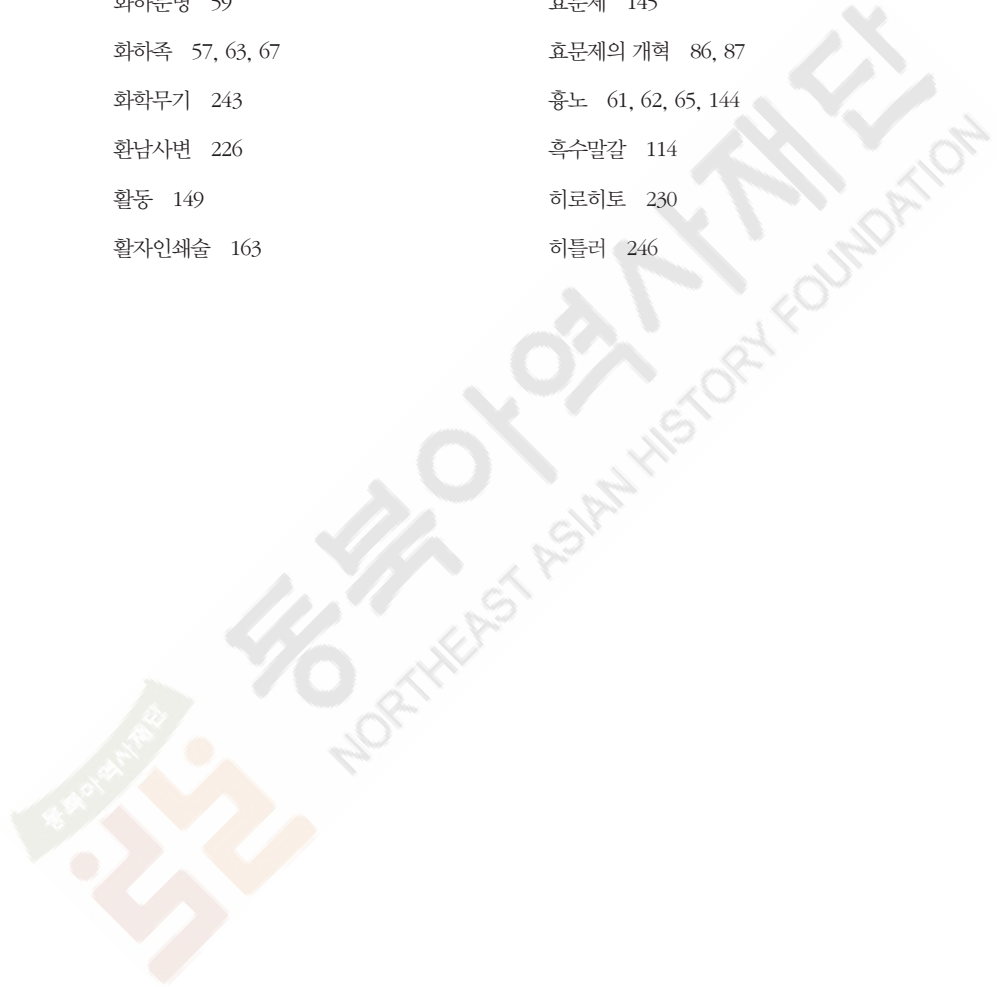
효문제의 개혁 86, 87

홍노 61, 62, 65, 144

흑수말갈 114

히로히토 230

히틀러 246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44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초판 1쇄 인쇄 2010년 12월 15일

초판 1쇄 발행 2010년 12월 22일

지은이 김지훈·배진영·박영철·김성규·이은자

펴낸이 정재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화 02-2012-6142

팩스 02-2012-6187

e-mail book@historyfoundation.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0

ISBN 978-89-6187-205-8 93910

-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